발간등록번호
71-4030000-000041-01

2012年度

京畿道文化財資料

實測調査報告書

• 淸溪寺 地藏殿 · 三聖閣

365열린도서관
B00000043956

京畿道
義王市

여 백

여 백

발 간 등 록 번 호
71-4030000-000041-01

2012年度

京畿道文化財資料

實測調查報告書

• 淸溪寺 地藏殿·三聖閣

365열린도서관
행정자료
B43956
2012. 12. 1
년 월 일

京 畿 道
義 王 市

여 백

문 화 유 산 헌 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겪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앎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목 차

■ 원색화보 ····· 7

제 1 장 실측조사개요

1. 조사경위 ····· 25
1-1. 과업명 및 과업위치 ····· 25
1-2. 과업내용 및 기간 ····· 25
1-3. 조사목적 ····· 25
1-4. 과업세부내용 ····· 25
1-5. 정밀현황 실측조사 ····· 26

2. 과업추진일정 ····· 29

3. 대상문화재 도면목록 ····· 30

4. 보고서 발간 및 관계자 ····· 31

제 2 장 연혁 및 관련 자료

1. 연혁 ····· 37
1-1. 의왕의 역사 ····· 37
1-2. 청계사 연혁 ····· 40

2. 관련 자료 ····· 44
2-1. 청계사 건축물 ····· 44
2-2. 청계사 유물 ····· 48
2-3. 청계사 관련 문헌 ····· 62

제 3 장 건축 현황

1. 위치 및 입지현황 ····· 81
1-1. 의왕시의 위치와 환경 ····· 81
1-2. 청계사의 위치와 입지현황 ····· 82

2. 배치 및 건축 현황 ····· 83
2-1. 배치 현황 ····· 83
2-2. 건축 현황 ····· 84

제 4 장 지장전 각부 실측

1. 개요 ····· 91
2. 평면 ····· 92
3. 기단 및 초석 ····· 94
4. 목조 가구 ····· 99
5. 처마 ····· 119
6. 지붕 ····· 133
7. 기타 ····· 140

제 5 장 삼성각 각부 실측

1. 개요 ····· 147
2. 평면 ····· 148
3. 기단 및 초석 ····· 150
4. 목조 가구 ····· 153
5. 처마 ····· 166
6. 지붕 ····· 174
7. 기타 ····· 180

제 6 장 종합 고찰

1. 개요 ····· 187
2. 건축적 특징 ····· 189

-부록-

■ 단색화보 ····· 193
■ 도 면 ····· 211
■ 참고문헌 ····· 296

여 백

원색화보

여 백

청계사 지장전 정면

청계사 지장전 우측면

청계사 지장전 좌측면

청계사 지장전 배면

청계사 지장전 정면 1번 초석

청계사 지장전 정면 2번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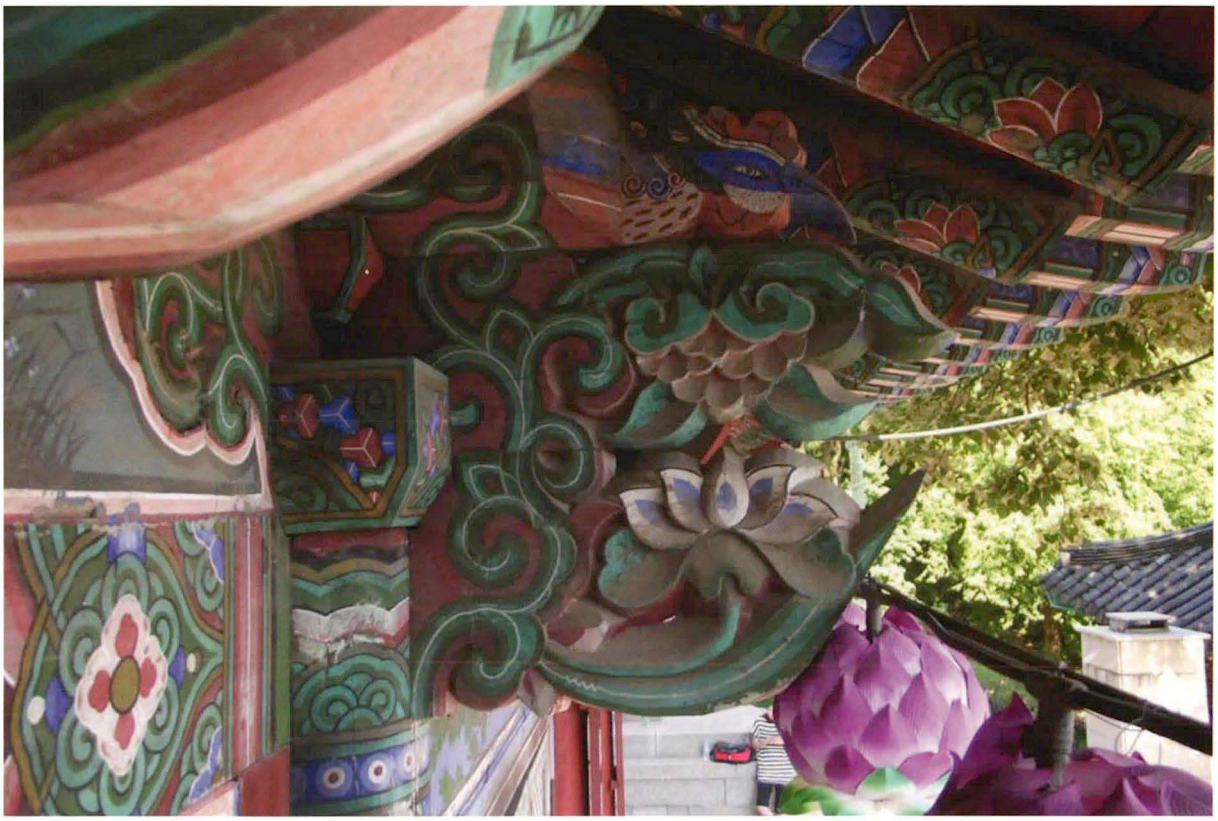
지장전 1번, 2번 기둥 및 주련

지장전 3번, 4번 기둥 및 주련

지장전 어칸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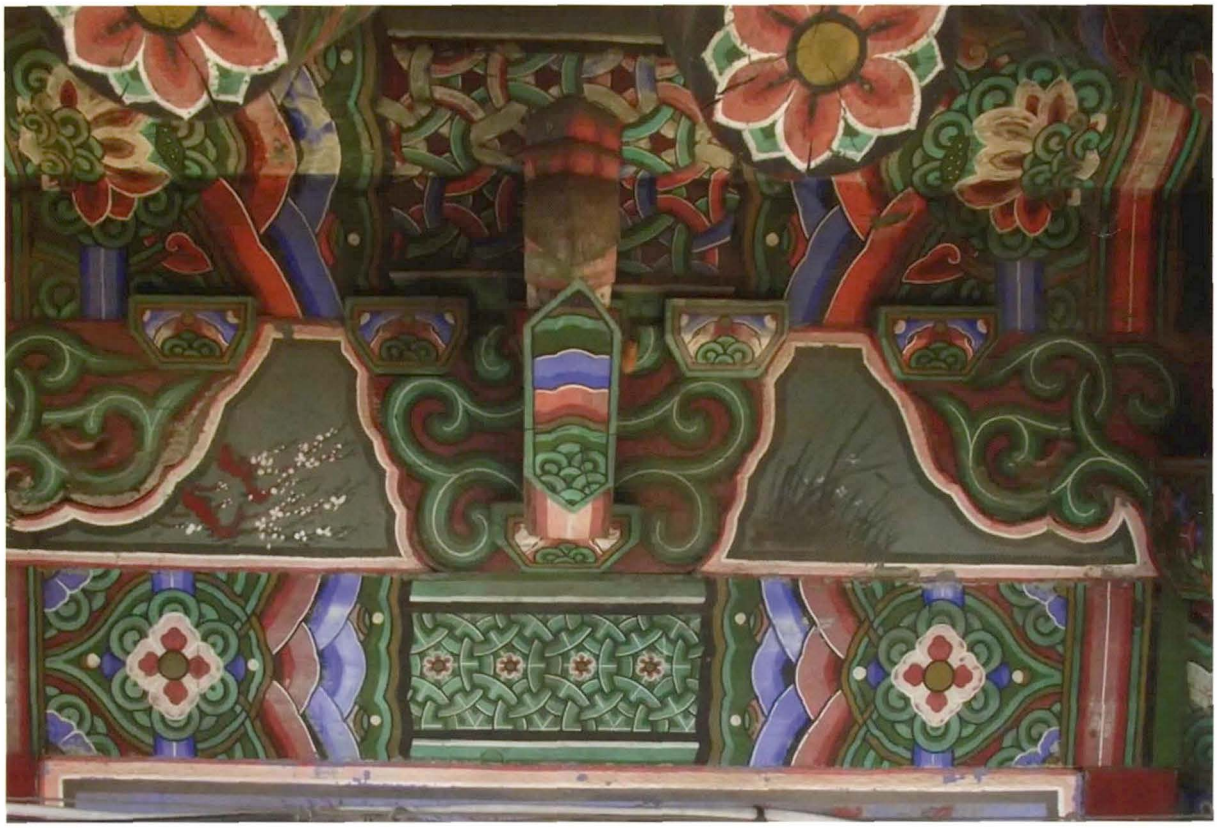
지장전 정면 협칸 창호

지장전 정면 좌측면 창호



지장전 주심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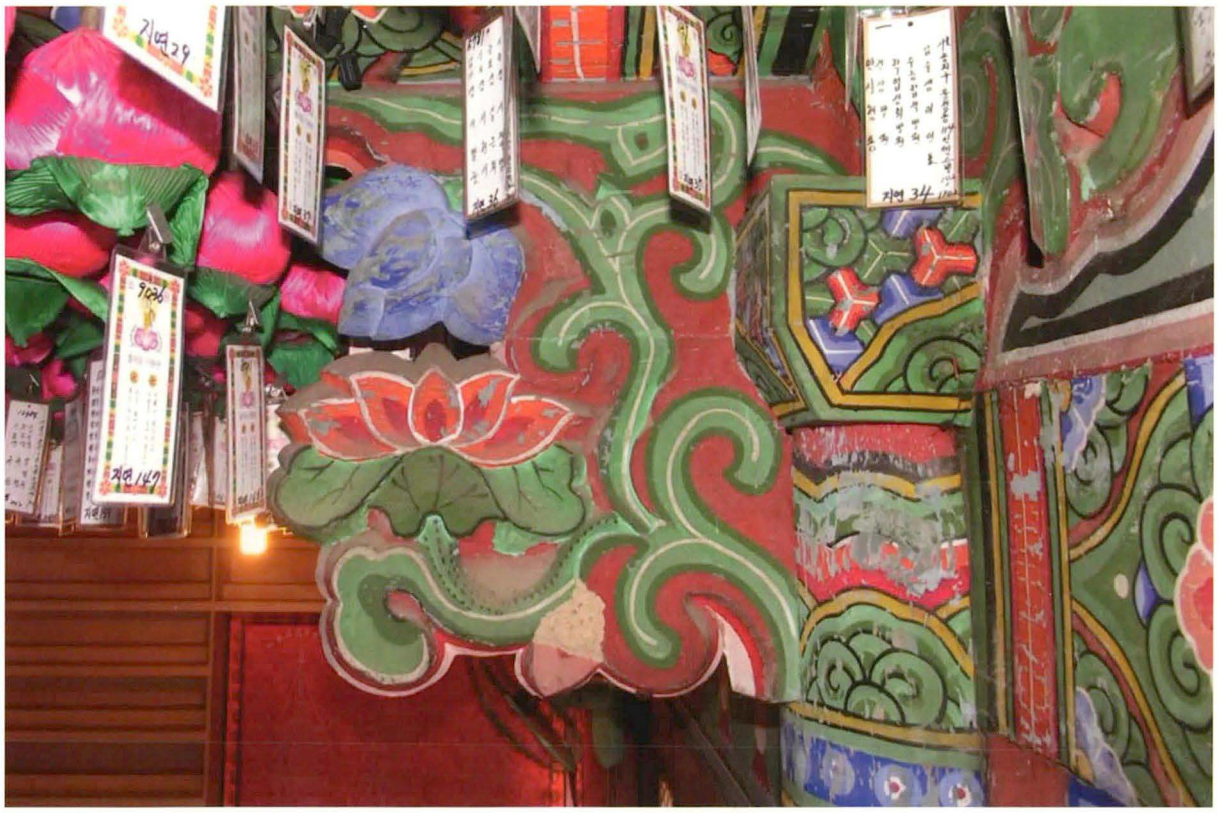
지장전 주간익공



지장전 화반

지장전 첨차

지장전 뺄목



지장전 내부 익공

지장전 보아지

지장전 현판

삼성각 정면

삼성각 우측면

삼성각 좌측면

삼성각 배면

삼성각 초석 및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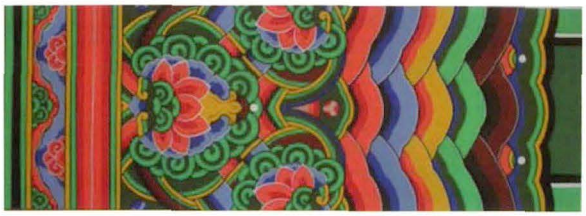
삼성각 창호

삼성각 익공

삼성각 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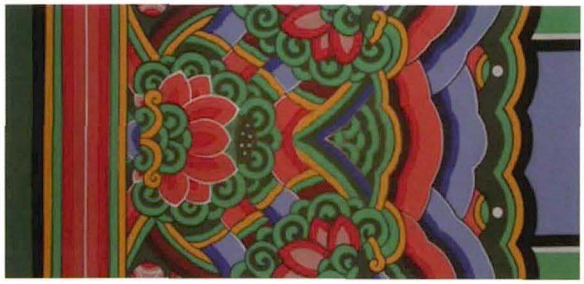
삼성각 화반

삼성각 화반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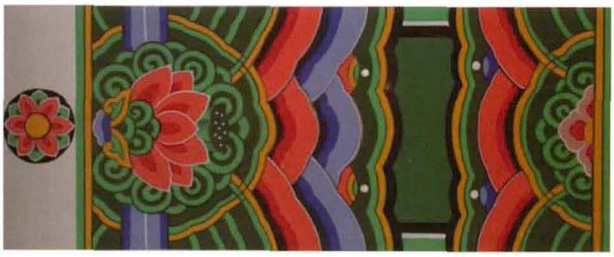


지장전 대량

지장전 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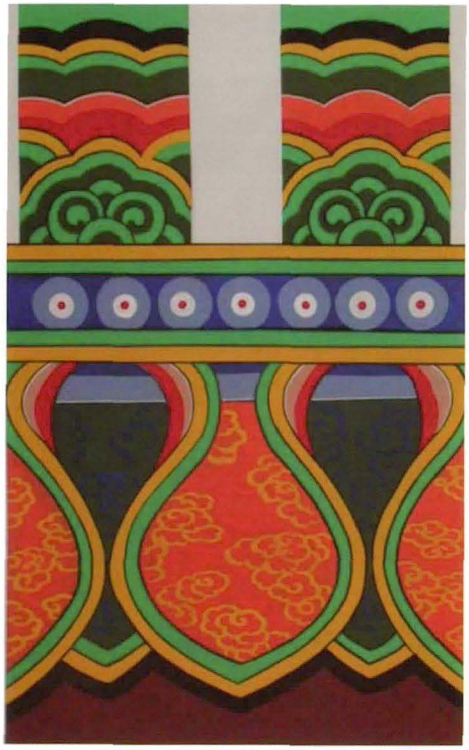
지장전 도리장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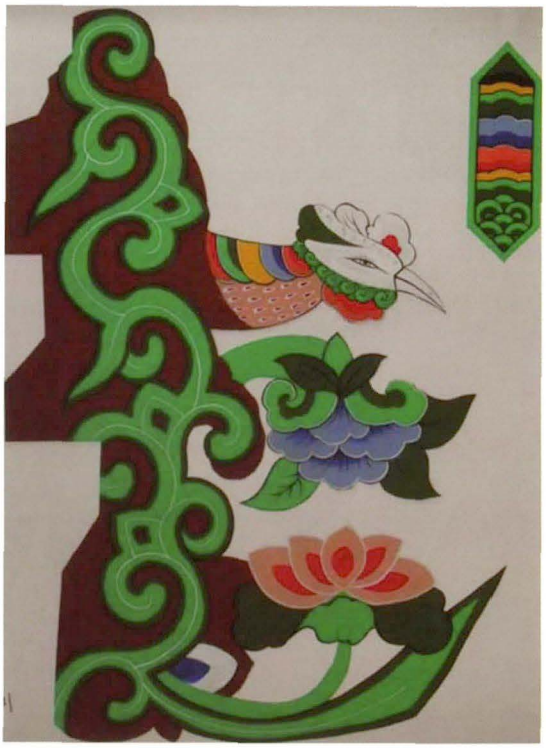
지장전 연목

지장전 주두

지장전 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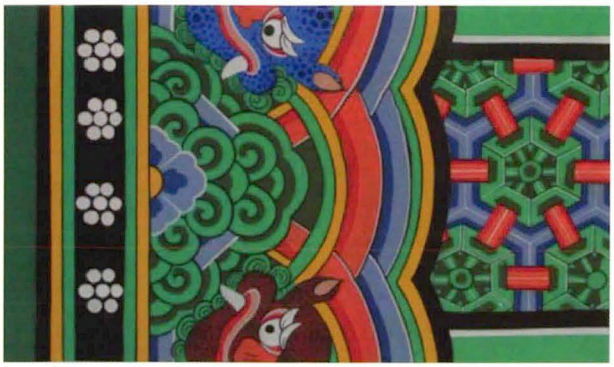
지장전 탁의주의



지장전 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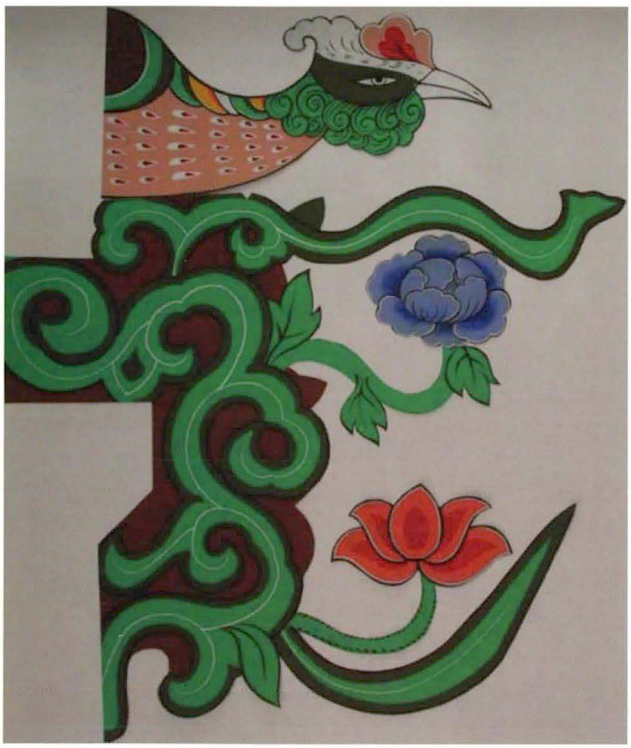
삼성각 대량

삼성각 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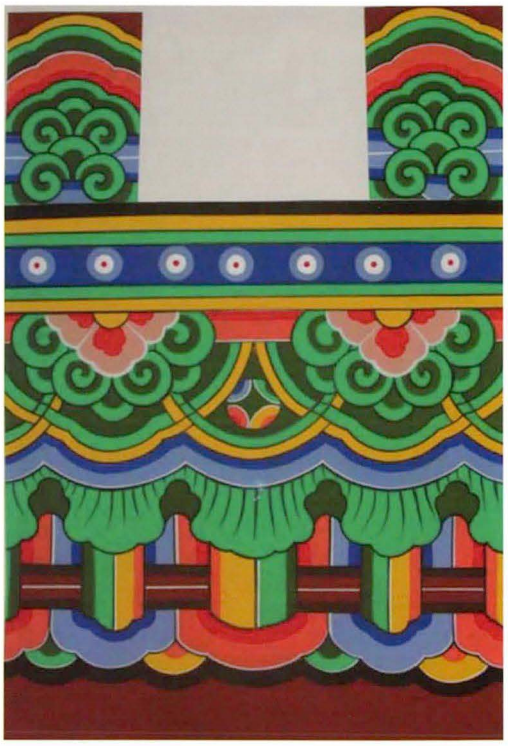


삼성각 도리장여

삼성각 도리장여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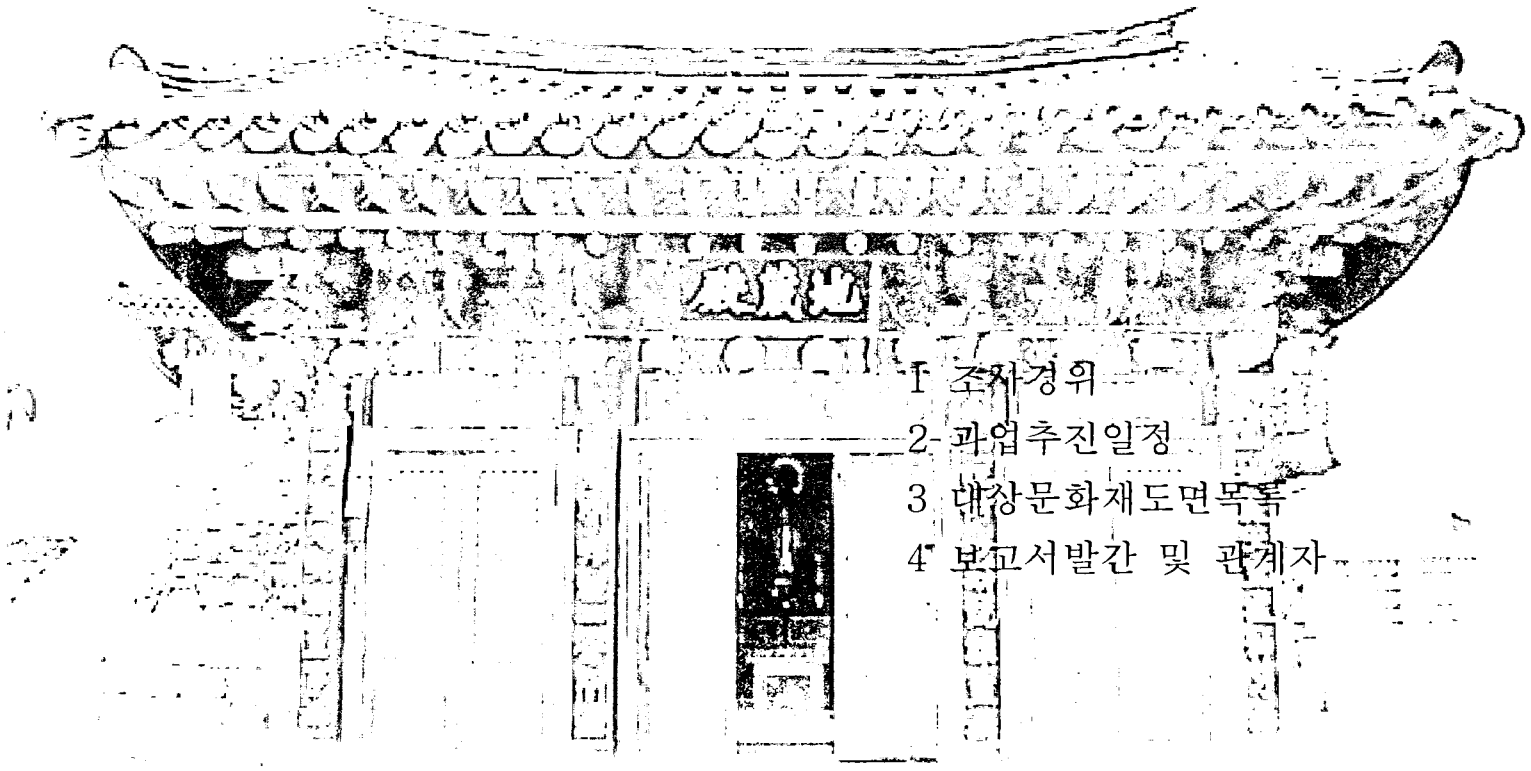
삼성각 살미



삼성각 주의

제 1 장

실측조사개요



1. 조사경위
2. 과업추진일정
3. 대상문화재도면목록
4. 보고서발간 및 관계자

여 백

제 1 장 실측조사개요

1. 조사경위

1-1. 과업명 및 과업위치

○ 과 업 명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 정밀실측조사 용역
○ 과업위치 : 경기 의왕시 청계로 475(청계동 산11)

1-2. 과업내용 및 기간

○ 과업내용 : 조사, 측량, 설계, 사진촬영 및 보고서 작성·발간 등
○ 과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180일간

1-3. 조사목적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의 고문헌 및 기존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고, 실측조사를 통해 사용부재, 축조기법, 원형 등을 조사
○ 실측도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산화함으로서 보존·보수·관리 자료와 유사시 복원자료 및 학술자료로 활용

1-4. 과업세부내용

○ 조사지침-문헌조사
- 연혁 등 기존의 발간된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 관련문헌과 역사기록은 원문을 옮겨 적고 출처를 명기토록 한다
- 건축물에 남아있는 상량문이나 창건, 수리시의 기록(낙서포함) 등 모든 문서명을 빠짐없이 옮겨 적고 한글로 번역하여 수록.
- 기와명문, 현판, 주련, 조각, 조각물, 벽화, 단청문양 등 글씨·문양을 탁본, 모사,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
- 소장하고 있는 문헌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간략히 해설하고, 창건, 중수 등 문화재의 연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문(全文)과 번역문을 보고서에 수록.
- 현재 소재지가 변동되어 옮겨진 자료에 대해서도 소장자료에 준해서 조사.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 보수내용(과거-상량문, 중수기 등, 현재 모두 표시) 작성

○ 조사지침-인문, 자연, 환경조사

- 문화재 주변의 문화적 현황과 함께 산천, 교통로, 마을,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 입지에 관련한 인문과 역사지리학적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서에 수록 한다
- 조사대상에 근접한 보호수는 수종, 수령, 규격 등을 조사하고, 당해 문화재와 연관관계를 조사하고 수록한다.
- 문화재별 지정사항, 보호구역(도면 표기) 등 문화재 관리현황을 조사 수록한다.

○ 실측조사 세부범위 및 방법

- 현황 조사 등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등 기타 변경사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배치 및 건축물 측량 시 첨단기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측량시의 오차를 최소화한다.
- 전체배치조사는 용역단위 문화재 및 보호구역내(또는 일곽 내)에 관련되어 있는 목조물 및 석조물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배치도는 평판 측량하고 대지경사는 고저 측량 실시

1-5. 정밀현황 실측조사

○ 정밀실측 대상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

- 규준틀을 설치하여 기둥 기울기, 건물 내·부의 전부재 등을 실측하고 형상 및 규격이 다른 부재는 도면화하여 세부치수 기입(규준틀 설치 후 감독관 확인)
- 기준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실측조사 단위는 meter법을 사용하여 mm단위로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m와 cm를 병기하며 중요치수는 ( ) 안에 영조척 표기
- 주칸은 기둥의 상·중·하부 중심에서 각각 측정하고 수장폭 등의 실측장과 비교하여 작성
- 처마의 안허리곡과 앙곡, 기둥의 안쏠림과 귀솟음, 창방과 귀틀의 변위 등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 주요부재 특히 공포와 기둥, 보, 창방 등의 형태와 결구, 치목기법 등은 상세히 조사(구부재 중심으로)
- 포부재의 초각 부재 중 원부재로 추정되는 부재, 대성전 전면 장여 화반받침, 기와, 현판 등은 탁본하여 자료를 남긴다.

- 각종 부재에 대한 상세도(흘림, 맞춤, 이음, 포부재, 장식철물 등)를 포함한다.
- 기단은 다듬은 돌과 막돌을 구분하여 조사
- 기와류는 실측과 함께 각 종류별로 도면화한다(기와규격, 막새·망와, 등무늬 등 문양별로 조사).
- 지붕마감(각 마루접합부, 마구리, 용마루, 망와, 막새 등)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 보수과정에서 교체 및 첨가된 부재는 별도로 구분하여 원형 밝힘
- 대상문화재의 지형측량도, 대지 종횡단면도를 조사 작성한다(실측장 제출시 레벨지 첨부).
- 기둥 등 Key Plan 부재별 넘버링 방식은 감독관과 반드시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문화재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기록하고 해당 수리문화재의 수리방향, 처리방법 등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 문화재의 현황조사는 각 부재별로 조사서와 사진, 현황설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 별첨1 〈표〉 에 명기된 도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 구성상 같은 면에 그릴 경우 축척은 통일한다.
- 배치도에는 건축물 평면으로 표시(수평투영)한다.
- 도면은 현황실측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복원도는 영조척, 변형부분을 고찰하여 복원도를 작성한다.
- 각 도면에는 도면 명칭과 번호, 치수, 축적자(bar scale), 방위표, 찾음표(key plan)를 기입한다.
- 선 굵기는 단면선, 외곽선, 입면선, 보조선 등을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 적심, 보토, 강회다짐 등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가늠정도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 현황사진첩 제작

- 사진첩의 각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첫쪽에 내용과 사진번호순으로 작성, 설명을 기입하도록 한다(사진 아래에도 설명 기입)
- 사진첩은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 사진 촬영 기자재는 ISO 1600 감도 및 500만pixel 이상 디지털카메라 및 슬라이드필름카메라를 사용하며 기자재 변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 근접사진과 등 각 부위별로 사진을 작성한다(필요시 연결사진 촬영)
- 사진 촬영은 4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하고 목부재의 결구상태, 현상이 특이하거나 동일부재라도 마무리 상태가 다른 것은 전부 촬영
- 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 내부사진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
- 원본사진은 CD와 슬라이드필름을 제출한다.
- 보수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해야 할 사유를 간략히 명시하도록 한다.
- 사진촬영은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일몰 전후 및 야간 사진 촬영 금지)
- 사진 출력은 3"× 5"를 기본으로 하되, 전경, 정면, 후면 및 담당원의 요구 사진은 5"× 7"로 제출한다(인화지 출력).
- 슬라이드사진은 필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름과 밀착 인화사진을 좌우로 편집
- 슬라이드는 중성 마운트 및 내지를 사용하여 변질 방지
- 사진첩은 1부 제출토록 한다.

○ 기타사항

- 복원을 전제로 전체 건축물의 부재별 수량산출
  (목부재, 기와, 초석, 기단, 창호 등 모든 부재의 자재 수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내역 작성)
- 복원을 전제로 한 특기시방서 작성(표준시방서 제외) - 양식, 특성, 결구기법, 부재의 재질과 가공상태, 수리 및 보존방법 등 운수암 전반에 대한 특기시방서 작성
- 향후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보수방향, 정비계획 및 범위 제시
- 수량산출서와 특기시방서, 보수공사 조사자료는 별책 2부 작성 제출
- 보수, 주변정비 등 현상변경 사항은 관련도서를 확인하여 변경 이전의 상황과 현황을 비교
- 건축물의 손상, 오염상태 등 보존관리현황 및 저해요인 조사
-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이동된 유물에 대하여는 원 위치 표시

2. 과업추진 일정

- 2012년 03월 16일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 정밀실측 용역 계약
- 2012년 03월 18일 :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
- 2012년 03월 19일 ~ 03월 24일 : 야장(실측장)작성
- 2012년 03월 21일 ~ 03월 24일 : 실측장비(사다리,광파기,레이져등)준비
- 2012년 03월 25일 ~ 05월 30일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 정밀실측 현장조사
- 2012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문헌자료조사 및 자료집 정리
- 2012년 06월 03일 ~ 06월 08일 : 사진촬영
- 2012년 06월 15일 ~ 06월 24일 : 문양모사
- 2012년 06월 25일 ~ 06월 27일 : 청계사 지장전 및 삼성각 주변 배치측량
- 2012년 07월 01일 ~ 08월 31일 : 도면작업
- 2012년 08월 01일 ~ 08월 06일 : 보완실측
- 2012년 08월 03일 ~ 08월 10일 : 정밀실측도면 마무리작업
- 2012년 08월 04일 ~ 09월 20일 : 보고서 작성
- 2012년 09월 20일 ~ 09월 23일 : 담당감독관 검토기간
- 2012년 09월 24일 ~ 09월 27일 : 보완사항 수정
- 2012년 10월 01일 : 보고서 발간

3. 대상 문화재 도면목록

명 칭		축 척	비 고
배 치 도		1/200~1/600	문화재구역 일곽의 부속건묵물 포함
배치단면도		1/200~1/600	종단, 횡단 각 1
평 면 도		1/20~1/30	
입 면 도		〃	동·서·남·북 각 1부
단 면 도	종 단 면	〃	
	횡 단 면	〃	
앙 시 도		〃	상층 및 하층
지붕평면도		〃	상층 및 하층
공포실측도	주 상 도	〃	입면, 단면, 앙시도 등 1
	귀 공 포	〃	입면, 앙시도 등 각 1
	주두, 소로, 첨자	〃	평면, 입면, 단면, 앙시도 등 각(도표작성)
가구실측도	대 공	〃	
	보 아 지	〃	
	기 둥	1/5~1/30	활주포함
	추녀결구	1/5~1/10	
	보	1/5~1/30	
	창 방	〃	변위도 포함
	기단 및 계단	〃	입면, 단면도 등
	초 석	〃	앙시, 단면, 상세도 등
	천 장	〃	입면, 단면, 상세도 등
	현 판	〃	입면, 단면도 등
	기 와	1/1~1/3	명문와, 막새, 망와, 용두등 각입면, 단면도 등
	지 붕	1/5~1/30	지붕변곡, 마루곡 등
	처 마	〃	앙곡, 안허리곡, 연목 및 부연상세도 등
	박 공	〃	목기연 상세도 등
	벽화, 포벽화	〃	배치, 입면
	단청(그림포함)	〃	배치, 무늬(색상없음)
	철물 상세도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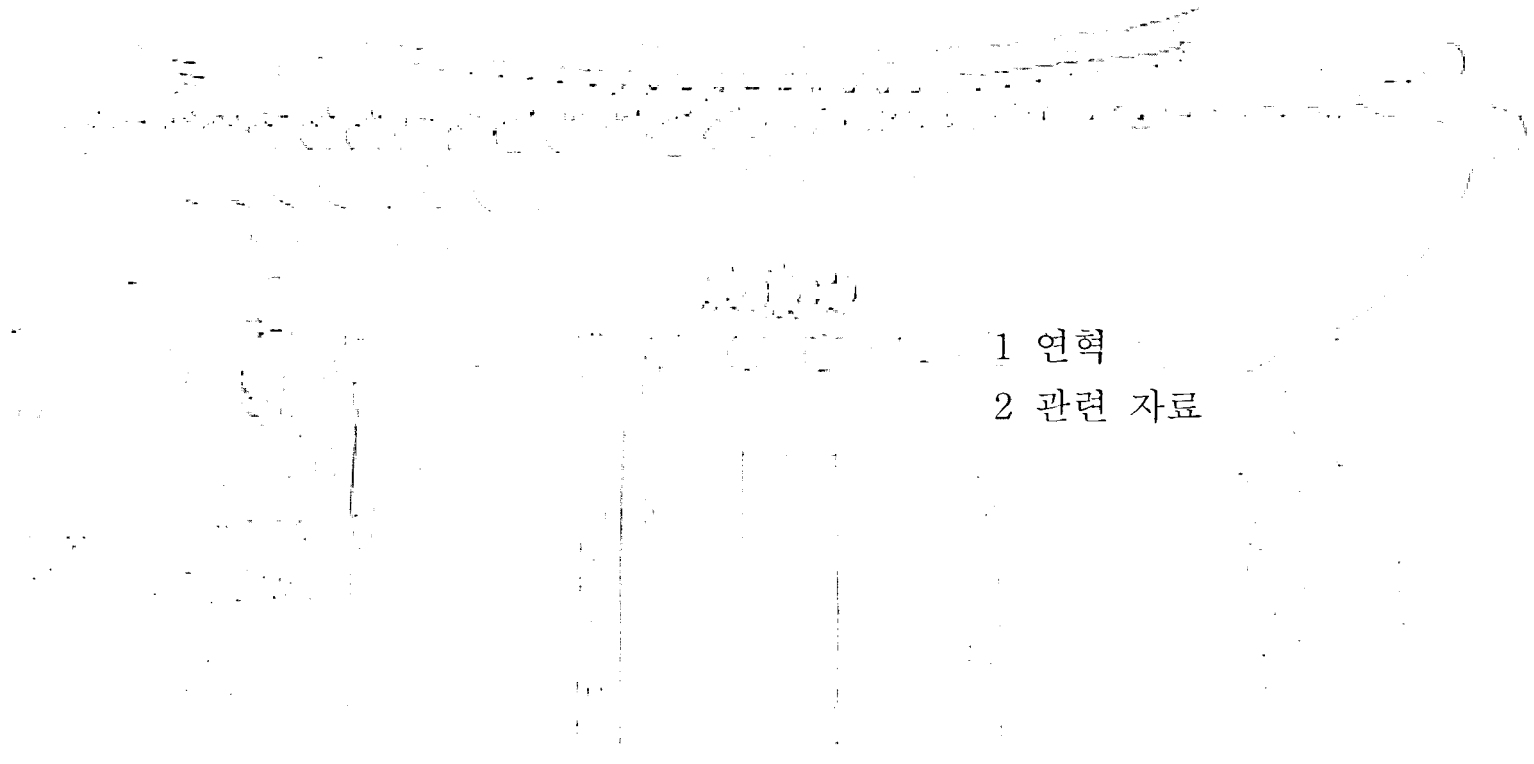
4. 보고서 발간 및 관계자

구 분	관 계 자	
발주처	의 왕 시 청	김성제(의왕시장)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손정옥(문화예술팀장) 임종용(주무관)
실측조사	(주)대왕건축사사무소	김연배(총괄책임) 김무장(부소장) 조성호, 송재영, 김갑돈, 정준섭 김지연
보고서작성	원 고 작 성	연혁 : 심은애(한양대 박사과정) 본문 : 임민경, 박진홍
	원 고 검 수	임종용(주무관)
	단청문양모사	이문희
	보고서 편집 및 교정	윤성호

여 백

제 2 장

연혁 및 관련자료



1 연혁
2 관련 자료

여 백

제 2 장 연혁 및 관련자료

1. 연혁

1-1. 의왕의 역사

가. 의왕의 역사[1)]

최근까지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곳은 300여 곳이다. 경기지역에서도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70여 곳에서 구석기 전통의 뗀석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의왕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포일 2지구를 발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구석기 유물 산포지가 발견되었으며 긁개, 밀개, 홈날 등 구석기시대 대표적인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오봉산 능선 서북쪽 사면에서 능선을 따라 청동기시대로 편년되는 집터[住居址]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집터가 기원전 8~10세기로 추정되며 내부에서는 구순각목공열토기, 무문토기류와 석기류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삼동·청계동·이동에서는 고인돌 유적도 발견됨으로 인해서 청동기시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시대 의왕지역은 서울 강남에서 과천, 의왕을 거쳐 수원, 화성으로 남하하는 중요 길목으로 여겨진다. 오전동과 내손동 일대에 테뫼식 산성인 모락산성이 발견되었는데 한성 백제 중앙세력의 필요에 의해 축조,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 의왕지역의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지명변화과정이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 초 의왕지역은 율목·율진(栗木·栗津)에서 지금의 과천(果川)이라는 명칭의 시원이 된 과주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종 9년(1018년)에 의왕을 포함하는 과천 지역은 광주목(廣州牧) 관할의 속현이 된다.

조선 전기 의왕지역에 2개의 원(院)이 설치되었다.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광주로 연결되는 동양원(東陽院)과 수원부지역과 연결되는 사근내원(沙斤乃院)이다.

17세기 후반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국가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주장하면서 지방 군현제의 개편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반계수록(磻溪隧錄)』에서

> "광주도호부(廣州都護府) …… 광주의 하도(下道) 7개 리 내에 왕륜(王倫)·일용(日用)·월곡(月谷)·북방(北方)·송라곡(松蘿谷)·송곶(松串) 등 6개 리는 수원(水原)에 편입한다. 의곡(義谷) 1개 리(里)는 그대로 광주땅[廣州地]으로 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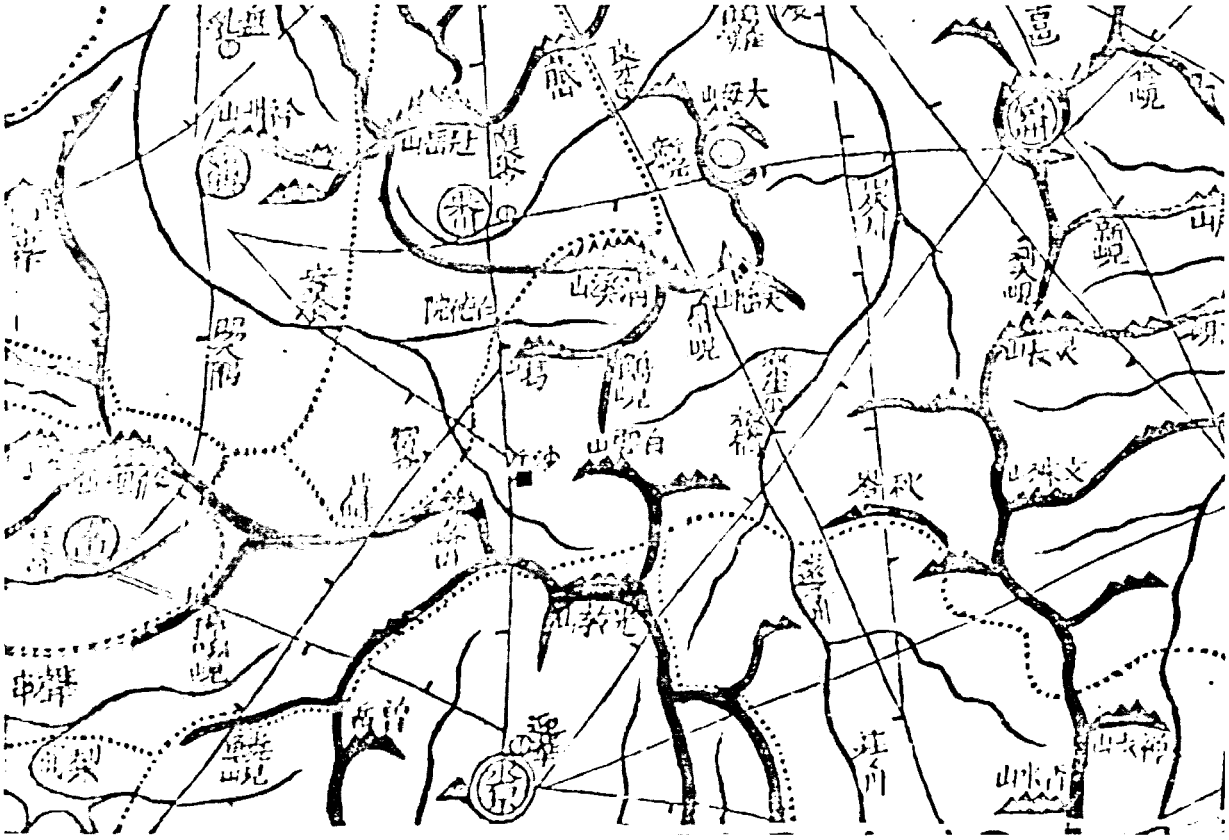
라고 하여 광주도호부에 속해있던 오늘날의 의왕지역 중 왕륜·일용·월곡리는 수원에 편입시키고, 의곡

---

1) 의왕시 역사는 『의왕시사 1. 자연과 역사』, 『한국의 지명유래집』 중부편,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uw21.net) 등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2) 유형원, 『磻溪隧錄補遺』 「廣州都護府條」, "廣州都護府……除下道七里內王倫日用月谷北方松蘿谷松串六里水源其義谷一里 則仍爲廣州地"

은 광주부에 그대로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의곡은 현재의 내손동일대이고 왕륜은 현재의 고촌동·왕곡동일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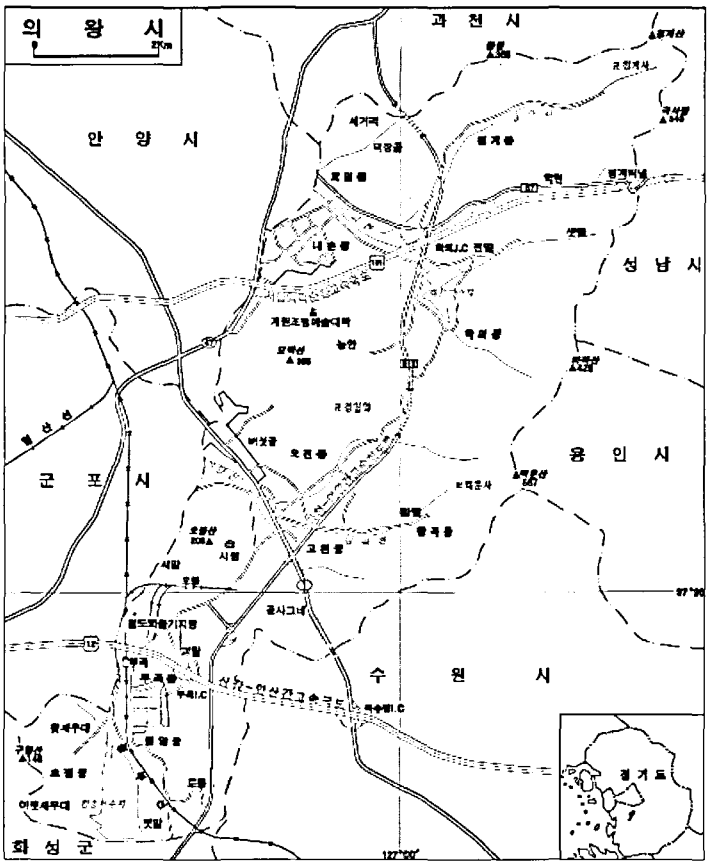
[그림 2-1] 의왕시 일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 후기 의왕에는 원래 있던 2개의 원(院)에서 병사근천점(餠沙斤川店)과 갈산점(葛山店)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조가 현륭원 조성과 화성 건설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번국도(경수산업도로)는 의왕시내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데 본래 이 지역은 한양 도성에서 삼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교통요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1789년 의왕에 사근행궁(肆覲行宮) 및 사근창(肆斤倉)이 창건되었다.[3]

이후 의왕이 소속되었던 광주부는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전국을 23부(府)의 행정구획으로 개혁할 때 광주군으로 개칭, 1914년 4월 1일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을 통합, 수원군 의왕면으로 변경된다. 1936년 10월 1일 수원군 일형면(日荊面)과 의왕면을 합하여 일왕면(日旺面)으로 개칭되고, 1949년 8월 15일 화성군(華城郡) 일왕면으로 다시 변경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시흥군(始興郡) 의왕면(儀旺面)으로 군 소속이 바뀔 뿐 아니라 명칭도 개칭된다. 1980년 12월 1일 시흥군 의왕읍(儀旺邑)으로 승격, 1983년 2월 15일 화성군 반월면 초평리와 월암리가 시흥군 의왕읍으로 편입된다. 1983년 3월 1일에는 의왕읍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어 내손, 학의, 청계 포일리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1989년이 되어서

3)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 정조대왕행장 中, "……八月丙辰, 拜舊園, 商度啓園工役, 庚申, 上, 新園號曰顯隆。 移水原府治于八達山下, 以新園將始役也。 仍設行宮, 又於果川、始興, 皆置行宮, 肆覲坪置倉舍, 安養站置撥舍, 鷺梁置鎭亭, 以備拜園時輦路所御也。"

야 의왕은 시(市)로 승격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고천동 272번지에 있던 시청 소재지는 1993년 고천동 171번지로 이전하고 1994년에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부와 군포시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에 편입하게 된다. 2007년 시의 명칭 표기를 의왕(儀旺)에서 의왕(義王)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왕시의 행정구역은 청계동, 내손1·2동,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등 6개 동이다.



[그림 2-2] 의왕시 행정지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 청계산

청계산은 의왕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경기도의 과천시와 성남시의 경계선상에 있고, 북쪽으로 서울대공원을 지나 관악산과 마주 보고 있다. 남쪽으로 망경대를 지나 의왕시의 경계능선인 국사봉·바라산 및 백운산의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계가 되고 오른쪽으로 응봉이 갈라져서 과천시와 경계를 지으면서 청계리 계곡에서 백운계곡 등을 형성하고 모락산이 앞을 막아 백운저수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푸른 용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흰 구름을 헤치며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일명 '청룡산(靑龍山)'[4]이라 부르기도 했다. 옛 사람들은 청계산을 '청룡산', 이와 함께 마주보이는 관악산을 '백호산(白虎山)'이라 하였다.[5] 청계산의 주봉은 '망경대(望京臺)'인데 이 이름은 고려 말 명신들이었던 이색(李穡, 1328~1396)·길재(吉再, 1353~1419)·조윤(祚胤, 1351~1425) 등이 이곳에 은둔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조견은 고려가 망한 것을 애통해 하며 산 정상에서 멀리 송도(松都)를 그리워

4) 전설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제8권 「과천현(果川縣)」에 "현 동쪽 8리 지점에 있는데, 일명 청룡산(靑龍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시흥군지 하」,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년

해서 망경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제2봉은 국은봉(國恩峯)이다. 역시 고려 충신들과 연관된 전설에 연유하여 '국사봉(國思峯)'이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옛 충신들의 지조를 기르기 위해 '사(思)'를 '은(恩)'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국은봉(國恩峯)이 되었다. 국은봉을 오르는 길목에 청계사가 자리하고 있다. 『광여도(廣輿圖)』와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청계산과 청계사가 명기되어 있으며, 『해동지도(海東地圖)』는 청계사 건축물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3과 그림 2-4 참조)

[그림 2-3] 청계사 일대 (『광여도(廣輿圖)』「광주부(光州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4790-58)

[그림 2-4] 청계사 일대 (『해동지도(海東地圖)』「광주부(光州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大4709-41)

1-2. 청계사 연혁

가. 청계사 연혁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청계사(淸溪寺)는 청계산(해발 618m)의 망경대와 국은봉 사이에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청계골의 상단부(해발 260m)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본산(大本山) 봉은사(奉恩寺)의 말사(末寺)였으나,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6]

1911년 일제시대 조선 불교계를 체계적으로 통치한다는 명목으로 공포한 조선사찰(朝鮮寺刹) 삼십일본산(三十一本山) 제도에 따라 봉은사의 말사가 되면서 기록된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청계사(淸溪寺)」에 "신라시창(新羅時刱)……"으로 신라 때 초창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이 자료 이외 다른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이후 청계사는 고려 권신 조인규(趙仁規, 1227~1308)에 의해서 창건이 되는데 그 연혁에 대한 부분은 청계사 입구 부도군에 있는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에 잘 나타나 있다. "청룡산 청계사는 즉 고려 시중 조숙정공의 별당이다. …… 공은 일찍이 청계산에 별장을 짓고 또 소당을 지어 그곳에서 시를 읊었다. 또 청계사를 창건하여 왕을 축원하였다……"[7]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자리에 청계사가 있기 전 조인규의 별당과 소당이 먼저 들어서 있었고, 이후 1284년 청계사를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은본말사지』 기록처럼 신라 때 창건 되었다기보다 조인규가 창건

6)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 봉은사의 한자 '봉(奉)'자가 '봉(俸)'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필자가 글을 인용하면서 수정하였다.

7) "靑龍山淸溪寺卽高麗侍中趙貞肅公之別墅也 …… 焉公嘗治別墅於淸溪山中構小堂爲嘯咏之所又刱淸溪寺爲上祝 ……"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344년 조인규 사후에 그 자손들이 소당(小堂)에 초상화를 안치하고 뜰에 조인규사당기비(趙仁規祠堂記趙碑)를 세웠으며 토지와 노비를 귀속시켜 이곳을 관리하게 하였다.[8]

조선시대 태종 7년(1407년) 사사(寺社) 혁파로 인한 폐단을 막고자 왕실의 자복사(資福寺)로 선정되어 천태종(天台宗)에 속하게 되었으며[9], 세종 27년(1445년)에는 대부인(大夫人) 안씨(安氏)와 광평(廣平)·평원(平原) 두 대군(大君)[10]이 청계사(淸溪寺)에서 불경을 외우기도 했고,[11] 문종 즉위년(1450년) 신미(信眉)의 제자 설정(雪正)과 도명(道明)이 거주하며 왕실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12] 선사 신호(信浩)가 경판을 새길 뜻을 세우고 신효창(申孝昌)의 도움으로 245판을 새기고 이후 단종 1년(1453년)에 경정공주(慶貞公主, 태종의 딸)와 효령대군(孝寧大君)과 그의 부인 정씨(鄭氏)가 청계사 주지 각돈(覺頓)의 도움을 받아 모두 1,470판을 새기고 이를 안장할 경장을 청계사에 건립하고 그 편액을 '잡화(雜華)'라고 하였다.[13]

성종 10년(1474년)에는 청계사의 중이 사비(寺婢)와 간통하는 일이 발생하자 신하들은 승도(僧徒)는 없애고 사사(寺社)는 폐지해야 하고 사노(寺奴)는 거두어들일 것을 간언한다.[14] 연산군 때는 도성 안의 모든 사찰을 폐쇄했을 때 봉은사를 대신하여 잠시 선종 본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15] 연산군 10년(1504년) 무렵부터 도성안의 사찰을 모두 폐해서 관청[公府]을 만들고 양종은 그 이름만 의탁해서 청계사를 선종으로 만든다.[16] 그런데 어떤 연유로 청계사가 양종의 도회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교양종이 선종으로 통합된 듯하다.[17] 그러나 중종대에 이르러 양종이 법적으로 폐지되고, 한때 왕실의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중종 4년(1509년) 청계사는 유생들에 의해 불경이 침탈[18]당하는 등 당시 도회소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다.

청계사가 왕실의 보호를 받고 경장 건축물이 건립되는 동안 사찰 내에 있던 별장 소당에 보관되었던 조인규와 그의 부인의 영정은 결손되고 더러워지는 등 관리가 소홀해져 중종 2년(1507년) 개화(改畵)하고 명종 21년(1566년) 겨울에 그 후손들이 중수하였다고 하는데 청계사의 중수도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선조 1년(1568년)에서 2년(1569년)에도 조인규의 제손 1,200여 명이 동원되어 영정의 결손 되고 더럽혀진 곳을 고치고 기울어지고 허물어진 사우를 고쳤으며 또한 보관소 하나를 지었다[19]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청계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 같이 중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1592년 임진왜란으로 청계사와 조인규의 별당 및 영당은 전부 소실되어 버린다.[20]

---

8) 이곡(李穀), 『稼亭集』 권3 「조정숙공사당기(趙貞肅公仁祠堂記)」, "……家乘國史人鮮得窺恐久湮沒無聞且先君嘗於舍後作堂爲燕居之所因稱祇園今欲於其中垂先君像以時致祠立圭石庭中具刻功德俾子若孫習聞佩服無墜先志無忘先訓子……"

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7년(1407년) 12월 2일자 기사

10) 대부인(大夫人) 안씨(安氏)는 세종의 비 소헌왕후 심씨의 어머니이고 광평(廣平)·평원(平原)대군은 각각 세종의 5번째와 7번째 아들이다.

1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7년 4월 26일자 기사

1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 즉위년 4월 5일, 6일, 9일자 기사

13) 姜碩德, 「東文選」 권103 「華嚴經跋」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단종 1년 6월 24일자 기사

1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0년 7월 13일자 기사

15)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16) 「陰崖日記」 「漢山 李耔」, "自廢朝後。都城寺刹。皆廢爲公府。兩宗托虛名於外。靑溪寺號爲禪宗"

17) 황인규, 「나암보우와 조선 불교계의 고승」 「보조사상」 제24호, 보조사상연구원, 2005년

1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中宗실록(中宗實錄)」 중종 4년 12월 6일, 19일자 기사

19)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 "……世代降而護視疎莊敏及夫人影幀頗有缺汚正統丁卯公之六代孫僉知仁得及外玄孫南相國智與諸子孫改畫焉嘉靖丙寅冬公之十代孫萬鍾文忠六代孫縣令珓玄孫縣監昌勳及公之外雲孫李相國浚慶李相國相與重修……" /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청계사(淸溪寺)」에는 세종 30년(1448년) 조인규의 현손 조창훈(趙昌勳)과 6세손 조현(趙珓)이 전각들을 중건하였다고 하는데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 1566년에 있었던 후손들의 이름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청계사(淸溪寺)」의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해군 때는 폐세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전답과 노비는 궁가(宮家)나 사호들이 탈취하였으며 청계사의 전답과 노비를 새긴 비석의 비문을 깎아버리는 일도 발생하였다.[21] 그러다 숙종 15년(1689년) 봄 3월에 청계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백년 고찰이 흔적 없이 재로 변해버렸다.[22] 이에 성희(性熙)와 불제자들이 재건을 도모하여 사찰의 전우(殿宇)와 낭무(廊廡)를 새롭게 하였고 청계사의 사적을 돌에 새겨 후세에 보이고자[23] 조인규의 11대손 조운(趙橒)이 글을 남겨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를 세웠다.

숙종 27년(1701년)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종장(鑄鐘匠)으로 이름을 떨친, 비구승(比丘僧) 사인(思印)이 노년에 그의 제자 명간(明侃)·계일(戒日)·여석(餘釋)·수강(首岡)·귀성(貴性)·서선(徐善)와 함께 만든 범종이 절에 봉안된다.

영조 37년(1761년) 동궁시절 정조가 청계사에 친히 납시어 청계사를 원당(願堂)[24]으로 삼고 밤나무 3,000주를 심은 후 원감(園監)을 두어 관리시켰으며,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도 정조 13년(1789년) 왕명으로 현륭원 즉 사도세자의 제각(祭閣)을 설치하고 매년 2차례에 걸쳐 제향하였다고 한다.[25]

1798년에는 조인규의 후손이자 정조의 총신인 무의공(武毅公) 조심태(趙心泰, 1740~1799)가 출자(出資)하여 풍책(豊策)·태성(太性)으로 하여금 중창(重創)시켰다.[26] 조선후기 조선선종을 부활시킨 경허스님이 9세[1857년]에 부친상을 당한 후 자당(慈堂)을 따라 입산출가하여 14세[1862년]까지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1862년 증명(證明) 은파당법담(銀波堂法譚)·인성당두찰(仁城堂斗刹)·예봉당학윤(禮峰堂學潤)·김어(金魚) 화남당총사(化南堂摠舍)·윤익(潤益) 등이 그린 괘불을 봉안하였는데 화기(畵記)에 의하면 왕실(王室)과 관련 있는 사찰로서 시주자(施主者)가 상궁(尙宮) 차씨(車氏)가 주상전하(主上殿下)와 왕비전하(王妃殿下)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빌는 내용이다.

고종 13년(1876년) 실화로 수십 칸의 법당이 또 불에 타 소실된 것을 1879년 음곡대사(陰谷大師)가 다시 회복하였다.[27] 1973년 극락보전을 보수하면서 대들보에서 '경자삼년삼월(庚子三年三月)'이라는 기록이 나옴으로써 고종 37년(1900년)에 중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1911년 일제가 불교계를 체계적으로 통치할 방안으로 '조선사찰삼십일본산(朝鮮寺刹三十一本山)'이라는 제도 아래 청계사는 봉은사의 말사로 소속된다.

1955년 주지로 취임한 비구니(比丘尼) 아연(娥演)이 다시 중창을 시작하였고 월덕(月德)·탄성(呑星)·월탄(月呑) 등의 역대 주지들이 그 뜻을 계승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28]

1965년에는 봉은사의 말사에서 용주사의 말사로 소속이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1968년 극락보전 단청불사가 한차례 있었으며 1973년 극락보전 수리가 있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974년에는 지금의 봉향각[노전이라고도 함][29]이 건립되고 1975년 봉은

---

20)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 "……壬辰諸影堂悉爲兵燹所失……"

21)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 "……光海時淸溪寺爲廢世子所占田庄奴婢又爲宮家及豪民所奪而磨其碑盖其田庄奴婢刻于碑……"

22)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 "……故也上之十五載卽北朝康熙二十八年也是年春三月淸溪寺火五百年舊刹蕩然爲灰……"

23) <청계사사적비(淸溪寺事蹟碑)> "……者之所沈恨也有沙門性熙者慨然募緣圖復舊建其施以財貨者不可殫記而至有擧田庄而施之者此固熙師之得佛力不乃公之精靈昭昭未沫而有所陰騭者耶於是寺之殿宇廊廡宛然一新又將刻淸溪事蹟于石以示後屬余記余雖拙於文以公之雲仍惡乎辭……"

24) 원당(願堂)은 궁중이나 궁방(宮房)에서 왕자나 공주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개인 절이다.

25)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청계사(淸溪寺)』, "……英宗三十七年(辛巳)正宗在東宮時親臨設願堂栽栗木三千株置園監正宗十三年(己酉)命設顯隆園祭閣每年兩次享祭……"

26)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청계사(淸溪寺)』, "……二十二年(戊午)趙武毅公沁太出資使豐策太性董役重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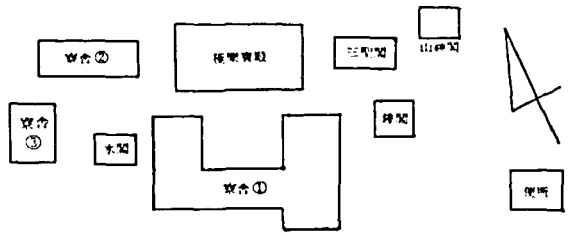
27)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청계사(淸溪寺)』, "……高宗十三年(丙子)時又火越四年(己卯)陰谷大師權化重建……"

28)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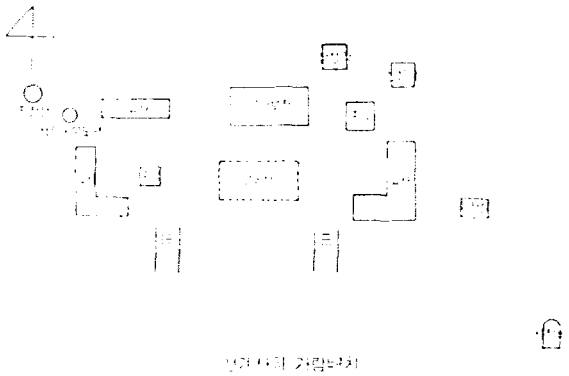
29) 의왕시청 문화관광과에 소장중인 문화재대장에는 봉향각이 1974년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흥우의 글에서도 봉향각[노

사에 있던 범종이 제 자리인 청계사로 옮겨오게 되면서 종각이 지어지고 그곳에 봉안하게 된다.

1971년 12월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성의 피안길』(이흥우, 1980년)[30]에 실린 사진에서는 지금의 수각 자리에 간이 건축물이 세워져 있으며 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은 없어진 대방[31]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다. 1982년 발행된 이고운의 『명산고찰따라』에 실린 사진을 보면 지금과 확연히 다른 사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파른 지형에 2단의 높은 축대를 쌓아 전각이 배치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각의 모습도 다르다. 사진 속에서는 지금의 사찰 주차장 동쪽 비석군 바로 옆으로 놓여있는 비탈진 경사로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 아래 보이는 비석은 세 개가 세워져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밑에서부터 <조인규사당기비>·<청계사사적비>·<공덕비>이다. <공덕비>는 1979년 범종 이전과 봉향각 및 산신각을 건립할 때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덕비라고 한다.[32] 산신각은 지금의 삼성각인데 이전 및 용도 변경되기 전 명칭으로 1960년대 건립됐다고 한다.[33] 같은 사진 속에 종각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극락보전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건축물이 지장전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조금더 서쪽으로 또 한 채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는 화장실로 추정되고 극락보전 앞쪽으로 지금은 없는 대방도 보인다.



[그림 2-5] 청계사 배치도 (『용주사 본말사지』, 본말사지 주지회, 1984년)



[그림 2-6] 청계사 배치도 (『전통사찰총서 3. 경기도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1993년)

<그림 2-5>는 1984년 발행된 『용주사 본말사지』에 있는 배치도로 지금의 배치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극락보전 동쪽에 삼성각이 있고 바로 옆 뒤편으로 산신각이 그려져 있으며 극락보전은 21평, 삼성각은 8.5평, 산신각은 1.5평으로 기록하고 있다. 각 전각의 크기로 따졌을 때 삼성각은 지금의 지장전, 산신각은 지금의 삼성각 크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림에 있는 삼성각은 지금의 지장전으로 모시던 불상이 달라지면서 명칭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된 것이 없어 언제 용도 변경되었

전]에 관한 설명이 있다. 그렇다면 1971년 12월에도 봉향각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때 있던 건물을 부수고 1974년 새로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흥우의 글 내용에서 1971년 12월 청계사를 떠올리며 글을 쓰고 있는데 책이 발간된 것은 1980년으로 글을 작성한 것과 발간년도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1971년 12월 청계사를 첫 방문을 했고 그 이후 책 집필을 하면서 여러번 방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책에 실린 청계사와 관련된 글들이 1971년이 아니라 마지막 방문했을 때의 청계사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30) 이흥우, 『공성의 피안길』, 동화문화사, 1980년에서 저자는 1971년 12월 청계사를 방문했으며 당시, 청계사에 대해서 서술해 놓았다.

31) 이흥우, 『공성의 피안길』, 동화문화사, 1980년에서는 강당으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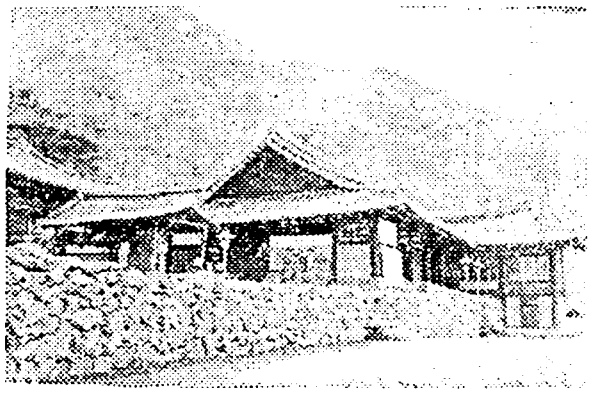
32)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33) 청계사 종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록은 후대에 연혁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전에 의해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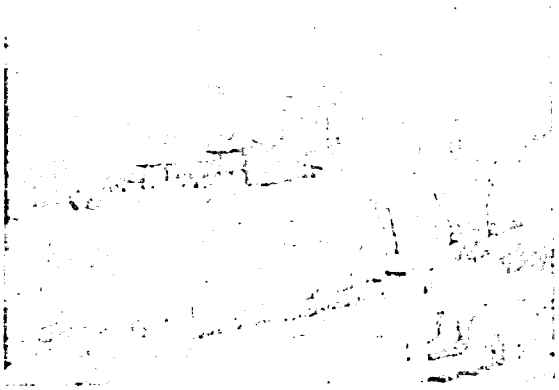
는지는 알 수가 없다. 산신각도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 옛 삼성각에 모셔졌던 독성탱(獨聖幀), 현왕탱(現王幀), 칠성탱(七星幀)이 옮겨지면서 명칭도 산신각에서 삼성각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6>은 1993년 발행된 『전통사찰총서 3. 경기도의 전통사찰』에서는 삼성각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 후 독성탱(獨聖幀), 현왕탱(現王幀), 칠성탱(七星幀)이 모셔지면서 명칭변경된 것이 명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지장전 건물에는 현판이 없어서 특정하게 부르던 이름이 없었다. 옛 산신각이 새롭게 삼성각으로 불려지면서 옛 삼성각은 적당한 명칭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부르던 건물명을 서로 바꾸어 부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1983년 서요사채 1층이 지어지고 1985년 증개축을 하게 된다. 1984년 발행된 『용주사 본말사지』에 실린 사진에서는 서요사채가 지어지기 이전의 요사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의 수각도 찾아볼 수 있다. 1984년 촬영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는 서요사채의 2층이 지어지기 전 모습과 지장전과 삼성각의 박공, 그리고 종각의 사모지붕 끝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다. 1988년 간행된 『시흥군지 하』와 1989년 12월에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시흥군』에 실린 사진에서는 2층으로 완성된 서요사채의 모습이 확인 가능하고 지금과 같은 축대는 아니지만 토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석축으로 변화하고 경내가 많이 정비되었다. 이때까지도 대방은 실존하고 있었는데 대방에 붙은 현수막을 보면 '선방 중축불사 시주 접수처'라고 쓰여 진 것으로 보아 대방 공간부족에 따른 이유로 동요사채를 새로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91부터 1996년까지는 극락보전 바로 앞에 있던 대방을 허물고 동요사채를 신축했으며 그 이후로도 석조축대를 다시 쌓고 사천왕상과 팔부신장산, 십이지상, 석상조성 및 경내환경정리와 사찰진입로를 넓히는 공사를 했다. 1999년에는 봉향각 서쪽으로 지장보살입상과 지장전 동쪽으로 석조열반신상을 봉안하였다.[34] 2001년 동요사채 옆에 있던 화장실을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여 예전의 두배 규모로 다시 짓고 서요사채 아래쪽에도 등산객을 위한 공용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2007년 대방이 있던 자리에 대리석을 깔아 많은 신도들이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오늘날의 모습에 이루게 되었다.



[사진 2-1] 1971년 12월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 (이흥우, 『공성의 피안길』, 동화문화사,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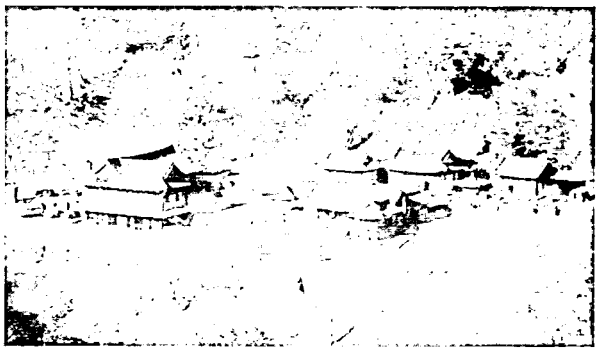
[사진 2-2] 청계사 전경 (이고운, 『명산고찰따라』, 운주사, 1982년)

34) 청계사 종무소의 자료에 의해 기술하였다.

[사진 2-3] 청계사 전경 (본말사 주지회, 『용주사 본말사지』,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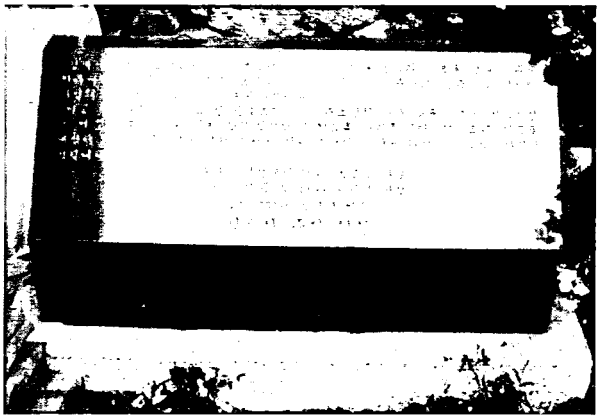
[사진 2-4] 청계사 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984년 촬영)

[사진 2-5] 청계사 전경 (『시흥군지 하』,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년)



[사진 2-6] 청계사 전경[35]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사진 2-7] 청계사 전경 (2002년 6월 19일 촬영, 『의왕시사 2. 인물과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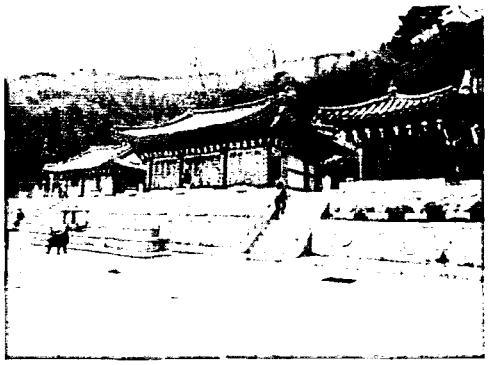
[사진 2-8] 극락보전 앞 대리석으로 된 야외법회장 설치에 대한 기념비(2007년 설치)

35)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실린 청계사 전경 사진이 『의왕시사 7. 사진으로 보는 의왕』(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1989년 12월 촬영했으며 시흥향토사료실에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문화재 지정 현황

청계사는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 1로 11번지에 위치하며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 충렬왕 10년에 창건되어 조선 숙종 15년(1689년)에 세운 청계사적비가 있고 1900년에 새로 지어진 극락보전과 1960년대 지어진 지장전과 삼성각이 있다. 사비인구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동종의 보호각인 종각, 수각과 요사채 3동 등 10채의 건물이 있다.

- 명　　칭 : 청계사 (淸溪寺)
- 지정현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사찰
- 지 정 일 : 1983년 9월 19일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1로 11(청계동)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관 리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그림 2-7] 청계사 문화재 지정 구역 및 보호구역 (출처 : 문화재청)

2. 관련 자료

2-1. 청계사 건축물

가. 극락보전(極樂寶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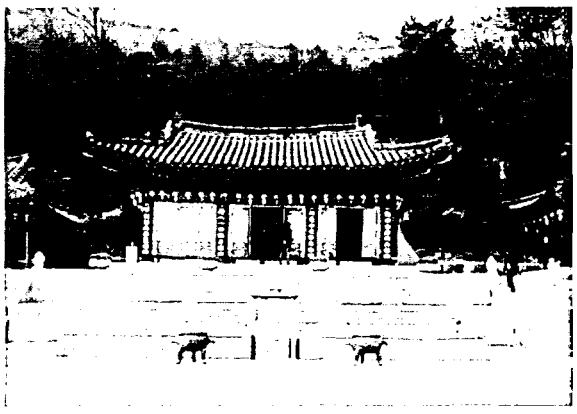
1900년 중수된 극락보전은 청계사의 주요건물로서 아미타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1968년 극락보전의 단청불사가 있었고, 1973년 중수를 했으며 이후 기록할만한 수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대는 198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크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세단으로 구성된 축대는 아래 두단은 막돌쌓기로 화계가 조성되어 있고 마지막 한단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두단으로 층을 두었으며 석축면에는 보살상 등이 부조되어 있다. 극락보전 바로 앞쪽으로 난 계단은 없어지고 건축물에 빗겨져서 양쪽에 계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는 바로 앞에 있던 대방을 허물고 경내환경정리를 할 때인 1991년대로 보이며, 석축면에 부조된 보살상은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6월 19일 촬영한 <사진 2-7>에서는 석축면이 '정(井)'자 형의 가구식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돌로 쌓은 것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 2006년 8월 청계사를 조사하고 그 해 발행된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 II』에 실린 극락보전 사진에서는 축대에 보살상 부조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극락보전의 외부 벽화에는 수행자가 도를 깨우치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아 헤매는 것으로 표현한 심우도 10폭이 채색 없이 수묵화(水墨畵)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현재 필선이 흐려져 있어 자세히 알아보기 어렵다.[36]

극락보전에 걸린 주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極樂堂前滿月容 (극락당전만월용) 극락전 앞에 걸린 보름달과 같은 부처님 얼굴
玉毫金色照虛空 (옥호금색조허공) 옥호에 금빛 찬란산 빛 내어 허공을 비추시네
若人一念稱名號 (약인일념칭명호) 만일 사람이 일념으로 부처님 이름 외운다면
煩刻圓成無量劫 (번각원성무량겁) 번뇌 단박에 없어지고 원만성취 이루리

[사진 2-9] 극락보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984년 촬영)



[사진 2-10] 극락보전 (201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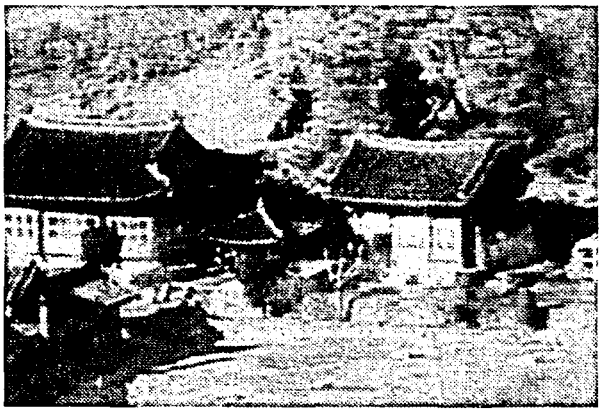
36) 김성근김덕문,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II)』,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회, 2006년

나. 지장전(地藏殿)

극락보전 동쪽에 있는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청계사 종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1960년대 지어졌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장보살을 봉안하기 위한 건축물로 지어진 것은 아닌듯하다. 『용주사 본말사지』(용주사 지주회, 1984년)에 <그림 2-5>의 청계사 배치를 살펴보면 지금의 지장전 자리에 삼성각(三聖閣)이 표기되어 있고 치성광 여래상(如來像), 독성탱(獨聖幀), 현왕탱(現王幀), 칠성탱(七星幀)을 모셨고 지장보살상은 극락보전에서 모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의왕시 문화체육과에 보관되어 있는 1997년 작성된 문화재대장에서는 칠성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극락보전에 있던 지장보살상을 모셔오면서 지장전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명칭도 삼성각에서 지장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지장전에 모셨던 독성탱, 현왕탱, 칠성탱은 산신각으로 옮겨 가면서 삼성각으로 건물명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개편된 청계사 홈페이지의 지장전 설명을 참조하면 '편액이 걸려 있지 않지만 안에 지장보살입상이 봉안되어 있으므로 지장전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이 실린 사진에서 편액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달린 현판은 이후 달린 것이며 지장전에 걸린 주련의 내용과 뜻은 다음과 같다.

地藏大聖威神力 (지장대성위신력)	지장 대성의 위신력은
恒河沙劫說難盡 (항하사겁설나진)	항하의 모래만큼 억겁을 설하여도 다하지 못하여
見聞瞻禮一念間 (견문첨례일념간)	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또 엎드려 절하니
利益人天無量事 (이익인천무량사)	사람과 하늘 모두에게 한량없는 이로움 주소서



[사진 2-11] 지장전 (리진호, 『성현서당사』, 감리교출판사,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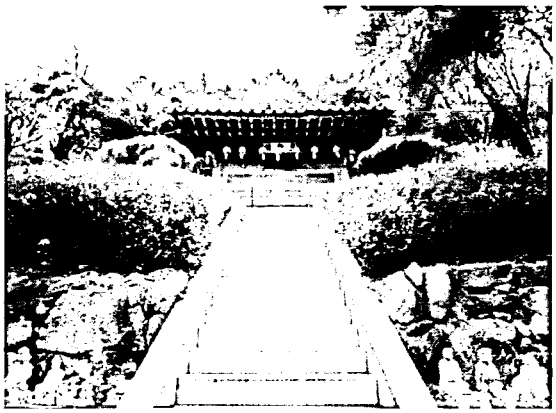
[사진 2-12] 지장전 (2012년 9월)

다. 삼성각(三聖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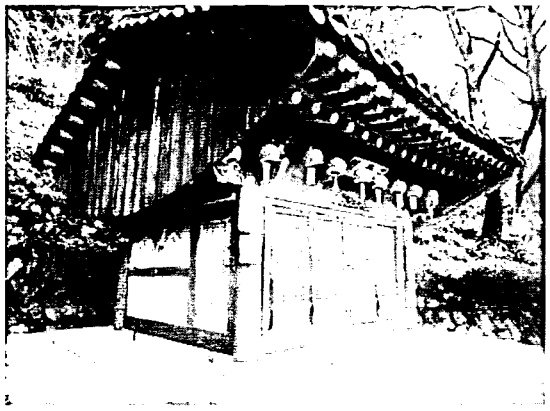
삼성각은 극락보전과 지장전 사이에 있는 가파른 계단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 1칸, 측면 1칸, 맞배지붕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청계사 종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지장전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위치는 현재와 같지 않고 지장전 동쪽인 지금의 와불(臥佛)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용주사 본말사지』(1984년)에 실린 <그림 2-5>의 산신각(山神閣)이라고 쓰여진 건물이 1.5평(坪)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각의 크기와 같다. 삼성각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것이 언제인지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198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1983년에서 1984년 사이로 보인다. 예전 삼성각(지금의 지장전)에서 모셨던 독성탱(獨聖幀), 칠성탱(七星幀), 산신탱(山神幀)을 모셔오면서 건물 명칭도 산신각에서 삼성각으로 바뀐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내부를 들어서면 전면에서 우측으로 이어지는 'ㄱ'자 형태의 제단이 있으며 전면 좌측에 산신탱, 전면 우측에 독성탱, 우측 벽면에는 칠성탱이 있으며 좌측 벽면에는 신도들의 생년월일 등이 적힌 인등이 있다.[37]



[사진 2-13] 삼성각 전경 1 (2011년 11월)



[사진 2-14] 삼성각 전경 2 (2011년 11월)

라. 봉향각(奉香閣)

극락전 서쪽에 있는 건물이 봉향각(奉香閣)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스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부처님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다.[38]

1974년 지어진 건축물로 예전에는 노전(爐殿)으로 불린 적도 있다. 1970년대 찍힌 봉향각 사진을 보면 흑백이기는 하나 단청이 되지 있지 않고 전퇴에 문이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15] 1970년경 봉향각의 모습 (『의왕시사 7』, 의왕사·의왕시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2007년)

[사진 2-16] 봉향각 전경 (2012년 9월)

37) 김성근·김덕문,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II)』,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회, 2006년
38) 김성근·김덕문,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II)』,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회, 2006년

마. 동서요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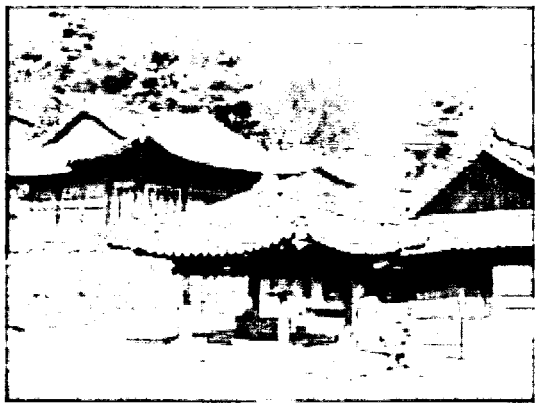
경내 서쪽 끝에는 서요사채가 있는데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ㄱ자 형태로 되어 있고 겹처마팔작지붕이다. 1층은 공양간이고 2층은 선방인데 선불장(選佛場)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다. 1983년 신축되어 1985년 증개축이 있었다. 동쪽 끝에는 서요사채와 비슷한 규모의 동요사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면 7칸, 측면 2칸이며 ㄱ자 형태이고 겹처마팔작지붕이다. 1층은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서요사채와 마찬가지로 승방인데 현판은 없다. 동요사채는 1991년 신축하여 1995년 증개축을 했다.

[사진 2-17] 서요사채 (201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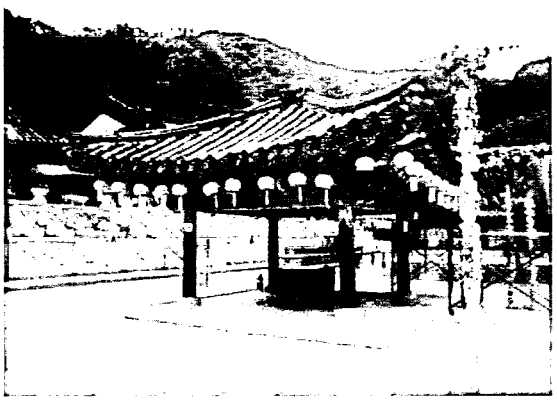
[사진 2-18] 동요사채 (2012년 9월)

바. 수각 (水閣)

서요사채 앞쪽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 사모지붕으로 된 건축물이 수각인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청계사 종무소의 기록에 의하면 예전부터 우물이 있던 곳에 1980년대에 수각을 신축했다고 한다. 1980년 발행된 『공성의 피안길』(사진 2-1)과 『의왕시사 7』(사진 2-15)에서 수각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기둥 위에 박공지붕이 얹어진 간이구조이다. 또한 『공성의 피안길』에서는 우물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우물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4년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지금의 같은 수각이 세워지고 우물이 아닌 돌로 된 드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화강암으로 된 드므에는 '감로지(甘露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사진 2-19] 수각 (한국학중앙연구소 소장, 1984년 촬영)



[사진 2-20] 수각 (2012년 9월)

2-2. 청계사 유물

가. 사인비구 제작 동종 - 의왕 청계사 동종 (思印比丘製作 銅鍾-義旺 淸溪寺 銅鍾)

- 지정및번호 : 보물 제11-7호
- 지 정 일 : 2000년 2월 15일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1로 11(청계동)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조선시대 숙종 27년(1701년)
- 규 모 : 동종 높이 111.8cm , 몸체 높이 92.5cm
  입지름 76.6cm

[사진 2-21] 종각 (2011년 11월)

청계사 극락보전 앞 동쪽에 위치한 종각에 봉안되어있는 청계사 동종은 조선시대 현종(顯宗)과 숙종대(肅宗代)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종장(鑄鐘匠)으로 이름을 떨친, 비구승(比丘僧) 사인(思印)이 노년에 그의 제자 명간(明侃)·계일(戒日)·여석(餘釋)·수강(首岡)·귀성(貴性)·서선(徐善)[39]와 함께 만든 종이다. 당좌 종신하부에 양각으로 주성연대와 시납사찰, 종장, 시주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康熙四年辛巳月日 鑄成 廣州靑龍山淸溪寺 鍾重七百斤
> 通政僧員 思印 明侃 戒日 餘釋 首岡 貴性 徐善 …… (이하 생략)

강희(康熙) 4년은 숙종 27년(1701년)을 말하며 한때는 청룡산(靑龍山)으로 불리운 적이 있는 청계산의 옛 지명으로 종의 무게가 700근임을 나타내고 있다.

명문에서도 보이듯이 원래 청계사에서 주성(鑄成)한 것으로 한때 일제의 쇠붙이 공출을 피하여 서울의 봉은사(奉恩寺)로 옮겨졌다가 1975년 원 위치로 되돌아 왔다.[40] 범종이 이전되면서 종각은 이때 지어진다. 청계사 입구 비석군 중에 공덕비(功德碑)가 있는데 이는 1979년 범종이전과 봉향각 및 산신각을 건립할 때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덕을 기르기 위하여 세운 비라고 한다.

1980년 지방유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었다가 사인이 만든 동종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9년 추가 조사되어 다음해에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때 지정 명칭을 '사인비구주성동종(思印比丘鑄成銅鐘)'이라 지칭하고, 그 부속문화재는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浦項 寶鏡寺 瑞雲庵 銅鍾, 보물 제11-1호), 문경 김룡사 동종(聞慶 金龍寺 銅鍾), 보물 제11-2호), 홍천 수타사 동종(洪川 壽陀寺 銅鍾, 보물 제11-3호), 안성 청룡사 동종(安城 靑龍寺 銅鍾, 보물 제11-4호), 서울 화계사 동종(서울 華溪寺 銅鍾, 보물 11-5호), 통도사 동종(通度寺 銅鍾, 보물 제11-6호), 의왕 청계사 동종(義王 淸溪寺 銅鍾, 보물 제11-7호), 강화 동종(江華 銅鍾, 보물 제11-8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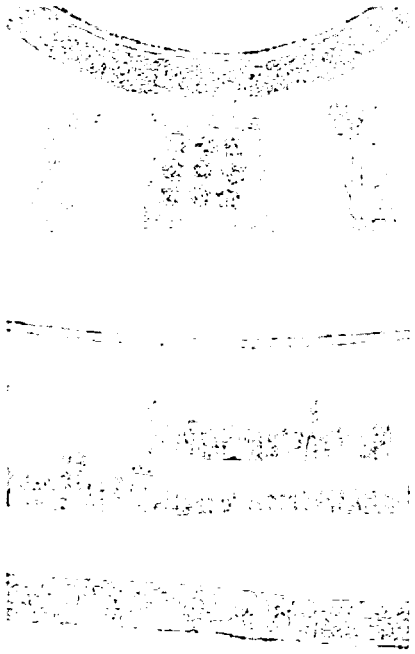
청계사 동종은 2마리 용으로 만든 쌍룡뉴(雙龍紐)가 종을 매달고 있으며, 상대에는 연꽃과 잎이 어우

39) 의왕 청계사 동종의 문화재 안내판에는 '…명간(明侃), 계일(戒日), 여석(餘釋), 수강(首剛), 임선(任善)…'으로 수강의 '강(岡)'자가 '강(剛)'으로, '서선(徐善)'은 '임선(任善)'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영어식 표기에서도 1701년을 1710년으로 오기되었다.

40)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사·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러진 덩굴무늬가 장식되었으며, 그 하부 사방에 4개의 유곽과 손에 연꽃은 든 4구의 입상보살상이 교대로 병립 배치되었다. 세장한 덩굴무늬가 장식된 유곽대의 내부에는 9개의 유두가 소문으로 장식된 5각형의 유좌 위에 돌기된 모습이다. 종신의 중간높이에는 굵게 융기된 2조의 선을 둘려 요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장문의 명문이 양각 주조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종의 일반적인 장식요소인 당좌가 조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종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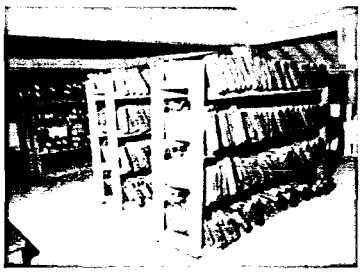
[사진 2-22] 의왕 청계사 동종 (2011년 11월)



[사진 2-23] 의왕 청계사 동종 탁본 (『범종:형·색·감』, 문화재청, 2006년)

나. 청계사소장목판 (淸溪寺所藏木板)

- 지정및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 지 정 일 : 1988년 12월 2일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1로 11(청계동)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조선시대
- 규 모 : 18종 466판



[사진 2-24] 청계사 경판 (출처 문화재청)

청계사에는 총 18종 466판[41]의 조선시대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466판의 경판 가운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총 213판으로 가장 많다. 이들 경판 가운데 간기(刊記)가 명확한 것은 『묘법연화경』 (1622년) · 『고봉화상선요』 (1623년)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1623년) · 『불설천지팔양신주경』 (1831년) · 『대장경목록』 (1834년) · 『수영대명왕대다리니』 (1902년)[42]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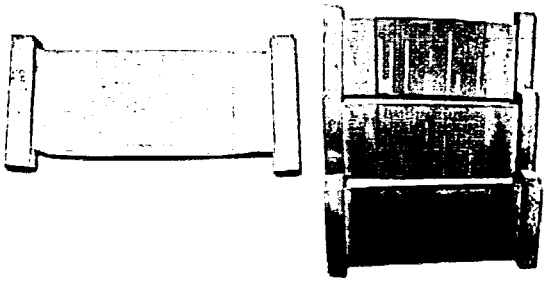
41) 청계사 소장 목판의 종류와 수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정보에서는 18종 466판, 의왕시 문화체육과에 보관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대장의 기록은 14종 462판, 청계사 종무소 기록은 14종 466판으로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정보를 따르도록 하겠다.

42)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3. 경기도의 전통사찰 I』, 사찰문화연구원,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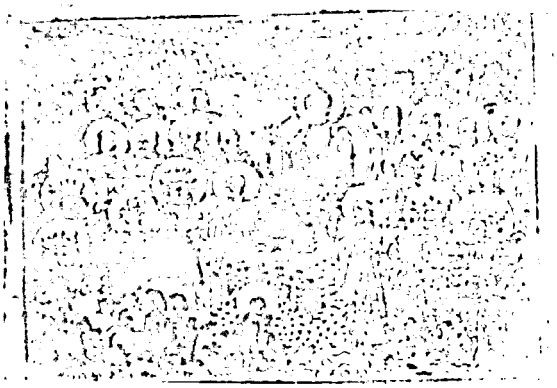
이들이 모두 청계사에서 개판된 사실을 명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경판들도 모두 청계사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승려 교육의 사집반(四集班) 교과서로 쓰였던 『선요(禪要)』·『도서(都序)』·『절요(節要)』·『서장(書狀』 4종류의 목판이 모두 전하고 있어 당시 청계사 경내에도 승려들을 교육하는 강원(講院)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43] 또, 『동문선(東文選』 권103 「華嚴經跋」 에

> 우리 동방의 청량소판(淸凉疏板)은 곧 고려의 대각국사(大覺國師)가 서방의 조(趙)·송(宋)을 유람할 때에 얻은 것이었다. 이제 이미 일본으로 돌아갔으므로 학자들이 다시 얻어 볼 길이 없었는데, 선사(禪師) 신호(信浩)가 드디어 판을 새길 뜻을 세우고 이를 제정(齊靖) 신효창(申孝昌)공에게 고한 바 제정이 그의 아들 자근(自謹)과 더불어 판재(板材)를 변통하여 얻고, 각공을 모집하여 겨우 2백 45판을 새기고 나서 제정이 이미 세상을 버렸던 것이다.
> 이에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安)씨가 이 거대한 사업이 초창기에서 좌절됨을 심히 개탄하고, 분연히 대단문(大檀門)을 위하여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양궁(兩宮)의 만세(萬歲)와 금지(金枝)의 영원한 무성을 기원하매, 이에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효령대군(孝寧大君)과 그의 부인 정(鄭)씨가 성의를 다하여 붙들고 도와서, 대사를 마치게 하였다. 또 판중추 성달생(成達生)공이 뒤를 따라 찬조하였으며, 그 밖에도 희사에 따른 자를 헤아릴 수도 없었으니, 이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도록 주간한 자는 필추(苾芻)와 각돈(覺頓)이었다. 전후하여 새긴 바가 모두 1천 4백 70판으로 이를 광주(廣州)의 서쪽 청룡산(靑龍山) 청계선사(淸鷄禪寺)에 집을 짓고 수장 하고 편액하기를, '잡화(雜華)'라 하여 무궁하게 전포하도록 한 것이다.[44]

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선사가 경판을 새길 뜻을 세우고 신효창과 그의 아들 신자근의 지원을 받아 245판을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을 끝내기도 전에 신효창이 죽자 삼한국대부인 안씨가 그 사업을 이어서 하고 경정공주, 효령대군과 그의 부인 정씨가 등이 도와 1,470판의 경판 새기는 것을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장하기 위해 지금의 청계사에 '잡화'라는 편액이 달린 건축물을 짓고 그 곳에 경판을 보관하였다.



[사진 2-25] 청계사 소장 경판 (출처 문화재청)



[사진 2-26] 『묘법연화경』 탁본 (『시흥군지 상』 , 시흥군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년

43)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 의왕사·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44) 姜碩德, 『東文選』 권103 「華嚴經跋」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 재인용, http://db.itkc.or.kr)

주요 목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45)]

[표 2-1] 청계사 소장목판 목록

연대	목판명(木板名)		주요내용
1622년 (광해군 14년)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이라고도 부름.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평가됨
1623년 (인조 1년)	고봉화상선요 (高峰)和尙禪要		중국 원(元)의 고승, 고봉(高峰)의 어록으로 선(禪)의 요체(要諦)에 대한 설법집(設法集)이다. 조선시대 선원(禪院)의 중요한 교재로 쓰임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고려시대의 고승, 지눌(知訥, 1158~1210)이 지은 책. 강원(講院)의 수행(修行) 이념에 관한 것으로 일명 『법집별행록절요(法集別行錄節要)』라고도 함
1831년 (순조 31년)	불설천지팔양신주경 (佛設天地八陽神呪經)		중국 당(唐)의 고승,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정(義淨)이 번역한 불서(佛書)로 『팔양경(八陽經)』이라고도 함
1834년 (순조 34년)	대장경목록 (大藏經目錄)		-
1902년 (광무 6년)	수영대명왕대다리니 (隨永大明王大陀羅尼)		-
-	선원제전집도서 (禪源諸詮集都序)		중국의 고승, 종밀(宗密)이 『선원제전집(禪源諸詮集)의 방대한 내용을 간추린 책. 강원(講院) 승려의 필수 교과목으로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고 있음
-	대혜보각선사서 (大慧普覺禪師書)		중국 송(宋)의 고승, 대혜(大慧)가 선(禪)과 관련해서 주변의 420이에게 60여 차례 답장한 편지를 하나로 묶은 책. 승려의 기본 교과서 중 하나임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병 소청사자소 (預修十王生七齊儀纂要 幷 召請使者疏)		중국 당(唐)의 고승, 장천(藏川)이 편찬한 책. 이 경의 내용에 의거, 시왕(十王)에게 공양하고 죄업(罪業)을 참회하는 칠재의(七齋儀)를 행함
-	오대진언문(五大眞言文)		다섯 종류의 진언(眞言)을 범자(梵字)로 적고, 한자와 한글의 음역(音譯)을 대조한 책. 일반 민중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만듦
-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 軌)		사명동호(四明東湖) 사문(沙門) 출신의 지반(志磐)이 지은 책. 수륙재(水陸齋)의 의식(儀式)과 관련된 글을 모아 놓음
-	합간판(合刊板)	계초심학인문 (誡初心學人文)	지눌(知訥)이 처음 불문(佛門)에 입교한 사람과 수선사(修禪社)의 기강을 위해서 만든 책. 불교 근본 경전의 하나로, 강원(講院)에서 최초로 배우는 교재
-		발심수행장 (發心修行章)	원효(元曉)가 출가 수행자를 위해서 지은 글. 처음 출가한 승려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입문서(入門書)
-		몽산화상법어약어 (蒙山和尙法語略語)	중국 원(元)의 고승, 몽산화상(蒙山和尙)이 남긴 법어(法語)를 약록(略錄)한 책. 선(禪) 수행의 안내서로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됨
-		자경서(自警序)	-
-	부적판 (符籍板)		-
-	천자문(千字文)		-

45)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172~173쪽에 실린 표를 필자의 의견을 담아 재작성 함.

다. 의왕 청계사 신중도 (義旺 淸溪寺 神衆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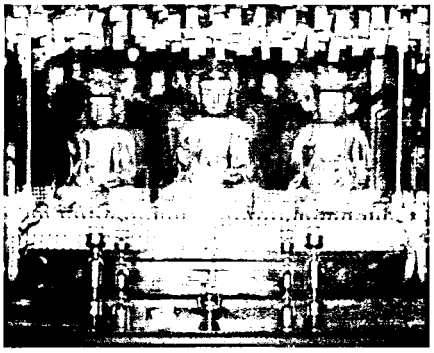
- 지정및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4호
- 지 정 일 : 2012년 6월 26일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1로 11(청계동)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조선시대 (1844년)
- 규 모 : 1폭 (가로 219cm × 세로 172cm)

[사진 2-27] 의왕 청계사 신중도 (출처 문화재청)

청계사 신중도는 조선시대 헌종 10년(1844년)에 조성된 것으로 화폭을 2단으로 구분하여 윗부분은 제석과 범천을 위주로 한 신중의 그림을 아랫부분은 천룡을 위주로 한 무장 모습의 신중을 그렸다. 존상표현에서 타원형의 상호에 세장한 신체로 묘사되었으며 이목구비에 음영을 주고 색체에 코발트색과 금니를 사용하는 등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활발한 경성(京城)화파의 화풍이 방영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6월 26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되었다.[46]

라.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

- 지정및번호 : 비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조선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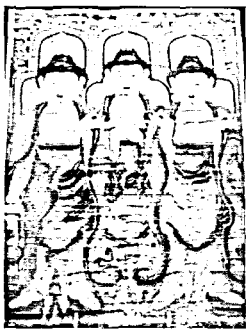
[사진 2-28] 아미타삼존불 (2011년 11월)

청계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삼존불은 아마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로 구성되었다. 아미타여래의 높이는 110cm이고 두 보살상은 높이 107cm로 모두 조선 후기에 속하는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마타불과 대세지보살은 한 작가의 솜씨로 보이지만, 관음보살상은 양식에서 조금 차이를 나타내며 조성 연대도 다소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삼존불좌상은 사각형의 평면적 얼굴에 가는 눈, 작은 입과 코, 넓은 귀 등을 오려 붙인 듯이 표현하였다. 또한 하체와 상체, 그리고 머리 부분에서도 나발(螺髮)의 모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다른 불상보다는 다소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조선 후기의 불상 가운데 보기 드문 정제미를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된다.[47]

---

46) 문화재청(http://www.cha.go.kr)과 청계사(http://www.chungkeisa.com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47) 김성근김덕묵,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II)』,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회, 2006년

마. 비로사나삼신불화(毘盧舍那三身佛畵, 괘불탱(掛佛幀))[48]



- 지정및번호 : 비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조선 후기(1862년)
- 규 모 : 길이 6m, 폭 3.3,m

[사진 2-29] 비로사나삼신불화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촬영년도 미상)

증명(證明) 은파당법담(銀波堂法譚)·인성당두찰(仁城堂斗刹)·예봉당학윤(禮峰堂學潤)·김어(金魚) 화남당총사(化南堂摠舍)·윤익(潤益) 등이 그린 청계사의 괘불은 화엄종에서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사나불이 화엄교리를 설법하고 있는 장면인데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과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을 협시(挾侍)하고 있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묘사한 것이다.

본존(本{尊)인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은 거신광배(擧身光背)를 갖추고 있고 신체에 비해 얼굴과 두손을 강조하여 크게 묘사하여 전체적으로 하체가 짧아 보인다. 원만(圓滿)한 얼굴에 옆으로 퍼진 모양의 머리에 육계(肉髻)는 뾰족하고 보주형(寶珠形)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반달모양의 중심계주(中心髻珠)가 묘사되어 있다. 머리칼은 나발(螺髮)로 윤곽선만 나타냈는데, 중심계주의 좌우(左右)로 가로지른 선에서부터 이마까지 물결무늬처럼 표현하여 형식화되었다. 비교적 크게 묘사한 정상계주와 중심계주의 구슬 안에는 붉은색으로 겹무늬를 나타내었고, 정상계주 위로 3가닥의 흰 광선이 흘러나오고있다. 이목구비(耳目口鼻)는 얼굴에 비해서 큼직하게 표현하였고, 반달형의 가는 눈썹과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 뭉툭한 코와 붉은 입술 주위에 형식적으로 꼬불거리는 콧수염과 턱수염 그리고 큰 두 귀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는 생동감(生動感)을 느낄 수 없으나 엄숙한 표정이다.

신체는 양(兩) 협시불(挾侍佛)에 의해서 일부 가려졌으나 얼굴에 비해 건장하다. 가슴에 두손을 모아 왼손의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세워 오른손으로 감싼 이른바 지권인(智拳印)을 취하고 있는데 신체에 비해 큼직하다. 법의(法衣)는 두 어깨를 감싼 통견(通絹)으로 검붉은 바탕에 원문(圓紋)으로 치장하였고, 옷깃에는 점문(點紋)으로 치장하였다. 승가리의 끝단에는 몇줄의 선으로 처리하였다. 승가리는 요철법으로 의습(衣褶)을 나타내었고 일부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오른쪽의 석가불(釋迦佛)도 본존과 같은 모습으로 원만(圓滿)한 얼굴에 나발(螺髮)머리의 윤곽선만을 나타냈는데 이마에도 물결무늬로 처리하였다. 수인(手印)은 왼손은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을 맞댄 이른바 아미타구품인(阿彌W陀九品印)의 하나인 중품중생인(中品中生印)을 취하고 있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항마촉지인(降魔觸W地印)을 취하고 있다. 통견(通絹)의 법의(法衣)는 검붉은 바탕에 흰색의 원문(圓紋)을 묘사하였고 옷깃의 테두리를 선(線)과 점문(點紋)으로 처리하였다. 가슴이 넓게 파진 승가리의 안에는 영락(瓔珞)으로 치장한 띠매듭으로 처리하였다. 연화대좌(蓮華臺座)위에 두발을 힘차게 밟고 있고 발등은 두툼하여 건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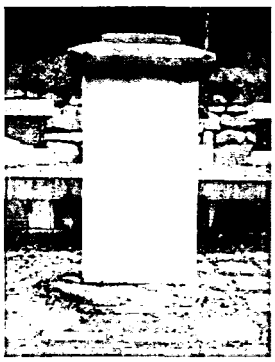
48) 『괘불조사보고서 Ⅰ』, 문화재관리국, 1992년에 실린 청계사 괘불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왼쪽의 노사나불(盧舍那佛)은 보살(菩薩)의 형태가 아닌 불(佛)의 형태로 머리에는 본존과 같은 윤곽선만 표시된 나발(螺髮)에 높은 육계를 하고 있다. 얼굴의 모습은 본존과 거의 동일하다. 어깨 부근에서 설법인(說法印)을 취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고 왼손도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법의(法衣)는 삼신불(三身佛)이 거의 같은 모습인데 군의(裙衣)만 색깔을 달리하였다. 본존인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은 분홍색(粉紅色), 석가불(釋迦佛)은 옅은 녹색(綠色)으로 노사나불(盧舍那佛)은 짙은 녹색(綠色)으로 채색(彩色)하여 화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화기(畵記)에 의하면 서울 근교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고 왕실(王室)과 관련 있는 사찰(寺刹)로서 시주자(施主者)가 역시 상궁(尙宮)이다. 즉 상궁(尙宮) 차씨(車氏)가 주상전하(主上殿下)와 왕비전하(王妃殿下)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빌고 있다

바. 청계사사적비(淸溪寺史蹟碑)

- 지정및번호 : 비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조선 후기(1689년)
- 규 모 : 높이 174cm, 폭 92cm, 두께 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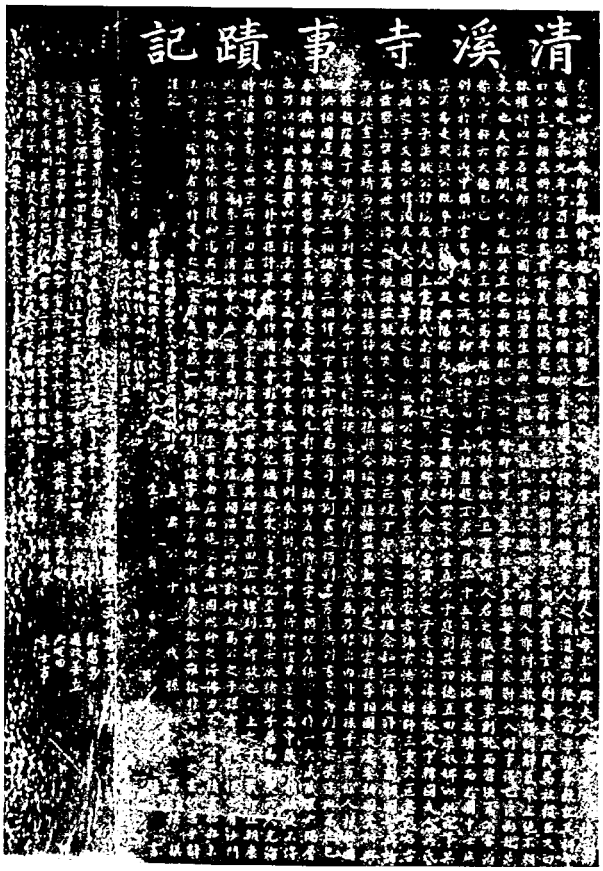


[사진 2-30] 청계사사적비 (201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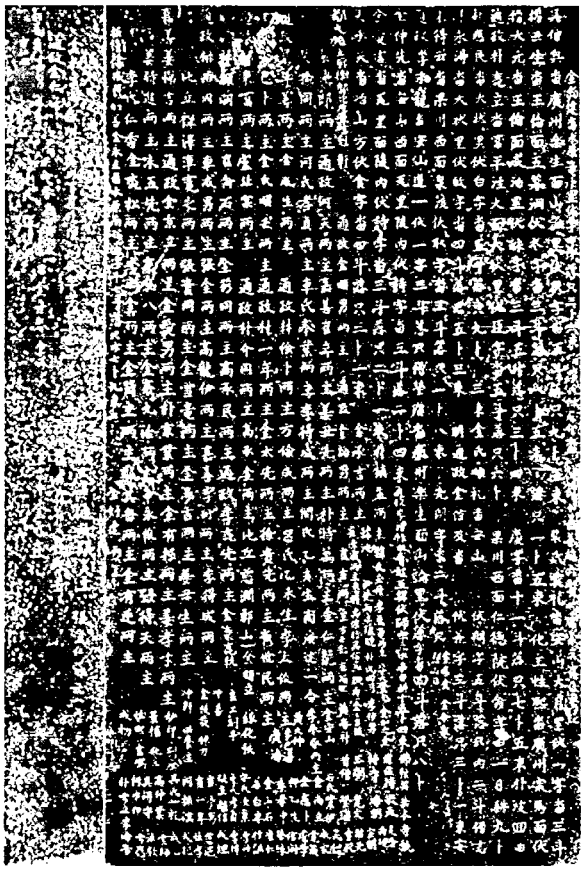
청계사 경내로 들어가기 전 동쪽 입구에는 1689년 건립된 청계사사적비가 자리하고 있다. 사적비 비신의 규모는 높이 174cm, 폭은 92cm, 두께 26cm이고 상부 옥개석은 115×34cm이다. 자연암반의 비대석 위에 화강암으로 된 비신을 꽂고 그 위에 팔작지붕의 개석을 얹은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49] 비신 상단에 횡서(橫書)로 '청계사사적비(淸溪寺史蹟碑)'라고 새겨져 있고 1689년 6월 조인규(趙仁規)의 11대손으로 과거에 새로 급제한 조운(趙橒)이 글을 짓고 생원인 윤창적(尹昌績)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문의 주요내용은 조인규와 후손에 관한 기록과 그들을 기리기 위해 청계사 안에 영당을 만들어 봉안한 내력, 왕의 행운을 축원하기 위한 청계사의 창건과 임진왜란 때 소실 이후 중수, 그리고 1689년 화재로 또다시 소실되는 악재를 겪은 후 중수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사적비에 새겨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9) 토지박물관,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년



[사진 2-31] 청계사사적비 탁본1(앞과 왼편/ 조동원 편, 『한국금석문대계 5. 경기도』, 원광대학교출판국, 1988년



[사진 2-32] 청계사사적비 탁본2(뒤와 오른쪽/ 조동원 편, 『한국금석문대계 5. 경기도』, 원광대학교출판국, 1988년

[번역문]

청룡산 청계사는 즉 고려 시중 조숙정공의 별당이다. 공의 휘는 인규(仁規)요, 자는 거진(去塵)이요, 평양부 삼원군 사람이다. 어머니 토산군부인(土山郡夫人) 이씨(李氏)의 꿈에 해가 품에 들어와서 임신하여 원나라 태종 9년 정유(1273년)에 공을 낳았다.

공의 성덕과 많은 공적은 가승과 국사에 실려 있으므로 다시 논할 바가 못되고 고인이 공을 칭송한 바가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가정 이곡이 쓴 사당기가 그것이다. 사당기에 이르기를 "공은 나면서부터 영리하고 명민하였고 웅위하였으며, 말이 적고 풍채는 수려하였는데, 4대의 왕을 보필하여 원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처음에 예복을 입고 조정에 들어가 사신과 통역하고 마침내 왕을 받들고 백성을 비호하는 사직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권간(權奸)을 몰아내어 명분을 바르게 하고, 도읍을 회복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화목하고 편하게 살게 하였다"고 하였다. 원나라 세조 역시 일찍이 공을 보고 탄복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고려인 같지 않도다. 어찌 그 진술하고 접대함이 그리 상세하고 분명한가. 언사와 행동거지가 고려인과는 갖지 않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무릇 가정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박이다. 원나라 세조와 같은 영주도 이와 같이 경탄하였으니 공의 현명함을 엿볼 수 있다.

고려 말에 북방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원에 이를 진주(陳奏)할 때마다 공을 보냈고, 공이 가면 일이 잘 해결되어 얻은 바가 많았다. 필마로 원으로 간 것만도 30여회나 되었다고 한다. 대덕 을사년(1305

년)에 충렬왕은 공을 평양백(平壤伯)에 봉하고 관료들을 배치하여 조회 때는 홍개(紅盖)와 옥대(玉帶)를 갖추도록 하였으니 왕은 지극한 의례로써 공의 총애하심이 이러하였고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는 공에게 자문을 받아 일을 결정하였다.

공은 일찍이 청계산에 별장을 짓고 또 소당을 지어 그곳에서 시를 읊었다. 또 청계사를 창건하여 왕을 축원하였다. 정미년(1307년)4월 25일에 병이 위독해져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단정하게 앉아 운명하니 국중의 신비와 백성들이 단 분주히 달려와 통곡하였다. 공이 졸한 뒤에 자손들이 공과 흥양군부인(興陽郡夫人)의 초상을 그려 별장의 소당에 간직하고 뜰에 비석을 세워 그 공덕을 새겼으며, 전답과 노비를 두어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 후 공의 장남 장민공(莊敏公) 휘 서(瑞)와 부인 상당한씨(上黨韓氏), 차남 충숙공 휘 련(璉)과 상락군부인(上洛郡夫人) 김씨(氏), 충숙공의 아들 문정공(文靖公) 휘 덕유(德裕)와 변한국부인(卞韓國夫人) 오씨(吳氏), 문정공의 아들 문충공(文忠公) 휘 준(浚)과 부인 고성이씨(固城李氏)의 초상도 아울러 소장하였다. 공의 아들 가운데 또한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으나 출가하여 승려가 된 분이 있었는데 이는 호가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인 삼중대광(三重大匡) 자은군(慈恩君)이다. 이가 일찍이 이 별장에서 살았는데, 이의 초상 역시 여기에 있다.

세월이 흘러 관리가 소홀하여 장민공과 그 부인의 영정은 자못 결손되고 더러워졌으므로 정덕 정묘년(1507년)에 6대손 첨지 니득(尼得)과 외현손 상국 남지(南智)가 여러 자손들과 더불어 초상을 개화하였다. 가정 병인년(1566년) 겨울에는 공의 10대손 만종(萬鍾)과 문충공의 6대손 현령 현(玹), 현손 현감 창훈(昌勳), 공의 외운손 상국 이준경(李浚慶), 상국 이명(李蓂) 등이 함께 중수하였다.

융경 정묘년(1567년)에 현(玹)과 판서 보(溥) 등이 영당에 제사하고 장차 역사를 일으키려 하였는데 마침 국상이 있어 즉시 행하지 못하고 무진년(1568년) 봄에 이르렀다. 이에 내외의 제손 1200여 명을 동원하여 역사하였는데, 상국 권철(權轍)·상국 홍섬(洪暹)이 돈을 내고, 이상 오겸(吳謙)과 이상 이탁(李鐸) 이하 50여 명이 유사가 되고, 판서 원혼(元混)·판서 조수언(趙秀彦)·판서 홍담(洪曇)·판서 정종영(鄭宗榮) 등 모두가 이에 참여하였다. 기사년(1569년) 봄에 현(玹)이 우(玗)·창훈(昌勳)·순빈(舜賓)·철명(哲命)·희생(喜生)·경복(景福)·응량(應亮) 등과 함께 공인을 모아 역사를 일으켜, 무릇 영정의 결손되고 더럽혀진 곳을 깨끗이 고치고 기울어지고 허물어진 사우를 고쳤다. 또한 보관소 하나를 짓고 여섯 칸의 함을 만들어 정숙공 이하의 영정을 비단으로 싸서 함 속에 안장하고 당우의 동쪽 따뜻한 방에 봉안하였다.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들어 당중에 내어 걸어 예를 올리고, 예가 끝나면 다시 함 속에 봉안하여 자물쇠로 잠궈 두었으며 사사로이 열고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공의 8대 외손 초당(草堂) 허엽(許曄)이 영당중수기를 짓고,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이 이를 기록하였으나 만력 임진년(1592년)에 이르러 모든 영당이 전부 병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광해군 때 청계사는 폐세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전답과 노비는 궁가(宮家)나 사호들이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 비석의 비문을 깎아 버렸는데 이는 대개 그 전답과 노비를 비에 새겼기 때문이다. 숙종 15년(1689년) 봄 3월에 청계사에 화재가 나서 백년 고찰이 흔적 없이 재가 되고 말았으니 이 어찌 승려들만 함께 탄식함으로 그칠 일이겠는가.

공의 자손들 역시 심히 탄식하였으니, 불제자로서 성의가 있는 자가 있어 개연히 모연하여 재건을 도모하였다. 그 재화를 시주한 자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또한 전답을 내어 시주한 자까지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희사(熙師)가 불력을 얻은 것이 아니겠으며, 또한 공의 정령이 끝없이 빛나서 음으로 도와

준 바가 아니겠는가. 이에 사찰의 전우와 낭무 등이 완연하고 한결같이 새롭게 되었고, 또 장차 청계사의 사적을 돌에 새겨 후세에 보이고자 나에게 기록을 부탁하니 내 비록 문사에 졸열하나 공의 후손으로서 어찌 사양하겠는가. 삼가 기록한다.

정숙공 11대손 새로 급제한 운(榲)은 글을 짓고 생원 윤창적(尹昌績)은 쓰다.

숭정 기원후 기사년(1689년) 6월 일[50]

[비문]

淸溪寺事蹟記碑

靑龍山淸溪寺即高麗侍中趙貞肅公之別墅也公諱仁規字去塵平壤府祥原郡人也母土山郡夫人李氏夢日入懷已而有娠元太宗九年丁酉生公之盛德豊功備載於家乘國史不復論著而姑擧古人之稱道者而證之曰李稼亭記其祠堂曰公生而穎異明敏雄偉寡言語美風儀弼亮四世蔚爲元臣又曰始則束帶立朝與賓客言終則尊主庇民爲社稷臣又曰誅權奸以正名復都邑以定國使海隅蒼生熙熙奠枕元世祖亦嘗見公歎曰汝非國人耶何其敷對詳明辭氣擧止絶不類東人也夫稼亭聞人也元祖英主也而其敬服如此公之賢即可見矣麗季北事多艱每遣公奏對公入則事得已匹馬赴燕者凡十數云大德乙巳忠烈王封公爲平壤伯置官僚受朝會紅盖玉帶寵以人君之儀禮國有事則就而咨決焉公嘗治別墅於淸溪山中構小堂爲嘯咏之所又刱淸溪寺爲上祝釐越丁未四月二十五日疾革沐浴更衣靖坐而逝國中士庶莫不奔走哭泣公旣卒子孫繪公及興陽郡夫人趙氏之眞藏于別墅之小堂立石于庭刻其功德置田庄奴婢以供祀事其後公之子莊敏公諱瑞及夫人上黨韓氏忠肅公諱璉及上洛郡夫人金氏忠肅公之子文靖公諱德裕及卞韓國夫人吳氏文靖之子文忠公諱浚及夫人固城李氏之眞並藏焉公之子又有官至參議而出家者號玄悟大禪師三重大匡慈恩君嘗住玆墅亦留眞焉世代降而護視疎莊敏及夫人影幀頗有缺汚正統丁卯公之六代孫僉知仁得及外玄孫南相國智與諸子孫改畫焉嘉靖丙寅冬公之十代孫萬鍾文忠六代孫縣令玹玄孫縣監昌勳及公之外雲孫李相國浚慶李相國相與重修越隆慶丁卯玹及李判書溥等祭告于影堂將起役適以國哀未即行至戊辰春乃錄出內外諸孫千二百餘人權相國轍洪相國暹出文而吳二相謙李二相鐸以下五十餘員爲有司元判書混趙判書秀彦洪判書曇鄭判書宗榮皆與焉己巳春玹與珥昌勳舜賓哲命喜生景福應亮等募工作役凡影子之缺汚者改繪室宇之傾圮者繕治又作一大藏藏置六隔層函乃以綃袱裹貞肅以下影子安于函中奉安于堂東溫室有事則奉出掛于堂中而行禮禮畢還安函中藏有鎖鑰使不得私自開閉於是公之外雲孫許草堂曄作淸溪寺影堂重修記礪城君宋寅書其記至萬曆壬辰諸影堂悉爲兵燹所失光海時淸溪寺爲廢世子所占田庄奴婢又爲宮家及豪民所奪而磨其碑盖其田庄奴婢刻于碑故也上之十五載即北朝康熙二十八年也是年春三月淸溪寺火五百年舊刹蕩然爲灰燼豈獨緇流所共歎抑亦爲公之子孫者之所沈恨也有沙門性熙者慨然募緣圖復刱建其施以財貨者不可殫記而至有擧田庄而施之者此固熙師之得佛力不乃公之精靈昭昭未沫而有所陰騭者耶於是寺之殿宇廊廡宛然一新又將刻淸溪事蹟于石以示後屬余記余雖拙於文以公之雲仍惡乎辭

謹記 貞 肅 公 十 一 代 孫 新 及 第 榲 撰
生 員 尹 昌 績 書
崇禎紀元後己巳六月 日

50)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불적자료집』, 1999년에 실린 번역문을 가감없이 옮김

사. 조인규사당기비 (趙仁規祠堂記碑)

- 지정및번호 : 비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 시 대 : 고려 충렬왕 34년(1344년)
- 규 모 : 높이 175cm, 폭 82cm, 두께 17cm

[사진 2-33] 조인규사당기비 (2011년 11월)

청계사 입구 비석군에는 청계사사적비와 함께 또 하나의 오래된 비석이 세워져있다. 청계사를 창건한 조인규의 사당기비로 사후에 후손들이 그의 공덕을 새겨 자손들이 익혀 듣고 선군의 뜻과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려고 세워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대 명문장가 가정(稼亭) 이곡(李穀, 1298~1351)에게 사당 건축의 전말을 '조정숙공사당기(趙貞肅公祠堂記)'라는 제목으로 짓게 하여 후세에 남겼다. 이 글을 돌에 새겨 당시 유행하던 방부규수(方趺圭首)[51] 양식으로 1344년에 건립하였다.[52] 화강암의 비석 받침은 3단으로 층이 지게하고, 백대리석[53] 비신 위쪽의 양끝을 말각으로 처리하였다. 비석 받침의 하단이 매몰된 것을 제외하고는 외관상 형태가 양호해 보이나 비신이 한때 절단되어 접합시켜 놓은 상태이고 비문의 마모도 극심한 실정이다. 그래서 앞면의 겨우 비신 상단에 올린 '조정숙공사당기(趙貞肅公祠堂記)'라는 큰 전액(篆額)만이 육안으로 판독될 뿐 나머지 글씨는 완벽하게 마멸되었다.[54]

그러나 이곡의 글이 담긴 『가정집(稼亭集)』 권3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1932년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에서 발행한 『대동금석서해제(大東金石書解題)』에 실린 탁본을 보면 이때까지는 글씨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제부분에서 이곡이 글을 짓고 왕수성(王守成)이 비문을 써서 '원순제지정사년갑신립(原順帝至正四年甲申立) 려충혜왕입사년야(麗忠惠王立十四年也)'라고 기술하고 있어 1344년에 입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인규사당기비에 관한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8권 「과천현(果川縣) 불우조(佛宇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淸溪寺在淸溪山有李穀所撰平壤府院君趙仁規祠堂記'라고 기록하고 있어 조인규사당기비의 연대가 오래 되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뒷면에는 청계사에 토지를 기중한 시주자의 명단과 그 내역이 여기저기에 나뉘어져 몇줄씩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이중 '건륭삼십삼년무자삼월(乾隆三十三年戊子三月)'과 '건륭사십이년정유사월일(乾隆四十二年丁酉四月日)'이라는 연대가 적혀있어 주목된다. 각각 1768년(영조 44년)과 1777년(정조 1년)에 해당되는 조선시대에 추각(追刻)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55]

현재 조인규사당기비 맞은편에는 1996년 평양조씨 대종회에서 새로 세운 조정숙공사당기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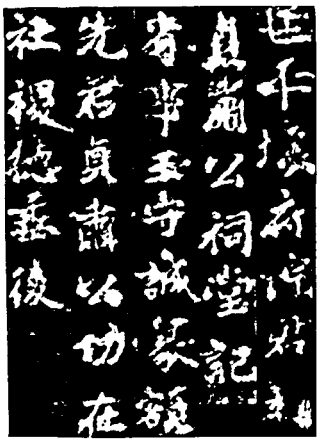
51) 방부규수(方趺圭首) : 방형의 비대석 위에 세운 비신의 윗부분이 각이 진 것을 말한다.

52)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인규사당기비의 연대는 1341년(충혜왕 복위 2년)이후라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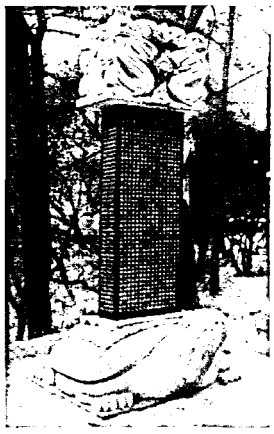
53) 의왕시 문화체육과의 문화재대장과 청계사에서 소자하고 있는 자료에는 화강암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석의 가치가 있는 만큼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4) 『경기금석대관 4』, 경기도, 1990년 /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에서 재인용

55) 『비지정 문화재 조사보고서』, 경기도, 2000년 /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에서 재인용



[사진 2-34] 조인규사당기비 탁본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대동금석서해제』, 조선인쇄주식회사인쇄, 1932년 / 이 우, 『대동금석서』, 아세아문화, 1979년 재발행)



[사진 2-35] 1996년 평양조씨 대종회에서 새로 세운 조정숙공사당기 (2011년 11월)

[번역문]

○ 지정(至正) 원년(충혜왕 복위2년, 1341년) 봄 내가(묘지명 찬자인 李穀) 정동막(征東幕)에 있을 때 찬성사(贊成事) 조공(趙公)이 조카 평원군(平原君)과 함께 가전(家傳)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글을 청하면서, "선군(先君) 정숙공(貞肅公)은 조정에 공로가 있고 덕을 후세에 끼쳤는데, 비록 무덤에 묘지명이 있으나 신도(神道)에 비가 없습니다. 집안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 오래 되어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선군은 일찍이 집 뒤에 당(堂)을 짓고 평소 거처하는 처소로 삼고 지원(祗園)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선군의 화상을 걸고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네모난 돌을 뜰 가운데에 세워 그 공덕을 새겨 자손들이 익혀 듣고 새겨서 선군의 뜻과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대는 사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임기가 차서 원나라 수도로 돌아가게 되어,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지금 정숙공의 아들 삼장법사(三藏法師) 선공(旋公)이 연산(燕山)에 머무를 때 매번 나를 볼 때 말이 그 일에 미치게 되면, 또 말하기를, "비록 불법(佛法)을 배우지만 끝이 없이 지극한 아버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말이 더욱 간절하고 청하는 것이 더욱 근실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그 대강을 서술하고자 한다.

천하가 생긴지 오래되어, 한 번 잘 다스려 지면 한 번은 어지러웠다. 가까이 당나라가 쇠약하자 오계(五季)가 크게 혼란하였다. 요(遼)나라와 금(金)나라는 송나라와 함께 남북으로 분열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아,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하늘이 경사스런 운수를 열어 주어 성인이 계속해서 나고 이름난 신하가 많이 나와서 육합(六合 : 상·하와 사방)을 하나로 통일하고 여러 사람의 뜻을 정하였다. 문궤(文軌)를 같이 하고 풍속을 변화시켰다. 주역에 이르기를, "크도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의지하여 시작해 나온다." 하였으니, 그것은 오직 원나라뿐이다.

정숙공은 태종(太宗) 9년 정유년(고종 24년, 1237년)에 태어났다. 그 때 겨우 변채(汴蔡)의 땅을 거두어 들여 천하가 거의 평정되었으나 남쪽으로 정벌하고 북쪽으로 토벌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고려는 비록 이미 귀부했으나 권신(權臣)의 통제를 받아 강화에 있으면서 술직(述職)하는 것을 제때 하지 않아 원나라 군사가 국경을 압박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안위에 처했고, 인심이 순응하거나 배반하려는 무렵이

었다. 풍속과 습관이 변하기 시작하여 삼한이 다시 처음과 같이 건설되는 때였다.

당시 이(夷)와 하(夏)가 처음으로 통하여, 위로 덕을 선포하고 아래로 정을 통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공은 화어(華語)를 잘하고 언변에 능숙하여, 발탁되어 높이 날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조정에서 빈객들과 말을 통하였고, 끝에는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여 사직의 신하가 되었으니, 공의 일생을 보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지원(至元) 기사년(원종 10년, 1269년) 공은 충렬왕이 세자로 원나라에 갈 때 함께 갔다. 갑술년(충렬왕 즉위, 1274년) 황제의 딸을 맞이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 임금을 대하면 이해(利害)를 아뢰고 죄를 질 각오로 어렵고 험한 일을 겪으면서 권세 있는 간사한 무리를 제거하여 명분을 바르게 하고 도읍을 회복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였다. 우리 백성들이 희희낙락하게 베개를 편히 베고 지금까지 온 것은 공의 공로가 많았다. 처음 원나라에서 보낸 사신 흑적(黑的)이 감정을 품고 말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켜 황제에게 잘못 보고한 것, 탐라와 평양 사람을 원나라에 직속시켜 그 주인을 배반하게 한 것과 고려에 주둔한 원나라 군사 가운데 해를 끼친 자들을 모두 파면해서 돌아가게 하였다. 그 뒤 유리하는 백성과 노략질을 당하여 요동과 심양에 붙들려 있던 자를 모두 제 나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든가, 간사한 신하들이 의논을 발의하여 두 번째 일본을 정벌하고자 하여 군대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해롭게 한 일을 중지시킨 것도 모두 공이 황제에게 힘써 잘 대답한 때문이다. 무릇 왕이 공을 보내 황제에게 아뢰게 하면, 황제는 곧 공을 불러 들여 위로하고 공이 아뢴 것을 일찍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조(世祖)가 한 번은 "너는 원나라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아뢰고 대답하는 것이 상세하고 분명하고, 말과 행동이 조금도 동쪽나라 사람 같지 않구나." 라고 하였다. 아 나라를 중흥시킨 공은 공보다 나은 사람이 없구나.

공의 이름은 인규(仁規), 자는 거진(去塵)이다. 평양군 사람이다. 아버지 형(瑩)은 금자광록대부 추밀원부사(金紫光祿大夫 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이씨는 내원승(內園丞) 문간(文幹)의 딸로 토산군부인(土山郡夫人)에 봉해졌다. 부인의 꿈에 해가 품속으로 들어오더니 얼마 있다가 태기가 있어 공을 낳았다.

공은 나면서부터 남달리 뛰어났고, 장난하고 희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좀 자라 글을 읽을 수 있고 대강 뜻을 통하자, 곧 그만두고 무반직에 종사하였다. 처음에는 하급 간부로 시작하여 여러 번 승진하여 장군이 되고, 지합문사(知閤門事), 어사중승(御史中丞), 좌승선(左丞宣)이 되었다 네 번 승진하여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가 되고 또 승진하여 어사대부 태자빈객(御史大夫 太子賓客)이 되었다. 빈객에서 금자광록대부 지문하성사(金紫光祿大夫 知門下省事)가 되었다가 곧 평장시랑(平章侍郎)으로 승진되었다. 경인년(충렬왕 16년, 1290년) 특별히 가의대부 고려왕부단사관(嘉議大夫 高麗王府斷事官)에 임명되고, 이어 금으로 된 호부(虎符)를 받아 공의 능력을 드러내었다. 임진년(충렬왕 18년, 1292년) 시중(侍中)이 더해졌다. 대덕(大德) 을사년(충렬왕 31년, 1305년) 다시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로 승진되었다. 정미년(충렬왕 33년, 1307년) 나이가 많아 사직할 것을 청하자 공신 칭호를 하사하고,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졌고 부를 설치하여 관원을 두게 하였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공의 집에 가서 물어서 결정하게 하였다. 이듬해 병이 나자 아들들이 훌륭한 의원을 청하여 보게 하였다. 공은 "내가 머리 올려 상투를 짜면서부터 나라 일에 봉사하여 나이 이제 70이 넘었고 벼슬이 1품에 이르렀다. 또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는 것인데 의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였다. 그 때에 여러 아들들이 모두 원나라 서울에 있고, 오직 충숙공 만이 옆에 모시고

있었다. 공이 부탁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집을 다스려야 한다. 시경에 '형과 아우가 있으면 실로 서로 좋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집에는 동기(同氣)가 많이 있으니 부디 화내고 다투지 말라. 남의 웃음거리가 되리라. 너의 형제가 다 오거든 갖추어 기록하였다가 훈계하고 그것을 가법(家法)으로 삼으라." 라고 하였다. 4월 25일에 병이 위독하므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서 운명했다. 나라의 여러 선비와 서민들이 쫓아가서 곡하면서 말하기를, "공이 평생에 정직하다고 들었더니, 이제 그대의 죽는 것을 보니 바로 살아있을 때를 알 수 있겠다." 하였다. 부고가 왕에게 올라가자, 왕은 "하늘도 무심하여 원로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다."고 탄식하며, 부의하고 장사지내는데 예절을 다하게 하고 시호를 정숙공(貞肅公)이라 내려 주었다.

부인은 사재경(司宰卿) 조온려(趙溫呂)의 딸로, 5남 4녀를 낳았다. 장남 서(瑞)는 과거에 급제하여 특별히 회원대장군 고려부도원수 삼사사(懷遠大將軍 高麗副都元帥 三司使)로 임명되었고 시호는 장민공(壯敏公)이다. 둘째 연(璉)은 중의대부 왕부단사관 첨의찬성사(中議大夫 王府斷事官 僉議贊成事)이며,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 셋째 연수(延壽)는 춘관(春官)에 급제하여 특별히 소용대장군 관군만호 삼사사(昭勇大將軍 管軍萬戶 三司使)에 임명되었다. 넷째 의선(義旋)은 정혜원통 지견무애 삼장법사(定慧圓通 知見無礙 三藏法師)로서 천원 연성사주지 겸 본국영원사주지 본국우세 정명보조 현오대선사 삼중대광 자은군(天源 延聖寺住持 兼 本國瑩原寺住持 本國祐世靜明普照玄悟大禪師 三重大匡 慈恩君)이다. 다섯째 위(瑋)는 중대광 첨의찬성사(重大匡 僉議贊成事)이다. 큰 딸은 좌승선(左丞宣) 노영수(盧穎秀)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강절평장(江浙平章) 오마아(烏馬兒)에게 시집갔으며, 셋째는 대호군(大護軍) 백승주(白承珠)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호부시랑(戶部侍郎) 염세충(廉世忠)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몇 명이 있다. 원수(元帥 : 서)의 장남 굉(宏)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교부령(典校副令)이다. 다음 천이(千禩)는 진사에 급제하여 지금 밀직부사(密直副使)이며, 다음 천유(千裕)는 원윤(元尹)이다. 딸은 안길왕(安吉王) 야아길니(也兒吉尼)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판서(判書) 김경직(金敬直)에게 시집갔으며, 그 다음은 연덕대군(延德大君) 진(瑱)에게 시집갔다.

단사관(斷事官 : 연)의 장남 사민(斯民)은 지금 낭장(郎將)이다. 다음 덕유(德裕)는 지금 봉의대부 왕부단사관 판전의시사(奉議大夫 王府斷事官 判典儀寺事)이다. 그 다음이 윤선(允瑄)이고, 그 다음은 보해(普解)이며 머리를 깎고 중천태교선(中天台敎選)이다. 큰딸은 만호(萬戶) 권형(權衡)에게 시집갔으며, 그 다음은 우상시(右常侍) 김상린(金上璘)에게 시집갔다.

만호(萬戶 : 연수)의 장남 충신(忠臣)은 지금 선무장군 관군만호 삼사좌윤(宣武將軍 管軍萬戶 三司左尹)이며, 다음은 신(信)이다. 딸은 낭장(郎將) 김휘산(金暉山)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상호군(上護軍) 윤지표(尹之彪)에게 시집갔다.

찬성사(贊成事 : 위)의 아들 흥문(興門)은 지금 소부윤(少府尹)이다.

외손도 몇 명있다. 장녀의 아들 탈(頉)은 지금 경양군(慶陽君)에 봉해 있다. 딸은 판서 허부(許富)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삼사사(三司使) 김상기(金上琦)에게 시집갔다. 셋째 딸의 아들 충윤(忠胤)은 지금 전리좌랑(典理佐郎)이다. 딸은 상호군 이권(李權)에게 시집갔으며, 그 다음은 별장(別將) 김오만(金五萬)에게 시집갔다. 넷째 딸의 큰 아들 효신(孝臣)은 지금 삼사좌윤이며, 다음 불노(佛奴)는 지금 익정시승(翊正寺丞)이고, 딸은 호군 민현(閔玹)에게 시집갔다. 증손 이하는 매우 많으므로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

공은 성질이 명랑하고 민첩하며 외양이 웅장하고 크며 말이 적고 풍채가 아름다웠다. 물건에 접촉할 때 관대하고 화평하며 일을 대하면 강직하고 정대하여 4대의 임금을 도와서 장하게도 원로가 되었다.

성품이 또 착한 것을 좋아하여 남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더욱 불교에 독실하여 청계불사(淸溪佛寺)를 창건하고 임금을 위하여 복을 축원할 때, 묘전(妙典)을 금으로 쓰고 해장(海藏)을 먹으로 판박이고 불상(梵像)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이다.

집을 다스리는 데 엄격하고, 아들 가르치기를 옳은 것으로 하여 공이 늙기 전에도 많은 자손들이 달관명사(達官名士)가 되어서 중외(中外)에 널리 있었고, 죽은 뒤에도 모두 가훈을 따라서 효도하고 우애하기를 화락하게 하여 사람이 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시구(尸鳩)의 평균함과 척령(脊令)의 어려움을 급히 여기는 것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의 정은 오래 되면 날로 잊는 것인데, 공은 죽은 지 36년이 넘었지만 그런데도 또 인멸되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여, 죽은 이 섬기는 것을 산 사람처럼 하는 것이 이 같으므로 이것을 기록하노라.

[趙貞肅公祠堂記]

省事王守誠篆額」

○ 至正改元春殼在征東幕贊成事趙公與其姪平原君持家傳來徵予文曰先君貞肅公功在社稷德垂後世雖銘諸幽堂而神道未有碑家乘國史人鮮得窺恐久湮沒無聞且先君嘗於舍後作堂爲燕居之所因稱祇園今欲於其中垂先君像以時致祠立圭石庭中具刻功德俾子若孫習聞佩服無墜先志無忘先訓子其母辭予時方任滿還都未有以應之也今貞肅公之子三藏法師旋公住錫燕山每見予語及其事且言雖學浮屠法昊天罔極恩何敢忘其言益切而其請益勤殼迺叙其大概曰天下之生久矣一理一亂近自唐家旣衰五季大亂遼金與宋南北分裂戰爭不息生民之塗炭極矣天開景運聖人繼作名臣輩出一六合定群志同文軌變風俗易曰大哉乾元萬物資始其惟皇元乎貞肅公生於太宗九年丁酉歲時甫收汴蔡天下幾定而南征西伐尙猶未已本國雖已歸郡而制於權臣寓都江華述職不時以致天兵壓境此亦國步安危之機人以向背之際俗習遷變之始而三韓之再初也當是之時夷夏始通宣上德達下情動資舌人而公以能華言善辭令拔擢飛騰始則束帶立朝與賓客言終則尊王庇民爲社稷臣觀公之生豈偶然哉至元己巳忠烈王以世子入覲公實從之甲戌釐降帝女令襲王位其入對冕旒歷陳利害出負羈紲備嘗艱險誅權姦以正名復都邑以定國使海隅蒼生熙熙奠枕迄至于今緊公之功居多焉初朝廷所遣黑的畜惑飾詞欲事紛更已誤天聽耽羅平壤之人直隸內郡反吠其主與夫留屯將率之耗害者尋皆罷去其後流民及被掠爲遼瀋所蔽者悉使歸國槪佞臣倡議再征日本欲因軍興盭賊我邦事得中止皆由公汗馬專對之力也凡王之遣公奏請也趣召入見慰撫良渥所言未嘗不允世祖嘗謂曰汝非國人也何其敷對詳明辭色擧止絶不類東人也於戲第其中興之功無出公之右者矣公諱仁規字去塵平壤郡人考諱瑩贈金紫光祿大夫樞密院副使妣李氏內園丞文幹之女封土山郡夫人夫人夢日入懷己而有身遂生公生而穎異不好嬉戲稍長知讀書略通大意卽去從虎職始由諸校累遷將軍知閤門事御史中丞左承宣四轉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再遷御史大夫太子賓客由賓客陞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就陞平章侍郎庚寅特授嘉議大夫高麗王府斷事官仍降金虎符以旌其能壬辰加侍中大德乙巳再進判都僉議司事丁未引年乞退錫功臣號封平壤君開府置官僚國有大事卽其家咨決焉明年遘疾于第迎良醫入公曰吾結髮徇國年踰七旬官至一品且死生有命醫何能爲時諸子赴都唯忠肅侍側囑之曰欲理其國先齊其家詩不云乎兄及弟矣式相好矣無相猶矣汝家夥同氣愼毋忿爭爲人所笑待汝兄弟來其具訓之以爲家法四月二十五日疾革沐浴更衣端坐而逝國中士庶奔走哭泣曰聞公平生正直見其死卽知其生矣訃聞王發天不慭遺之嘆賻葬以禮謚曰貞肅媲夫人司宰卿趙公溫呂之女生五男四女長男瑞登科第特授懷遠大將軍高麗副都元帥三司使謚莊敬次琏官至中議大夫王府斷事官僉議贊成事謚忠肅次延壽擢第春官特授昭勇大將軍管軍萬戶三司使次義旋特賜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住天源延聖寺兼住本國瑩原寺福國祐世靜明普照玄悟大禪師三重大匡慈恩君次瑋今爲重大匡僉議贊成事長女適左承宣盧穎秀次適江浙平章烏馬兒次適大護軍白孝珠次適戶部侍郎康世忠孫若干元帥長

男宏及第官至典校副令次千禩第進士今爲密直副使次千裕今爲元尹女適安吉王也兒吉尼次適判書金敬直次適延德大君璜斷事官長男斯民今爲郎將次德裕今爲奉訓大夫王府斷事官判典儀寺事次允瑄次普解祝髮中天台敎選女適萬戶權衡次適右常侍金上璘萬戶長男忠臣今爲宣武將軍管軍萬戶三司左尹次信女適郎將金暉山次適上護軍尹之彪贊成事男興門今爲少府尹外孫若干人長女男煩今封慶陽君女適判書許富次適三司使金上琦三女男忠胤今爲典理佐郎女適上護軍李權次適別將金五禹四女長男孝臣今爲三司左尹次佛奴今爲翊正司丞女適護軍閔玹曾孫以下甚衆皆不載公資明敏器雄偉寡言語美風儀接物寬和執事剛方弼亮四世蔚爲元臣性又好善喜施尤篤於釋敎刱淸溪佛寺爲上祝釐金書妙典墨印海藏繪塑梵像不可勝紀至於持家嚴敎子以義逮公未老子孫多爲達官名士布列中外既沒之後咸遵家訓孝友怡怡人不間言戶鳩平均脊令急難其不愧矣凡人之情日遠日忘公沒殆餘三紀而又圖所以不朽而事亾如存者如此是爲記 (『稼亭集』 권3)

2-3 청계사 관련자료

가. 문헌자료

①『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7년 12월 2일자 기사

○ 의정부(議政府)에서 명찰(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지난 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住持)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천태종(天台宗)에 충주(忠州)의 엄정사(嚴正寺)·초계(草溪)의 백암사(白巖寺)·태산(泰山)의 흥룡사(興龍寺)·정산(定山)의 계봉사(鷄鳳寺)·영평(永平)의 백운사(白雲寺)·광주(廣州)의 청계사(淸溪寺)·영해(寧海)의 우장사(雨長寺)·대구(大丘)의 용천사(龍泉寺)·도강(道康)의 무위사(無爲寺)·운봉(雲峰)의 원수사(原水寺)·대흥(大興)의 송림사(松林寺)·문화(文化)의 구업사(區業寺)·김산(金山)의 진흥사(眞興寺)·무안(務安)의 대굴사(大崛寺)·장사(長沙)의 선운사(禪雲寺)·제주(堤州)의 장락사(長樂寺)·용구(龍駒)의 서봉사(瑞峰寺)이고……

○ 議政府請以名刹, 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 差下住持者, 容或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 諸州資福寺, 皆代以名刹。…… 天台宗: 忠州嚴正寺, 草溪白巖寺, 泰山興龍寺, 定山雞鳳寺, 永平白雲寺, 廣州靑溪寺, 寧海雨長寺, 大丘龍泉寺, 道康無爲寺, 雲峰原水寺, 大興松林寺, 文化區業寺, 金山眞興寺, 務安大崛寺, 長沙禪雲寺, 堤州長樂寺, 龍駒瑞峰寺。

②『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7년 4월 26일자 기사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대부인(大夫人) 안씨(安氏)와 광평(廣平)·평원(平原) 두 대군(大君)이 청계사(淸溪寺)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으니, 이는 비록 작은 일이오나, 아래 백성들이 본받을까 두렵사오니 파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큰 환난(患難)을 겪어 이 같은 작은 일을 베풀었으니 해(害)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司憲府啓: "今爲大夫人安氏與廣平、平原兩大君, 誦經於淸溪寺。 此雖小事, 恐下民則效, 請罷之。"

上曰: "予屢經大患, 設此小事, 未爲害也。" 遂不允。

③『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 즉위년 4월 5일자 기사

○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일찍이 현등사(懸燈寺)의 중 설정을 가두어 두었던 것을 내가 즉시 석방해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설정이 청계사(淸溪寺)에 도착하니 의금부에서 군사를 내어 덮쳐 잡았다고 한다. 설정은 선왕(先王)께서 존경하던 중이며, 신미(信眉)가 거주하던 절의 중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석방해 보내라고 명했는데 군사를 내어 덮쳐 잡았으니, 그 이유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즉시 유서(諭書)를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내려서 설정(雪正)을 덮쳐 잡은 이유를 핵실(覈實)하도록 하고, 또 말하기를, "금후(今後)에는 신미(信眉)가 거주하는 곳에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傳旨承政院曰: "義禁府嘗囚懸燈寺僧雪正, 予卽命放送, 今聞雪正到淸溪寺, 義禁府發卒掩捕。 雪正先王所敬僧, 信眉所住寺僧也。 故已命放送, 而發卒掩捕, 其問所由以啓。" 義禁府啓曰: "本府無有此事。" 卽下諭書于京畿監司, 令覈掩捕之由, 且曰: "今後信眉住處, 毋得侵犯。"

④『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 즉위년 4월 6일자 기사

○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하연(河演)·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의정(右議政) 남지(南智)……를 불러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에게 명령하여 의논하게 하기를, "대행왕(大行王)께서 병인년부터 비로소 신미(信眉)의 이름을 들으셨었는데, 금년에는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사제(私第)로 옮겨 거처하여 정근(精勤) 하실 때에 불러 보시고 우대(優待)하신 것은 경(卿)들이 아는 바이다. 전일에 현등사(懸燈寺)에 거주할 적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설정(雪正)과 도명(道明)을 체포하는 일 때문에 군사를 내어 몹시 놀라게 하였으며, 또 청계사(淸溪寺)에 거주할 때에 광주 판관(廣州判官) 이영구(李英耉)가 또한 이 중을 잡으려고 군사를 내어 몹시 놀라게 하였으니, 이영구는 진실로 잡아다가 죄상(罪狀)을 심문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아직 이를 정지하게 한다. 신미(信眉)는 평소부터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그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주하게 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현등사(懸燈寺)에서 군사를 내어 중을 잡게 하였으며, 청계사(淸溪寺)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한 것은 사세(事勢)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마음을 두고서 이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거주하는 곳에 따라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보살펴 주고 구휼(救恤)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였다. ……

○ 上召領議政河演、左議政皇甫仁、右議政南智……令都承旨李思哲議曰: "大行王, 自丙寅年始知信眉名, 今年移御孝寧第, 精勤之時, 接見優待, 卿等所知也。 前住懸燈寺, 義禁府以捕雪正、道明, 發軍驚駭, 又住淸溪寺, 廣州判官李英耉, 亦捕此僧, 發軍驚駭, 英耉固宜拿問, 今姑停之。 信眉素有疾, 病何以使之安心住在?" 僉議啓曰: "懸燈寺發軍捕僧, 淸溪寺亦如之, 事勢適然, 豈有心而爲之? 隨其住處, 令其道監司, 存恤爲便。

⑤『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 즉위년 4월 9일자 기사

○ 임금이 광주 판관(廣州判官) 이영구(李英耉)가 청계사(淸溪寺)의 중 도명(道明)을 잡아 가둔 것을 가지고 유서(諭書)를 내리기를, "이 중의 죄가 살인(殺人)이나 강도(强盜)에 관여된 것이 아니거든 석방해 보내라." 하였다. ……

○ 上以廣州判官李英耇, 捕囚淸溪寺僧道明, 下諭書曰: "此僧之罪, 非干殺人、强盜, 則放送。" ……

⑥『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 즉위년 10월 2일자 기사

○ 정선(鄭善)이 광주(廣州)에 가서 어미의 분묘(墳墓)를 뵈었다. 윤봉(尹鳳)이 살곶이[箭串] 들에서 전별(餞別)하니, 임금이 호조 판서 윤형(尹炯)과 좌승지(左承旨) 정이한(鄭而漢)에게 명하여 이들을 전별하게 하였다. 정선의 길이 청계사(淸溪寺)를 지나게 되자, 그 어버이를 위하여 승도(僧徒)를 모아서 불경(佛經)을 읽게 하였으니, 명복(冥福)을 빌고자 함이었다.

○ 鄭善往廣州, 謁母墳。 尹鳳餞于箭串平, 上命戶曹判書尹炯、左承旨鄭而漢, 餞之。 善道過淸溪寺, 爲其親, 聚僧徒, 讀佛經, 以薦冥福。

⑦『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단종 1년 6월 24일자 기사

○ 중 각돈(覺頓)을 옥(獄)에 가두었다. 각돈이 탐인(貪忍)하고 흉포(凶暴)하여 간사하게 속이고 꾀가 많았다. 처음에 권연(勸緣)을 업(業)으로 삼다가 일찍이 청계사 암주(淸溪寺菴主)가 되었는데, 토목 역사를 감독하여 다스리는 데 능하였다. 마침 세종이 진관사 수륙사(津寬寺水陸社)를 중수(重修)하고자 하여 토목 역사를 능하게 맡아볼 만한 자를 널리 구하니,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笨)이 각돈을 천거하여 영선(營繕)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

○ 囚僧覺頓于獄。 覺頓貪忍凶暴, 詭詐多謀。 初以勸緣爲業, 嘗爲淸溪寺菴主, 能董治作役。 會世宗欲重修津寬寺水陸社, 旁求能幹興作者, 繕工提調鄭苯薦覺頓, 俾主營繕。 ……

⑧『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0년 7월 13일자 기사

○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임금이 시강관(侍講官) 이맹현(李孟賢)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예문관(藝文館)에서 상소(上疏)하였는데, 말이 자못 자상하다. 거기에 '구언(求言)의 이름은 있으나 구언의 실속이 없다.' 한 것은 참으로 말한 것과 같다. 거기에 '승도(僧徒)는 없애야 하고 사사(寺社)는 폐지해야 하고 사노(寺奴)는 거둬 들여야 한다.' 한 것은,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 하매, 이맹현이 대답하기를, "말이 쓸만 하더라도 문득 대신(大臣)에게 내려서 의논하게 하시면 혹 옛일에 얽매여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 등(臣等)이 구언의 실속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태종(太宗)께서 양종(兩宗)에 소속된 사사만을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셨으니, 지금 양종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폐지해야 하므로, 신 등이 사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김해(金海)의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는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데, 그 절에 있는 한 중이 평소에 계율(戒律)을 지킨다고 일컫더니 뒤에는 사비(寺婢)와 간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며, 광주(廣州)의 청계사(淸溪寺)의 중도 사비를 간통하였으니 중의 도리에 어그러므로, 신 등이 사사의 노비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중은 본디 맑고 깨긋하며 욕심이 없는 것을 도리로 삼는 것이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둔 자는 없애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신 등이 승도는 없애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御夕講。 講訖, 上謂侍講官李孟賢曰: "近者藝文館上疏, 言頗纖悉。 其曰: '有求言之名, 而無求言之實', 誠如所言。 其曰: '僧徒可去, 寺社可革, 寺奴可收', 予亦非不知也, 但其來已久, 不可猝變。" 孟賢對曰: "言雖可用, 輒下大臣議之, 或泥而不行, 故臣等以爲無求言之實也。 太宗存兩宗所屬寺社, 餘悉革之, 今

不屬兩宗者當革之, 故臣等以謂寺社可革也。 金海甘露寺奴婢無慮數百, 寺有一僧, 素稱守戒律, 後通寺婢生子, 廣州靑溪寺僧亦通寺婢, 有違僧道, 故臣等以謂寺社奴婢可收也。 僧本以淸淨寡欲爲道, 在家畜妻者, 不可不去, 故臣等以謂僧徒可去也。" 上曰: "已知之矣。"

⑨『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4년 12월 6일자 기사

○ 위장(衛將) 이종례(李宗禮)가 아뢰기를, "김동(金同)이 물건을 훔친 사람을 고소하므로, 종적을 찾아 수색(搜索)하니, 세 곳이 모두 유생(儒生)의 집이요 훔친 물건은 불경(佛經)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유생이라면, 불경만을 가져갔을 것이다. 혹 유생을 가칭하여 도둑질을 한 자도 있을 것이니, 누구의 아들인지를 따져서 서계(書啓)하라." 하였다. 정원(政院)이 패자(牌子)를 내어, 유생 조문신(趙文新)·유분(柳紛)·김영홍(金永弘) 등 3인을 정원으로 잡아다 물으니, 곧 중학(中學)의 유생이요, 그 조부 등은 모두 이름 있는 조사(朝士)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희맹(李希孟)이 묻기를, "너희들이 청계사(靑溪寺)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하는데, 그러냐?" 하니, 조문신 등이 대답하기를, "절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달 초사흘날에 친구 20여 인과 함께 청계사 아랫마을 인가에 가서 자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절에 올라갔는데, 절에는 중 하나만이 있으므로 불경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올 때에, 중에게 우리들의 행장을 보이면서, '불경만을 가져간다.' 하니, 중이 '어찌 오기를 늦게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학당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 작폐(作弊)하였으니, 유생이 절에 올라가는 것도 죄가 되거니와, 잡물은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불경을 도둑질한 것이 도둑과 다름 없다. 원래 죄를 주어야 하겠으나, 너희들의 말이 정직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니, 이 뒤로는 그러지 말고 학당에 나아가 학업에 부지런하라." 하였다.

○ 衛將李宗禮啓曰: "金同訴告偸物人, 尋蹤搜探, 則三處皆儒生家, 其所偸之物, 只佛經耳。" 傳曰: "若儒生, 則只持佛經矣, 或假稱儒生而爲盜者, 亦有之矣, 其招問誰之子而書啓。" 政院發牌, 捉致儒生趙文新、柳紛、金永弘等三人於政院問之, 乃中學儒生也, 其祖父等, 皆有名朝士也。 同副承旨李希孟問曰: "汝等往靑溪寺, 偸物然乎?" 趙文新等答曰: "非偸取寺物, 今月初三日, 與友二十餘人, 往宿靑溪寺下村人家, 翼日早朝上寺, 寺中只有一僧, 探取佛經而來。 來時示僧以我等所裝曰: '只取佛經。' 僧曰: '何來之晩也?'" 傳曰: "汝等不就學, 登山作弊, 儒生上寺, 亦有罪矣。 雖不取雜物, 其偸佛經, 與盜無異, 固當罪之。 然汝等言直, 故特赦。 後勿如是, 須就學勤業。"

⑩『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4년 12월 19일자 기사

○ …… 김정이 아뢰기를, "전일에 청계사(靑溪寺) 중이 미친 아이들이 불경을 가져간 것을 도둑이라 하고 상달하기까지 하여 그들의 집을 수색하였는데, 다른 장물(贓物)은 조금도 없고, 다만 불경 두어 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광망(狂妄)한 유생이 이단(異端)을 막기 위하여 불경을 빼앗아다 글을 썼으니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전지(傳旨)하시기를, '부형에게 죄를 주고, 장구의 학궁(學宮)에 거처하며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생(儒生)은 법으로 속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데에 유의하시면 자연히 교화(敎化)를 떨치게 되어 오래 지내는 동안에 젖어들어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는데, 유생을 점검(點檢)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공경하여 오교(五敎)2940) 를 펴되 너그럽게 하라.'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법률을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유생들이 학궁(學宮)에 나가지 않는다. 포도장(捕盜將)이 잡은 유생을 심문하니, '나만이 아니다. 전에도 불경을 가져간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언제 글을 읽을 것인가? 학궁에 나가 부지런히 글을 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교한 것이다." 하였다.

○ …… 金淨曰: "頃者靑溪寺僧, 以狂童取其佛經, 稱爲盜賊, 以至上達, 搜探其家, 少無贓物, 只有佛經數卷。 臣意以爲狂妄儒生, 欲拒異端, 奪經寫書, 雖非美事, 然因此而有傳旨云: '加罪父兄, 使長居學宮, 毋得出入。' 然儒生不可以法律繩之, 而束縛之也。 若殿下留意於崇儒重道, 則自然興化, 優游浸漬矣。 國家作成人才, 其以點檢儒生爲之乎? 《書》曰: '敬敷五敎在寬。' 敎學者當如是, 何用法律乎?" 上曰: "近來儒生, 不就學宮。 捕盜將所捕儒生推問, 則曰: '非獨我也, 前此亦有取佛經者多。" 云。 如此則何時讀書乎? 欲令就學勤讀, 故如是敎之。"

⑪『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명종실록(明宗實錄)」명종 12년 2월 27일자 기사

○ 상이 경기 청계사(淸溪寺)의 종 귀석(貴石) 등의 상언(上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경기의 중들은 축성(築城)하는 데에 역사시키고 예목군(曳木軍)과 조지서군(造紙署軍)으로는 역사시키지 말아서 민폐가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비변사와 해조에 이르라. 예부터 중들은 처자가 있어 뿌리박고 사는 사람과는 달라서 모두가 무뢰배나 걸식하는 무리이므로 고역(苦役)이 있으면 새처럼 흩어져 도망하여 장차 큰 폐단이 있게 된다. 때문에 선왕조에서도 중을 역사시킨 때가 드물었는데 혹 있더라도 도첩(度牒)이나 호패(戶牌)를 줌으로써 스스로 기꺼이 역사에 나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을묘왜변(乙卯倭變) 때부터 오랫동안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칠 뿐만이 아니라 일족(一族)까지 침학하므로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곤폐되어감에 따라 점점 도적떼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관계가 중한 방어 이외의 다른 잡역은 일체 면해 주고 혹 방어 때문에 중을 역사시키더라도 도첩과 호패가 없는 자를 시킬 것이요 도첩과 호패를 받은 자는 시키지 말라. 또 봄에 역사시킨 자는 가을에는 시키지 말고 가을에 역사시킨 자는 봄에는 시키지 말아서 고르게 역사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도록 고통에 시달려 원한을 품지 않게 하라는 내용으로 팔도에 하서하라." 사신은 논한다. 이미 거승위전의 세는 지급하고서 양사의 간언을 굳게 거절하였고 또 사노(寺奴)의 진소를 믿고서 팔도에 하서하기 위해 어찰을 정원에 내렸다. 그리하여 도적이 된다는 말을 가탁하여 중을 보호하는 근거로 삼았으니, 상이 이른바 나라의 근본을 염려한다는 말은 다만 나라의 근본을 망치기에 족한 것이다.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중들은 본래 뿌리박고 살지 않기 때문에 고역이 있으면 달아나버려 정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에게 역사시킨다는 영(令)이 나오면 해가 먼저 일족(一族)에게 미치니, 이는 부세를 도피한 중은 산속에 편안히 앉아 있고 평민들만 그 해를 입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교하시니 위에서 나라의 근본을 염려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다만 도첩과 호패가 없는 중을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시키는 것은 세초(歲抄)에 계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선왕의 금석(金石) 같은 법입니다. 이제 법을 세워 도첩이 없는 자를 역사시킨다면 이는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를 금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원적당차법(原籍當差法)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선왕의 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잡역(雜役)이라면 면제시킬 수 있겠으나 방어에 관계되는 일은 도첩과 호패가 있는 자라도 모두 역사시켜야 됩니다. 만약 경보(警報)가 잇달고 변방에 걱정이 많게 되면 농사와 장사에 편입된 자들도 모두 생업을 철폐하고 창을 메고 나서는 것인데, 아마도 중들의 도첩의 유무를 분변할 수 없을까 합니다. 우선 하유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해조에 일러서 상의, 결정하여 공사(公事)로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

까?" 하니, 뒤에 발락(發落)하겠다고 전교하였다.

○ 辛亥/上以京畿淸溪寺奴貴石等上言, 下于政院曰: "京畿僧人, 築城處則役之, 曳木軍及造紙署軍則勿役, 使無民弊事, 言于備邊司及該曹。 自古僧徒, 非如有妻子根著之人, 俱以無賴乞食之輩, 有苦役, 則鳥散而逃。 將有大弊, 故先朝役僧之時稀罕, 而雖或有之, 或給度牒, 或給號牌, 令自樂赴。 近自乙卯倭變, 長立于役, 非徒緇徒之冤徹天, 侵虐一族, 邦本日困, 漸爲群盜, 誠非細故, 不可不慮。 自今以後, 關重防備外, 他餘雜役, 一切免之, 雖或以防備役僧, 以無度牒、號牌者役之, 受度牒、號牌者勿役。 且春役者勿使於秋, 秋役者勿使於春, 俾均赴役, 毋令長苦致冤事, 下書于八道。"

【史臣曰: "旣給居僧之位田, 而牢拒兩司之諫, 又信寺奴之陳訴, 而欲下八道之書, 至以御札下政院, 而假其作盜之言, 實爲護僧之地, 上之所謂慮邦本者, 適足以蹶邦本也。"】

政院啓曰: "僧徒本無根著, 若有苦役, 則飛走無定, 故役僧之令一下, 而害先及於一族。 是則逃賦之僧, 安坐山中, 而平民獨受其害。 以此下敎, 自上軫念邦本之意, 至矣。 但無度牒、號牌之僧, 推刷定役, 歲抄啓聞, 乃先王金石之典也。 今若立法, 役其無度牒者, 則是違法爲僧者將無所禁, 原籍當差之法, 將無所施, 而先王之法毁矣。 雜役雖可免也, 事關防備, 則有度牒、號牌者, 皆可役也。 若羽報相接, 邊警多虞, 則名(徧)〔編〕農賈者, 咸爲輟業荷戈。 僧徒度牒之有無, 恐不可辨矣。 姑勿下書, 此意言于該曹, 商確爲公事何如?" 傳曰: "隨後發落。"

⑫『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명종실록(明宗實錄)」명종 12년 2월 29일자 기사

○ 간원이 아뢰기를,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는 것은 으레 일방적인 것이 많아 허실과 진위를 무턱대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되는 바가 중하거나 이해가 급박한 일로 위에서 환히 아는 일일 경우는 특명을 내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세(奸細)한 무리가 난잡하게 진소하는 것은 해조에 내려 살펴보고 상의하게 한 후에야 그 정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계사의 종들은 거주가 서로 현격히 먼데도 연명(連名)하여 상언했으니 간사한 자취와 외람된 정상을 환히 알 수 있는데 특명으로 팔도에 하서하여 중들의 비호하는 뜻을 보이셨으니 듣는 사람은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변방에 일이 있어 백성들이 모두 생업에 편안히 종사할 수가 없는데도 부세와 역사를 기피한 무리들은 다시 홀로 편한 길을 얻기 위해 외람되이 상언을 올렸으니 마땅히 해사에 내려 헤아려 공사로 만들어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서에 대한 일은 헌부에 답한 것과 같다." 하였다. 오래 아뢰니 따랐다

○ 諫院啓曰: "凡上言陳訴, 例多一邊之辭, 虛實眞僞, 未可遽信。 如所關重大, 利害切迫, 自上洞照之事, 則或有特命之時矣。 奸細之徒, 亂雜陳訴, 下于該曹, 考閱商確, 然後始得其情狀。 淸溪寺奴子等, 居住懸遠, 而連名上言, 奸僞之迹, 泛濫之狀, 昭然可見, 而特命下書于八道, 以示庇護僧徒之意, 凡在聽聞, 莫不駭怪。 當此邊備警急之時, 齊民皆不得安業, 而逃賦避役之輩, 更希獨逸之路, 冒呈上言, 宜下該司, 酌量爲公事施行。 請還收下書之命。" 答曰: "下書事, 與答府同。" 久啓從之。

⑬『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명종실록(明宗實錄)」명종 12년 4월 19일자 기사

○ 비변사의 공사(公事)【승도들의 역사(役使)를 적절하게 처리하자는 일이다.】를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첩(度牒)과 호패(戶牌)가 있는 승도는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이미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전시(戰時) 이외의 평상시에는 부역시키지 말라는 것으로 이 공사에 부표(付標)하라. 청계사(淸溪寺) 수

직노(守直奴)의 상언(上言)에 조지서(造紙署)에 승군(僧軍)은 역사시키지 말게 해달라는 것으로 진소했다. 방비(防備)를 위한 역사 외의 다른 곳에는 역사시키지 말도록 하라."

○ 以備邊司公事,【僧人役使得中處置事。】 傳于政院曰: "有度牒、號牌僧人, 自先王朝, 曾已放役矣。臨敵時外, 常時勿役事, 此公事內付標。 淸溪寺守直奴子上言內, 造紙署僧軍勿役事, 陳訴矣。 防備役使時外, 他處勿役可也。"

⑭ 『일성록(日省錄)』 1796년(정조 20년) 2월 26일

○ 강 京畿監司 金文淳以園所外南山補土植木形止馳啓

목 該監司狀啓以爲連接差使員 安城郡守 曺允植所報則園所外南山外補土役事郡陽城所授處 …… 廣州募軍二百五十名淸溪寺僧軍十七名 ……

⑮ 『봉은본말사지 청계사』

○ 신라 때 초창하였다. 고려충렬왕 10년(1284년) 갑신 시중 충숙공 조인규가 재창하였다. 조선 태종 7년(1407년) 정해 천태종의 자복사로 지정되었다. 세종 30년(1448년) 무진 문충공 6세손 현, 현손 창훈 외 운손 상국 준경 상국 이명 등이 출자하여 충숙공 영당을 중건하였고 대장경을 인쇄하였다. 광해군때에 폐세자가 점유하였고 전답과 노비를 모두 관에 빼앗기고 또 세도가에게 빼앗겼다. 숙종 15년(1689년) 기사 절에 불이 나서 절의 승 성희가 모연하여 중건하였다. 영종 37년(1761년) 신사 정종이 동궁에 있을 때 친히 가서 원당으로 설립하고 밤나무 3천 그루를 심고 원감을 두었다. 정종 13년(1789년) 기유 현륭원을 설치하고 매년 2차례 제향했다. 22년(1798년)무오 조무의의 출자로 풍책, 태성 동역을 시켜 중창했다. 고종 13년(1876년) 병자 절에 또 불이 났다. 4년(기묘)이 지나(1879년) 음곡대사가 중건하였다.

○ 新羅時初刱高麗忠烈王十年(甲申)侍中忠肅公趙仁規再刱朝鮮太宗七年(丁亥)指定爲資福寺屬天台世宗三十年(戊辰)文忠公六世孫玹玄孫昌勳外雲孫李相國浚慶李相國萬等出資重建忠肅公影堂印大藏經安于寺光海時爲廢世子所占田庄奴婢盡入于官又爲勢家所奮肅宗十五年(己巳)時又災時僧性熙募緣重建英宗三十七年(辛巳)正宗在東宮時親臨設願堂栽栗木三千株置園監正宗十三年(己酉)命設顯隆園祭閣每年兩次享祭二十二年(戊午)趙武毅公沁太出資使豐策太性董役重刱高宗十三年(丙子)時又火越四年(己卯)陰谷大師權化重建

⑯ 강석덕(姜碩德), 『동문선(東文選)』 권 103 「화엄경발(華嚴經跋)」

○ 대저 경서(經書)란 소해(疏解 의리를 소통해 푼 것)함으로 그 뜻을 밝히고, 판각함으로 그 전포를 영구하게 하는데, 진실로 이 두 가지의 일이 없다면, 도(道)가 문자에 의탁해 있는 것을 드러내어 찬양하고 유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의학(義學)하는 무리들이 심히 한하는 바이다. 우리 동방의 청량소판(淸凉疏板)은 곧 고려의 대각국사(大覺國師)가 서방의 조(趙)·송(宋)을 유람할 때에 얻은 것이었다. 이제 이미 일본으로 돌아갔으므로 학자들이 다시 얻어 볼 길이 없었는데, 선사(禪師) 신호(信浩)가 드디어 판을 새길 뜻을 세우고 이를 제정(齊靖) 신효창(申孝昌)공에게 고한 바 제정이 그의 아들 자근(自謹)과 더불어 판재(板材)를 변통하여 얻고, 각공을 모집하여 겨우 2백 45판을 새기고 나서 제정이 이미 세상을 버렸던 것이다.

이에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安)씨가 이 거대한 사업이 초창기에서 좌절됨을 심히 개탄하고,

분연히 대단문(大檀門)을 위하여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양궁(兩宮 임금과 왕비)의 만세(萬歲)와 금지(金枝 임금의 자녀를 존칭하는 말)의 영원한 무성을 기원하매, 이에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효령대군(孝寧大君)과 그의 부인 정(鄭)씨가 성의를 다하여 붙들고 도와서, 대사를 마치게 하였다. 또 판중추 성달생(成達生)공이 뒤를 따라 찬조하였으며, 그 밖에도 희사에 따른 자를 헤아릴 수도 없었으니, 이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도록 주간한 자는 필추(苾芻)와 각돈(覺頓)이었다. 전후하여 새긴 바가 모두 1천 4백 70판으로 이를 광주(廣州)의 서쪽 청룡산(靑龍山) 청계선사(淸鷄禪寺)에 집을 짓고 수장 하고 편액하기를, '잡화(雜華)'라 하여 무궁하게 전포하도록 한 것이다.

○ 凡經書。疏以明其義。板以壽其傳。苟無此二事。道 之寓諸文字者。固無以顯揚流通。此義學之徒所深病也。吾東方淸涼疏板。乃高麗大覺國師。西遊 趙宋時獲之。今已歸日域。學者無復得見。爰有禪 師信浩。遂立刊板志。告齊靖申公孝昌。齊靖與其 男自謹。辦材鳩工。纔刊二百四十五板。齊靖已捐 館矣。於是。三韓國大夫人安氏。深慨盛擧。不啻一 貲之虧。爲大檀門復續厥緖。以祈兩宮萬歲。金 枝永茂。於是。慶貞公主, 孝寧大君。暨同室鄭氏。盡心扶樹。以竟大事。又有判樞成公達生。從而贊助。 其他隨喜者無算。及此主幹良緣者。苾芻覺頓也。前後所雕。共一千四百七十板。就廣州治西靑龍 山淸溪禪寺。

⑰『동문선(東文選)』 권70 「조정숙공사당기(趙貞潚公祠堂記)」

○ 『稼亭集』 권3과 내용 동일

⑱『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과천현(果川縣) 불우(佛宇)」

○ 청계사(淸溪寺) 청계산에 있는데, 이곡(李穀)이 지은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인규(趙仁規)의 사당기(祠堂記)가 있다. ○ 이색(李穡)의 시에, "청룡산(靑龍山) 밑 오래된 절 얼음과 눈에 끊어진 언덕이들 계곡에 임하였도다. 단정히 남창(南窓)에 앉아 《주역(周易)》을 읽노라니, 종소리는 처음으로 움직이고 닭은 깃들이려 하네." 하였다. ○ 변계량(卞季良)의 시에, "돌 길은 1천 언덕에 궁진하였고, 향 연기는 한 방이 맑도다. 손은 와서 차 끓이기를 구하고, 중은 앉아 스스로 불경을 뒤적이네. 나무는 늙었으니 어느 해에 심었으며, 종은 쇠잔하니 밤 중의 소리로다. 공(空)을 깨달아 인사가 끊어졌으니, 높이 누워서 생이 없는 것을 즐거워하네." 하였다.

○ 在淸溪寺有李穀所撰平壤府院君趙仁規祠堂記 ○ 李穡詩靑龍山下古招提水雪斷崖臨野谿端坐南窓讀周易鍾聲初動欲鷄棲 ○ 卞季良詩石路千崖盡香煙一室淸客來求煮茗僧坐自翻經樹老何年種鍾殘半夜聲悟空人事絶高臥樂無生

⑲『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 사찰(寺刹)」

○ 청계사 주 남쪽 50리에 있다.

○ 淸溪寺 在州南五十里

나. 고지도[56)]

① 『해동지도(海東地圖)』「광주부(光州府)」

현재의 경기도 광주군,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일대와 화성군 매송면 일부지역(원리, 송라리, 야목리 등), 안산시 일부지역(일동, 이동, 본오동, 성포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일부지역, 남양주시 와부읍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과천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청계산(淸溪山)이 명기되어 있고 청계산 글씨 바로 밑에 '사(寺)'자만 쓰여 있고, 청계사 건물이 그려져 있다.

[그림 2-8] 『해동지도(海東地圖)』「광주부(光州府)」(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大4709-41)

56) 서울대학교 규장각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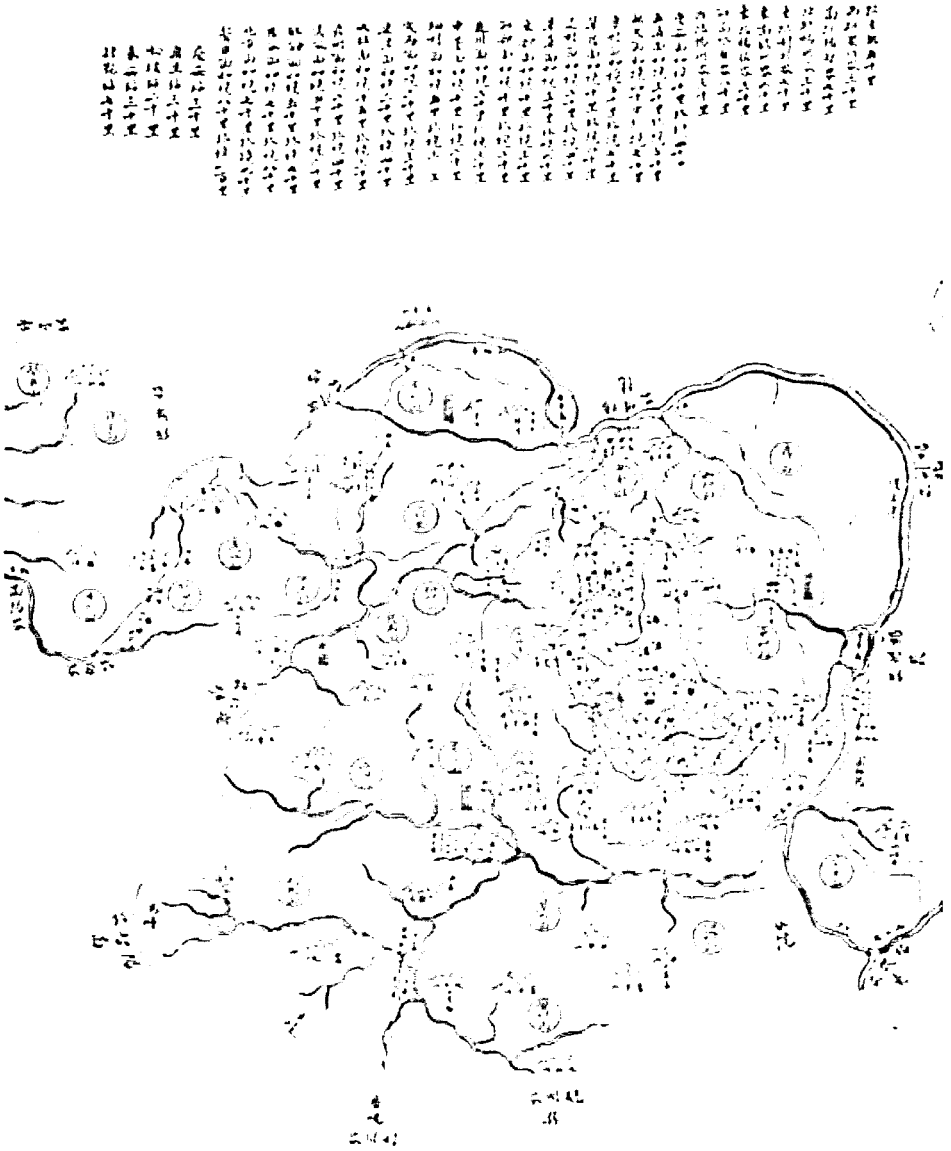
② 『광여도(廣輿圖)』 「광주부(廣州府)」

광주부는 남종면을 제외한 광주군 전체와 남양주시 와부면·조안면, 성남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의 경부고속도로 동쪽, 의왕시, 안산시 성포동 동남쪽, 화성군 매송면의 서쪽에 해당하는 아주 큰 고을이었다. 지도는 서쪽을 위쪽으로 그렸다. 의왕시는 의곡면(義谷面)·월곡면(月谷面)·왕륜면(王倫面)에 해당하며 청계산과 청계사가 '청계산사(淸溪山寺)'로 같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2-9] 『광여도(廣輿圖)』 「광주부(廣州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4790-58)

③『1872년 지방지도』「광주전도(廣州全圖)」

광주는 남종면을 제외한 광주시와 남양주시 와부읍, 조안면, 하남시, 서울시 강남, 송파, 강동구 의왕시, 안산시 일부, 화성군 매송면 일부에 해당한다. 언주면(彦州面)은 지금 강남구 일대, 중대면(中臺面)은 송파구, 구천면은 강동구, 동부(東部)·서부면(西部面)은 하남시, 의곡(儀谷)·왕륜(旺倫)[57]면은 의왕시에 해당한다. 지도의 서북쪽이 의왕시 일대로 과천을 경계로 청계산(淸溪山)과 청계사(淸溪寺)가 명기되어 있다.



[그림 2-10] 『1872년 지방지도』「광주전도(廣州全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57) 『해동지도(海東地圖)』, 『광여도(廣輿圖)』, 『지승(地乘』에서 왕륜을 '王倫'으로 표기를 한 반면,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旺倫'으로 되어 있다.

④『지승(地乘)』「광주부(廣州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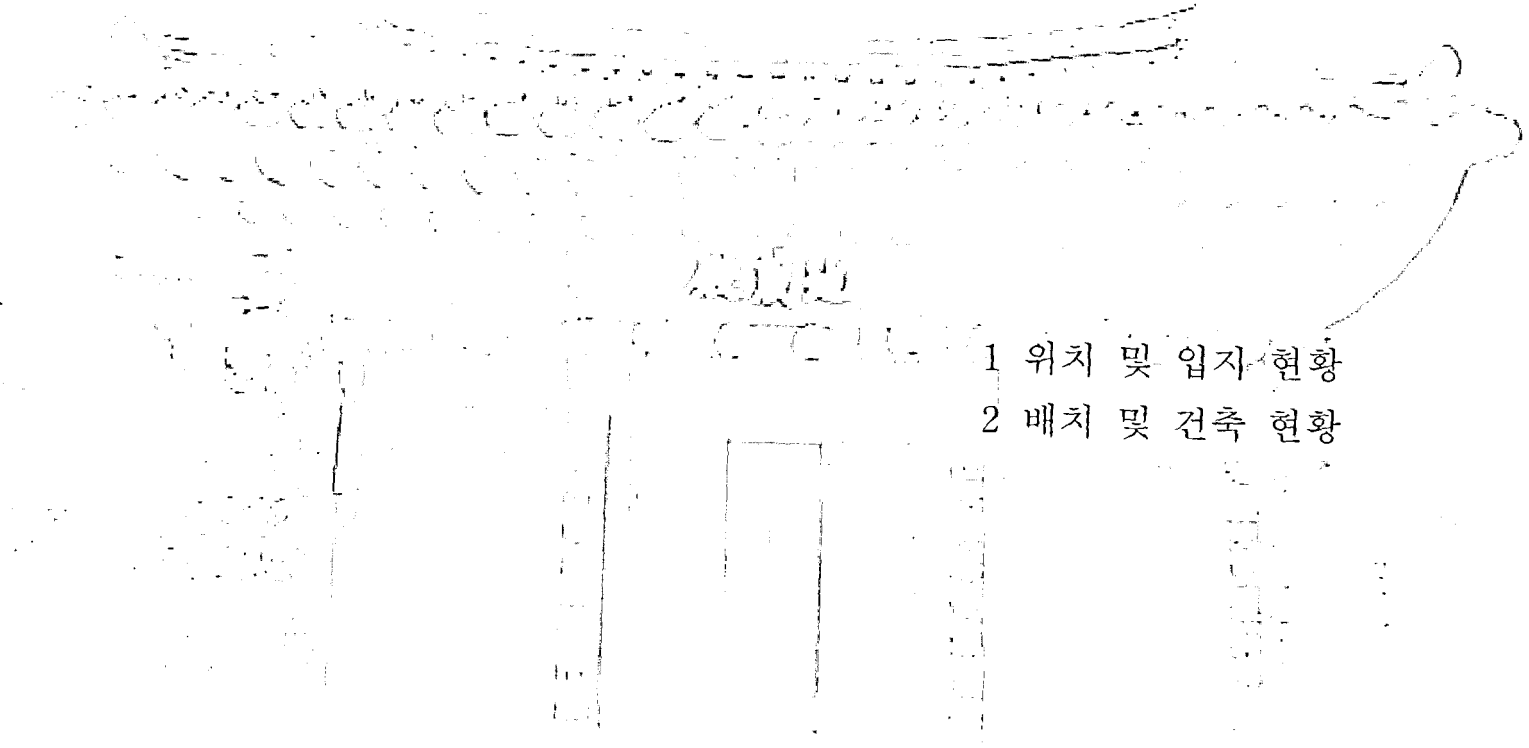
조선시대 의왕시는 광주부(廣州府)에 속해 있었으며, 당시 광주부는 큰 고을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는 현재의 남양주시, 안산시 일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의왕시는 「광주부」 지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륜면(王倫面), 일용면(一用面), 월곡면(月谷面), 의곡면(義谷面) 일대이다.

[그림 2-11] 『지승(地乘)』「광주부(廣州府)」(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 15423)

여 백

제 3 장

건축 현황



1 위치 및 입지 현황
2 배치 및 건축 현황

여 백

제 3 장 건축 현황

1. 위치 및 입지 현황

1-1. 의왕시의 위치와 환경[1)]

의왕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시로서, 1989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읍 일원을 관할로 의왕시가 설치되었다. 동쪽은 성남시·용인시·수원시, 서쪽은 안양시·군포시, 남쪽은 화성시, 북쪽은 과천시와 접하며, 동경 127°03′~127°55′, 북위 37°17′~37°25′에 위치한다. 면적은 54.01㎢이고, 인구는 13만 4,488명(2008년 기준)으로, 행정구역으로는 6개 동이 있다. 시청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있다.

의왕시의 지형을 보면, 남남서 방향으로 지나던 광주산맥이 이 지역에 이르러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동북쪽은 400~600m의 높은 산이 솟아 있고, 서남쪽은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가 발달하고 있다. 동쪽에는 청계산(淸溪山, 618m)·국사봉(國師峰, 540m)·바라산(428m)·백운산(白雲山, 567m), 서쪽에는 모락산(帽洛山, 385m)·오봉산(五鳳山, 205m)·구룡산(九龍山, 146m) 등이 있다. 북쪽에는 응봉(368m)이 과천시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동부의 산지에서 발원하는 안양천(安養川)은 서류 및 북류하는 학의천(鶴儀川)·청계천(淸溪川) 등과 합류하면서, 서쪽 안양시와의 경계에 이르러 서북류하면서 한강으로 흘러간다. 지질은 화강편마암이고 토양은 고지에는 적황색토 또는 암쇄토가, 저지에는 회색토나 충적토가 분포하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11℃, 1월 평균기온은 4.7℃, 8월 평균기온은 25.5℃로 한서의 차가 30℃ 이상을 넘어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장마 때는 지형성 강우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다. 연강수량은 1,256㎜이다.

전 토지의 64.3%가 임야이고 농경지는 10.7%이며, 이 밖에 대지 7%, 교통용지 4.6%이다. 시가지로 개발된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전체 시 면적의 93.2%인 49.81㎢)에 속한다. 취락은 크게 서부의 시가지, 동부의 농촌취락으로 구분된다. 서로 떨어져 있는 내손동·고천동·부곡동의 시가지에는 각종 제조업체와 가옥이 밀집해 있다. 중앙의 백운저수지(白雲貯水池)와 남쪽의 왕송저수지가 있는데 이들 저수지는 주변 지역에 발달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도로는 국도 1호선이 남북으로 지나고 국도 47호선이 서북단을 서남·동북진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에 과천·의왕·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고속화 도로가 건설되었고 서울외곽고속도로가 동서로 지나고 있어 외부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철도는 경부선이 남부지역을 남북으로 지나고 전철 과천선이 국도 47호선과 나란히 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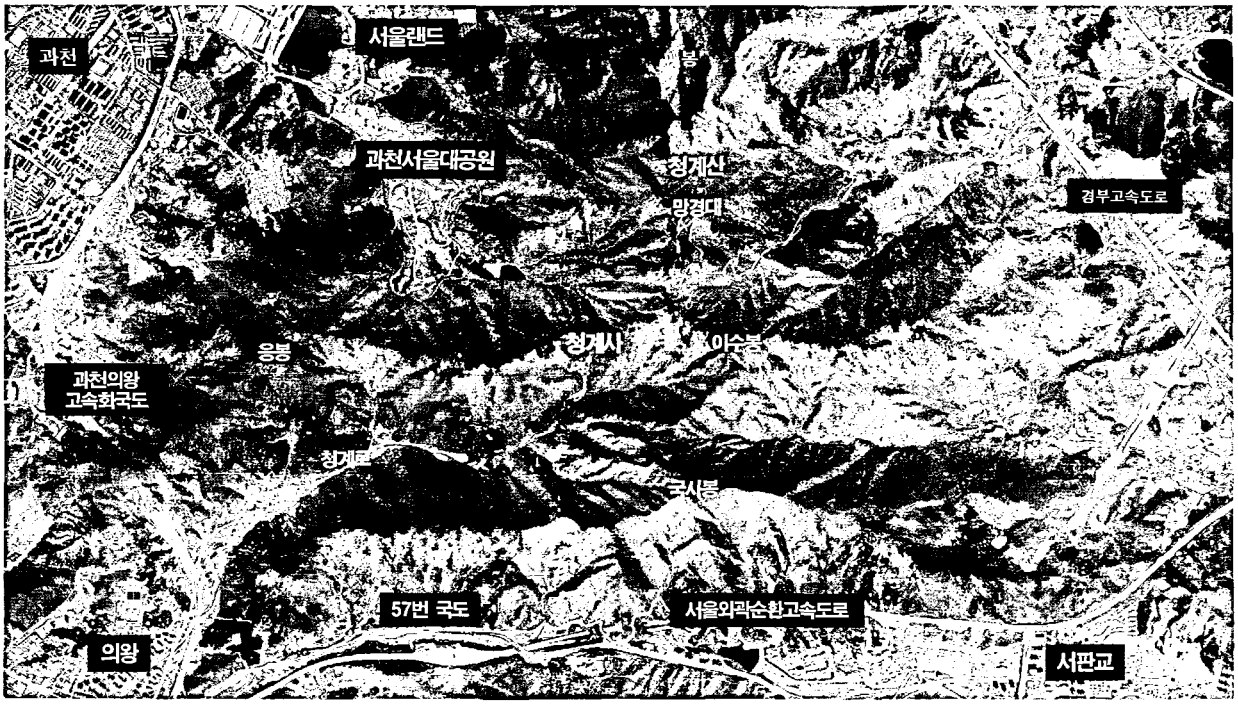
---

1) 의왕시의 위치 및 자연환경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2009),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2. 청계사의 위치 및 입지현황

청계산(淸溪山, 618m)은 서쪽의 관악산(冠岳山), 남쪽의 국사봉과 더불어 서울의 남쪽 방벽을 이루는 산이다. 정상인 망경대(望京臺)를 비롯하여 옥녀봉(玉女峰), 청계봉(淸溪峰), 이수봉 등의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봉인 망경대에서 남쪽으로 국사봉(國思峰)이 뻗어 있다.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능선은 비탈면이 비교적 완만하며 산세가 수려하다. 주능선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산의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남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있다. 서쪽 사면에는 서울경마장,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휴양 및 문화시설이 있다.

청계사(淸溪寺)는 청계산의 망경대와 국사봉 사이에서 응봉으로 흐르는 지맥의 남측 경사면 중턱(해발 260m)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청계산이라는 지명은 '산에서 흐르는 물이 맑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나, 이색(李穡,1328~1396)의 기문에는 청계사가 청룡산(靑龍山) 밑에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다르게 불렀던 것으로 본다.[2] 청계사가 위치한 응봉과 이수봉 사이의 능선은 골짜기를 따라 가파른 경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청계사가 위치한 대지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골짜기의 내측에 위치한다. 전면(남측면)으로는 가파른 경사지로 축대가 있으며 그 뒤로 평평한 대지가 3단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사찰 조성 시 평탄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 진입은 청계산의 남쪽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57번 국도에서 청계골을 면해 난 청계로(淸溪路)를 따라 약 4.5㎞ 이동하면 사찰의 입구에 다다르며, 진입로는 청계산을 등반하는 등산로로 함께 쓰이고 있다.



[사진 3-1] 청계사의 위치 (출처 : 네이버 위성사진, 2011)

2) 과천 관아의 진산을 관악산으로 볼 때 과천관아의 좌측에 해당하는 산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상 '좌청룡'에 해당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2. 배치 및 건축 현황

2-1. 배치 현황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청계사(淸溪寺)는 청계산의 망경대와 국사봉 사이에서 응봉으로 흐르는 지맥의 남측 경사면 중턱(해발 260m)에 위치한다. 신라 때 초창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고려 문신인 조인규(趙仁規, 1227~1308)가 1284년 창건하여 사세(寺勢)의 확장을 이끌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배불(排佛)를 전면에 내세우고 불교를 탄압하였지만, 왕실은 실질적인 호불(護佛) 조취를 취하였고, 청계사 또한 사세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진왜란, 화재 등으로 몇 차례 중창을 거듭했으며,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876년(고종 13) 실화로 소실한 것을 1900년(고종 37) 재건하였다.[3] 해방 이후 1955년 주지로 취임한 비구니(比丘尼) 아연(娥演)이 다시 중창을 하였고 월덕(月德)·탄성(呑星)·월탄(月呑) 등의 역대 주지들이 그 뜻을 계승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4]

과거 청계사의 배치는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난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극락보전의 전면에 위치하였던 대방(大房)을 철거하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대방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사찰 배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사찰에서는 19세기 들어 수륙제와 같은 야외의식이 쇠퇴하고 각 전각 중심의 소례가 성행하게 되면서 간단한 법회를 치루며 늘어난 대중을 수용하는 대형요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사찰의 정면에 위치한 문루를 철거하고 대방을 건설하였으며,[5] 그 사례로는 흥천사, 용문사, 전등사 등이 있다. 1980년대 초 배치도를 보면 청계사 대방의 규모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ㄷ'자 평면으로 안마당이 극락보전을 마주보며 중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반대쪽으로는 한쪽에 루가 튀어나와 있다. 대방은 사찰 진입의 전면에 위치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극락보전의 동측으로는 삼성각과 산신각이 있으며, 서측으로도 두 개의 작은 요사채가 있었다. 대방 외에 작은 요사채가 두 채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생활공간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과 1995년 서요사채를 건축 및 증개축하였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대방 철거, 동요사채 신축, 석조 축대 설치 등 사찰의 배치가 대대적으로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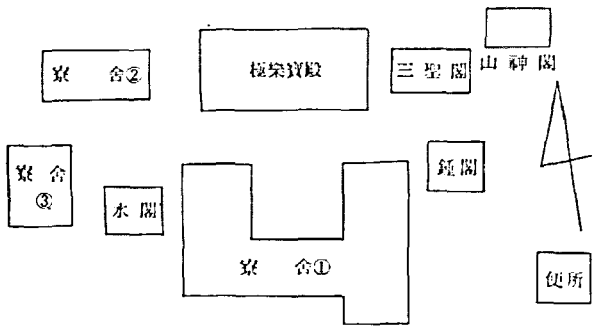
현재의 배치를 살펴보면 사찰의 초입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조인규사당기비, 청계사사적비, 공덕비 등의 비석과 승탑군이 있다. 주차장의 북측으로는 14m 높이의 높은 축대가 가파르게 조성되었으며 중심 계단을 통해 사찰의 경내로 출입할 수 있다. 축대의 좌우측으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다. 사찰 경내는 상·중·하 3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단에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동측으로 지장전과 범종각, 와불상이, 북측으로는 삼성각이, 서측으로는 봉향각이 모여 불전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중단은 'ㄱ'자 평면의 동·서 요사가 서로 마주보고, 그 중심에는 야외 법회를 위한 불단이 조성 되어 있다. 하단은 동·서 요사의 1층이 연결되어 있으며 종무소, 식당, 화장실 등이 있어 관리 및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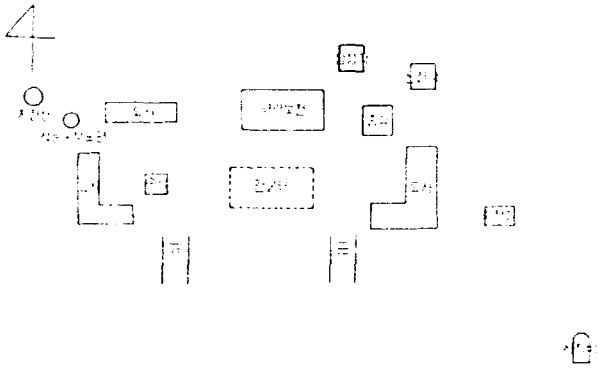
3) 1973년 극락보전을 보수하면서 대들보에서 '경자삼년삼월(庚子三年三月)'이라는 기록이 나옴으로 1900년(고종 37년)에 중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4)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5) 홍병화, 『조선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7~1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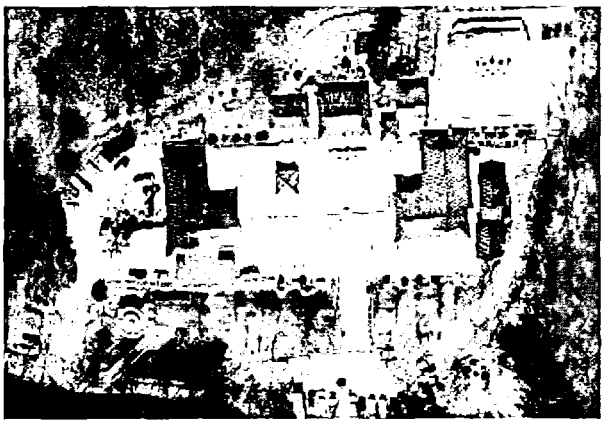


[그림 3-1] 1980년대 초 청계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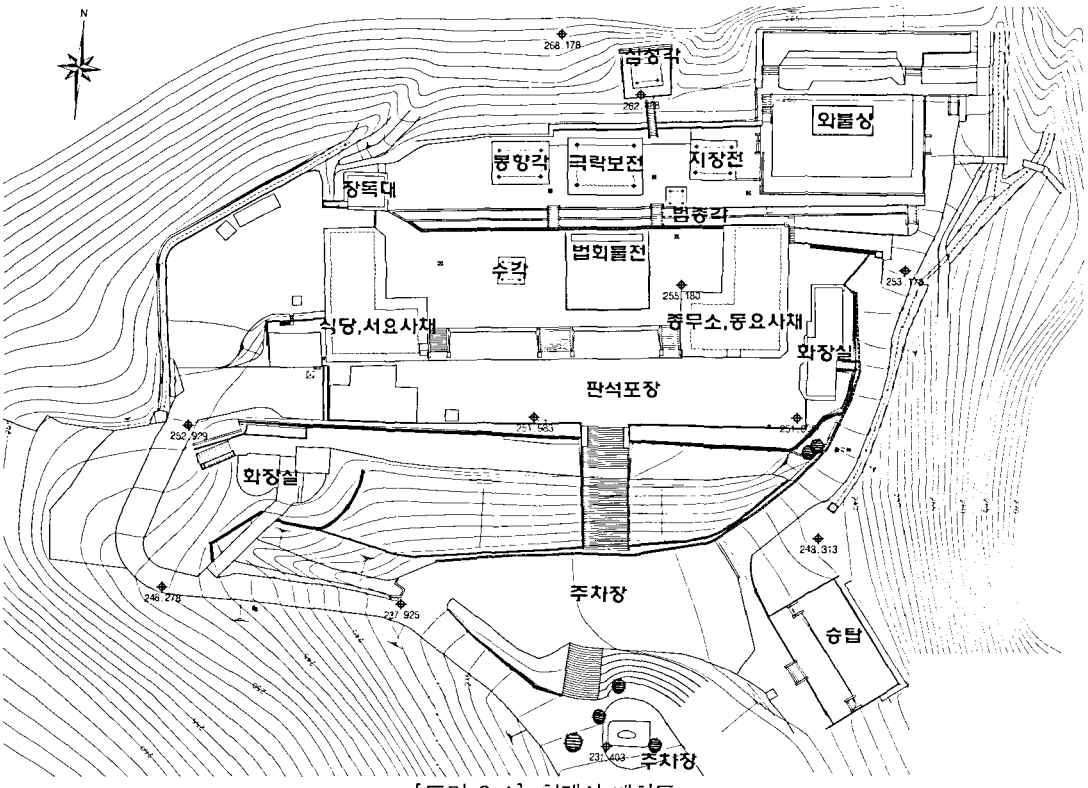


[그림 3-2] 1990년대 청계사 배치 (출처 : 『경기도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1993)

[사진 3-2] 1980년대 중반 청계사 전경 (출처: 『의왕시사 7』, 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



[사진 3-3] 청계사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항공사진, 2011)



[도면 3-1] 청계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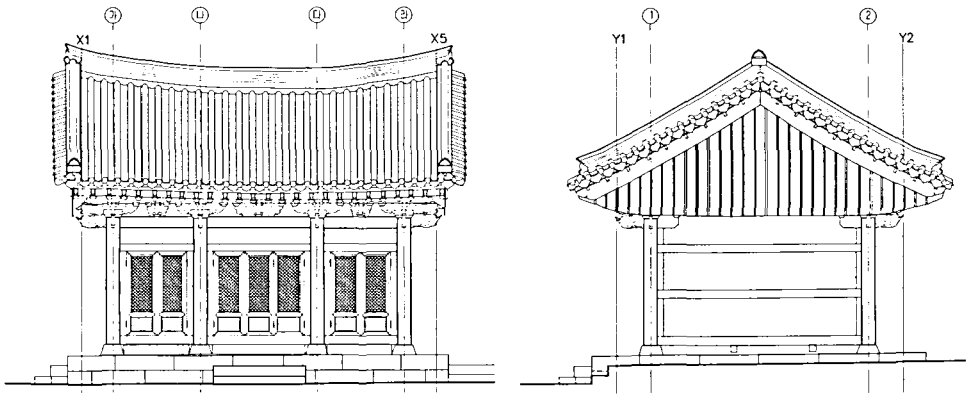
2-2. 건축 현황

가. 지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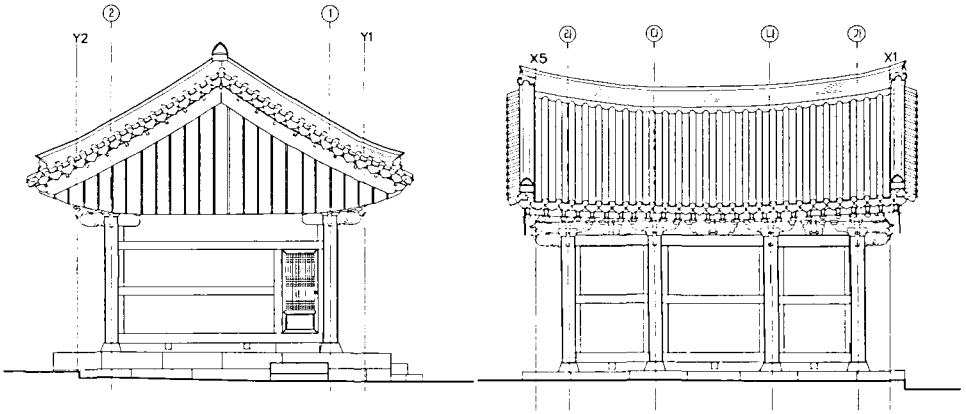
청계사 지장전은 지장보살 입상과 위폐를 모신 전각으로 극락보전 우측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장전의 서측에는 범종각과 지장전이, 동측으로는 근래에 조성된 와불상이 자리하고 있어 사찰의 중심 공간을 이룬다.

청계사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전각으로 건물의 전·후면에 각각 4본씩의 기둥을 사용하여 평면을 구성하였다. 지장전 주칸의 전체길이는 정면 6,062㎜, 동측면 4,558㎜로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은 약 27.63㎡이다. 건물 전면의 어칸과 협칸에 각각 3짝과 2짝의 빗살무늬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서측 한 칸에 외여닫이문을 달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장전은 사찰 앞마당에 조성된 두 단의 높은 석축 위에 자리하는데, 건물이 위치한 바닥에는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하였다. 지장전 기단은 화강석 장대석 기단이고, 정면 기단과 좌측면은 두벌대로, 우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단 상부 면에는 정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였다. 초석은 화강석 원형 초석으로 초반이나 주좌 등을 따로 두지 않았고,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모양이다.



[도면 3-2] 지장전 정면도, 우측면도



[도면 3-3] 지장전 좌측면도, 배면도

지장전에는 정면 4본, 배면 4본, 총 8본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 불단을 두고 참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측면은 1칸으로 구성하였으나 주칸거리를 넓게 하였고 사잇기둥 없이 좌측 출입문 부분에 문선만 설치하였다. 기둥은 원형의 민흘림을 둔 형태이다.

건물은 3량가의 단순한 가구 구조를 하고 있으며, 정면과 배면의 기둥을 가로질러 대량을 결구하고 대량의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다. 전각 내부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바닥에는 쪽마루를 깔았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이며, 기둥 사이에 설치된 화반 상부에 익공과 같은 형태의 앙서형 만개한 꽃과 봉황을 새긴 부재가 도리와 직각방향으로 짜여있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박공과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연목과 부연은 각각 정면 26개, 배면 26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목은 주심도리에서 종도리까지 한 부재로 걸쳐지며, 종도리 위에서 정면과 배면의 연목이 서로 엇갈려 걸려 있다. 연목의 물매는 10:4.54 정도이며, 연목의 전체길이는 4m 내외의 긴 부재를 사용하였다. 부재 길이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연목내밀기 길이는 전체 내밀기 길이에 비해 짧은 편이다.

지장전의 지붕은 처마끝 부분을 막새로 마감하였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사용하였다. 막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사용되어 과거 여러 차례 기와공사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바닥기와는 한식 기와 중와가 설치되어 있다.

지장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며 1990년대의 기록들에 산신각 혹은 칠성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엔가 용도가 변경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사진 3-4] 지장전 정면과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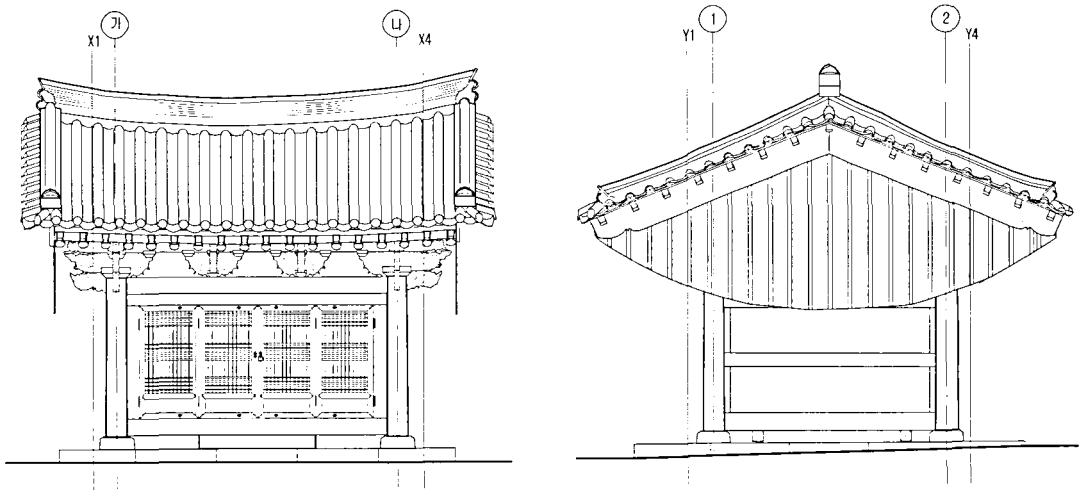
[사진 3-5] 지장전 좌측면과 배면

나. 삼성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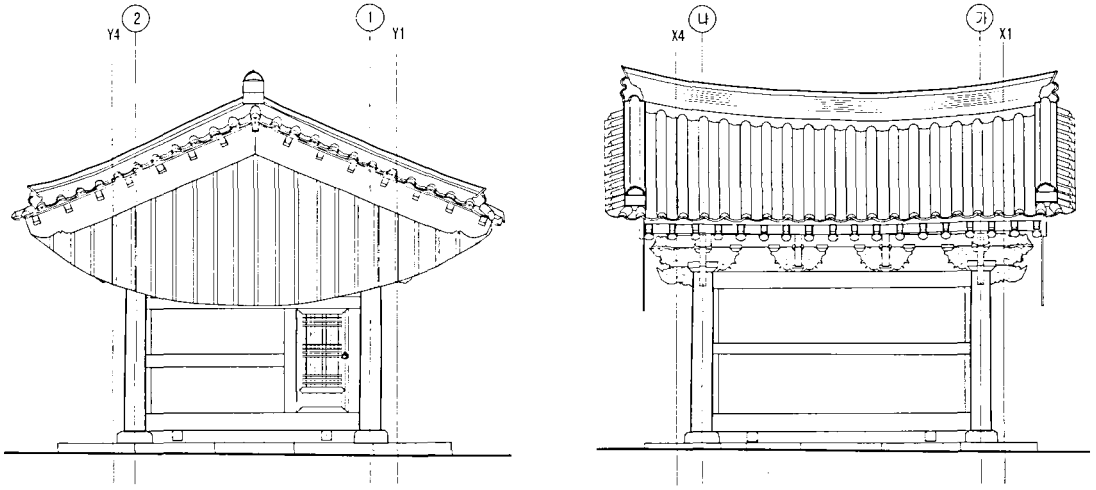
삼성각은 극락보전과 지장전 사이에 놓여 진 계단 위에 동쪽으로 5° 정도 틀어져 남향으로 자리잡은 건물로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전각으로 바닥 면적은 약 11.11㎡ 정도이다. 건물 정면에는 네짝의 세살 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좌측면에 참배객이 출입할 수 있도록 외여닫이문을 달았다. 법당에는 산신탱과 독성탱, 칠성탱을 모시고 벽면 탱화 앞에는 인등을 설치하였다.

건물이 위치한 바닥면은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상부에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1단으로 쌓았

다. 기단 상부 면에는 정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였다. 초석은 화강석 원형 초석으로 상부에 주좌를 둔 원통형으로, 주좌면과 초석의 상부면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두었으며 모서리는 둥글게 굴려서 치석하였다. 기둥은 총 4본으로 원형의 민흘림을 준 형태이며, 건물의 비례를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다른 건물에 비해 길이를 비교적 짧게 하였다.



[도면 3-4] 삼성각 정면도, 우측면도



[도면 3-5] 삼성각 좌측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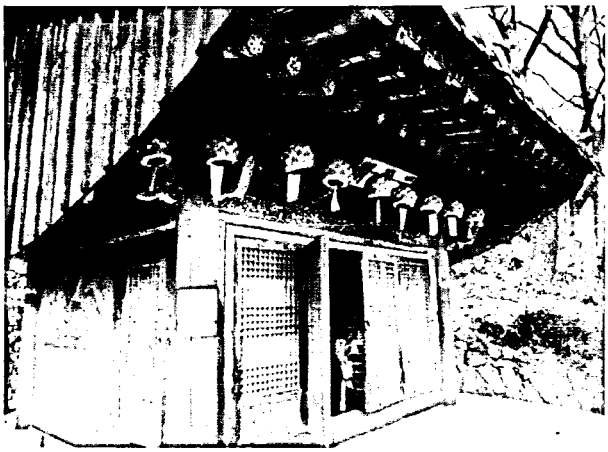
건물 구조는 삼량가로 전후면 주심도리 사이에 대량을 결구하고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으로 익공에는 만개한 꽃을 새겼으며, 보머리는 봉황으로 장식하였다. 창방과 장혀뺄목, 보 뺄목 등이 기둥의 외부면에서 포와 같이 치목되어 익공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건물의 정면과 배면의 기둥사이에는 각각 두 개씩 포화반을 설치하고, 도리와 직각으로 짜여진 부재에는 익공과 같이 장식하였다.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설치한 겹처마 형식이다. 처마내밀기의 길이는 정면이 배면보다 약간 길다. 처마에는 안허리곡과 앙곡을 주었으나, 건물 규모가 크지 않아 처마곡이 작은 편이다. 삼성각의 연목과 부연은 정면과 배면에 각각 18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정면과 배면의 연목은 종도리 위에서 서로 맞대어 걸었다. 측면 끝부분 연목은 박공에 붙여 설치하여 풍판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연목의 물매는 10:3.75 정도로 낮은 편이다. 연목과 지붕의 물매가 낮은 것에 비하여 처마내밀기는 큰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지붕의 비중이 커보이는 편이다.

건물 내부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마루는 쪽마루를 깔았다. 풍판 안쪽의 박공내밀기 부분에도 순각판을 설치하고 천장에 용을 그려넣었다.

청계사 종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지장전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지어진 삼성각이 있었다고 하나 그 위치는 현재와는 다르다. 1980년대 초에 예전의 삼성각(현 지장전)에서 탱화를 모셔와 봉안하고,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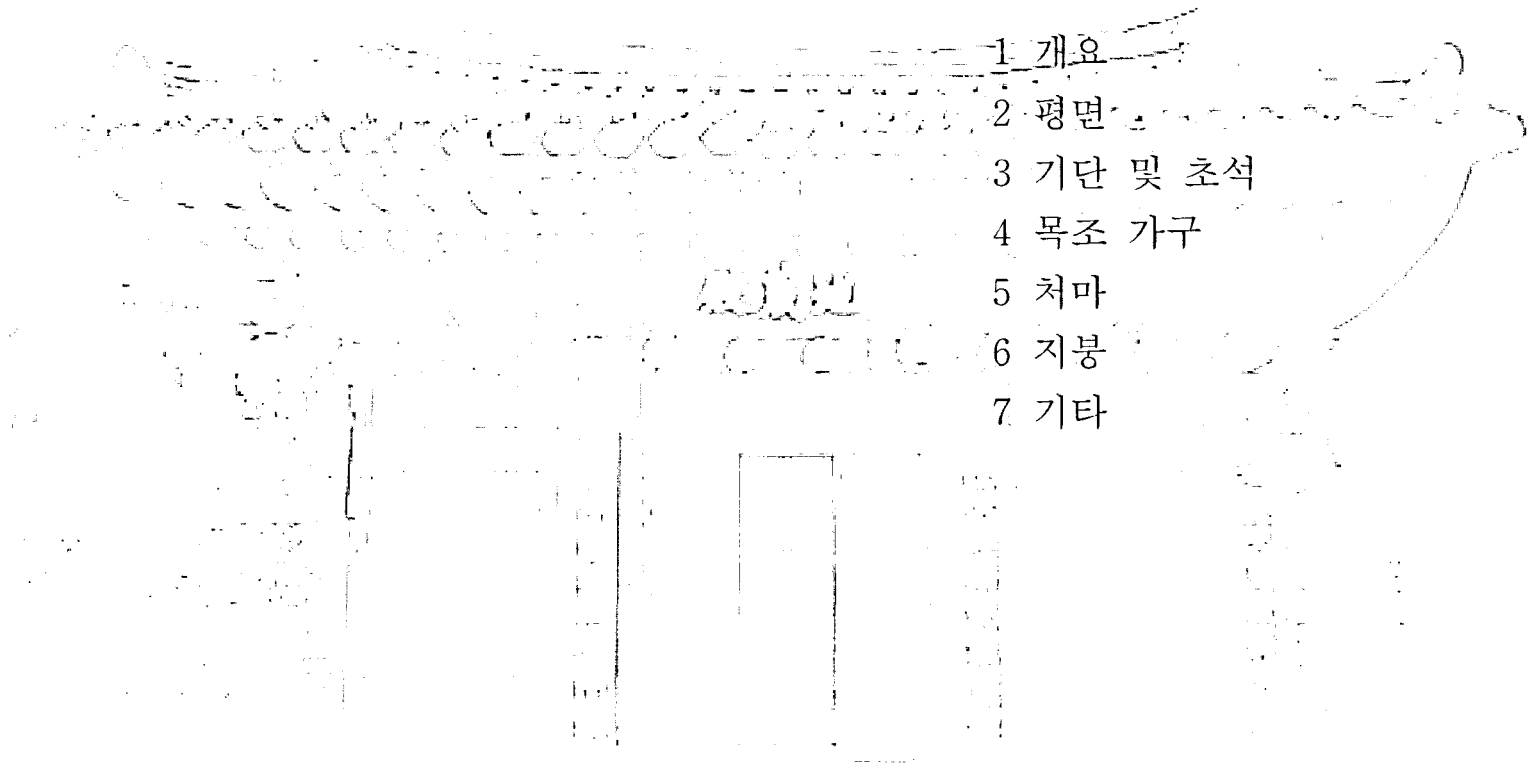


[사진 3-6] 삼성각 정면과 우측면

[사진 3-7] 삼성각 좌측면과 배면

제 4 장

지장전 각부 실측조사



1 개요
2 평면
3 기단 및 초석
4 목조 가구
5 처마
6 지붕
7 기타

여 백

제 4 장 지장전 각부 실측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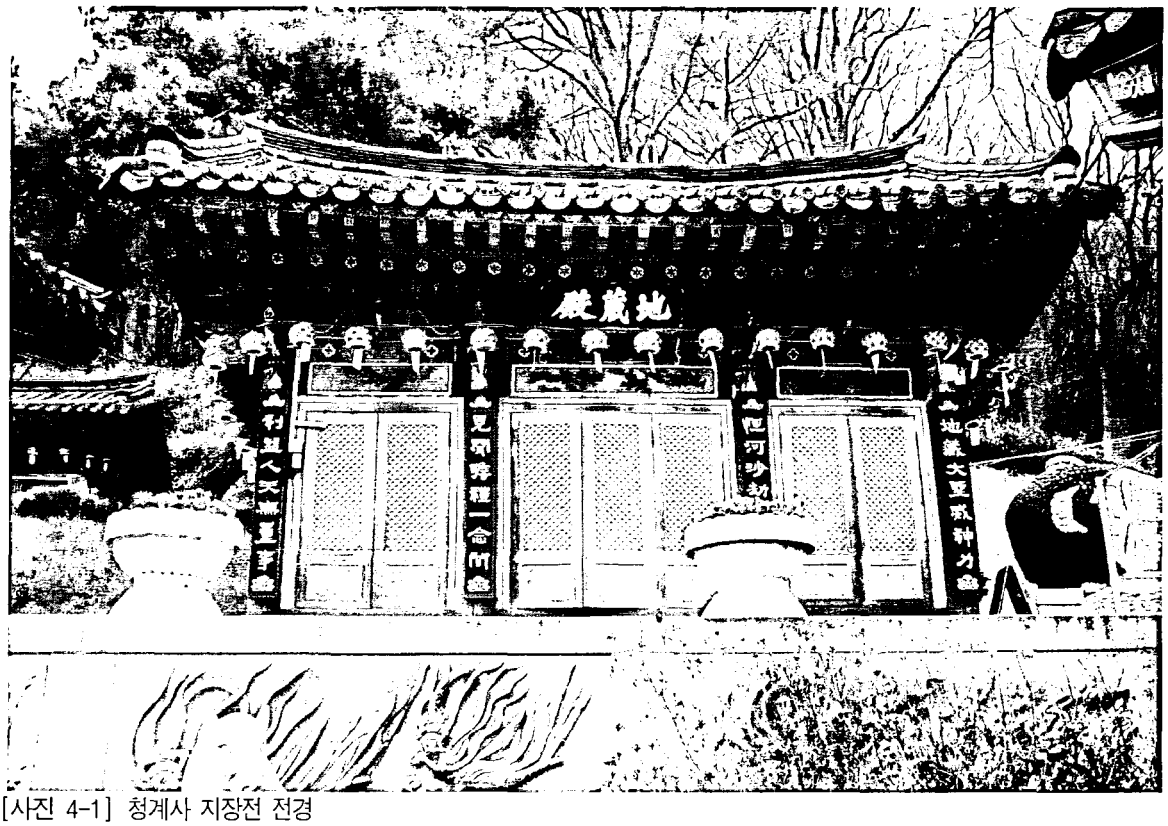
1. 개요

청계사는 청계산 남쪽의 태봉 기슭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지의 급한 경사에 축대를 세우고 단을 만들어 사찰 경내를 조성하였으며, 경내 북측의 높은 단 위에 주불전인 극락보전과 더불어 여러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지장전은 범종각과 함께 극락보전의 동측에 위치해 있으며, 지장전 동측으로는 근래에 조성된 와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청계사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전각이다. 건물 전면의 어칸과 협칸에 각각 3짝과 2짝의 빗살무늬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서측 한 칸에 외여닫이문을 달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3량가의 단순한 가구 구조를 하고 있으며, 정면과 배면의 기둥을 가로질러 대량을 결구하고 대량의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다. 전각 내부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바닥에는 쪽마루를 깔았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이며, 기둥 사이에 설치된 화반 상부에 익공과 같은 형태의 앙서형 만개한 꽃과 봉황을 새긴 부재가 도리와 직각방향으로 짜여있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이며, 박공과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지장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며 1990년대의 기록들에 산신각 혹은 칠성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엔가 용도가 변경되었으리라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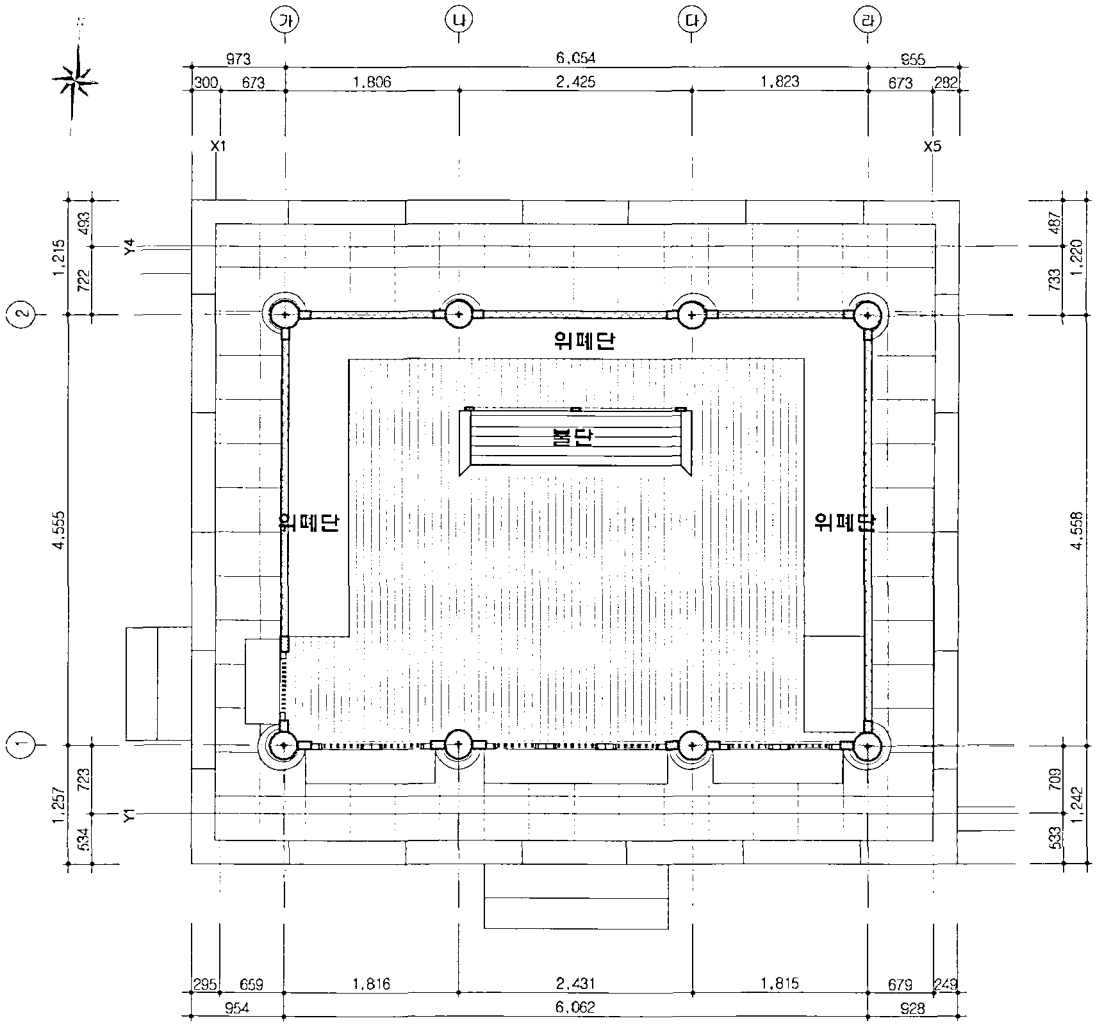


[사진 4-1] 청계사 지장전 전경

2. 평면

청계사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전각으로 건물의 전·후면에 각각 4본씩의 기둥을 사용하여 평면을 구성하였다. 건물의 정면과 서측 앞부분에는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참배객들은 서측문을 이용하여 법당을 출입할 수 있다. 어칸의 북측으로는 독립된 불단을 설치하여 지장보살입상을 모시고 정면을 제외한 삼면의 벽에는 위폐를 모시는 단을 설치하였다.

지장전 주칸의 전체길이는 정면 6,062㎜, 동측면 4,558㎜로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은 약 27.63㎡이다. 정면과 측면의 길이는 1.33:1 정도의 비례를 보인다.



[도면 4-1] 지장전 평면도

건물의 주칸 거리 실측은 남측면 기단의 좌측 상부를 ±0으로 하여 기둥 하부는 +500㎜ 지점에서, 평주 기둥의 상부는 +2,900㎜ 지점에서 기둥 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기둥 상부와 하부 길이의 편차는 1~10㎜ 사이 값을 보여 상·하부 주칸거리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하부 주칸거리가 상부에 비해 약간 더 큰 값을 보였으며, 배면 서측(가-나열, 2행)의 주칸거리에서만 상부가 10㎜ 정도 넓다. 동서 길이 방향의 주칸거리는 어칸 2,423~2,431㎜, 좌우 협칸 1,806~1,823㎜ 정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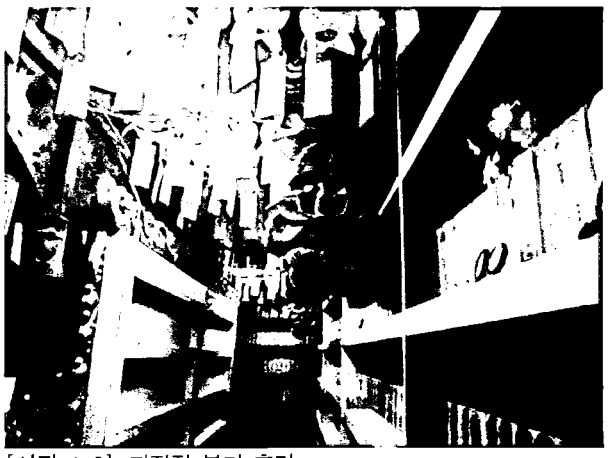
며, 전체길이는 6,053~6,062㎜ 사이 값을 보인다. 남북 방향인 측면의 주칸거리는 4,549~4,558㎜ 정도로 불단과 참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 기둥 없이 비교적 넓은 칸으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측결과로 살펴본 계획 당시의 주칸거리는 정면 어칸 8尺, 정면 협칸 6尺, 측면 칸은 15尺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된 용척을 계산하기 위해 각 주칸거리를 기준이 되는 尺으로 나누어 본 결과, 1尺은 302~303.8㎜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303㎜ 전후의 값을 보인다.

[표 4-1] 주칸거리 실측표 (단위 : ㎜)

구분		단위	가-나열		나-다열		다-라열		비고
1행	하부주칸	㎜	1,816.0		2,431.0		1,815.0		
		기준척/용척	6尺적용	302.6	8尺적용	303.8	6尺적용	302.5	
	상부주칸	㎜	1,812.0		2,427.0		1,814.0		
		기준척/용척	6尺적용	302.0	8尺적용	303.3	6尺적용	302.3	
	거리편차	㎜	4.0		4.0		1.0		
2행	하부주칸	㎜	1,806.0		2,425.0		1,823.0		
		기준척/용척	6尺적용	301.0	8尺적용	303.1	6尺적용	303.8	
	상부주칸	㎜	1,816.0		2,423.0		1,821.0		
		기준척/용척	6尺적용	302.6	8尺적용	302.8	6尺적용	303.5	
	거리편차	㎜	-10.0		2.0		2.0		
구분		단위	가열		라열				비고
1-2행	하부주칸	㎜	4,555.0		4,558.0				
		기준척/용척	15尺적용	303.6	15尺적용	303.8			
	상부주칸	㎜	4,551.0		4,549.0				
		기준척/용척	15尺적용	303.4	15尺적용	303.2			
	거리편차	㎜	4.0		9.0				

[사진 4-2] 지장전 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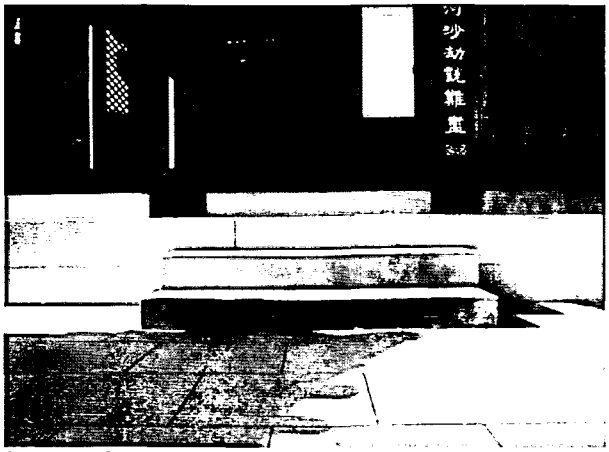
[사진 4-3] 지장전 불단 후면

3. 기단 및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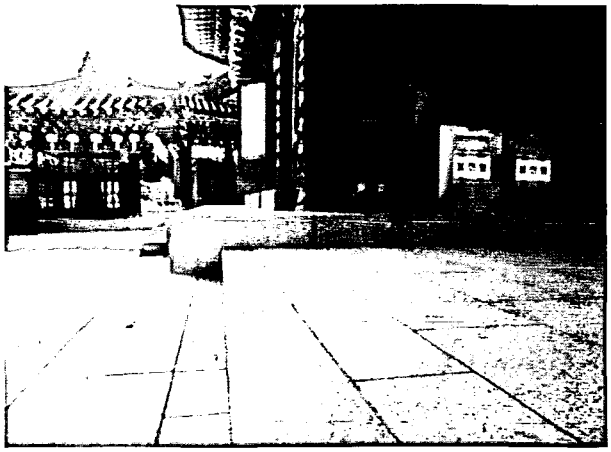
3-1. 기단

청계사는 청계산의 남쪽 태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남북 방향의 경사가 큰 편으로, 경내에 축대를 쌓아 대지를 여러 단으로 정리하여 전각을 배치하였다. 청계사 지장전은 삼성각을 제외하면 극락보전, 봉양각 등과 함께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마당에 조성된 두 단의 높은 석축 위에 자리한다. 장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깔아 마감한 석축 상부에 장대석 기단을 쌓고, 상부 면에는 정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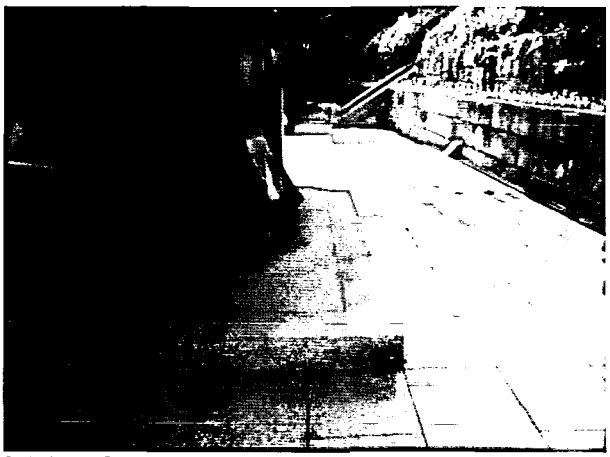
건물이 놓인 하부 바닥면의 레벨은 남서측 모서리 부분이 가장 낮고, 북동측 부분이 높은 값을 보인다. 정면과 배면의 레벨 차는 460㎜ 정도이며, 기단 주변 바닥면에 낮은 단을 두어 높이차를 조정하였다. 건물 우측면의 경우, 정면 기단이 연장된 선에서 하부 바닥이 370~450㎜ 정도 높아지는데,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계단처럼 두 단을 설치하였다. 좌측의 하부 바닥면은 배면에서 정면 방향으로 150㎜ 정도의 경사를 두었으며, 배면 기단 가까이에 140㎜ 정도 높이의 단을 설치하였다. 배면의 하부 바닥면은 좌측 기단면이 연장된 선에서 200㎜ 정도 높이의 단을 만들어 우측과의 높이차를 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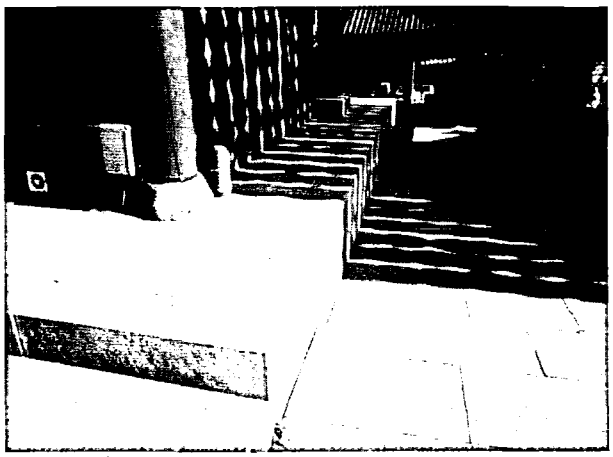
[사진 4-4] 정면 기단 및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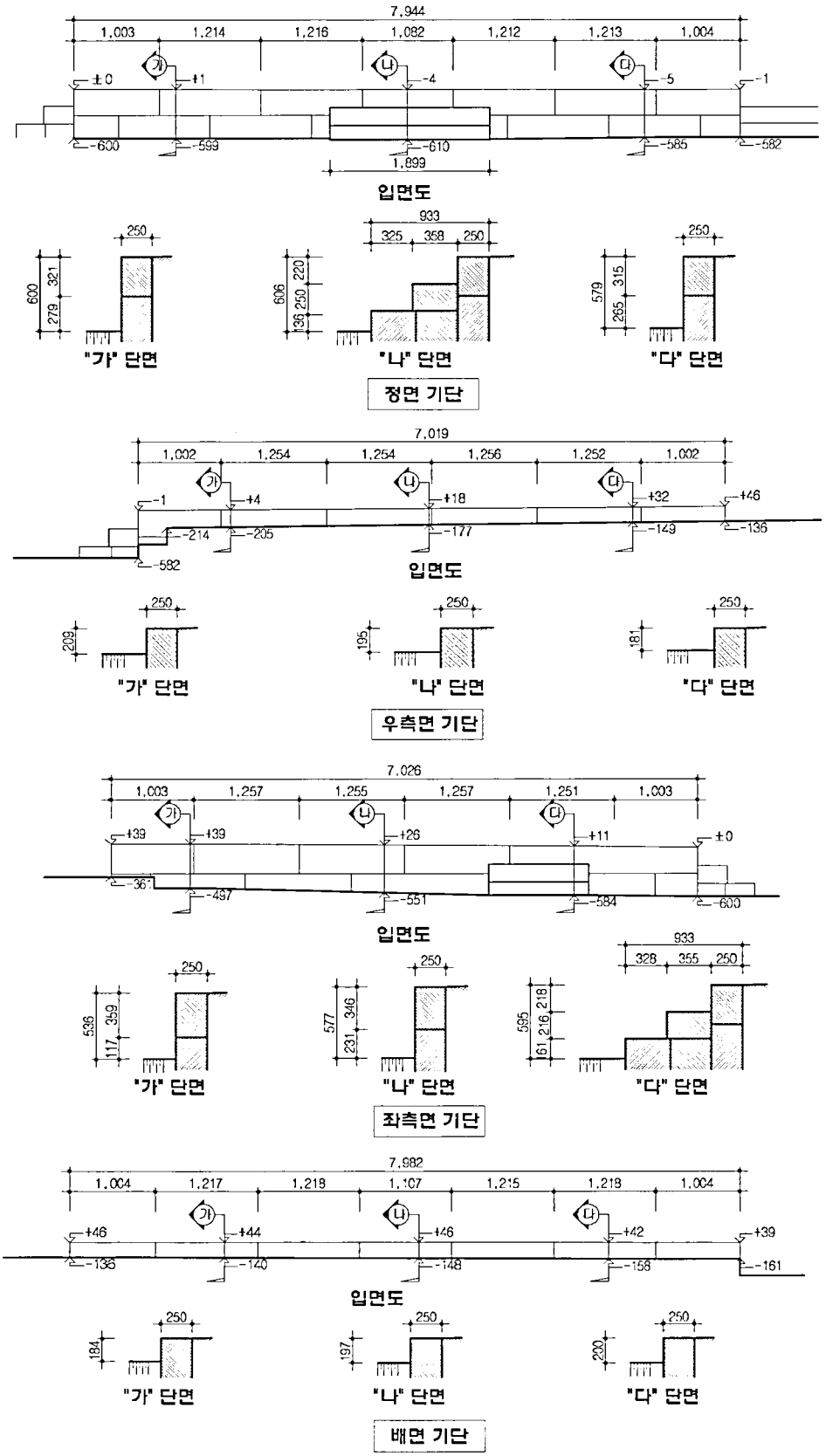
[사진 4-5] 우(동)측면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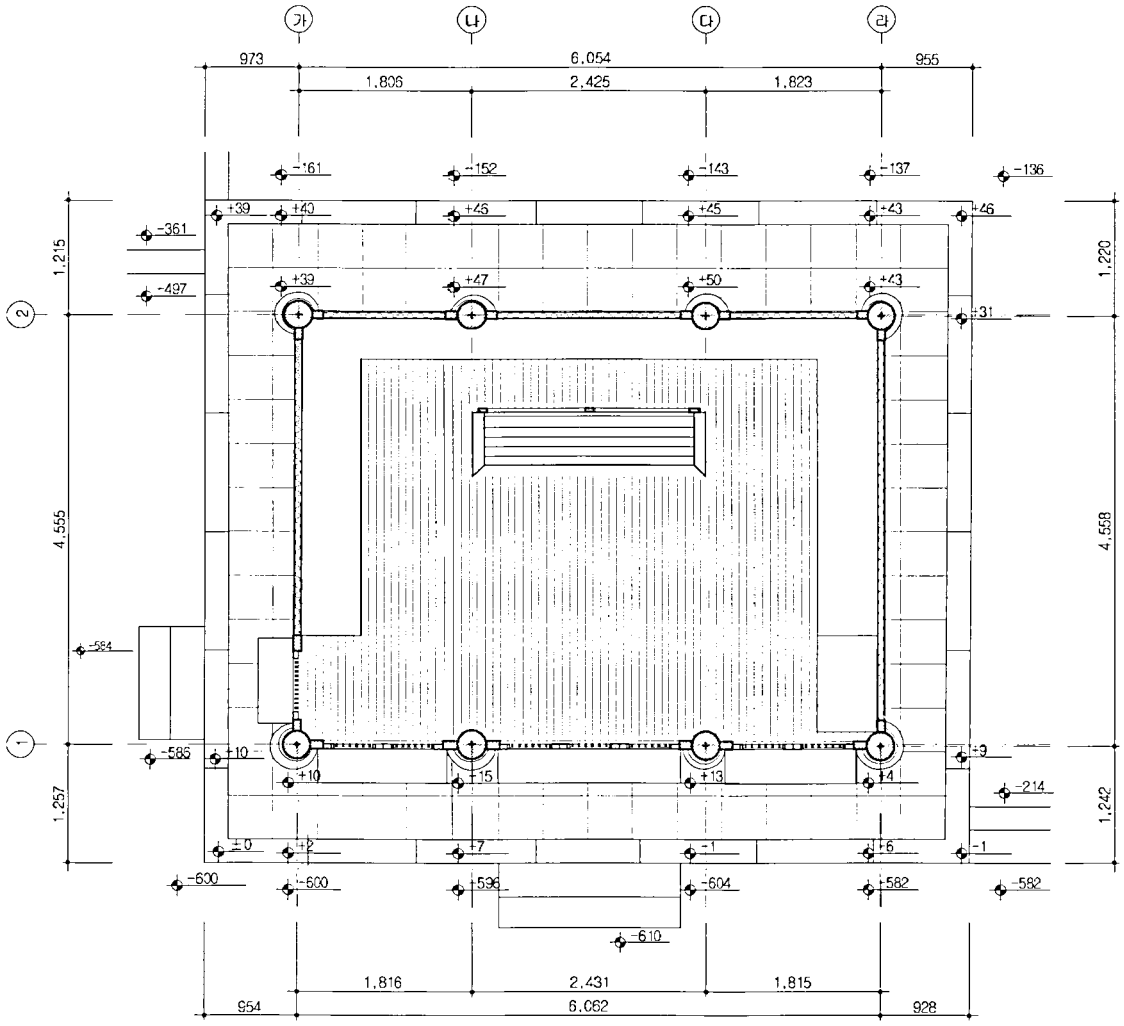
[사진 4-6] 배면 기단



[사진 4-7] 좌(서)측면 기단 상부



[도면 4-2] 지장전 기단 실측도 - 입면, 단면



[도면 4-3] 지장전 기단 실측도 - 평면

지장전의 기단은 이러한 하부 바닥면의 조건에 따라 높이를 달리한다. 정면 기단과 좌측면은 두벌대로, 우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인 남측면의 기단 높이는 581~600㎜ 정도이고, 중앙부분에는 약 1,900㎜의 너비로 디딤석 두단을 설치하였다. 우측면 기단은 외벌대로 기단의 높이는 200㎜ 정도이고, 대부분이 두벌대로 구성된 좌측면의 기단의 높이는 450~600㎜ 정도이다. 좌측면 앞쪽의 건물 출입문 부분에는 참배객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1,200㎜ 너비의 두 단으로 구성된 계단을 설치하였다. 배면 기단은 외벌대이며, 기단의 높이는 180~200㎜ 정도로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면 기단의 경우 내측에서 바깥 기단 끝단으로 10~20㎜ 정도 경사가 져 있으나, 배면 기단은 내측과 바깥 기단면의 레벨차가 거의 없다.

기단석은 너비 250㎜, 높이 315~350㎜, 길이 1,000~1,250㎜ 내외의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각 기단의 모서리에는 ㄱ자 형태의 모서리석을 설치하였다. 기단 상부에 깐 화강석 판석의 크기는 460×460㎜ 정도이다. 기단 상부에는 정면과 측면의 건물 출입구 부분에 각각 화강석 디딤돌을 설치하였으며, 디딤돌의 너비는 360㎜ 내외이다. 정면 어칸의 경우 1.900㎜ 정도의 긴 부재를 사용하였다.

기단의 전체 길이는 정면 7,943㎜, 배면 7,982㎜, 동측면 7,019㎜, 서측면 7,026㎜로, 마주보는 면 사이의 길이 편차는 크지 않다. 기둥의 중심에서부터 기단 끝단까지를 잰 기단 내밀기 거리의 경우, 1행 기둥 열에서 정면 기단 끝까지의 거리는 동측이 1,242㎜, 서측이 1,256㎜이며, 4행 기둥 열에서 배면 기단 끝까지의 거리는 동측이 1,220㎜, 서측이 1,215㎜이다. 정면 기단이 배면에 비해 20~30㎜ 정도 넓으나 의미 있는 치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서측면 기단 내밀기의 경우, 가열의 기둥 중심에서 서측 기단 끝까지의 거리는 남측이 954㎜, 북측이 973㎜이며, 라열에서 동측 기단 끝까지는 남측이 928㎜, 북측이 955㎜로 양 측면의 기단이 정면에 비해 약간 좁게 조성되어 있다.

청계사는 1990~1996년에 거쳐 석조 축대 및 경내 환경 정리 등의 불사를 진행하였는데, 지장전 앞의 석축 및 기단 역시 이 시기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다. 불사 전 사찰의 경내는 현재와 같이 화강석 및 대리석 판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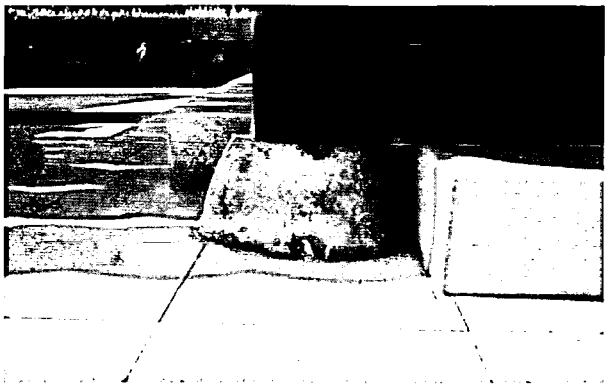
지장전의 초석은 화강석 원형 초석으로 초반이나 주좌 등을 따로 두지 않았고,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모양이다. 초석은 거친 정다듬 정도로 가공하여 설치하였다.

초석의 하부 너비는 444~519㎜ 정도이며, 상부 너비는 325~389㎜ 정도이다. 배면 초석이 정면에 비해 평균값이 약간 작으나 의미 있는 수치로 보이지는 않으며, 초석4의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큰 편이다. 초석 상하부의 너비차는 93~158㎜ 사이로 평균 130㎜ 전후의 값을 보인다. 초석의 높이는 정면 초석이 평균 209㎜, 배면 초석이 평균 184.5㎜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배면 기단이 약간 더 높아 배면 초석의 하부가 정면에 비해 묻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석 상부레벨은 +220㎜ 내외 값을 보이는데, 초석4의 경우 초석 하부와 상부레벨이 모두 다른 부분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보이나, 그 차이가 10~20㎜ 정도로 크지 않아 이 부분의 변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둥레벨 등 여러 각도의 비교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4-2] 초석 실측표 (단위 : ㎜)

구분	초석하부너비		초석상부너비		하부너비-상부너비		초석높이h	초석하부 레벨 L1	초석상부 레벨 L2	비고
	정면W1	측면W2	정면W3	측면W4	W1-W3	W2-W4				
초석1	496	490	348	353	148	137	219	+10	+229	정면초석
초석2	481	-	351	-	130	-	203	+15	+218	
초석3	449	-	356	-	93	-	210	+13	+223	
초석4	512	519	379	389	133	130	204	+4	+208	
1-4평균	484.50	504.50	358.50	371.00	126.00	133.5	209.00	+10.50	+219.50	
초석5	444	503	326	345	118	158	186	+43	+229	배면초석
초석6	464	-	325	-	139	-	192	+50	+242	
초석7	447	-	338	-	109	-	175	+46	+221	
초석8	464	449	346	339	118	110	185	+39	+228	
5-8평균	454.75	476.00	333.75	342.00	121.00	134.00	184.50	+44.50	+230.00	

※ 초석 높이, 초석 상하부 레벨은 정면 실측값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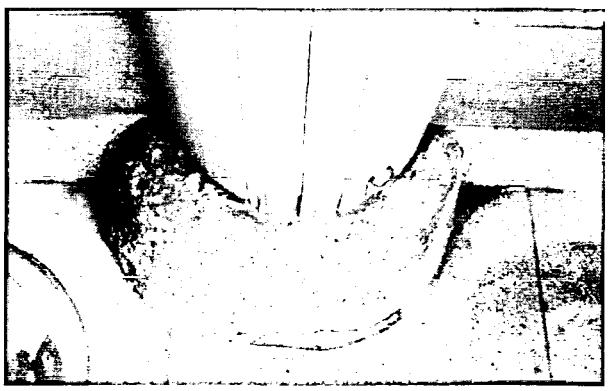
[사진 4-8] 초석 1

[사진 4-9] 초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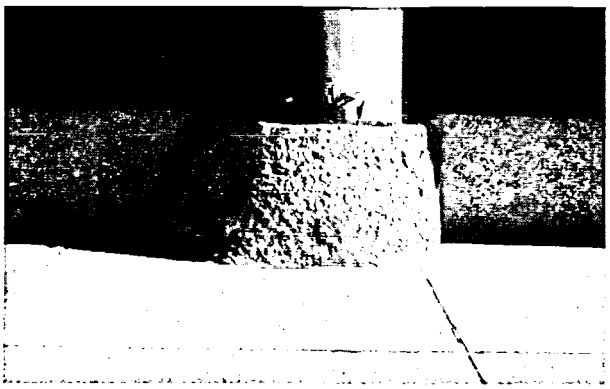
[사진 4-10] 초석 3

[사진 4-11] 초석 4

[사진 4-12] 초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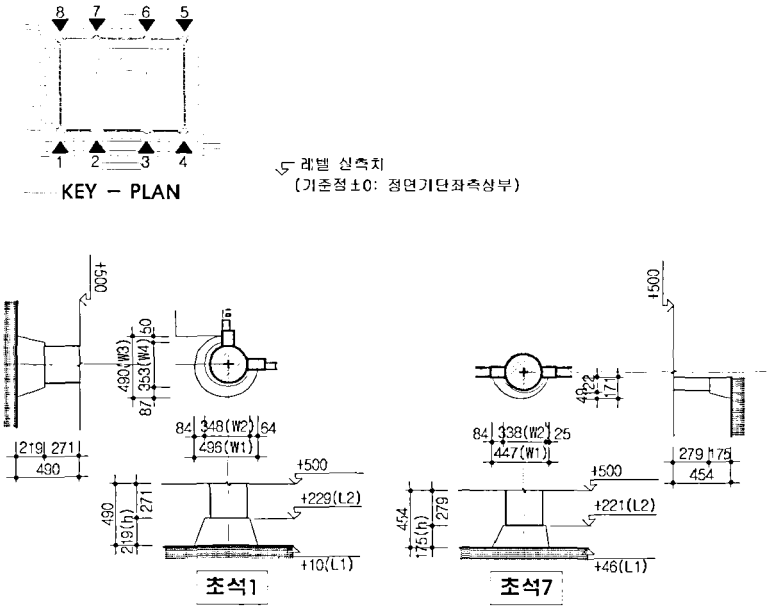


[사진 4-13] 초석 6



[사진 4-14] 초석 7

[사진 4-15] 초석 8



[도면 4-4] 지장전 초석상세도

4. 목조 가구

4-1. 가구 구성

청계사 지장전은 3량가의 가구 구성을 보인다. 전후면 평주 위에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도리 사이에 대량을 결구하였다. 대량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상부에 종도리를 설치하여 주심도리와의 사이에 연목을 걸었다. 지붕은 박공 형태이며,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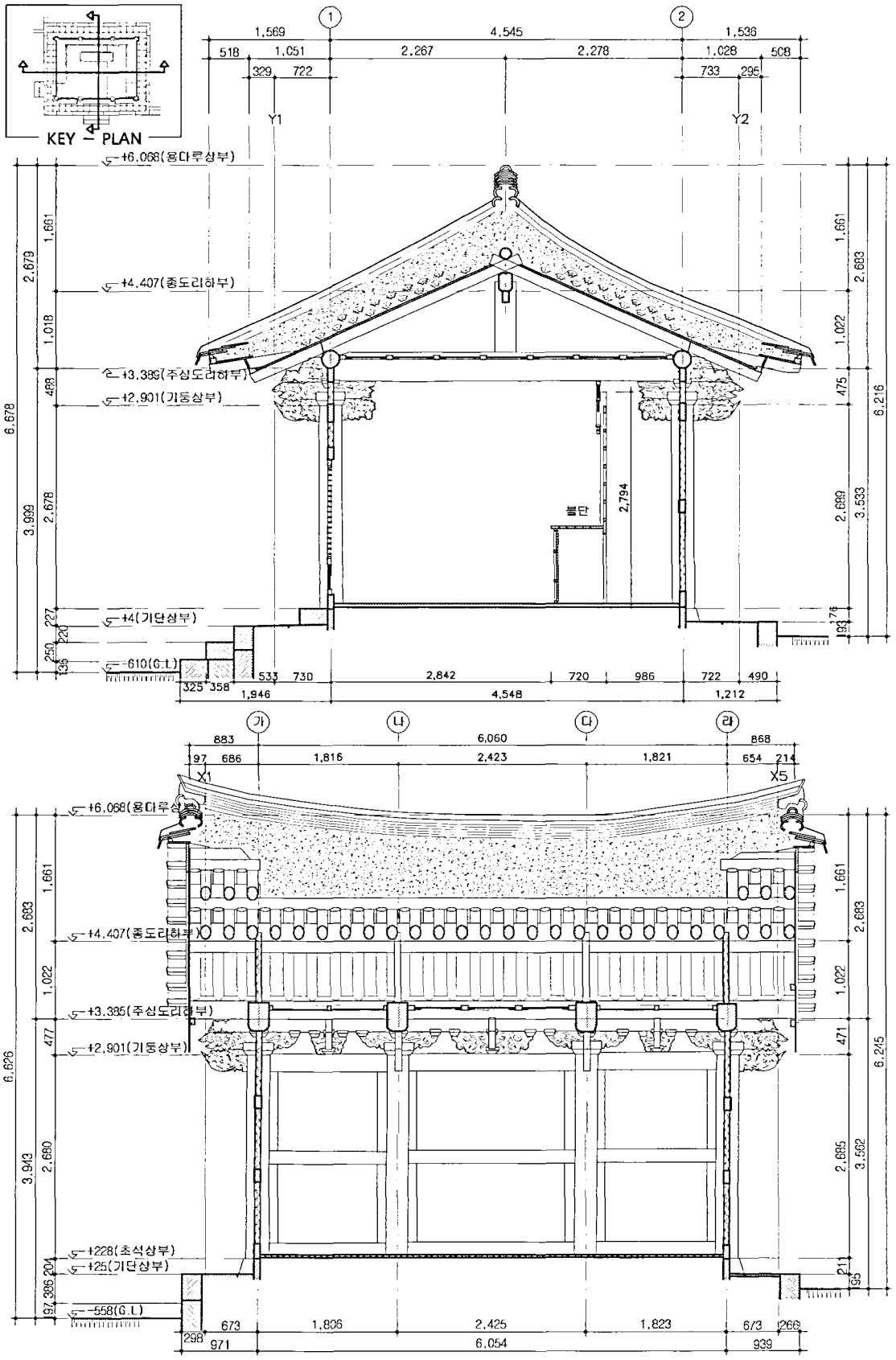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거리는 전면 2,267㎜, 후면 2,278㎜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주심도리에서 연목 끝단까지의 연목내밀기 거리는 전면이 1,051㎜, 후면이 1,028㎜이다. 주심도리에서 부연 끝단까지의 처마내밀기 거리는 정면이 1,569㎜, 배면이 1,536㎜정도로, 처마내밀기와 연목 내단 사이의 거리비는 1:1.5 정도이다.

측면의 경우, 양쪽 기둥 중심에서 박공판까지의 거리는 우측이 868㎜, 좌측이 883㎜로 서까래 3본 정도가 설치될 너비로 내밀기 하였다. 건물의 양 측면 박공 하부에는 풍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 측면 내밀기 부분에 하중이 전달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 상부에서 용마루 끝까지 건물의 전체 높이는 전면은 6,064㎜, 후면은 6.023㎜이다. 기단 상부에서부터 주심도리 하부까지의 거리는 전면이 3,166㎜, 후면이 3,164㎜이며, 주심도리 하부에서 용마루 끝까지의 거리는 전면이 2,679㎜, 후면이 2,683㎜이다.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한 건물의 기둥부와 지붕부의 비례는 1.18:1 정도로 기둥부가 길어 건물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천정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으며, 바닥에는 쪽마루를 깔았다.

건물의 종도리와 처마도리 사이의 간격은 7.5尺이다. 단면상에서 처마 내밀기 거리는 5尺 정도로 생각되나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용척이 310㎜ 내외의 값을 보여 주칸거리에서 구한 용척과 다소 편차가 있으므로 寸 단위까지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도면 4-5] 지장전 종횡단면도

4-2. 기둥

청계사 지장전에는 정면 4본, 배면 4본, 총 8본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 불단을 두고 참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측면을 1칸으로 구성하면서 주칸거리를 넓게 하였다. 측면에는 사잇기둥 없이 좌측 출입문 부분에 문선만 설치하였다. 기둥은 원형의 민흘림을 둔 형태이다.

기둥의 실측은 기둥 상부에서부터 300㎜ 단위로 직경 크기를 재고 기준 레벨에서 ±1,500㎜되는 높이에서부터 기둥 상하부 길이를 재어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기둥의 직경 변화와 길이의 실측값을 통해 흘림율과 귀솟음의 유무 등 기둥에 적용된 기법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장전 기둥의 하부 직경은 평균 290㎜ 정도로 279~304㎜ 사이에 분포하여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기둥의 상부 직경은 평균 284㎜ 정도로 276~292㎜ 사이값을 보이며, 상하부의 직경차이는 -5~16㎜ 정도로 일정하지 않다. 대체로 크기에 여유가 있는 기둥은 흘림을 두어 치목했으며,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흘림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흘림율은 -0.19~0.6정도이다.

기둥의 길이는 2,674~2,689㎜ 사이에 분포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평균 길이는 2,682㎜ 정도이다. 기준선 상부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기둥 2~4의 길이가 평균보다 짧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와 평주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4-3] 기둥 실측표 (단위 : ㎜)

구분	상부 너비 A	하부 너비 B	하부-상부너비 (B-A)	평균 너비 W	최소 너비 C	최대 너비 D	가둥 길이 L=L1+L2	기준선 하부길이 L1	기준선 상부길이 L2	세장비 L/W	흘림율 (B-A)/L *100	비고
기둥1	279	284	5	284	279	290	2,683	1,271	1,412	9.45	0.19	우주
기둥1'	277	293	16	285.6	277	293				9.39	0.60	
기둥2	283	285	2	283.8	274	288	2,683	1,282	1,401	9.45	0.07	
기둥2'	291	304	13	300.5	291	304				8.93	0.48	
기둥3	283	289	6	286	281	291	2,678	1,277	1,401	9.36	0.22	
기둥3'	292	304	12	300.1	292	305				8.92	0.45	
기둥4	278	291	13	289.3	278	293	2,684	1,292	1,392	9.28	0.48	우주
기둥4'	286	297	11	293.2	286	299				9.15	0.41	
기둥5	284	292	8	287.9	284	293	2,685	1,271	1,414	9.33	0.30	우주
기둥5'	286	287	1	289.3	286	293				9.28	0.04	
기둥6	288	283	-5	286	281	289	2,674	1,258	1,416	9.35	-0.19	
기둥6'	276	279	3	283.7	276	289				9.43	0.11	
기둥7	284	286	2	286.7	283	291	2,689	1,279	1,410	9.38	0.07	
기둥7'	283	285	2	286.1	283	288				9.40	0.07	
기둥8	291	293	2	290.2	285	298	2,680	1,272	1,408	9.24	0.07	우주
기둥8'	285	293	8	291.2	285	295				9.20	0.30	
평 균	284.13	290.31	6.19	288.98	282.56	293.69	2682.00	1275.25	1406.75	9.28	0.23	

※ 기준선은 기준점에서 +1,500㎜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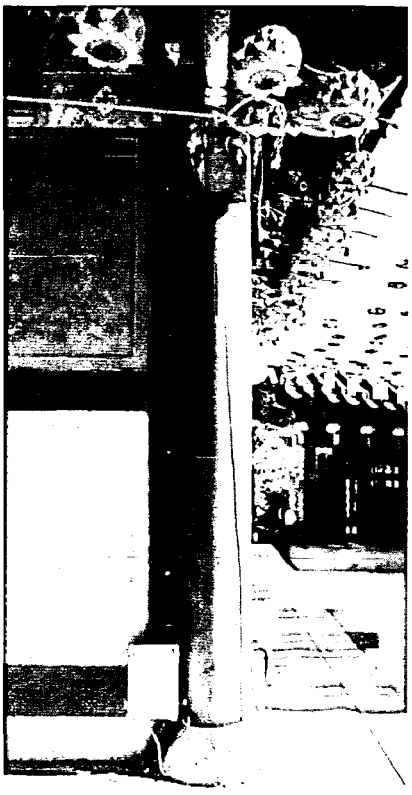
[사진 4-16] 정면우주(기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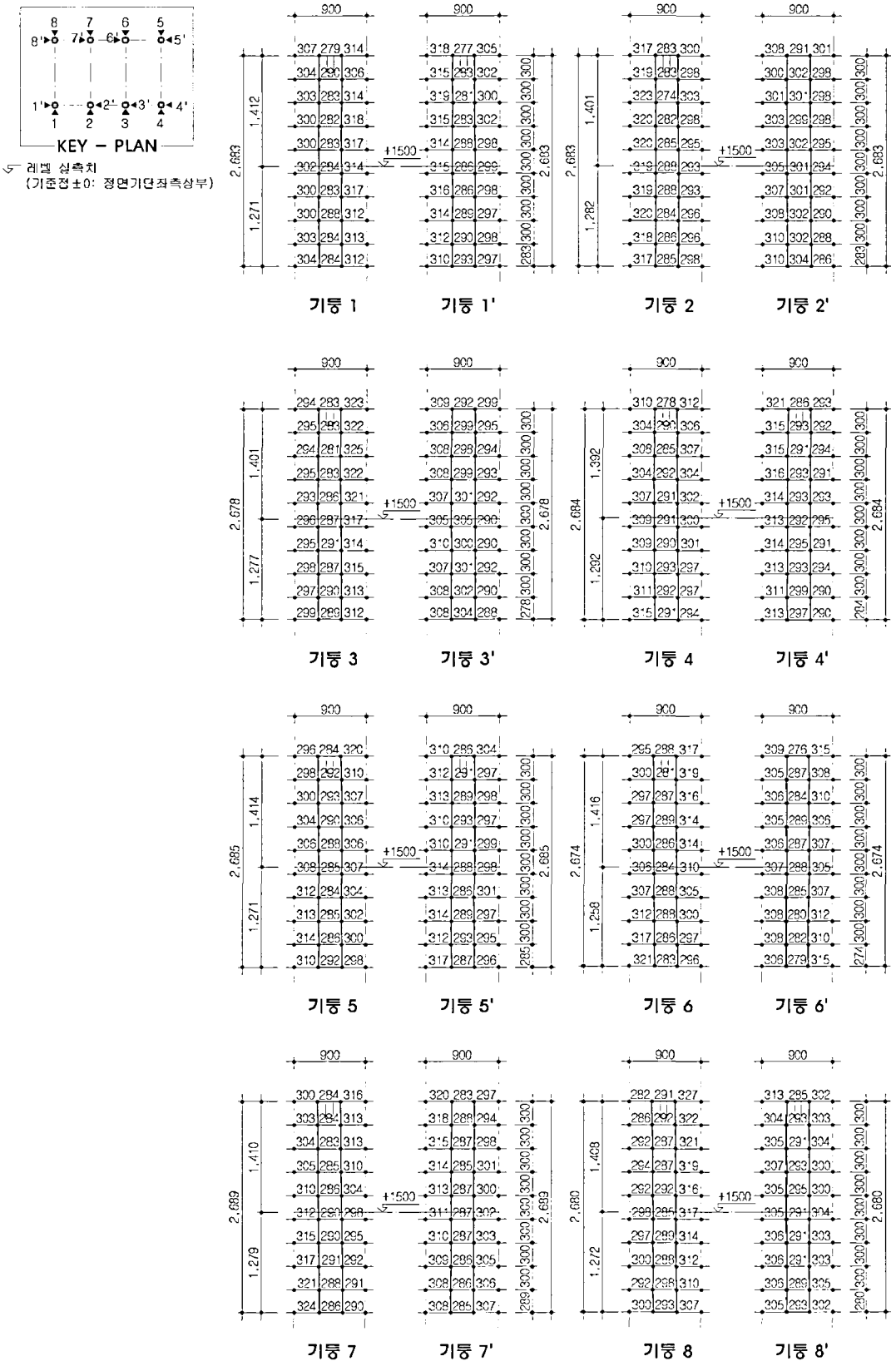
[사진 4-17] 정면평주(기둥2)

[사진 4-18] 정면우주(기둥4')

[사진 4-19] 배면우주(기둥5')

[사진 4-20] 배면평주(기둥7)


[사진 4-21] 배면우주(기둥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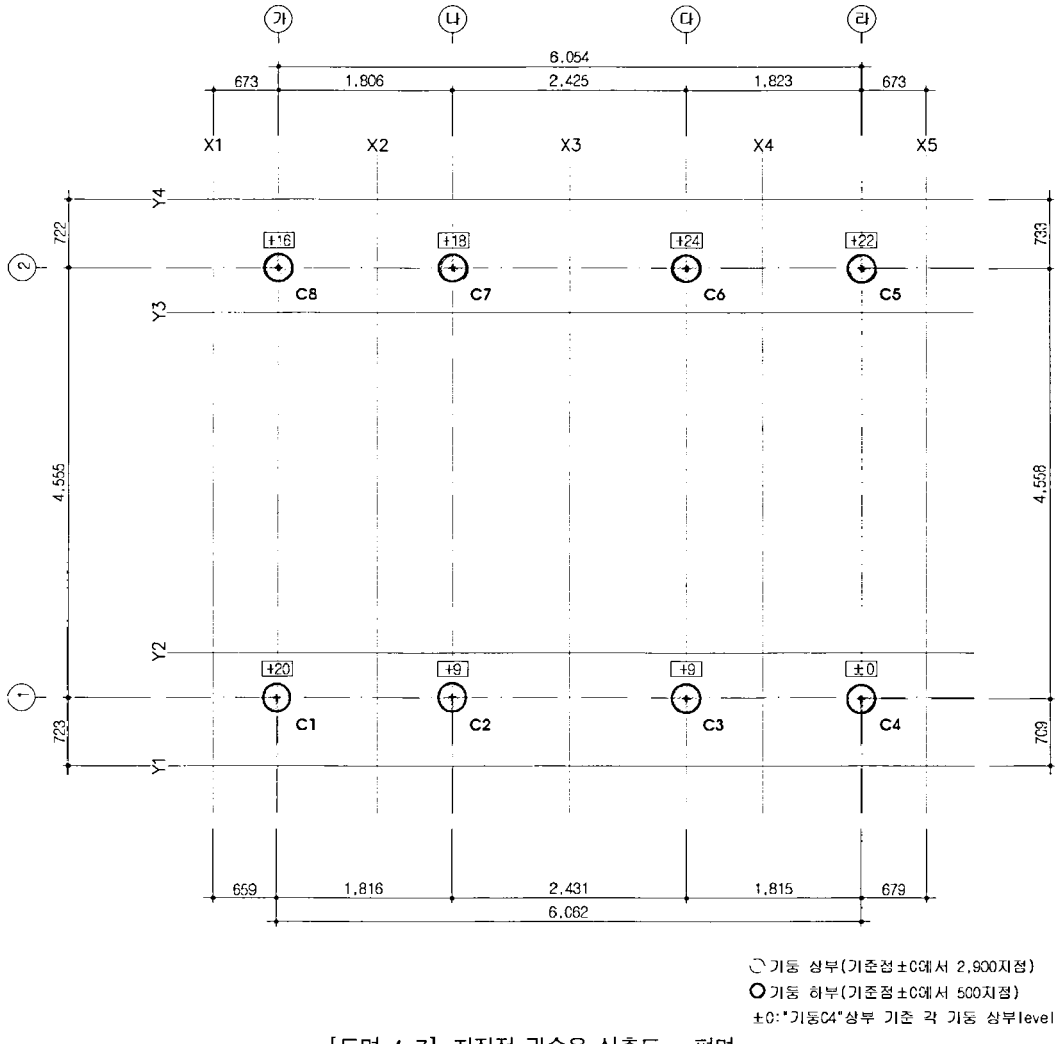


[도면 4-6] 지장전 기둥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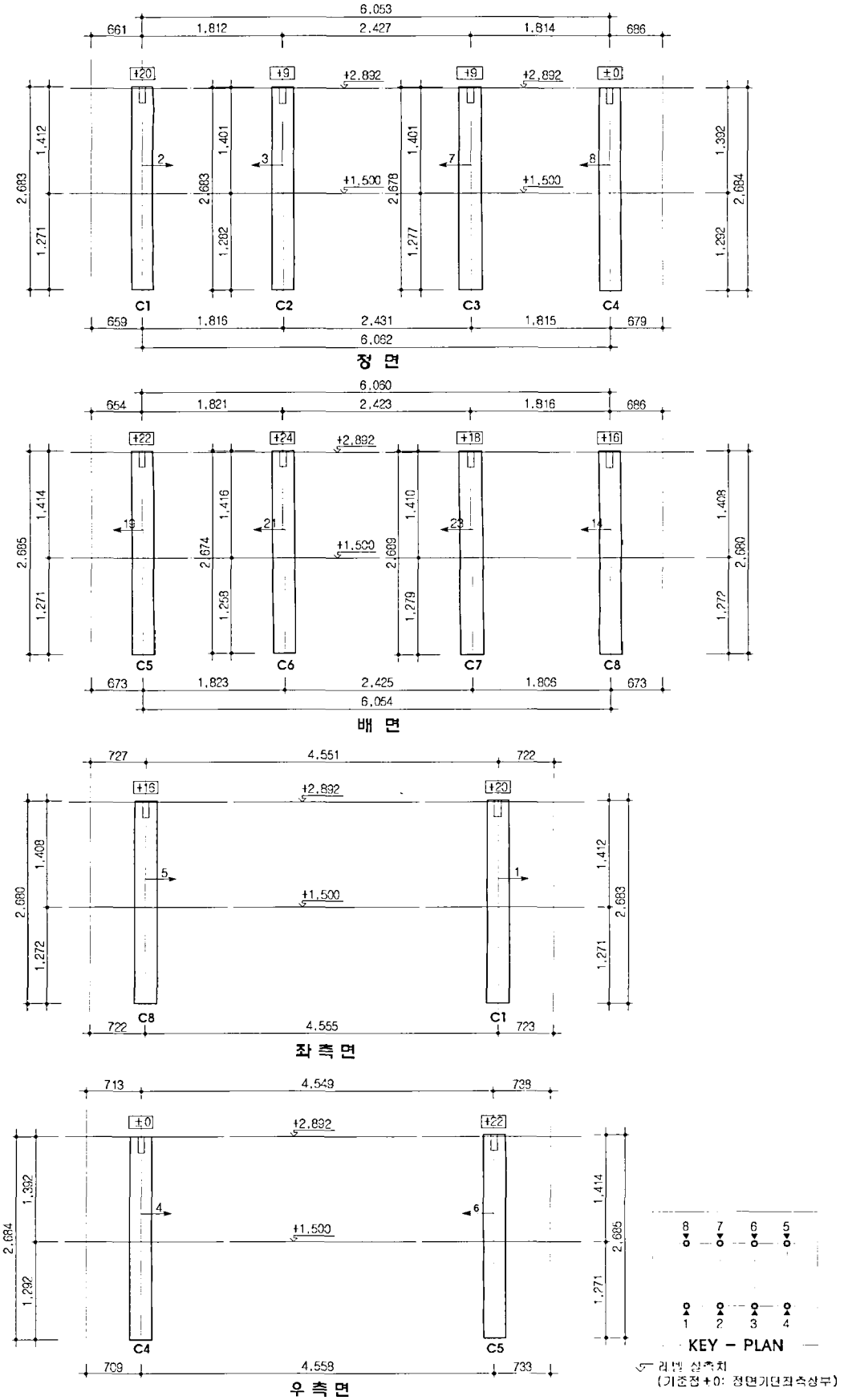
4-3. 귀솟음과 안쏠림

지장전의 귀솟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면 우주인 기둥 4(C4)의 상부면 레벨을 ±0으로 하여 다른 기둥들과의 높이차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C4의 상부면 높이는 수직 기준점에서 +2,892㎜에 위치하고 있다.

귀솟음 실측 결과 건물 정면인 남측면의 경우 기준인 C4의 높이가 가장 낮고, 중앙부에 위치한 C2와 C3의 높이는 +9㎜, 남서측 우주인 C1은 +20㎜만큼 차이가 난다. 기준이 되는 C4의 경우 기둥 전체길이는 다른 기둥들과 비슷하나 초석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기둥의 상부레벨이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약 20㎜ 정도 시공 오차 혹은 지반의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C4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남서측 우주가 중앙부에 비해 +11㎜정도의 값을 보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북동측과 비교해 볼 수가 없어 귀솟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배면인 북측면의 경우 북동측 우주인 C5가 +22㎜, 북서측 우주인 C8가 +16㎜ 만큼의 차이를 보이며, 배면 중앙부에 위치한 C6~C7의 상대높이는 각각 +24㎜, +18㎜이다. 북측면의 기둥들은 상대높이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며, 중앙부에 위치한 C6이 우주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 귀솟음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4-7] 지장전 귀솟음 실측도 -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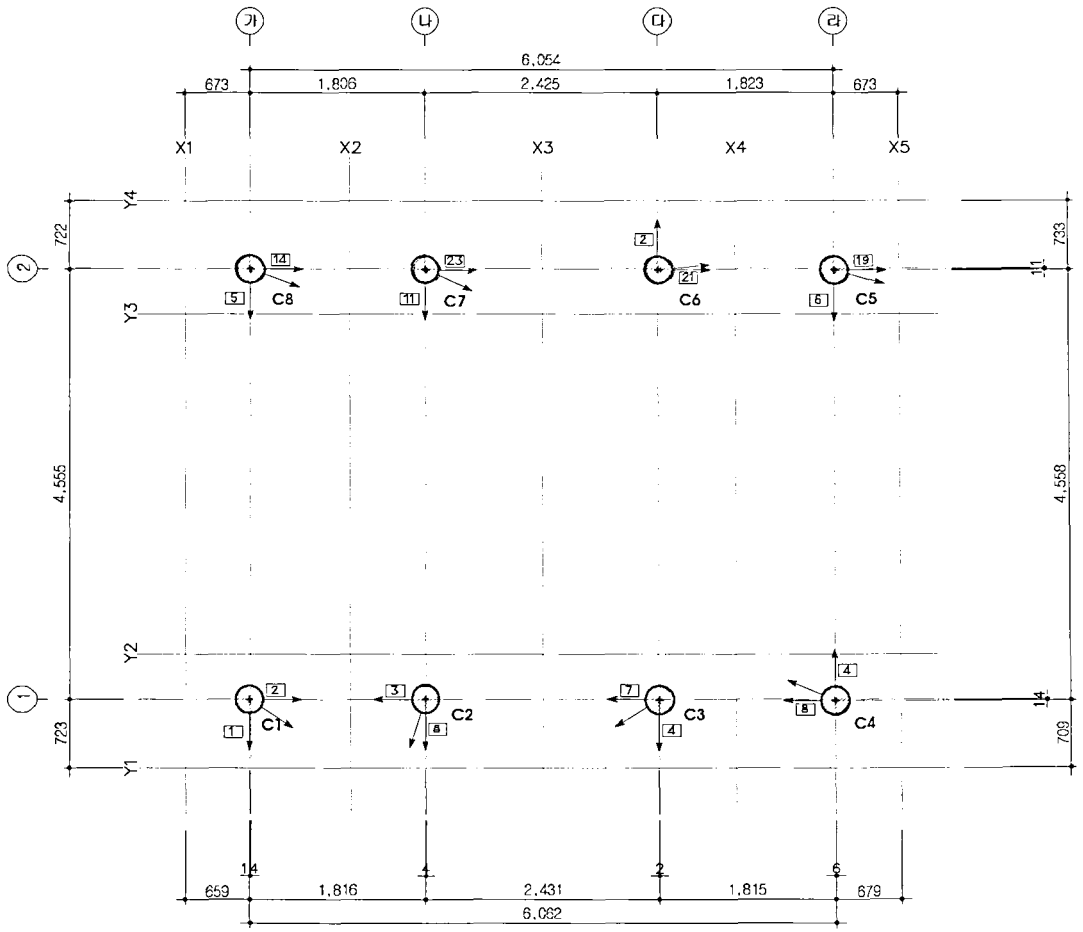
[도면 4-8] 지장전 귀솟음 실측도 - 입면

귀솟음 실측값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귀솟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귀솟음을 특별히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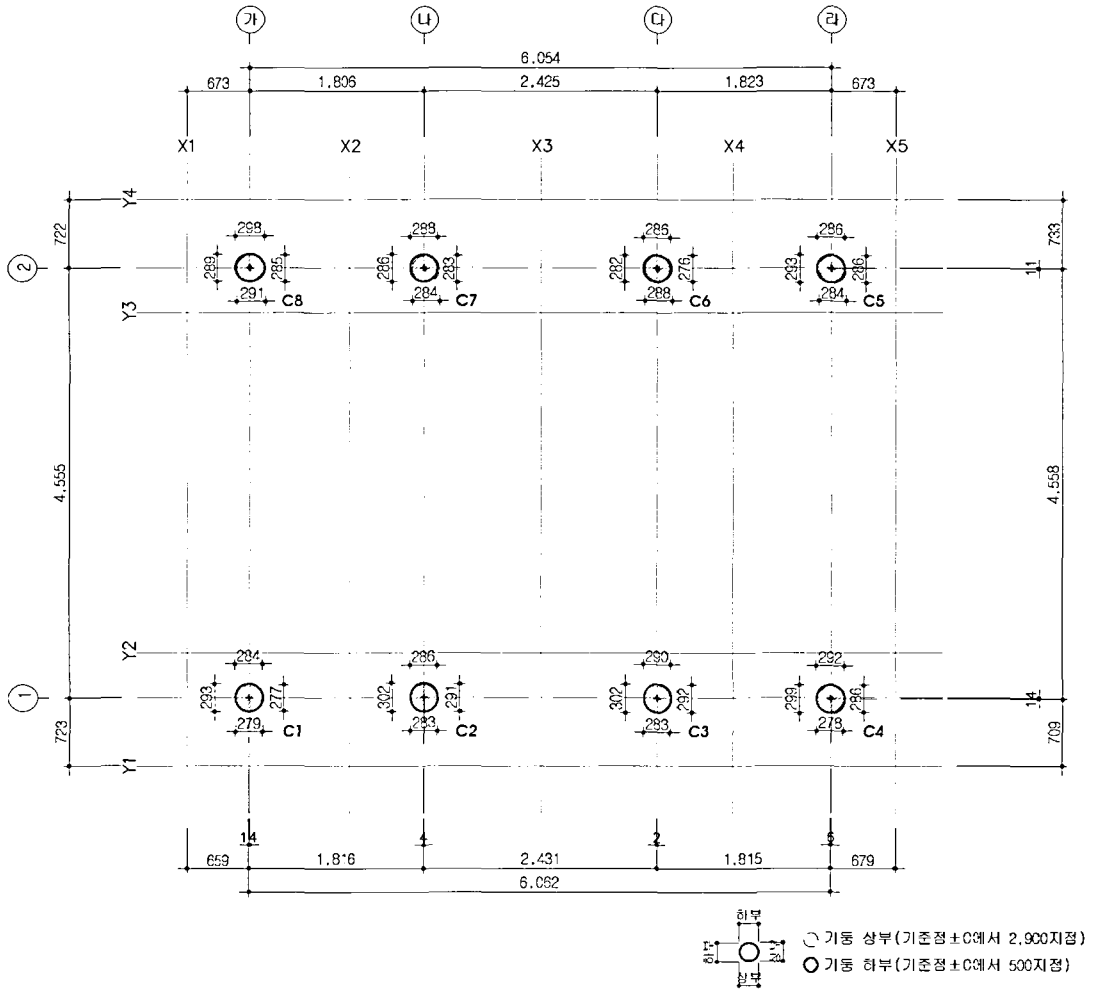
기둥에 안쏠림을 주었는지의 여부는 기둥 하부와 상부 중심의 거리 편차, 상·하부 주칸 거리를 함께 비교하여 변형에 의한 부분을 고려한 후 판단해 볼 수 있다. 기둥 기울기는 기둥 하부의 경우 기준점에서부터 +500㎜ 지점에서, 기둥 상부는 +2,900㎜ 지점에서 실측하였다.

정면의 서측 우주인 C1은 동남쪽, 가운데 평주인 C2~C3는 서남쪽, 동측 우주인 C4는 북서쪽의 변위를 보이며 그 값은 1~8㎜정도로 크지 않다. 북측의 경우 C5, C7, C8는 동남쪽, C6는 동북쪽의 변위를 보이며, 동쪽으로의 변위값이 14~24㎜ 정도로 큰 편이다. 북측 중앙부에 위치한 C7의 경우 동측으로 23㎜, 남쪽으로 11㎜ 기울어져 있어 가장 큰 변위를 보인다.

건물 전체로 볼 때, 기둥의 변위는 대체적으로 시계 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주칸 거리 등과의 연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우주에서의 변위가 크지 않고 기울기의 방향도 건물 외부를 향하고 있는 등 일정하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 안쏠림을 판단하기 어렵다.



[도면 4-9] 지장전 기둥기울기 실측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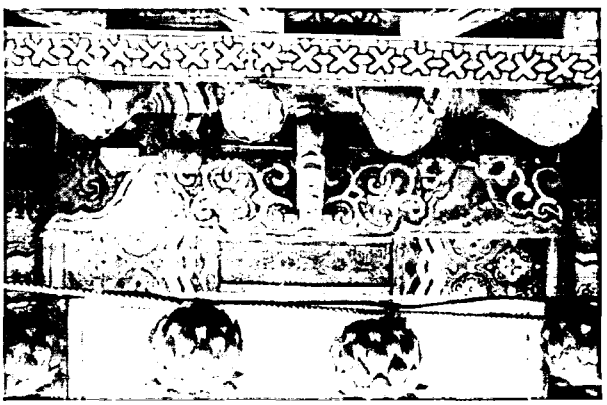


[도면 4-10] 지장전 기둥기울기 실측도 2

4-4. 창방

지장전에는 정면에 3본, 배면에 3본이 결구되어 총 6본의 창방이 쓰이고 있다. 측면의 경우, 창방을 사용하지 않고 기둥사이에 상·중·하인방을 가로지르고 벽체를 설치하였다.

[사진 4-22] 정면 어칸 창방(나-다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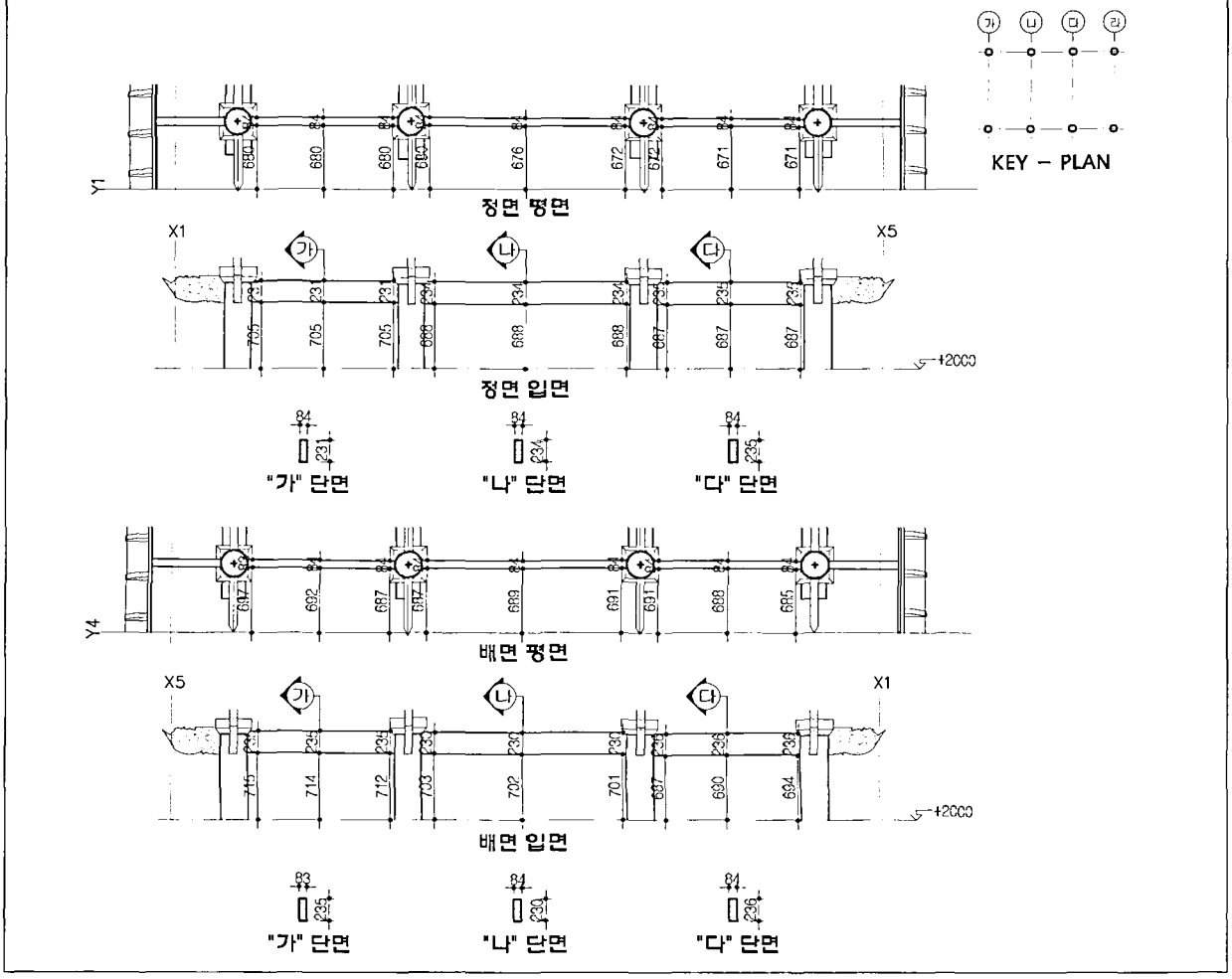
[사진 4-23] 배면 중앙부 창방 (나-다열)

지장전의 창방은 장방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너비를 수장폭으로 계획하였고 인방재 등과 춤의 높이만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협칸에서의 창방 뺄목은 기둥의 외단으로 앙서형의 연봉이 초각된 초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창방의 너비는 84㎜ 정도이고 춤은 230~235㎜ 사이의 값을 보이며, 너비와 춤의 비는 약 2.8 정도이다.

[표 4-4] 창방 실측표 (단위 : ㎜)

구분		단면크기			창방상부레벨			비고
		너비	춤	춤/너비	동측단부	중앙부	서측단부	
정면	가-나열	84	231	2.75	+2,936	+2,936	+2,936	
	나-다열	84	234	2.79	+2,922	+2,922	+2,922	
	다-라열	84	235	2.80	+2,922	+2,922	+2,922	
배면	가-나열	84	236	2.81	+2,930	+2,926	+2,923	
	나-다열	84	230	2.74	+2,931	+2,932	+2,933	
	다-라열	83	235	2.83	+2,947	+2,949	+2,950	
평 균		83.83	233.50	2.79	2931.33	2931.17	2931.00	



4-5. 대량

청계사 지장전은 3량가의 가구 구성을 하고 있으며, 정면과 배면 기둥을 가로지르는 대량이 4본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양 측면에 설치된 대량 1, 4의 경우, 대량 춤은 실측이 가능하나 너비는 벽체로 가려져 있어 외부로 노출된 부분만 실측하였다. 실 내부에 노출되어 있는 대량 2, 3의 경우는 천장에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어 반자 아래로 노출되어 있는 대량의 하부 부분만이 실측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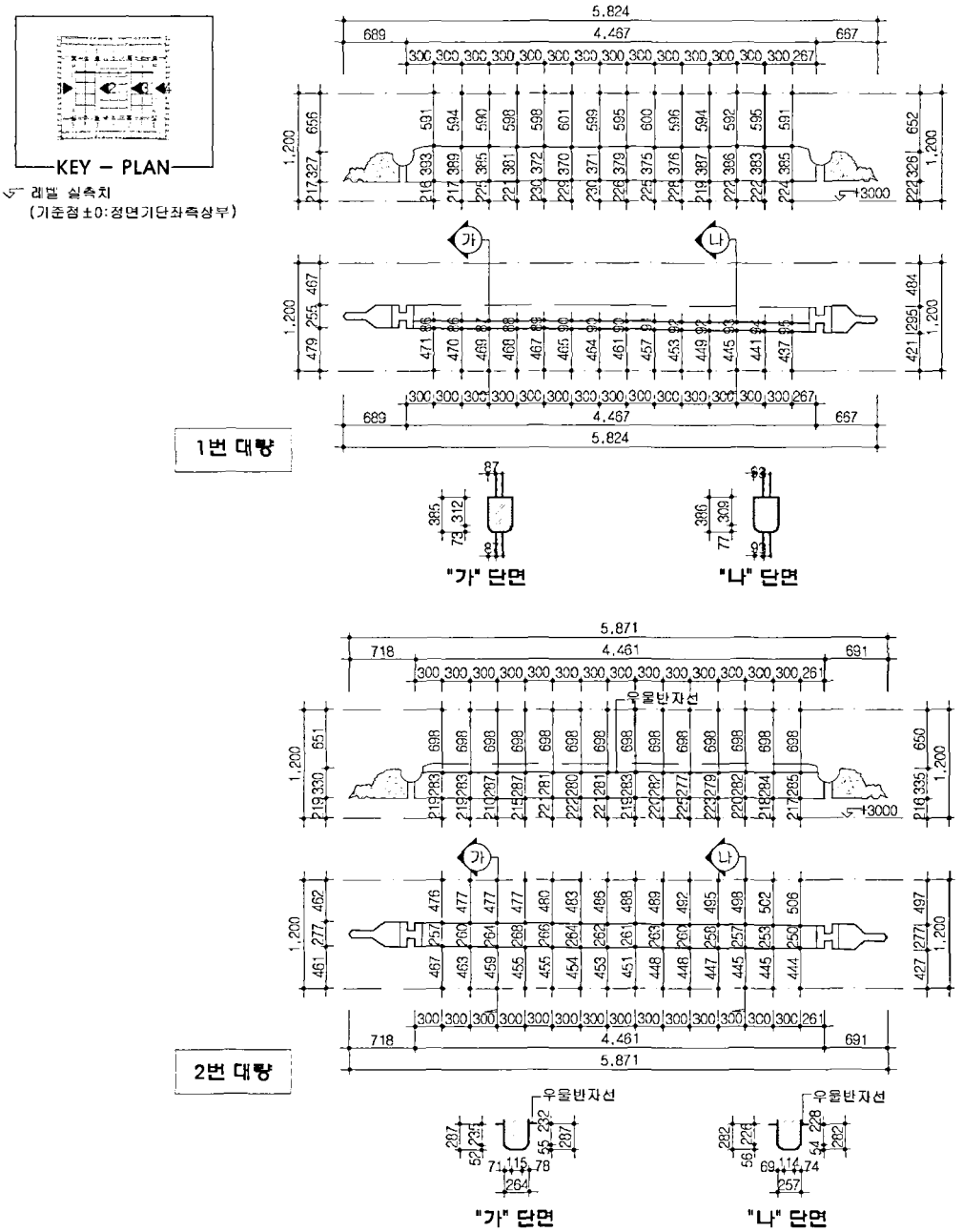
대량 하부에 결구된 전·후 장혀 내부면의 거리로 실측한 대량의 길이는 4,470㎜ 내외이며, 총 길이는 5,821~5,870㎜ 정도이다. 대량의 하부 모서리는 둥글게 굴려 다듬었으며, 길이가 긴 부재가 쳐져보이지 않도록 보머리 부분보다 하부면 가운데 부분을 20㎜ 가량 올려 치목하였다. 대량 2, 3에서의 평균 너비는 260㎜ 정도이며, 대량 1, 4의 평균 춤은 380㎜ 정도이다. 대량의 우물 반자 하부로 드러난 대량 2, 3의 춤은 283㎜ 정도로 대량 상부에서 약 100㎜ 내려온 지점에 반자틀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량의 너비와 춤의 비는 대량은 약 1:1.46이고, 보의 춤은 주칸 길이의 약 1/12 정도이다. 보 하부에 결구된 장혀 내부 면에서부터 보머리 끝까지의 길이는 700㎜ 내외이며, 보머리 끝에는 봉황 머리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대량의 윗면 중앙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상부의 종도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양 측면에서는 밖으로 보이는 동자주 양쪽 옆면으로 긴 삼각형 모양의 부재를 덧대어 판대공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표 4-5] 대량 실측표 (단위 : ㎜)

구분		실측지점							평균	내부 길이	전체 길이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2700	3000	3300	3600	3900	4200			
1	너비	86	86	87	88	89	89	90	(90.00)	4,467	5,823
		90	91	91	92	93	94	94			
	춤	393	389	385	381	372	370	371	380.86		
		379	375	376	387	386	383	385			
2	너비	257	260	264	268	266	264	262	260.21	4,461	5,870
		261	263	260	258	257	253	250			
	춤	283	283	287	287	281	280	281	(282.43)		
		283	282	277	279	282	284	285			
3	너비	257	261	260	259	255	257	260	259.36	4,474	5,846
		262	264	260	256	259	260	261			
	춤	280	289	293	286	281	281	283	(283.57)		
		282	285	283	275	287	282	283			
4	너비	93	91	89	87	85	83	81	(86.29)	4,465	5,821
		81	83	84	86	87	88	90			
	춤	393	389	385	381	372	370	371	380.86		
		379	375	376	387	386	383	385			

※ 대량1,4의 너비는 벽체 외부측 너비를 실측한 결과이며, 전체 너비는 실측 불가
※ 대량2,3의 춤은 반자 하부의 높이를 실측한 결과로, 반자 상부 높이는 실측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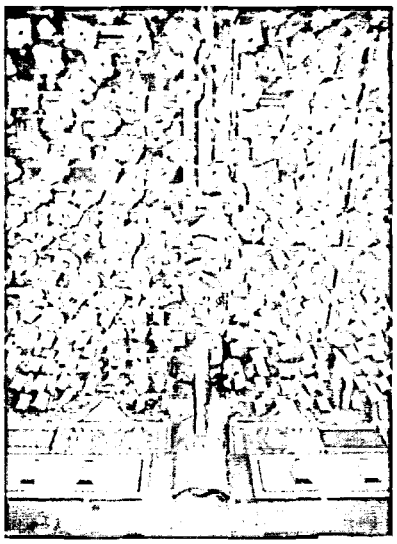


[도면 4-11] 지장전 대량상세도

[사진 4-24] 측면 대량 위 동자주

[사진 4-25] 보머리 부분

[사진 4-26] 대량1


[사진 4-27] 대량2

[사진 4-28] 대량4

4-6. 도리와 장혀

지장전은 3량가의 가구 구조로, 주심도리와 종도리가 사용되었다. 주심도리는 정면 3본, 배면 3본으로 총 6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형의 단면 형태로 크기는 ϕ240㎜ 정도이다. 주심도리 하부에 결구된 장혀의 단면 크기는 84×176㎜이다. 종도리는 총 3본이 결구되어 있고 상하부의 모서리를 굴린 장방형 형태의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단면의 크기는 170×237㎜ 이다. 종도리 장혀의 단면 크기는 84×148㎜로 주심도리 장혀에 비해 춤이 조금 작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주심도리와 종도리는 측면 기둥의 중심에서부터 좌측 868㎜, 우측 883㎜ 정도의 길이로 풍판 끝까지 내밀어 결구하였으며, 주심도리 장혀의 경우 기둥 바깥 뺄목 부분을 보와 같은 봉황 머리로 조각하여 마무리하였다.

[사진 4-29] 처마도리 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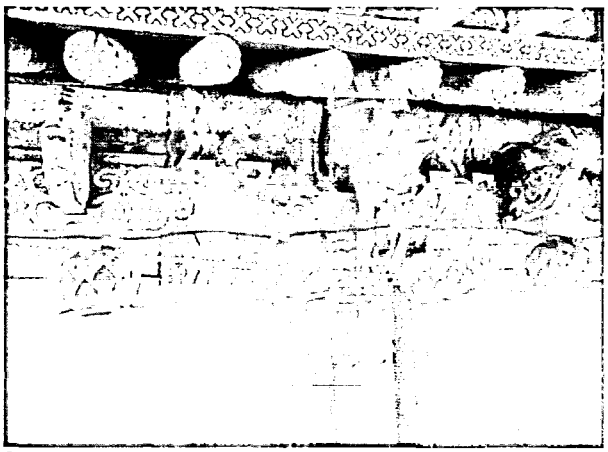
[사진 4-30] 종도리 뺄목

4-7. 공포

청계사 지장전은 기둥 위에 포를 올리고 주간에는 화반을 1개씩 배치한 주심포계 익공 건물이다. 공포는 이익공(二翼工) 형태로 초익공과 이익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목은 없으며 내부에서는 보를 받쳐주는 보아지 역할을 한다. 전형적인 이익공계의 짜임으로 재주두가 설치되어 있다.

공포는 총 8조가 짜여 있다. 공포 짜임을 살펴보면 기둥 상부에서 창방과 직교하여 초익공을 결구하였고, 초익공은 기둥 상면보다 높이 올라와 주두굽을 감싸고 있다. 기둥 위에는 주두를 두고 그 위에 십자형 갈을 두어 이익공과 주심첨차를 직교하여 결구하였다. 이익공 위에는 재주두를 두고, 그 위에 보를 설치하였고 보머리는 봉황의 머리를 조각한 금수(禽獸)형으로 장식하였다. 주심도리는 보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외단의 초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초익공은 앙서형으로, 이익공은 수서형으로 초각하였다. 외단부의 초익공, 이익공은 보머리보다 길게 돌출되어 있고, 초익공의 상부, 이익공의 하부에는 연봉형 초각을 두었다. 내단은 평주열의 경우 초익공과 이익공을 연속된 초각을 한 보아지 형태로, 우주열은 초각 없이 익공 하단을 사절한 보아지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사진 4-31] 공포 전경

[사진 4-32] 공포 측면(외단)

[사진 4-33] 공포 측면(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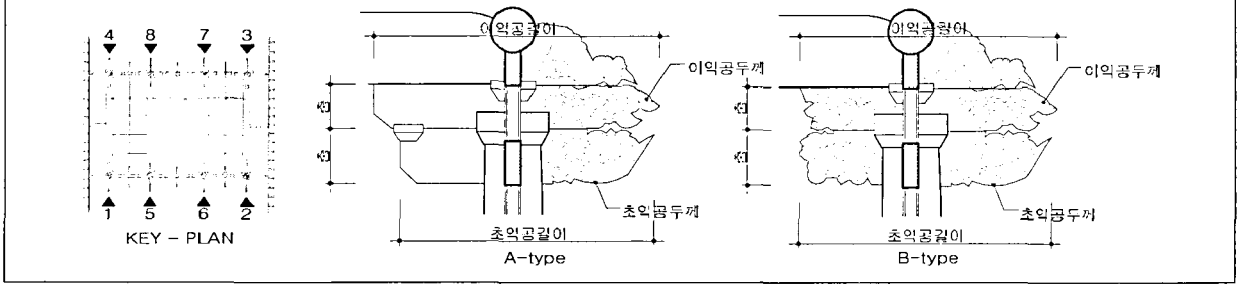
[사진 4-34] 공포 측면(내단)

다. 익공

극락보전은 이익공의 짜임으로 초익공과 이익공의 익공재가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익공은 앙서, 이익공은 수서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익공과 이익공에는 덩굴무늬와 연봉이 초각되었다. 익공부재의 내단은 대량을 받치는 보아지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평주열은 초익공과 이익공이 연속된 ㅜ각의 형태(A-type)이며, 우주열은 초각없이 하단을 사절한 형태(B-type)이다.

[표 4-6] 익공 조사표 (단위 : ㎜)

구 분		익 공								
		1	2	3	4	5	6	7	8	평균
초익공	길이	1,368	1,368	1,364	1,354	1,219	1,228	1,238	1,227	1,296
	춤	234	228	226	231	227	230	229	230	229
	두께	87	83	84	83	83	85	83	85	84
이익공	길이	1,519	1,510	1,522	1,525	1,374	1,387	1,375	1,383	1,449
	춤	234	228	226	231	227	230	229	230	229
	두께	83	82	81	84	86	85	81	83	83
유 형		A-type				B-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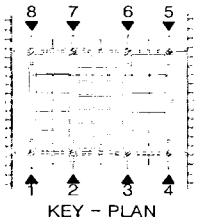
초익공 길이는 A-type의 경우 1,354~1,368㎜이며, B-type은 1,219~1,296㎜이다. 내단을 사절한 우주열의 익공이 연봉과 덩굴을 초각한 평주열의 익공보다 130㎜ 정도 길다. 초익공의 춤은 226~334㎜ 정도이고, 두께는 83~87㎜정도이며, 평균은 229㎜와 84㎜이다.이익공 길이는 A-type의 경우 1,510~1,525㎜이며, B-type은 1,374~1,449㎜이다. 초익공과 마찬가지로 우주열이 평주열 보다 약 150㎜ 길다. 이익공의 춤은 226~234㎜ 정도이고, 두께는 81~86㎜정도이며, 평균은 229㎜와 83㎜이다. 전체길이는 이익공이 초익공보다 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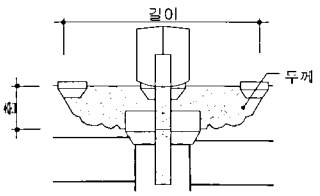
라. 첨차

지장전의 공포는 이익공에 직교하여 주심 상에 주심첨차를 설치하였다. 주심첨차의 전체길이는 실측치 중 좌측 길이와 우측 길이에 이익공의 단면 평균너비를 더하여 구하였다. 전체 길이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주에 위치한 첨차는 내측은 장혀를 받치고, 외측은 뺄목의 형태로 나와 있어 평주의 첨차보다 길이가 길다. 우주열의 첨차는 1,308~1,370㎜이며, 평주열의 첨차는 692~698㎜이다. 춤은 225~228㎜이고 평균치는 227㎜이다. 두께는 포벽으로 인하여 실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우주열의 첨차 폭인 82㎜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7] 첨차 조사표 (단위 : ㎜)

구 분	첨차								
	1	2	3	4	5	6	7	8	평균
길이	1,308	694	698	1,355	1,370	692	696	1,358	-
춤	225	228	228	225	227	227	228	228	227
두께	83	실불	실불	80	83	실불	실불	83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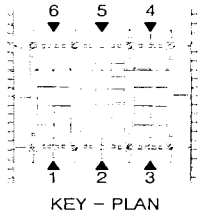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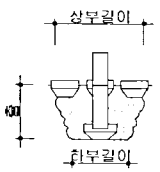
마. 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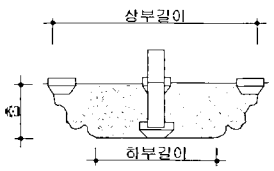
기둥과 기둥 사이 창방 위에는 화반이 한 개씩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다. 화반은 한 장의 판재로 되어 있으며, 화반 하부 및 상부에는 소로를 놓아 운공 및 장혀를 받치도록 하였다. 그 형태는 첨차와 같은 당초 문양의 포 화반으로 되어 있다. 화반은 어칸과 협칸의 위치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는데 어칸 화반의 상부 길이는 1,055~1,058㎜이고 하단 길이는 615~619㎜이다. 부재의 높이는 290~291㎜이다. 협칸 화반의 상부 길이는 442~457㎜이고 하부 길이는 259~292㎜이다. 높이는 288~291㎜이다. 두께는 포벽으로 인하여 실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주심도리 장여 폭으로 미루어 85㎜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8] 화반 실측조사표 (단위 : ㎜)

구 분	화반(협칸)					화반(어칸)		
	1	3	4	6	평균	2	5	평균
상부길이	451	442	457	450	450	1,055	1,058	1,057
하부길이	283	259	287	292	280	619	615	617
춤	291	289	288	290	290	291	290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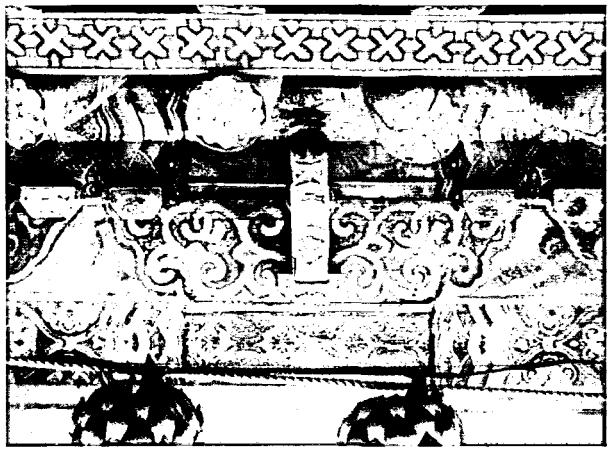






화반과 직교하여서는 두 개의 제공이 상하로 놓여 있으며, 그 형상은 각각 이익공과 보머리의 그것과 같다. 하부 제공의 길이는 배면 부분의 실측이 불가능하며 전면의 경우 937~946㎜다. 춤은 228~235㎜이고 평균치는 231㎜이다. 두께는 80~84㎜이고 평균치는 82㎜이다. 상부 제공의 길이는 하부와 같이

배면의 것은 실측이 불가하며 전면의 경우 919~944㎜이다. 춤은 228~230㎜이고 평균치는 229㎜이다. 두께는 83~84㎜이고 평균치는 8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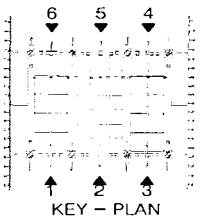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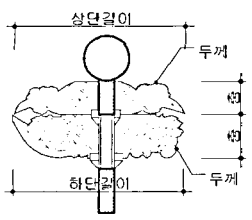
[사진 4-35] 화반

[사진 4-36] 제공

[표 4-9] 제공 조사표 (단위 : ㎜)

구 분		제공						
		1	2	3	4	5	6	평균
하부	길이	937	946	946	실불	실불	실불	943
	춤	228	229	229	235	235	232	231
	두께	82	84	81	81	82	80	82
상부	길이	919	940	944	실불	실불	실불	934
	춤	174	174	174	173	171	173	173
	두께	83	83	82	84	83	83	83





바. 장혀뺄목, 창방뺄목

모서리 기둥 상부에는 장혀와 창방 뺄목을 두어 지붕상부 구조를 받치게 하였다. 장혀뺄목의 형태는 보머리와 같은 봉황 머리가 초각되어 있으며, 창방 뺄목은 초익공과 같이 수서형으로 꽃이 초각되어 있다. 장혀 뺄목의 길이는 505~537㎜이며, 춤은 161~173㎜이다. 두께는 82~86㎜이다. 창방 뺄목의 길이는 648~662㎜이고, 춤은 233~288㎜이다. 두께는 82~84㎜이다.

[사진 4-37] 장혀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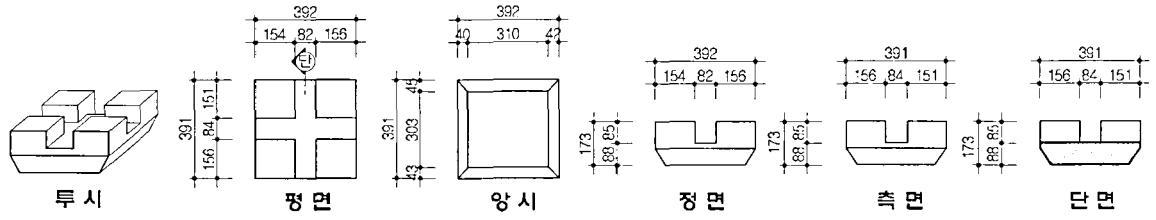
[사진 4-38] 창방 뺄목

바. 주두

주두는 사용된 위치에 따라 주두와 재주두로 구분할 수 있다. 굽의 형태는 모두 사절된 빗굽주두로서 굽받침은 없다.

①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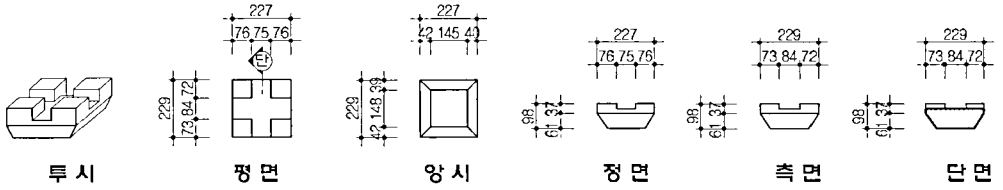
주두의 형태는 상부에 사갈로 홈이 파여 있고, 8개가 사용되었다. 기둥 2의 주두 실측값을 보면 상부크기는 가로 392㎜, 세로 391㎜이며, 하부크기는 가로 310㎜, 세로 303㎜로서 정방형의 형태이다. 전체 높이는 173㎜이며, 굽 높이는 88㎜이고 운두는 85㎜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0.96이다. 갈의 너비는 84㎜ 내외이고 깊이는 85㎜로 나타났다.



[도면 4-12] 주두 상세도

② 재주두

재주두의 형태는 주두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사갈로 홈이 파여 있으며, 이익공과 주심첨차의 상부에 8개가 사용되었다. 기둥 2의 상부 주두 실측값을 보면 상부크기는 가로 227㎜, 세로 229㎜이며, 하부크기는 가로 145㎜, 세로 148㎜이다. 전체 높이는 98㎜이며, 굽 높이는 61㎜이고 운두는 37㎜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0.60이다. 갈의 너비는 84㎜ 내외이고, 깊이는 37㎜로 나타났다.



[도면 4-13] 재주두 상세도

[사진 4-39]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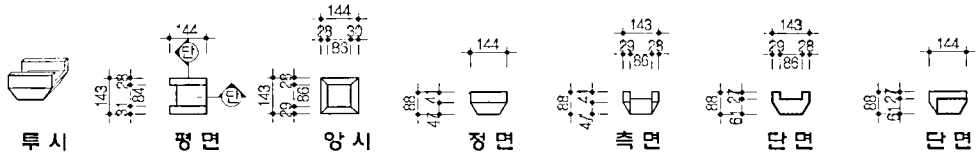
[사진 4-40] 재주두

자. 소로

소로는 외옆갈 이갈소로, 양옆갈 사갈소로, 사갈소로가 사용되었다. 형태는 주두와 마찬가지로 사각형이며 굽은 사절된 빗굽소로이다.

① 외옆갈 이갈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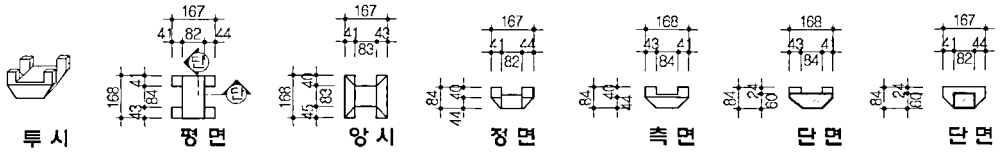
외옆갈 이갈소로는 주심첨차 상면 양단부에 사용되었다. 소로의 형태는 상부에 이갈로 홈이 파여 있고 공포재가 짜일 수 있도록 옆갈 한쪽을 땄다. 실측된 소로의 치수를 살펴보면, 상부 크기는 가로 144㎜, 세로 143㎜이며, 하부크기는 가로·세로 86㎜이다. 전체 높이는 88㎜이며, 굽 높이는 47㎜이고 운두는 41㎜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0.87이다. 갈의 너비는 86㎜이고, 깊이는 27㎜로 나타났다.



[도면 4-14] 외옆갈 이갈소로 상세도

② 양옆갈 사갈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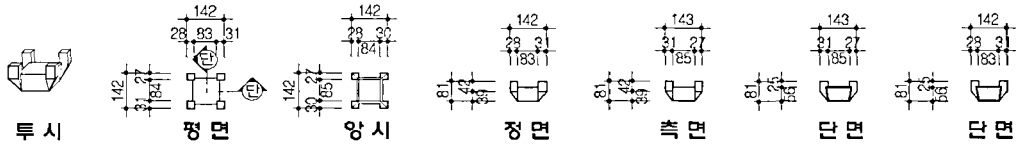
양옆갈 사갈소로는 소로 양측면과 소로 윗면에 네방향으로 갈이 파여져 있으며, 화반의 상부의 가운데 부분에 사용되었다. 소로의 치수를 살펴보면, 상부 크기는 가로 167㎜, 세로 168㎜이며, 하부크기는 가로·세로 83㎜이다. 전체 높이는 84㎜이며, 굽 높이는 44㎜이고 운두는 40㎜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0.90이다. 갈의 너비는 84㎜이고, 깊이는 24㎜로 나타났다.



[도면 4-15] 양옆갈 사갈 소로 상세도

② 사갈소로

사갈소로는 소로 네측면에 갈이 파여져 있으며, 화반의 하부 가운데 부분에 사용되었다. 화반에 설치된 소로의 치수를 살펴보면, 상부 크기는 가로·세로 142㎜이며, 하부크기는 가로·세로 84㎜이다. 전체 높이는 81㎜이며, 굽 높이는 39㎜이고 운두는 42㎜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0.92이다. 갈의 너비는 83㎜이고, 깊이는 25㎜로 나타났다.



[도면 4-16] 사갈소로 상세도

[사진 4-41] 외옆갈 이갈소로

[사진 4-42] 양옆갈 이갈소로, 사갈소로

5. 처마

청계사 지장전의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설치한 겹처마로 되어 있다. 박공지붕으로 정면과 배면에만 처마가 있고, 양측면은 박공과 풍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처마내밀기의 길이는 정면과 배면이 같다. 처마에는 안허리곡과 앙곡이 있어 처마 양끝이 휘어나오고, 휘어올라가는 형태가 확인된다. 건물 규모가 크지 않아 처마곡도 작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앙곡과 안허리곡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흐트러진 모습도 보인다. 측면 박공 쪽 도리내밀기는 연목 3개 정도 걸리는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연목과 부연

지장전의 연목은 정면 26개, 배면 26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전의 가구는 삼량가로 연목은 주심도리에서 종도리까지 한 부재로 걸쳐지며, 종도리 위에서 정면과 배면의 연목이 서로 엇갈려 걸려 있다. 측면 끝부분 연목은 박공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박공에 면하게 설치하고 종도리 위에서 뒷뿌리가 맞걸리도록 하였다. 연목의 물매는 10:4.54 정도이며, 연목의 전체길이는 4m 내외의 긴 부재를 사용하였다.

연목의 내밀기는 주심도리장여 외부면을 기준으로 연목마구리 상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부연내밀기는 연목마구리 상단에서 부연마구리 상단까지의 길이이다. 연목내밀기는 950~1,060㎜ 내외인데, 배면의 내밀기 길이가 정면보다 20~50㎜ 정도 긴 값을 보인다. 부연내밀기 길이는 500㎜ 정도이다. 건물 측면의 크기를 생각할 때 연목 내밀기 길이가 짧은 편인데, 이는 연목의 길이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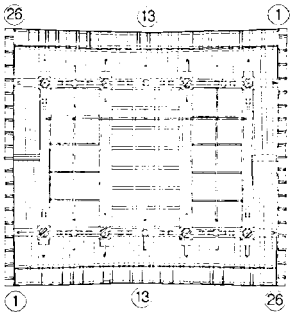
연목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형으로, 평균 직경은 135㎜ 내외가 사용되었는데 연목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다. 연목은 끝 마구리 방향으로 하단 부분을 조금 가늘게 후려 깎아 마구리 크기를 주심도리 상부에서보다 줄이는 끝걷기를 하였으며, 마구리는 사절하였다. 연목 마구리와 단면 직경의 차이는 평균 12㎜ 정도이다. 끝걷기 길이는 500~600㎜ 사이 값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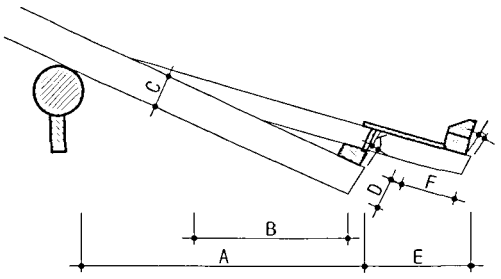
지장전의 부연 개수는 연목과 같이 정면 26개, 배면 26개로 되어 있다. 부연 단면 형태는 각부연이고, 마구리는 상단보다 하단이 좁아지는 역사다리꼴 형태이다. 연목과 같이 마구리 방향으로 하단부분을 조금 가늘게 후려 깎아 끝걷기를 하였으며, 마구리는 사절되어 있다. 부연의 너비는 상부가 85㎜ 내외이며, 하부는 70㎜ 정도의 값을 보인다. 부연의 상부춤은 평균 135㎜ 정도이며, 마구리 춤은 평균 100㎜ 정도이다. 부연의 끝걷기 길이는 125~160㎜ 사이값에 분포되어 있으며, 부재마다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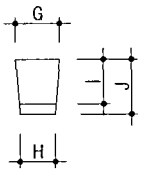
[표 4-10] 연목, 부연 실측조사표 1 (단위 : ㎜)

구분	정 면											
	A 연목 내밀기	B 연목 끝걷기	C 연목 직경	D 연목 마구리	E 부연 내밀기	F 부연 끝걷기	G 부연 상너비	H 부연 하너비	I 부연 마구리춤	J 부연 상부춤	K 연목상부끝 -평고대거리	L 부연상부끝 -평고대거리
1	1,032	590	128	110	485	143	87	74	100	133	25	18
2	1,024	534	136	123	486	154	84	71	97	132	17	16
3	1,010	525	133	120	488	146	83	66	103	137	22	13
4	1,005	570	135	125	488	148	84	71	102	135	22	15
5	994	540	134	120	497	148	86	73	109	137	18	16
6	990	525	132	120	498	147	88	70	100	134	21	17
7	967	560	137	125	510	140	88	72	94	134	14	16
8	966	540	134	119	502	163	83	70	99	136	21	15
9	968	500	131	122	498	124	85	71	103	131	22	17
10	953	515	133	117	504	132	85	68	98	134	18	17
11	952	533	136	127	504	130	84	70	98	133	21	17
12	954	510	138	127	498	136	81	67	105	134	18	20
13	950	537	134	123	498	150	82	69	98	135	17	16
14	948	530	143	132	503	145	87	69	103	134	20	15
15	957	550	134	125	500	155	78	68	96	138	22	17
16	950	540	131	120	503	164	90	74	103	136	20	18
17	955	540	136	124	510	137	84	69	100	132	15	17
18	964	555	143	129	508	147	82	73	102	137	22	18
19	962	548	137	118	514	182	82	74	100	138	17	16
20	968	560	136	125	510	145	84	68	106	134	20	12
21	974	547	133	124	509	150	80	68	102	132	20	15
22	980	557	135	122	505	152	87	74	109	137	21	14
23	982	560	140	128	517	135	82	68	105	134	16	21
24	980	550	136	125	545	130	85	66	100	135	15	17
25	1,005	565	133	122	510	132	84	73	98	137	18	16
26	1,010	560	123	113	498	125	88	82	97	136	25	20
평균	976.92	543.88	134.65	122.50	503.38	144.62	84.35	70.69	101.04	134.81	19.50	16.50

*부연,연목 번호는 각면의 좌측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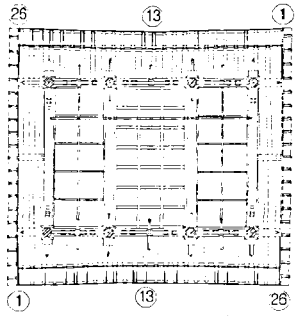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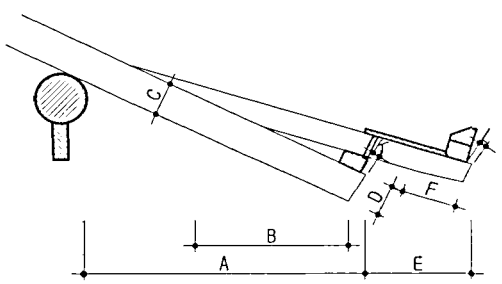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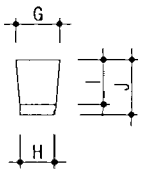
[표 4-11] 연목, 부연 실측조사표 2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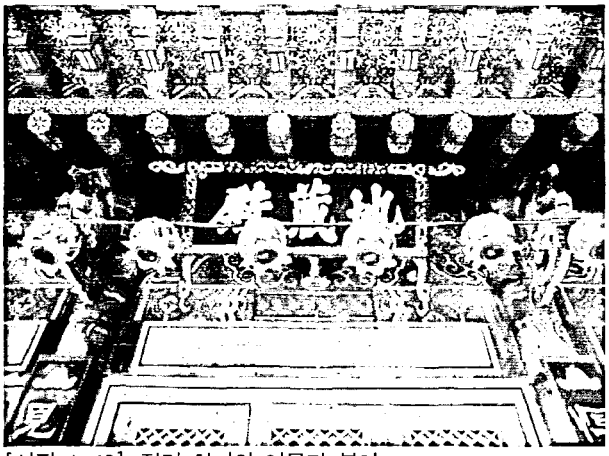
구분	배면											
	A 연목 내밀기	B 연목 끝걷기	C 연목 직경	D 연목 마구리	E 부연 내밀기	F 부연 끝걷기	G 부연 상너비	H 부연 하너비	I 부연 마구리춤	J 부연 상부춤	K 연목상부끝 -평고대거리	L 부연상부끝 -평고대거리
1	1,060	580	127	115	496	47	86	79	102	130	26	20
2	1,032	560	145	132	506	151	86	72	106	139	15	22
3	1,027	550	137	122	504	128	81	70	97	137	21	14
4	1,010	555	133	122	510	148	84	72	97	133	17	17
5	1,011	520	137	120	494	143	84	67	103	137	25	17
6	997	526	134	123	498	126	83	70	107	136	20	15
7	994	545	135	125	496	140	83	70	102	134	17	14
8	982	550	144	130	500	145	83	70	105	138	14	13
9	978	542	138	124	508	144	92	75	93	131	14	17
10	975	548	146	133	494	138	84	72	104	134	17	16
11	976	535	136	125	488	140	89	68	102	137	23	17
12	963	540	132	123	498	130	88	72	102	136	17	17
13	962	520	134	120	486	152	83	65	103	134	22	17
14	970	528	138	124	498	146	93	64	100	134	28	17
15	973	552	130	117	495	143	83	72	98	131	20	17
16	977	546	134	120	503	137	84	73	97	134	21	16
17	980	515	136	124	503	137	90	72	105	135	16	17
18	980	522	128	118	518	135	82	66	103	132	15	17
19	995	540	130	121	506	139	85	68	100	135	20	15
20	1,000	522	134	125	508	155	83	65	95	133	19	12
21	1,007	550	143	130	498	136	84	73	99	137	18	8
22	1,022	530	131	120	500	157	85	66	102	140	21	13
23	1,018	538	135	123	510	145	93	72	105	138	17	14
24	1,036	572	134	123	495	157	88	69	107	134	22	15
25	1,040	564	141	128	507	152	84	67	100	140	17	18
26	1,058	587	132	120	495	140	89	80	105	134	29	21
평균	1,000.88	543.73	135.54	123.35	500.54	138.88	85.73	70.35	101.50	135.12	19.65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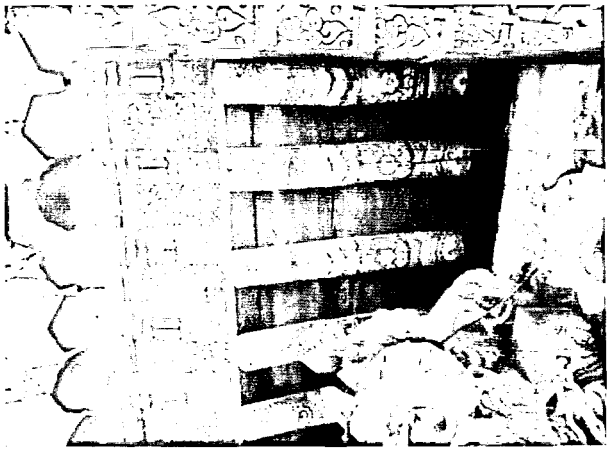
*부연,연목 번호는 각면의 좌측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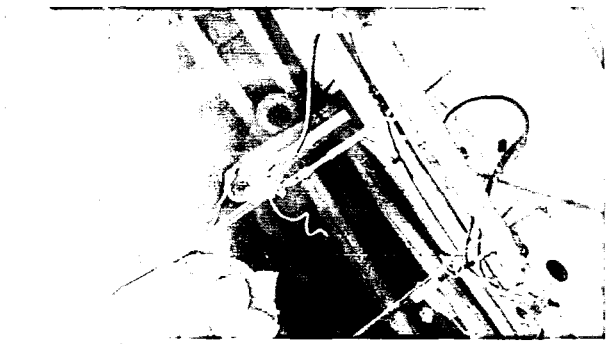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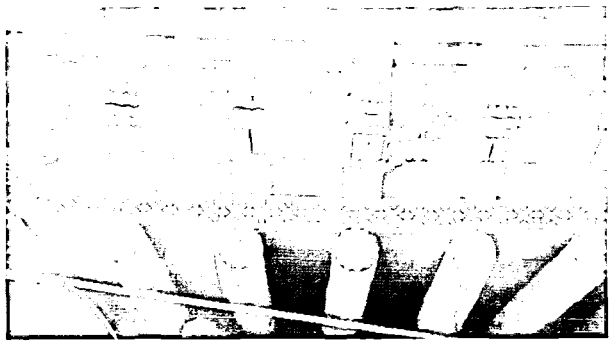





[사진 4-43] 정면 처마의 연목과 부연


[사진 4-44] 배면 처마의 연목과 부연


[사진 4-45] 박공부분의 연목 구성


[사진 4-46] 연목, 부연의 마구리

5-2. 처마 내밀기

처마 내밀기는 주심도리장여 외부면에서 연목과 부연 상단부까지의 거리를 실측한 값이다. 지장전은 맞배 지붕으로 처마에는 그 값이 크지는 않으나 안허리곡이 있어 내밀기 길이의 변화를 보인다.

정면의 연목 내밀기 최소값은 14번에서 948㎜이고, 부연은 1번에서 485㎜,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소값은 13번에서 1,448㎜이다. 정면의 연목 내밀기 최대값은 1번에서 1,032㎜이고, 부연은 24번에서 545㎜,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대값은 24번에서 1,525㎜이다. 배면의 연목 내밀기 최소값은 13번에서 962㎜이고, 부연은 13번에서 486㎜,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소값은 13번에서 1,448㎜이다. 배면의 연목 내밀기 최대값은 1번에서 1,060㎜이고, 부연은 18번에서 518㎜,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대값은 1번에서 1,556㎜이다.

전체적인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목 내밀기의 경우 처마의 가운데 부분이 짧고 양 끝단으로 가면서 차츰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부연은 그 값의 분포가 연목에 비해 혼재되어 나타난다. 전체 처마내밀기의 값은 연목 길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부연의 경우 연목에 의해 내밀기 길이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 끝단 부분에 다소 변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면 처마의 경우, 양 끝단의 내밀기 길이는 배면에 비해 약 50㎜ 정도 작은 값을 보이며, 최대값이 24번에서 나타나고 있어 시공당시의 오차와 처마선에 부분적인 변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주심도리와 중도리 간격은 2,270㎜ 내외로 건물의 규모에 비해 연목 내밀기가 짧은 편인데,

이는 삼량가 가구구조와 측면의 넓은 주칸거리라는 건물 구조의 특성상 연목길이가 길어지는 부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내밀기를 다소 크게 하여 전체 처마내밀기가 1,500㎜ 내외의 값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처마 내밀기의 길이차이는 70~100㎜ 정도로 정면과 배면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표 4-12] 처마내밀기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연목	부연	전체	연목	부연	전체
1	1,032	485	1,517	1,060	496	1,556
2	1,024	486	1,510	1,032	506	1,538
3	1,010	488	1,498	1,027	504	1,531
4	1,005	488	1,493	1,010	510	1,520
5	994	497	1,491	1,011	494	1,505
6	990	498	1,488	997	498	1,495
7	967	510	1,477	994	496	1,490
8	966	502	1,468	982	500	1,482
9	968	498	1,466	978	508	1,486
10	953	504	1,457	975	494	1,469
11	952	504	1,456	976	488	1,464
12	954	498	1,452	963	498	1,461
13	950	498	1,448	962	486	1,448
14	948	503	1,451	970	498	1,468
15	957	500	1,457	973	495	1,468
16	950	503	1,453	977	503	1,480
17	955	510	1,465	980	503	1,483
18	964	508	1,472	980	518	1,498
19	962	514	1,476	995	506	1,501
20	968	510	1,478	1,000	508	1,508
21	974	509	1,483	1,007	498	1,505
22	980	505	1,485	1,022	500	1,522
23	982	517	1,499	1,018	510	1,528
24	980	545	1,525	1,036	495	1,531
25	1,005	510	1,515	1,040	507	1,547
26	1,010	498	1,508	1,058	495	1,553

*부연,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연목내밀기는 주심장혀 바깥면에서 연목상부끝까지, 부연내밀기는 연목상부 끝에서 부연상부 끝까지의 거리를 나타냄

5-3. 안허리곡과 앙곡

지장전은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어 추녀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녀와 선자연을 통해 만들어지는 처마곡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맞배지붕의 처마 역시 수평으로 구성할 경우 양 끝이 처져 보이는 현상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안허리곡과 앙곡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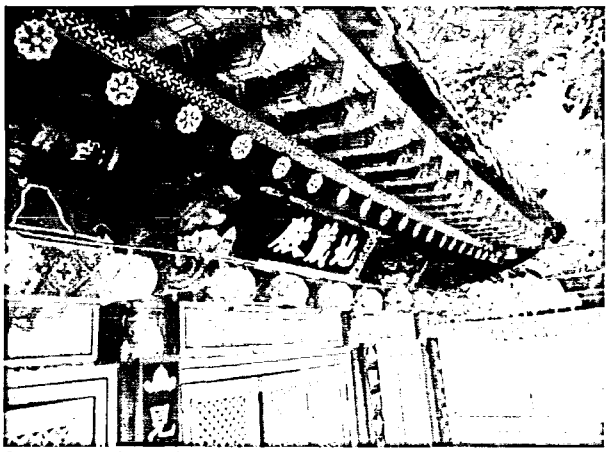
안허리곡은 수평규준틀인 Y1과 Y4에서 처마끝 방향으로 1,500㎜를 수평 이동한 선에서 연목과 부연의 마구리 상단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측하였다. 처마 양끝의 연목과 기준선 사이의 거리 실측결과는 정면 서측인 1번 연목은 1,114㎜이고, 동측인 26번 연목은 1,134㎜이다. 배면 동측인 1번 연목은 1,107㎜, 서측인 26번 연목은 1,092㎜이다. 동일한 규준틀로부터의 처마 양끝의 거리 차이는 정면은 20㎜, 배면은 15㎜이다.

각 면의 연목 안허리곡은 가장 많이 내밀어진 연목을 기준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정면은 연목 1번을 기준으로 하여 13번 연목에서의 거리차가 90㎜으로 가장 크고, 배면은 연목 26번을 기준으로 하여 13번 연목에서 108㎜만큼 차이가 난다. 연목 안허리곡은 대체로 처마의 중앙부인 13번 연목 주변에서 큰 값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양 끝부분으로 갈수록 조금씩 그 값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처마 양끝의 부연의 거리 실측결과는 정면의 경우, 1번 부연 615㎜, 26번 부연 614㎜로 거리차가 거의 없다. 배면의 경우 1번 부연은 598㎜, 26번 부연은 584㎜로 양 끝단의 편차는 14㎜정도이나 25번 부연이 559㎜로 기준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처마 내밀기가 가장 크다.

부연 안허리곡은 정면 25번을 기준으로 13번에서 80㎜로 가장 큰 거리차가 나며, 배면은 26번을 기준으로 13번 부연에서 117㎜만큼 차이가 난다. 부연 안허리곡 역시 연목과 마찬가지로 배면의 최대값이 37㎜ 정도 큰 값을 보인다.

종합해 보면 연목과 부연을 설치하면서 의도적으로 안허리곡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처마선이 변형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중앙부에서 양끝으로 갈수록 처마 길이가 길어지는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정면 안허리곡의 최대값은 연목과 부연 모두 90㎜ 내외이고 배면의 경우는 110㎜ 정도이나, 인위적으로 설정한 수평기준틀과 건물 사이의 오차와 변위 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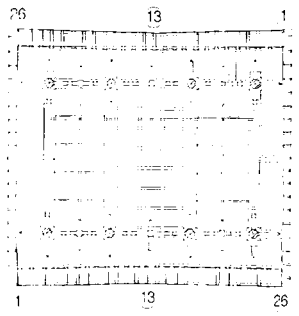


[사진 4-47] 정면 처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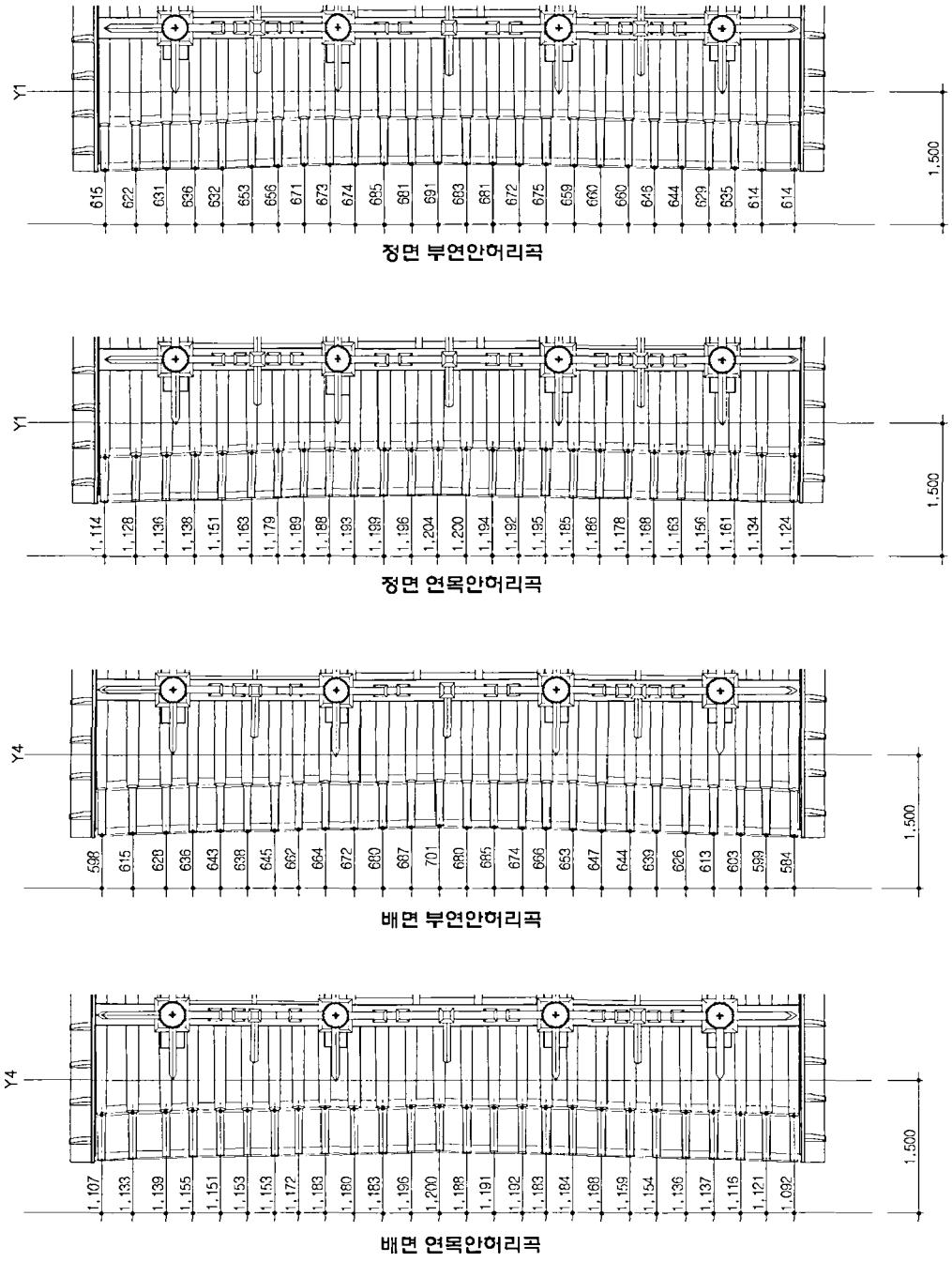
[사진 4-48] 배면 처마선

[표 4-13] 안허리곡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연목	비교	부연	비교	연목	비교	부연	비교
1	1,114	0	615	1	1,107	15	598	14
2	1,128	14	622	8	1,133	41	615	31
3	1,136	22	631	17	1,139	47	628	44
4	1,138	24	636	22	1,155	63	636	52
5	1,151	37	632	18	1,151	59	643	59
6	1,163	49	653	39	1,153	61	638	54
7	1,179	65	656	42	1,153	61	645	61
8	1,189	75	671	57	1,172	80	662	78
9	1,188	74	673	59	1,183	91	664	80
10	1,193	79	674	60	1,180	88	672	88
11	1,199	85	685	71	1,183	91	680	96
12	1,196	82	681	67	1,196	104	687	103
13	1,204	90	694	80	1,200	108	701	117
14	1,200	86	683	69	1,188	96	680	96
15	1,194	80	681	67	1,191	99	685	101
16	1,192	78	672	58	1,192	100	674	90
17	1,185	71	675	61	1,183	91	666	82
18	1,186	72	659	45	1,184	92	653	69
19	1,178	64	660	46	1,168	76	647	63
20	1,168	54	660	46	1,159	67	644	60
21	1,163	49	646	32	1,154	62	639	55
22	1,156	42	644	30	1,136	44	626	42
23	1,161	47	629	15	1,137	45	613	29
24	1,164	50	635	21	1,116	24	803	219
25	1,124	10	614	0	1,121	29	559	-25
26	1,134	20	61	0	1,092	0	584	0



※ 부연,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도면 4-17] 지장전 안허리곡 실측도 1

앙곡은 수직 기준점인 남서측 기단 상부 ±0점으로부터 +2,500㎜ 지점을 기준으로 연목과 부연 마구리 하단 높이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처마 양 끝의 연목의 높이를 ±0인 수직기준점에서의 레벨로 계산한 결과, 정면에서 서측인 1번 연목은 +3,404㎜이고, 동측 끝인 26번은 +3,373㎜이다. 배면은 동측 1번 연목의 레벨이 +3,379㎜, 서측 26번 연목의 레벨은 +3,410㎜이다. 정면과 배면 모두 양측 연목의 높이차는 31㎜로, 서측보다 동측부분이 1寸 정도 쳐져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면의 가장 낮은 위치의 연목과 가장 높이가 높은 양 끝부분의 거리차이는 정면의 경우 연목 16번에서 116㎜, 배면의 경우 연목 13, 14번에서 139㎜이다. 정면은 앙곡의 최저점이 동측으로 치우쳐 있어 연목에 약간의 변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마 양끝의 부연을 ±0인 수직기준점에서의 레벨로 계산하면, 정면 서측 1번 부연은 +3,545㎜이고, 동측 26번 부연은 +3,509㎜이다. 배면은 동측 1번이 +3,513㎜, 서측이 26번이 +3,560㎜의 레벨을 보인다. 처마 양끝 부연의 레벨 차이는 정면이 36㎜, 배면이 47㎜ 정도로, 연목과 마찬가지로 동측이 더 쳐져있는 상태이다.

각 면의 가장 낮은 위치의 부연과 처마 끝 부연의 높이차를 비교하면 정면은 부연 13, 14번에서 126㎜, 배면은 부연 13번에서 175㎜만큼 낮은 위치에 있다. 부연 앙곡의 경우 정면과 배면 모두 처마의 가운데 부분에서 최저값을 나타내며, 연목에 비해 그 값이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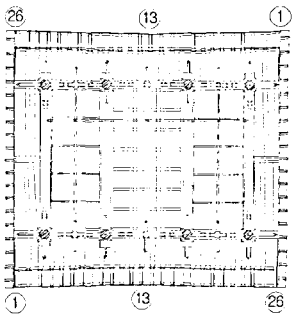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장전 처마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끝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앙곡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변위가 발생되어 있다. 처마 앙곡 형태는 정면과 배면에서 동측부분이 약간 쳐져있으며, 서측 끝부분에서 앙곡이 둔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앙곡의 크기는 정면보다 배면이, 연목보다 부연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값의 편차가 있어 정확한 수치로 단정하긴 어렵다.

[표 4-14] 앙곡 레벨 비교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좌(서)	우(동)	좌(동)	우(서)
처마 양끝	연목	부재번호	1	26	1	26
		하부레벨	+3,404	+3,373	+3,379	+3,410
	부연	부재번호	1	26	1	26
		하부레벨	+3,545	+3,509	+3,513	+3,560
가장낮은 위치부재	연목	부재번호	16		13, 14	
		하부레벨	+3,288		+3,271	
	부연	부재번호	13, 14		13	
		하부레벨	+3,419		+3,385	
※ 부연, 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표 4-15] 앙곡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연목	비교	부연	비교	연목	비교	부연	비교
1	904	0	1,045	0	879	31	1,013	47
2	899	5	1,034	11	855	55	992	68
3	885	19	1,022	23	832	78	972	88
4	872	32	1,010	35	819	91	954	106
5	855	49	996	49	808	102	940	120
6	843	61	983	62	802	108	931	129
7	836	68	974	71	803	107	923	137
8	830	74	961	84	797	113	913	147
9	816	88	949	96	791	119	911	149
10	809	95	942	103	787	123	903	157
11	801	103	933	112	780	130	894	166
12	799	105	924	121	774	136	890	170
13	795	109	919	126	771	139	885	175
14	791	113	919	126	771	139	886	174
15	792	112	921	124	774	136	889	171
16	788	116	928	117	775	135	897	163
17	789	115	929	116	785	125	907	153
18	793	111	933	112	794	116	922	138
19	798	106	944	101	807	103	936	124
20	801	103	952	93	826	84	949	111
21	808	96	958	87	845	65	973	87
22	814	90	963	82	861	49	990	70
23	834	70	978	67	876	34	1,017	43
24	847	57	989	56	885	25	1,036	24
25	854	50	998	47	901	9	1,052	8
26	873	31	1,009	36	910	0	1,060	0



※ 부연,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도면 4-18] 지장전 앙곡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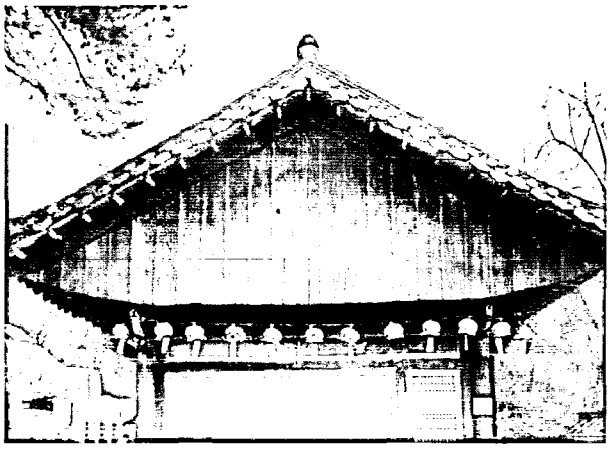
5-6. 박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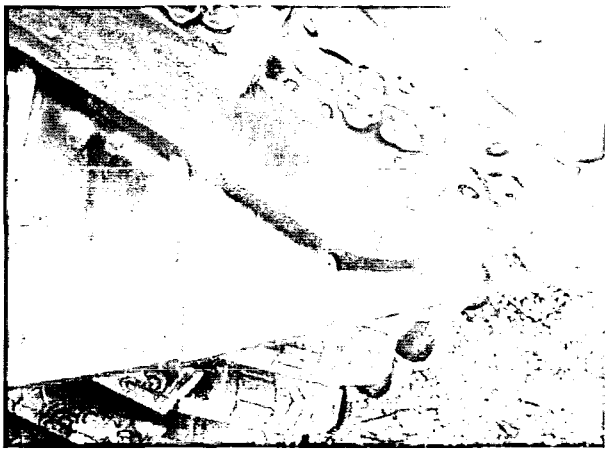
지장전의 박공은 한 면에 2개 널을 앞뒤 연목에 각각 대어 붙여 종도리 부분에서 맞닿도록 설치되어 있고, 지네철 등의 철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박공널에는 각각 9개씩의 목기연을 설치하였으며, 두 박공널이 만나는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에도 1본이 더 설치되어 좌·우측면에 각각 19개씩의 목기연이 짜여져 있다.

박공의 높이와 도리와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종도리와 주심도리가 모두 박공의 하부에 위치하여 풍판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풍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도리 마구리 부분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공면의 결구부 부분은 집우사를 받고 있는 적심목 등에 지지하여 결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공은 대체로 300㎜ 내외의 너비의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각 부분마다 목재의 조건에 맞추어 약간씩 그 형태를 달리하였다. 우측면 남측 박공의 경우 상부폭이 277㎜, 하부폭이 315㎜정도로 하부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도록 치목하였으며, 북측은 상부 276㎜, 하부 295㎜ 가운데 317㎜로 중앙부의 폭이 약간 넓다. 좌측면의 남측 박공은 상부폭이 311㎜정도, 하부폭이 301㎜이며, 북측 박공은 315㎜ 정도로 상하폭이 거의 같다. 박공의 상단은 거의 직선에 가깝지만 하단면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휘어져 내리는 모습이며, 처마끝 쪽 박공 하단 부분에는 게눈각을 초각하여 마감하였다. 박공널의 두께는 34㎜이다.

[사진 4-49] 좌측면 합각


[사진 4-50] 우측면 합각


[사진 4-51] 게눈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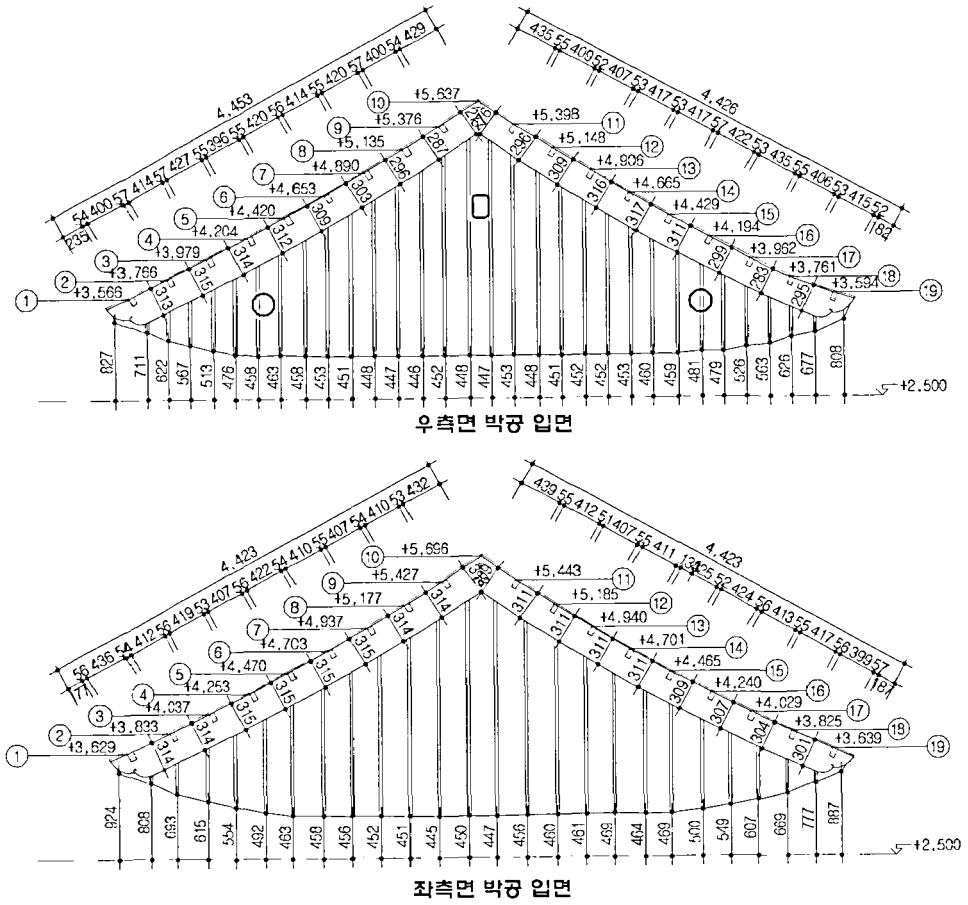
[사진 4-52] 풍판

5-6. 풍판

지장전의 풍판은 박공면 안쪽에 풍판널 상부를 붙이고, 세로 방향으로 널을 맞대어 설치하였다. 풍판널은 너비 250㎜ 내외, 두께 15㎜ 정도로 중앙부에서 양 처마 끝으로 대칭되도록 널을 붙였다. 널의 맞댄 부분에는 졸대를 널과 같이 세로로 붙여 널의 이음부를 보강해주는 동시에 의장적인 역할을 한다.

풍판의 하부 마감선은 중앙부분은 대체로 직선을 이루다가 처마 끝에서 양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둥글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기준레벨에서 +2,500㎜ 위치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풍판의 하부 레벨을 실측한 결과, 건물 좌측인 서측면의 경우 중앙에서 450㎜의 올라간 위치에 있으며, 양끝은 각각 924㎜, 887㎜의 값을 보인다. 중앙부와 양끝단의 높이차는 474㎜, 437㎜으로 남측 풍판의 높이가 37㎜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다. 우측인 동측면은 중앙부의 값이 450㎜ 내외이고, 양끝은 827㎜, 808㎜로 그 차가 각각 377㎜, 358㎜로 양끝 높이차가 19㎜이다.

풍판 안쪽에는 풍판 띠장이 설치되어 있다. 풍판 띠장은 건물 우측면은 널의 위, 아래로 2개, 좌측면은 하부에 1개를 가로로 길게 풍판널에 대어 설치하였으며, 도리에 걸쳐지도록 하여 하중으로 인한 처짐에 대비하였다. 또한 하부 띠장의 경우 널의 틀어짐 등의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띠장의 단면 크기는 60×90㎜ 내외의 크기이다. 풍판 널 사이는 졸대를 대어 마감하였다.



[도면 4-19] 지장전 박공 상세도

5-7. 목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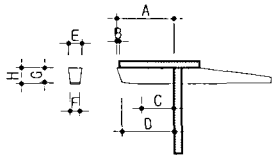
지장전에 설치된 목기연은 좌측면 19개, 우측면 19개로 양측 면의 개수가 같다. 목기연의 형태는 부연과 같이 각재를 사용하였으며, 마구리는 상단보다 하단이 좁아지는 역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다. 마구리 방향으로 하단을 약간 후려 깎았으며, 마구리는 사절되어 있다. 다만 박공과의 반턱맞춤 결구를 위해 박공과 맞춤하는 하부 부분은 따내어 엎을장 형태로 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기연내밀기는 거의 일정하여 평균 244㎜ 정도이고 상부에 목기연 개판과 연암을 설치하고 내림마루를 형성하였다. 목기연 단면의 평균 크기는 55×88㎜ 내외이다. 마구리의 하부 너비는 우측면이 46㎜, 좌측면 50㎜ 정도로 상부에 비해 9㎜, 5㎜ 정도 폭을 좁게 하였다. 마구리의 높이는 54~55㎜ 정도이며, 30㎜ 정도로 하부를 후려 깎아 끝걷이를 두었다. 끝걷기 길이는 평균 70~75㎜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부연과 같은 형태이며, 부연보다는 크기가 작다.

[표 4-16] 목기연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A	B	C	D	E	F	G	H
	우측면							
1	234	12	135	223	54	44	72	77
2	240	6	182	232	57	48	65	87
3	244	13	176	233	57	48	64	87
4	244	15	152	236	55	51	58	92
5	245	13	173	232	55	50	68	98
6	243	17	157	231	56	47	66	90
7	243	17	170	231	55	50	65	89
8	243	24	183	232	57	52	64	87
9	244	21	177	233	54	49	65	82
10	246	17	175	232	53	50	60	64
11	245	15	170	235	55	50	63	85
12	243	18	166	234	52	47	58	88
13	247	21	177	238	53	48	65	88
14	243	16	174	234	53	47	67	89
15	250	24	178	235	57	5	63	84
16	250	22	164	235	53	49	65	82
17	245	21	160	232	55	46	63	90
18	247	20	170	234	53	48	63	86
19	244	22	156	234	52	50	66	87
평균	244.21	17.58	168.16	232.95	54.53	46.26	54.83	87.67
	좌측면							
1	237	12	178	230	56	49	65	88
2	246	20	170	232	54	50	65	90
3	245	22	170	232	56	53	64	90
4	244	16	168	233	53	49	64	88
5	243	17	167	232	56	49	63	89
6	246	17	173	234	54	51	62	87
7	244	20	180	236	55	50	63	88
8	247	18	172	233	54	52	63	85
9	243	19	175	234	53	51	60	84
10	245	21	177	237	53	51	58	63
11	244	17	169	234	55	52	64	82
12	242	14	178	233	51	51	65	87
13	246	15	180	233	55	53	63	88
14	245	12	173	232	54	51	64	91
15	243	13	175	231	52	49	65	88
16	244	14	174	234	56	50	64	86
17	247	11	164	236	55	47	60	90
18	247	12	172	235	57	50	67	89
19	240	8	173	225	57	42	67	91
평균	244.11	15.68	173.05	232.95	54.53	50.00	54.00	8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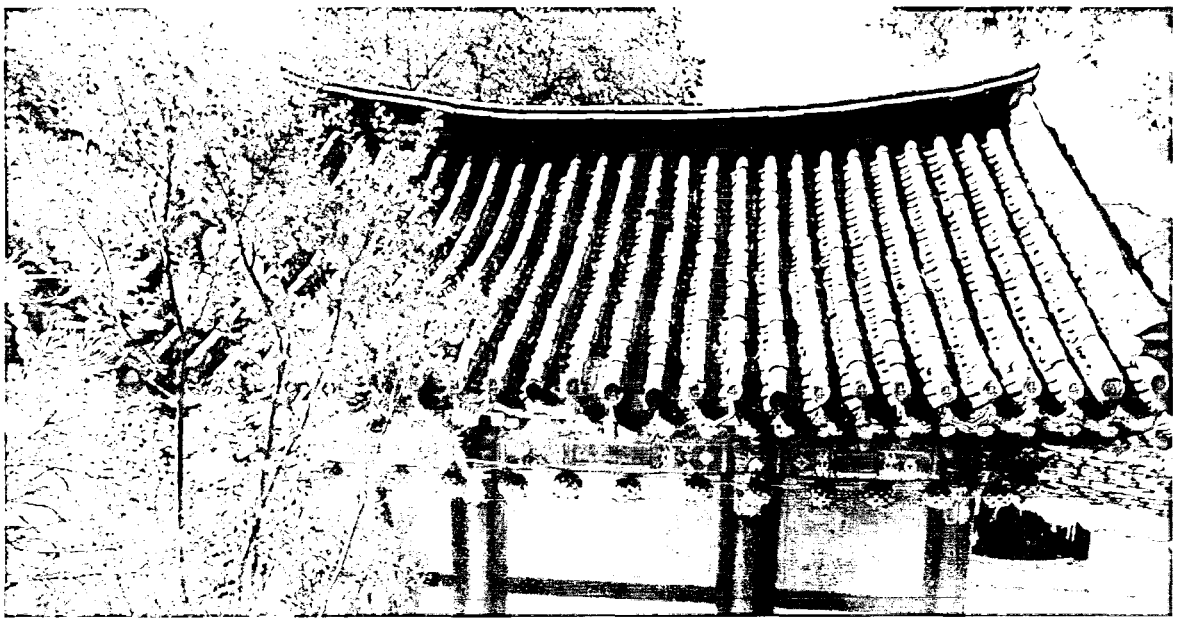
※ G,H(목기연 춤)의 평균값 계산시 중앙부 목기연값은 제외



6. 지붕

지장전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용마루와 4개의 내림마루로 지붕마루를 이루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와 5단의 적새로 구성되어 있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가 3단이다. 용마루는 가운데가 낮고, 양끝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마루의 끝은 수키와 1개를 옆으로 쌓아 머거불로 받치고, 그 위에 망와를 설치하였으며, 내림마루 끝에도 망와를 세웠다. 바닥기와 끝선은 숫막새와 암막새로 마감되어 있다. 기와는 중와를 사용하였다.

현재 배면 지붕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키와가 탈락되고 기와곡이 움푹 내려간 듯 부분적으로 변형이 나타나고 있어 건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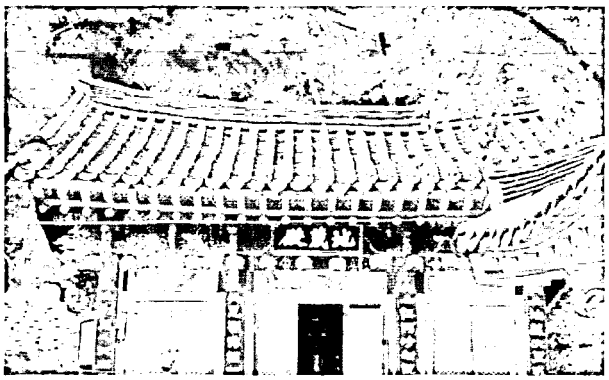


[사진 4-53] 지장전 배면 지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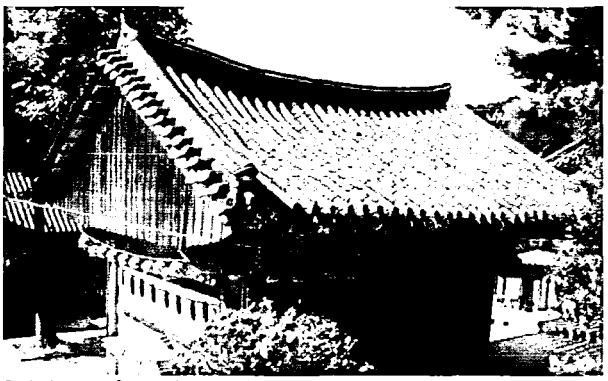
6-1. 지붕곡

바닥기와는 단면상 중간 부분이 약간 욱어지는 곡선을 이루고 있다. 지붕의 길이는 정면 4,239㎜, 배면 4,244㎜로 정면과 배면 길이가 거의 같다. 기와 높이는 수직 기준점에서 정면 수키와 하부 끝단은 +3,674㎜이고, 상부 끝은 +5,604㎜이다. 배면은 하부가 +3,647㎜이고, 상부는 +5,602㎜이다. 정면의 지붕물매는 10:5.1이고, 배면은 10: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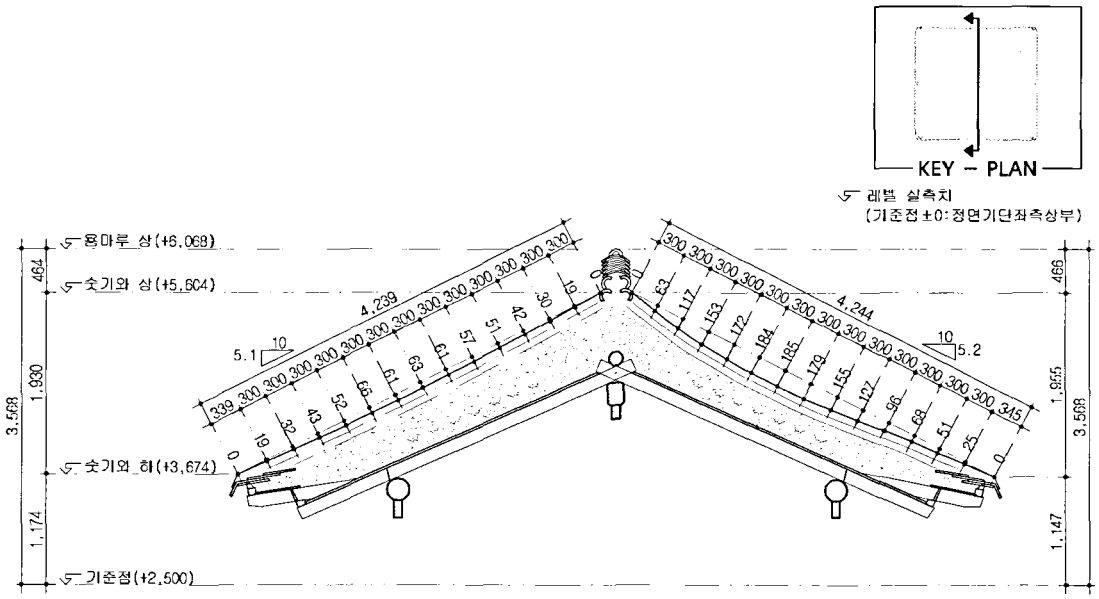
지붕곡은 수키와 골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한 직선에서부터 300㎜ 간격으로 수키와 등까지의 거리를 실측한 것이다. 정면은 상부에서 2,700㎜ 내려온 지점의 곡이 가장 세며, 배면은 1,800㎜ 지점이 가장 센데, 정면은 66㎜, 배면은 185㎜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두 면 모두 바닥기와 양끝을 연결한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휘어 내려가 있는데, 정면은 거의 직선에 가깝고, 배면은 크게 욱어져 있다. 배면 지붕곡의 경우, 중앙부의 곡이 센 반면 전체 곡선이 자연스럽지 않아 지붕면에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육안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4-54] 정면 지붕



[사진 4-55] 배면 지붕



[도면 4-20] 지장전 바닥기와곡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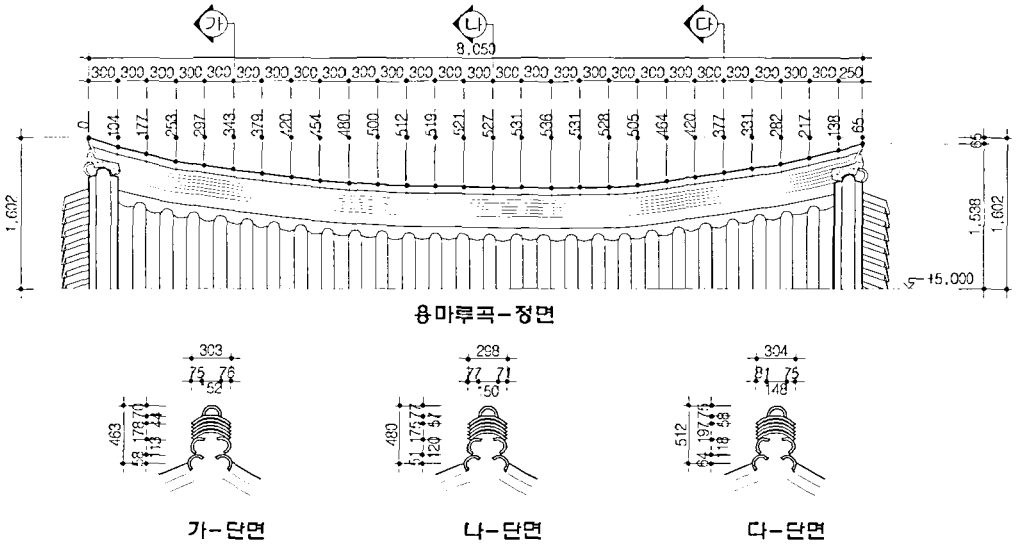
6-2. 지붕마루곡

용마루는 중앙을 중심으로 양끝이 완만하게 휘어오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가 8,050㎜이다.

용마루곡은 용마루 좌측 상부 끝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선에서 300㎜ 간격으로 기준 높이와의 높이차를 재는 방법으로 실측하였다. 기준점의 레벨은 용마루 좌측 최고점의 높이로 ±0 지점에서 +6,602㎜의 위치에 있다. 용마루 우측 끝지점은 좌측보다 65㎜ 낮다. 수평기준선과의 최대 높이차는 좌측에서 4,800㎜ 지점으로 536㎜이며, 건물의 규모에 비해 용마루곡이 센 편이다. 이 부분의 용마루의 중앙부에서 800㎜ 정도 우측으로 치우쳐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용마루가 중앙을 중심으로 휘어올라

간다고 볼 수 있다.

용마루 적새는 5단으로 수키와와 착고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의 적새 상부까지의 전체 높이는 460~512㎜ 정도이며, 너비는 암키와 폭인 300㎜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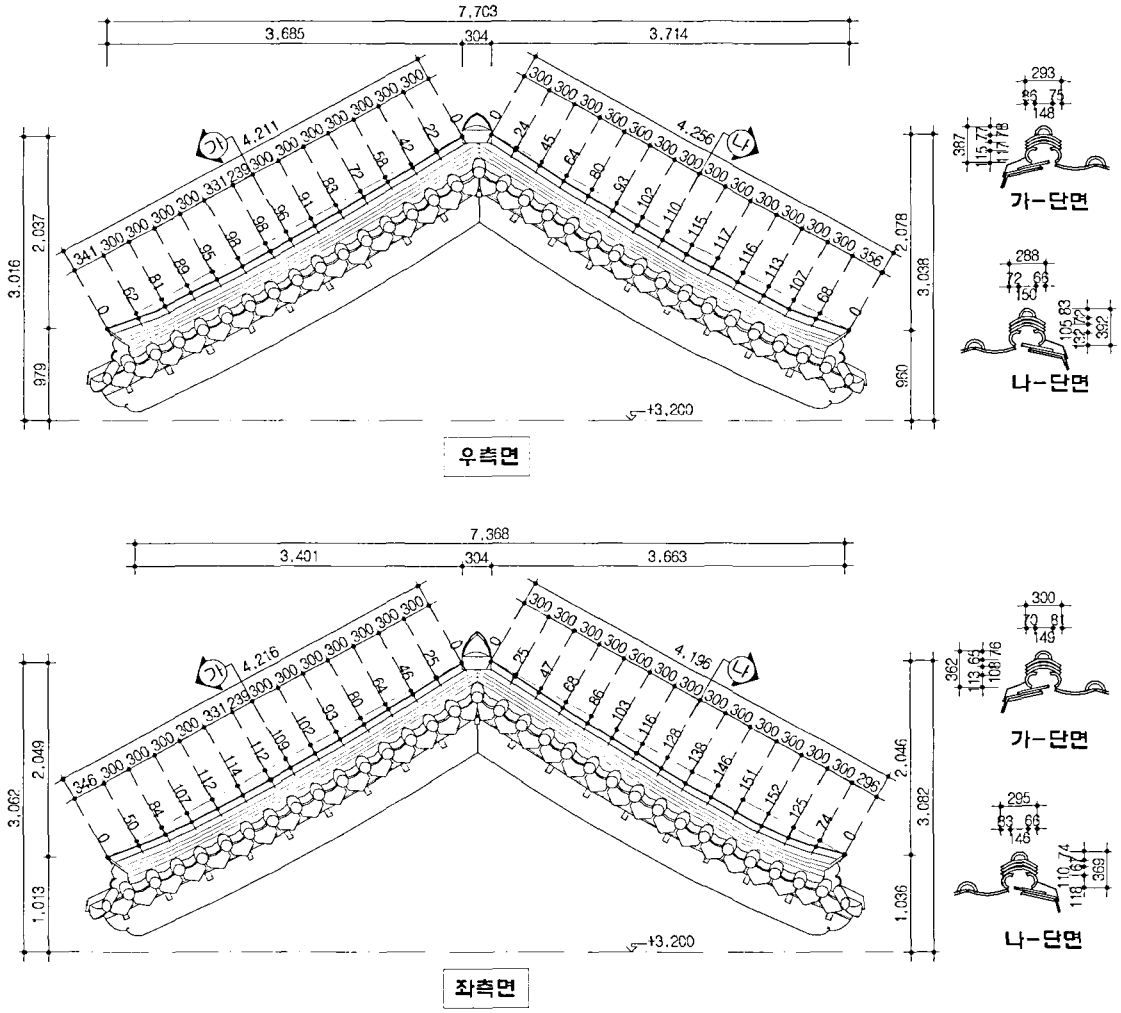


[도면 4-21] 용마루곡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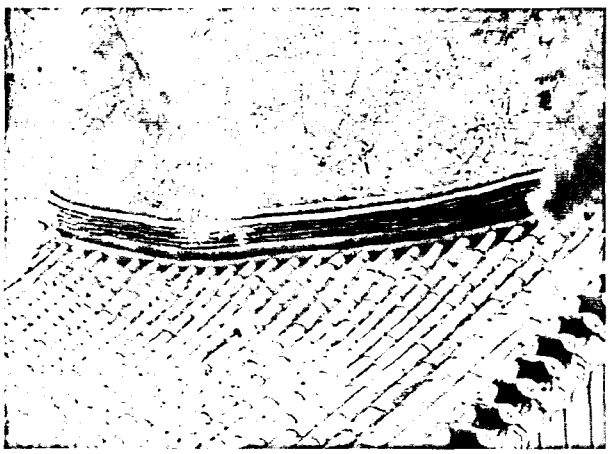
내림마루는 거의 직선으로 뻗어내리다가 끝부분에서 휘어오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내림마루의 길이는 건물 우측면 정면의 내림마루의 경우 4,211㎜, 배면 쪽은 4,256㎜이고, 좌측면은 정면 쪽이 4,196㎜, 배면 쪽이 4,216㎜이다. 우측면은 정면이 45㎜ 정도 짧고, 좌측면 역시 정면이 20㎜ 정도 짧으나 그 길이차가 크지 않아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림마루곡은 내림마루 적새인 수키와 등선의 상·하부 양 끝 두 점을 0으로 기준으로 연결하여, 300㎜ 간격으로 기준선에서부터 수키와 등선까지의 높이를 실측하였다. 내림마루는 전체 길이의 2/3 정도 내려간 지점이 높이가 가장 낮았으며, 각 부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값은 우측면은 98㎜, 117㎜이고 좌측면은 152㎜, 114㎜이다. 좌측면 중 정면의 욱은 곡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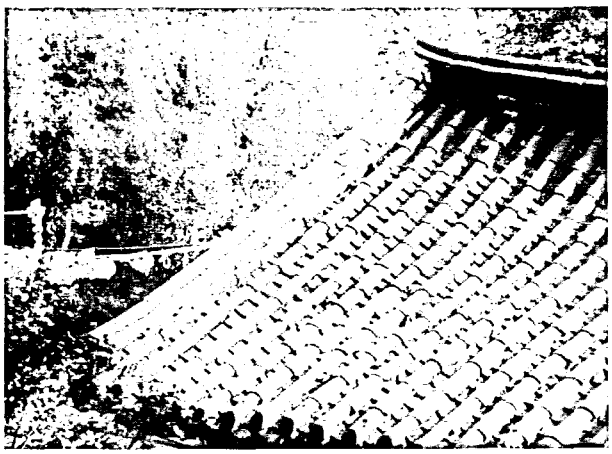
내림마루의 높이는 수직 기준점으로부터 3,200㎜ 위에 위치한 수평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내림마루 하부 끝 높이의 경우, 우측면은 정면 960㎜, 배면 979㎜만큼 기준선보다 위에 위치하며, 좌측면은 정면 1,036㎜, 배면 1,013㎜만큼 올라온 위치이다. 용마루 적새와 만나는 내림마루 상부 끝 지점까지의 거리는 기준선에서 3,016~3,082㎜ 정도로 편차가 있다. 내림마루의 단면 높이는 360~390㎜ 정도이다.



[도면 4-22] 내림마루곡 실측도



[사진 4-56] 용마루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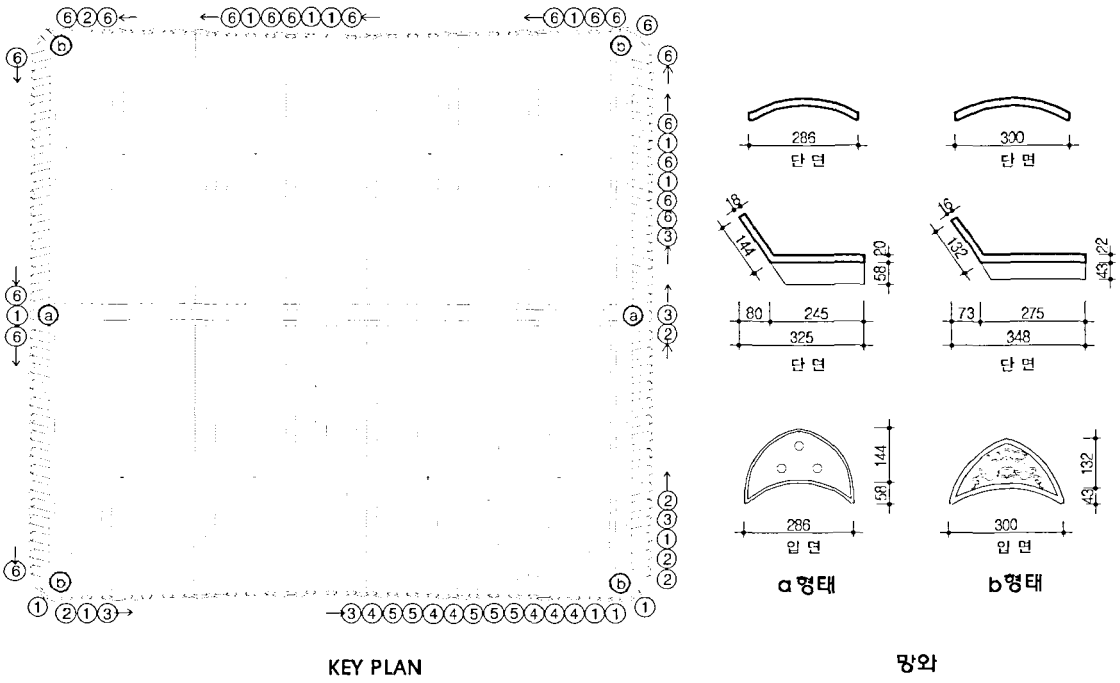
[사진 4-57] 내림마루

6-3. 기와

지장전에 사용된 기와는 암기와, 수키와, 숫막새, 암막새, 수막새, 착고, 부고 등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사용하였다. 막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사용되어 과거 여러 차례 기와 공사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바닥기와는 한식 기와 중와가 설치되어 있다.

지장전에 사용된 망와는 두가지 종류이다. 용마루에 사용된 망와는 둥근 점을 삼각형 형태로 양각한 귀목문 형태이며, 내림마루 망와는 가운데 연화를 중심으로 당초문이 새겨진 형태이다. 귀목문 망와의 크기는 바닥 너비가 292㎜, 길이는 325㎜ 정도이고, 입면 높이는 202㎜ 정도이며, 연화문 망화는 바닥 너비가 300㎜, 길이는 348㎜ 정도이고, 입면 높이는 175㎜ 정도이다.

망와는 적새 끝에 망와를 올리고 수막새를 한장 뉘여서 쌓아 머거블로 사용하고, 그 사이는 강회몰탈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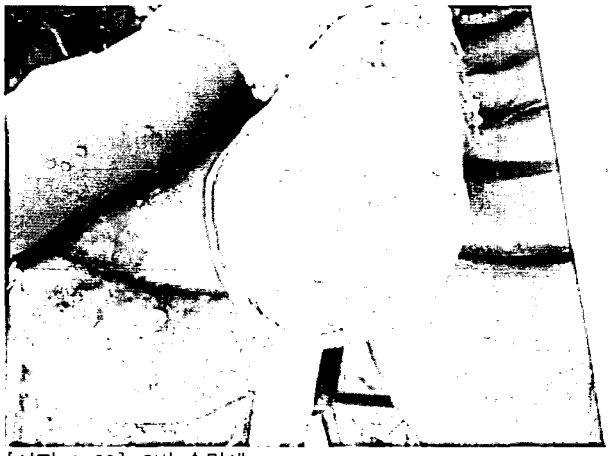


[도면 4-23] 망와 상세도

[사진 4-58] 용마루 망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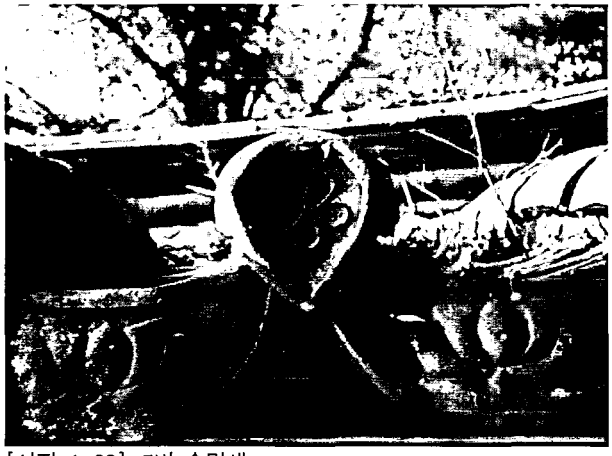
[사진 4-59] 내림마루 망와

지장전의 수막새는 6종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달라 각기 제조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숫막새는 두가지 종류의 옴자형문과 연화문, 봉황문과 십자 형태를 양각하고 아래쪽에 점을 새긴 형태 등이 있다. 수막새는 하부 모양이 뾰쪽한 형태의 것의 너비가 120㎜ 정도로 작고, 약간 둥근 것이 145㎜ 내외로 약간 크다. 옴자형 하부에 연화문을 새긴 1번 형태는 근래에 새로 보충한 막새로 다른 형태들의 입면의 높이가 150㎜ 내외로 거의 비슷한데 비해 172㎜로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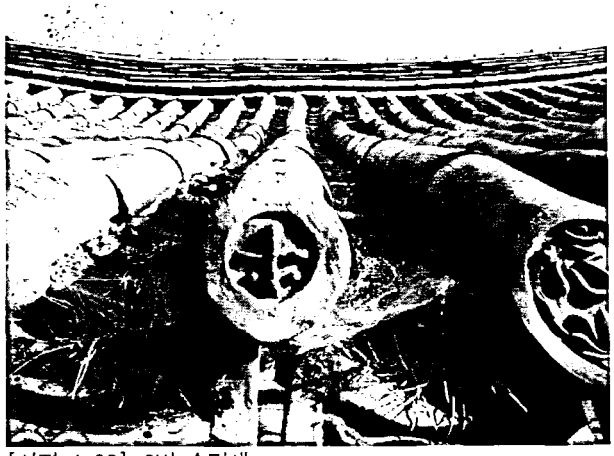


[사진 4-60] 2번 숫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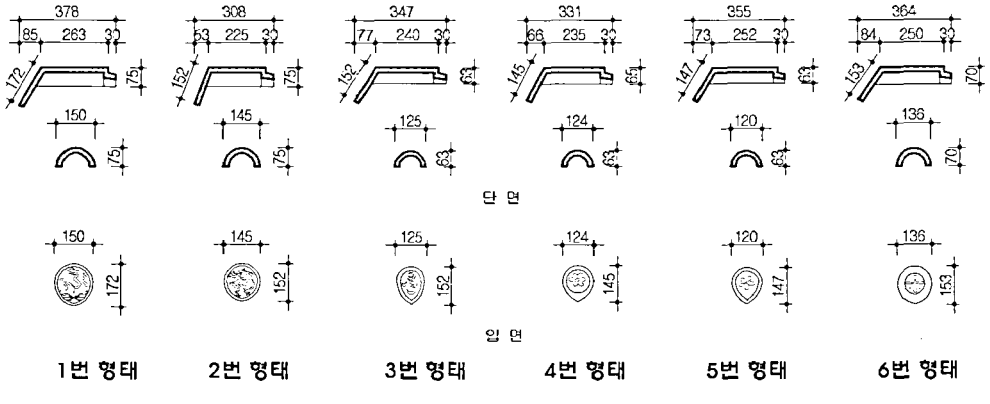
[사진 4-61] 3번 숫막새



[사진 4-62] 5번 숫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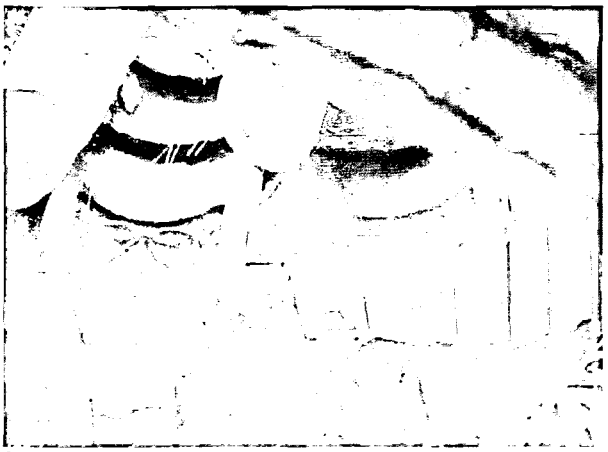


[사진 4-63] 6번 숫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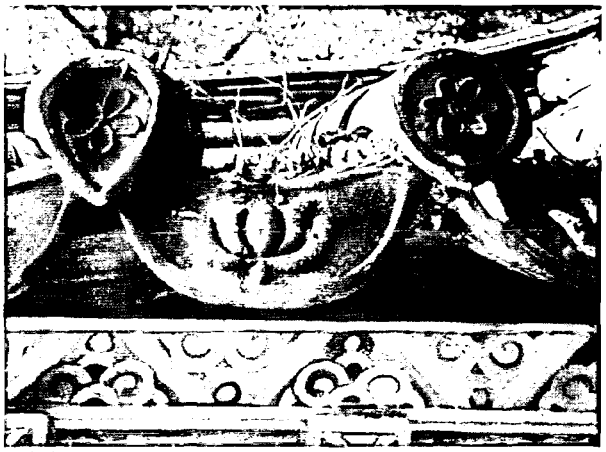


[도면 4-24] 숫막새 상세도

지장전에 사용된 암막새는 5가지 종류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막새는 두 종류인데, 막새 하부가 각이 진 5각 형태를 보이며 내부에 잎새가 양각되어 있는 A형태의 막새는 주로 건물 배면과 좌측면에 사용되고 있다. 하부가 호를 그리고 있으며 내부에 5잎의 연봉이 새겨진 C형태의 막새는 건물 정면과 우측면 일부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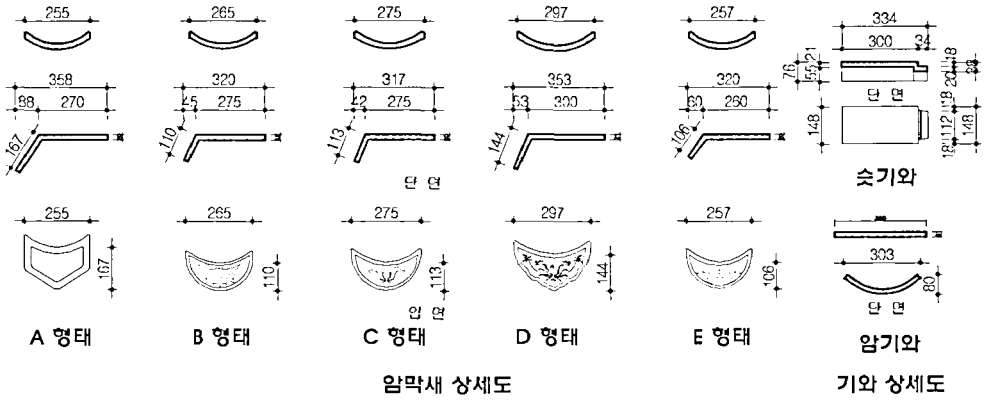
[사진 4-64] 암막새-A형태



[사진 4-65] 암막새-C형태

[사진 4-66] 암막새-D형태

[사진 4-67] 암막새-E형태



[도면 4-25] 암막새 및 기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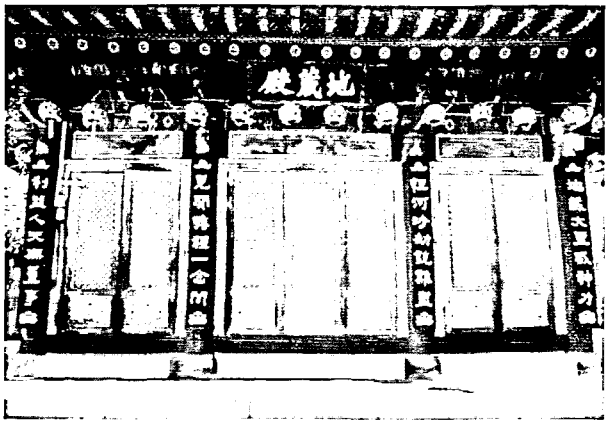
건물 우측면에 거미문을 새긴 B형태가 쓰이고 있으며, 그 외 가는 선으로 가운데 활짝 핀 5잎의 꽃과 잎새를 양각한 E형태와 큰 꽃봉우리와 양쪽으로 두 줄기씩 작은 봉우리들을 새긴 D형태의 막새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D형태가 가장 근래에 보충된 기와로 보인다.

비슷한 입면 모양을 지닌 B, C, E형태의 크기는 너비 265㎜, 입면 높이 110㎜, 길이 320㎜ 내외의 값을 보인다. A형태는 너비가 255㎜ 정도로 약간 좁은 반면, 입면의 높이는 167㎜이고, 전체 길이는 360㎜ 정도이다. D형태는 너비가 297㎜로 넓고, 입면의 높이는 144㎜이고, 전체 길이는 35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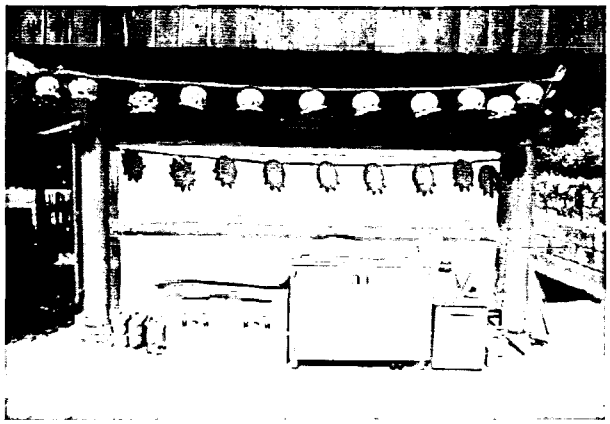
7. 기타

7-1. 인방과 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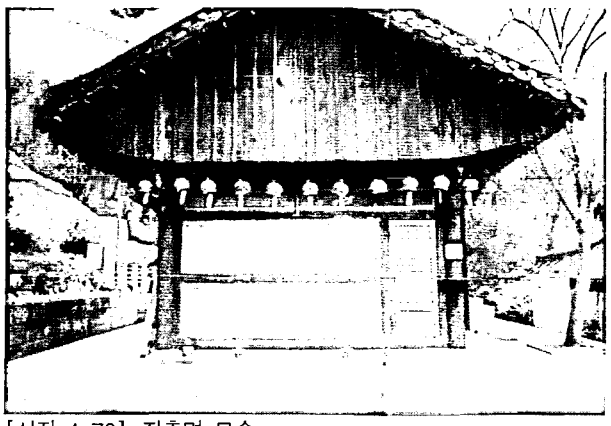
청계사 지장전의 정면은 모두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벽체와 출입문을 두었으며, 우측면과 배면은 벽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정면에는 하인방을 두고 상인방과 문선을 설치한 후, 어칸에 3짝, 양 협칸에는 2짝의 창호를 달았다. 상인방과 창방 사이에는 340㎜ 정도의 벽체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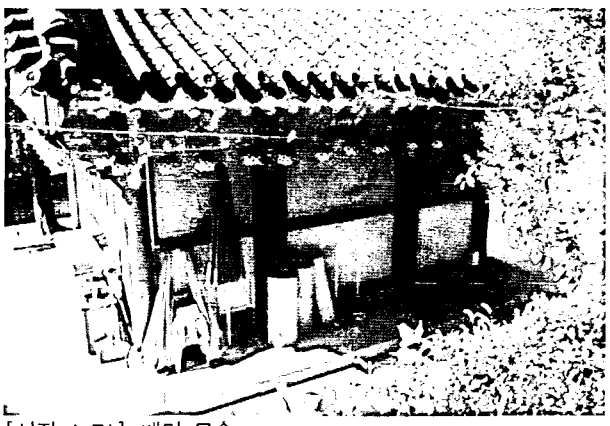
[사진 4-68] 정면 모습



[사진 4-69] 우측면 모습



[사진 4-70] 좌측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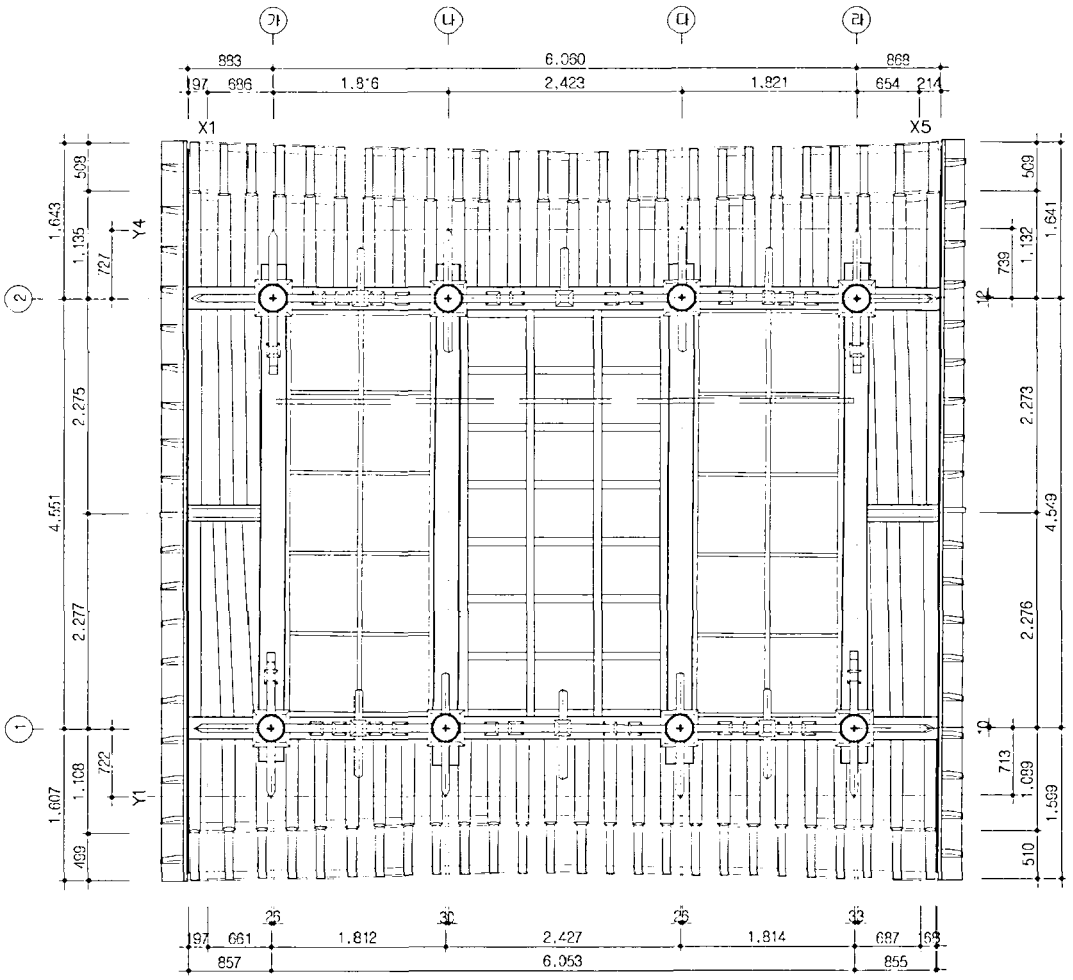


[사진 4-71] 배면 모습

정면 부재의 단면 크기는 하인방 84×185㎜, 상인방 84×160㎜, 문선 84×130㎜ 내외이다. 건물의 좌측면에는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창호를 달기 위해 상인방과 문선을 두어 문얼굴을 만들었으며, 창호 옆 공간에는 중인방을 두었다. 벽체로 구성된 우측면 역시 좌측면과 같은 높이에 상·중·하인방을 설치하고 벽선을 두었으며, 배면에는 창방이 있어 상인방을 생략하고 중인방과 하인방을 설치한 후 벽선을 세웠다. 좌·우측면보다 배면의 중인방 높이가 약간 높게 설치되었다. 양 측면의 보와 상인방 사이의 벽체와 배면의 상부 벽체에는 벽화를 그려넣었다.

7-2. 천장

지장전의 천장은 우물반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물반자는 보의 측면에 반자돌림대를 대고 반자대를 설치하여 반자틀을 짠 후, 소란을 대고 위에서 반자청판을 덮었다. 반자틀은 60×60㎜ 내외이며, 반자청판의 크기는 어칸의 경우 520×610㎜, 협칸의 경우 695×810㎜ 정도로 각각의 보로 나누어지는 공간의 크기가 달라 치수에 차이를 보인다. 반자틀은 상부의 도리 등에 달대를 달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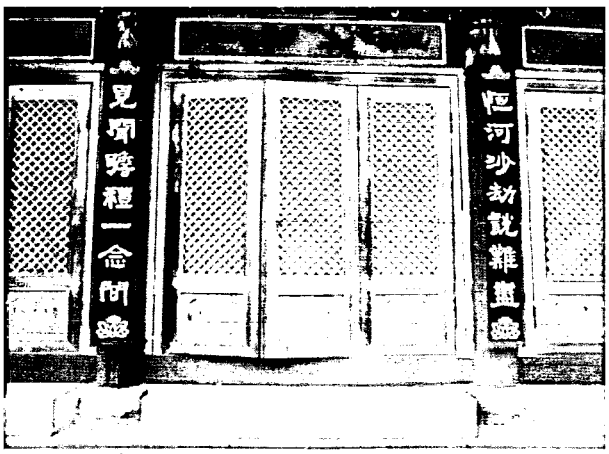
[도면 4-26] 지장전 천장 평면도

7-4. 창호

지장전에는 정면 어칸에 세짝 분합문을 달았고, 협칸에는 두짝 분합문이 설치되었다. 좌측면에는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여 참배객들이 출입하도록 하였다. 창호는 모두 빗살문으로 하부에는 궁판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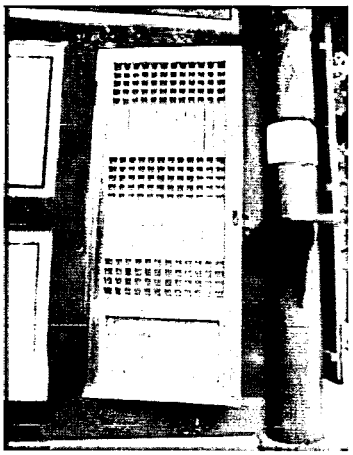
정면 어칸의 경우 분합문의 전체 크기는 1,869×1,784㎜이고 한짝의 너비는 620㎜ 내외이다. 협칸의 경우는 어칸보다 주칸 폭이 좁아 분합문의 전체 크기는 1,252×1,784㎜ 정도이며, 한짝의 너비는 630㎜ 내외이다. 문울거미의 단면은 54×80㎜ 정도이고, 울거미 가운데는 쌍사로 쇠시리를 넣었다. 문살은 11×36㎜이며, 궁판의 크기는 460×32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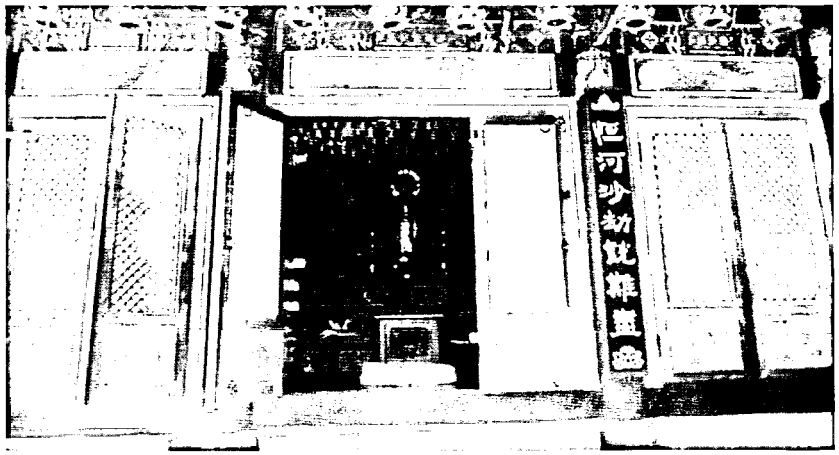
좌측면에 설치된 외여닫이문의 크기는 728×1,781㎜이며, 문울거미나 문살의 단면 크기는 정면과 같으며, 궁판의 크기는 565×32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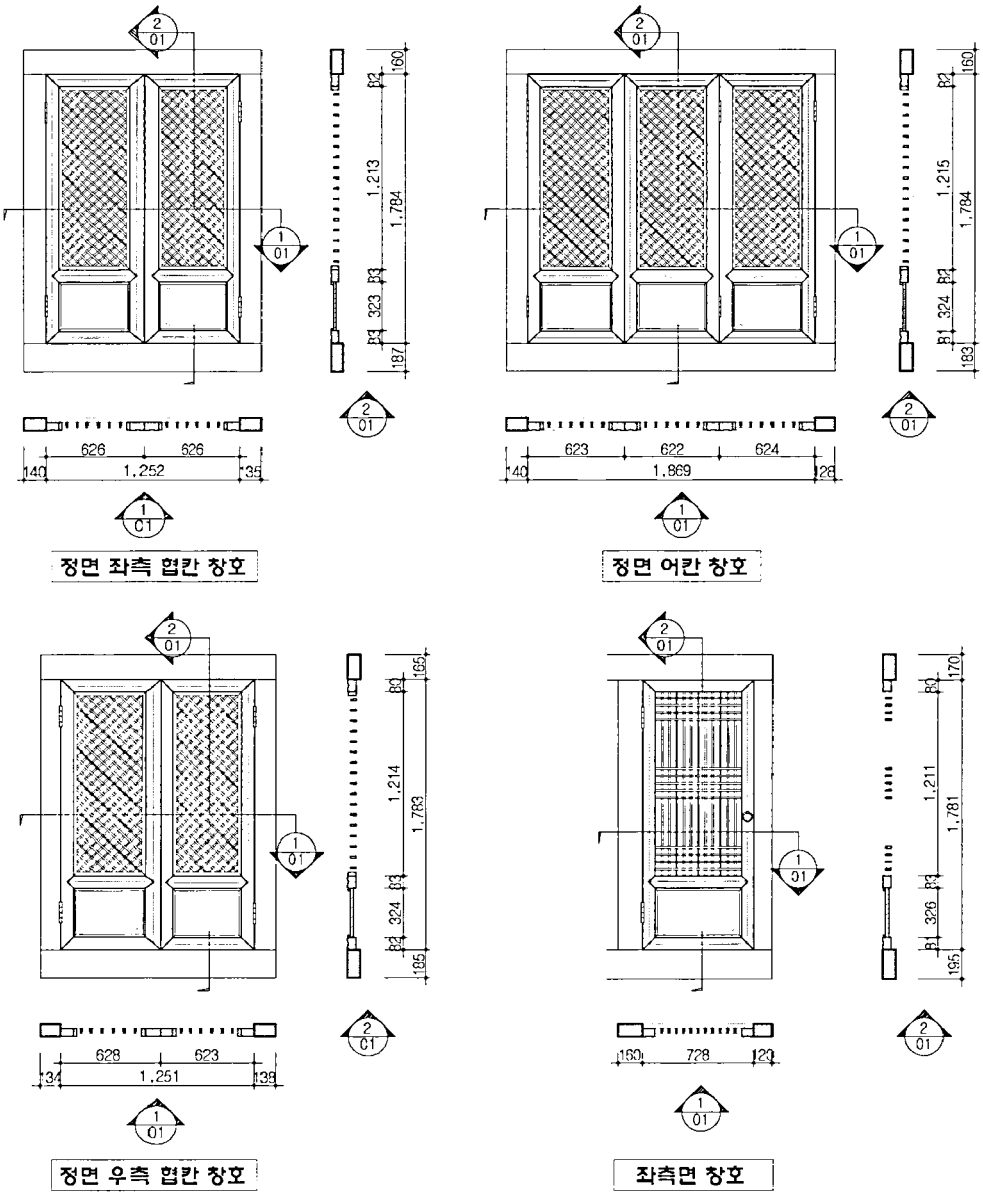
[사진 4-72] 정면 어칸의 세짝 분합문

[사진 4-73] 정면 협칸의 두짝 분합문


[사진 4-74] 좌측면 외여닫이문



[사진 4-75] 정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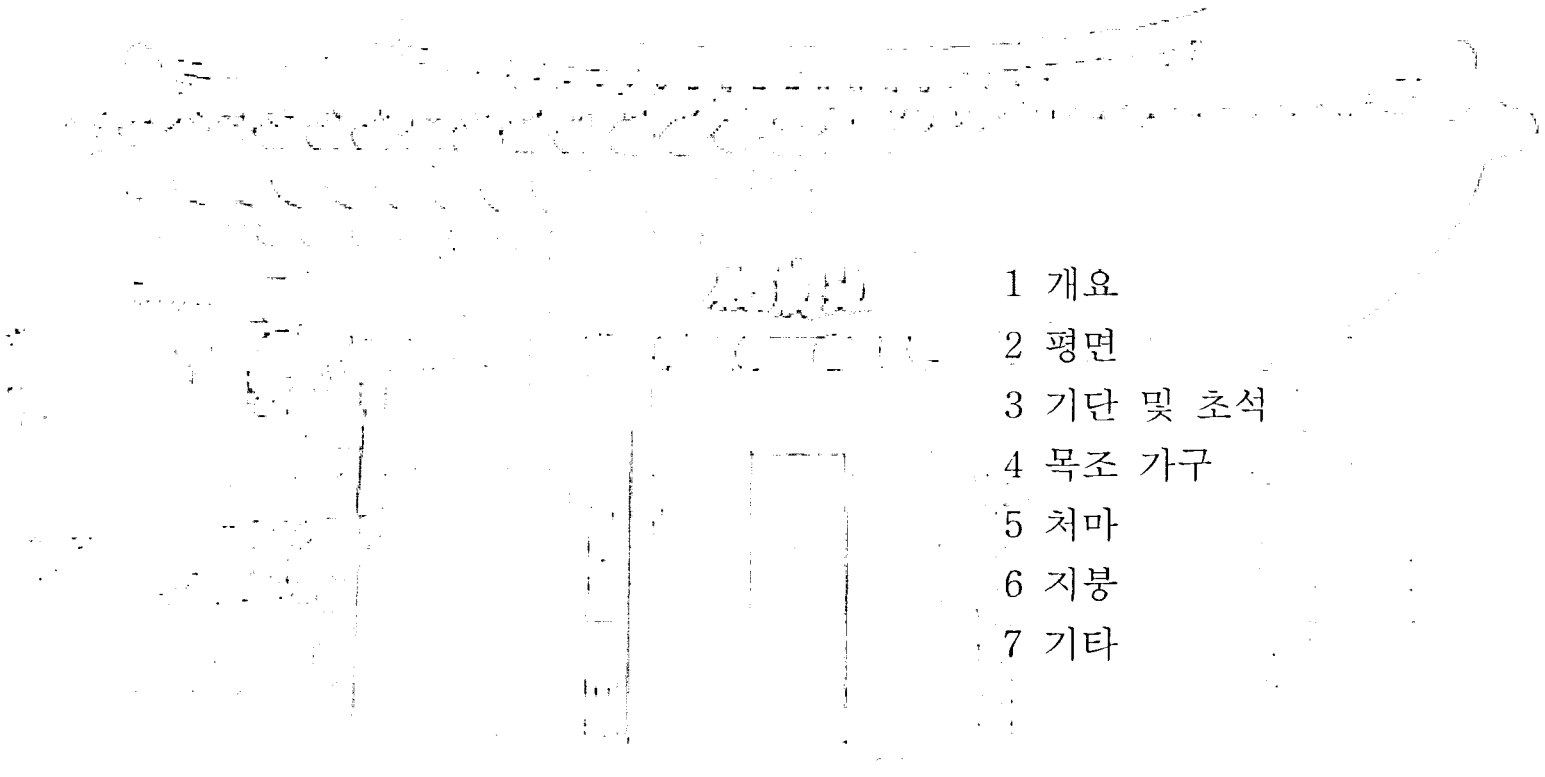


[도면 4-27] 지장전 창호실측도 - 문

여 백

제 5 장

삼성각 각부 실측조사



1 개요
2 평면
3 기단 및 초석
4 목조 가구
5 처마
6 지붕
7 기타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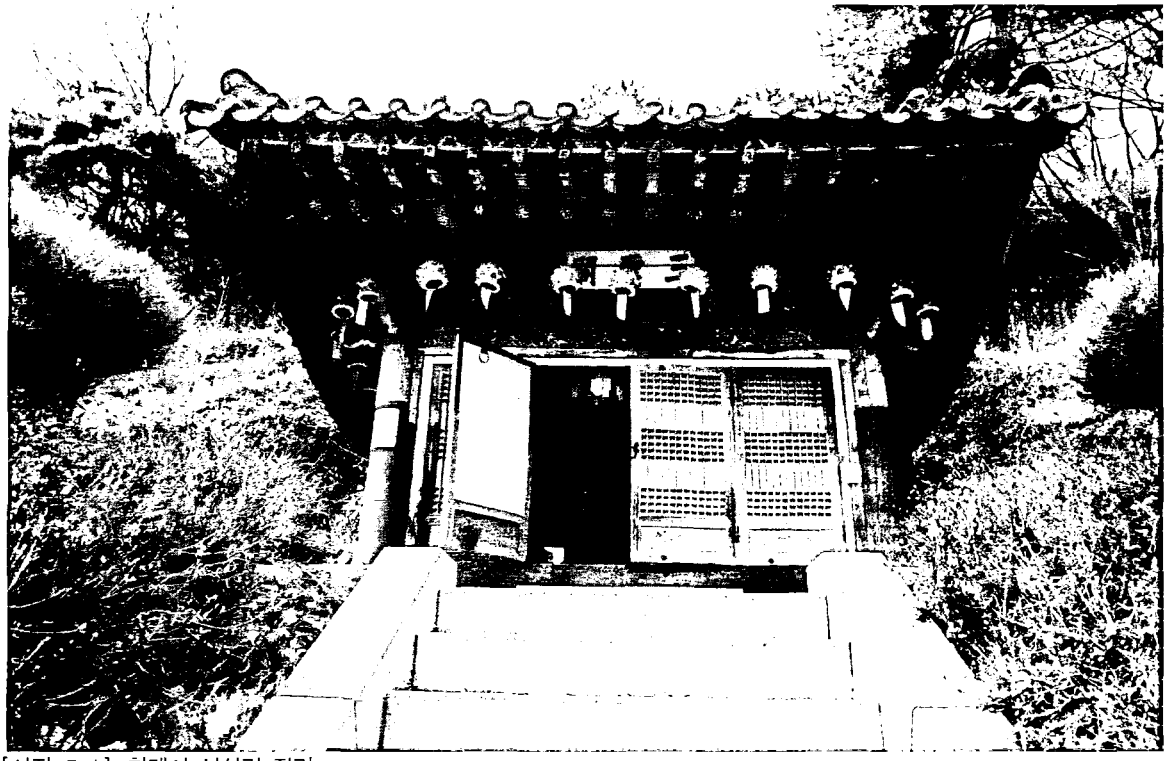
제 5 장 삼성각 각부 실측조사

1. 개요

삼성각은 극락보전과 지장전 사이에 놓여 진 계단 위에 동쪽으로 5° 정도 틀어져 남향으로 자리잡은 건물로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전각으로 바닥 면적은 약 11.11㎡ 정도이다. 건물 정면에는 네짝의 세살 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좌측면에 참배객이 출입할 수 있도록 외여닫이문을 달았다.

건물 구조는 삼량가로 전후면 주심도리 사이에 대량을 결구하고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종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연목을 걸고 상부에 부연을 설치한 겹처마 건물이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으로 익공에는 만개한 꽃을 새겼으며, 보머리는 봉황으로 장식하였다. 공포는 지장전과 같은 모양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정면과 배면의 기둥사이에는 각각 두 개씩 포화반을 설치하고, 도리와 직각으로 짜여진 부재에는 익공과 같이 장식하였다.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내부에는 'ㄱ'자 형태의 제단이 있으며 전면 좌측에 산신탱, 전면 우측에 독성탱, 우측 벽면에는 칠성탱을 봉안하고 좌측 벽면에는 신도들의 생년월일 등이 적힌 인등을 설치했다.

청계사 종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지장전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지어진 삼성각이 있었다고 하나 그 위치는 현재와는 다르다. 1980년대 초에 예전의 삼성각(현 지장전)에서 탱화를 모셔와 봉안하고,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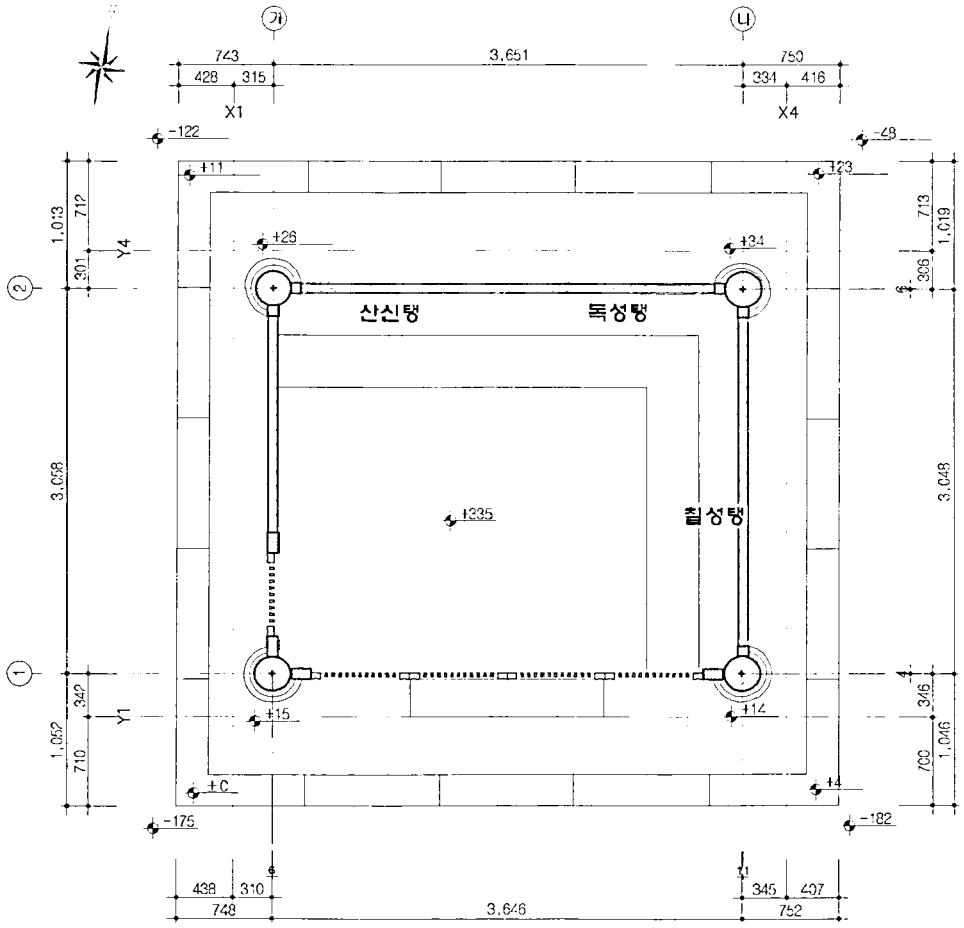


[사진 5-1] 청계사 삼성각 전경

2. 평면

삼성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작은 전각이다. 건물의 정면에는 네짝의 분합문을, 좌측 앞부분에는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으며, 참배객들은 좌측문을 이용하여 법당을 출입할 수 있다. 법당의 북측면과 동측면으로는 각각 330㎜, 410㎜ 너비의 불단을 두 단으로 설치하여, 윗단 북측면의 좌측에는 산신탱을, 우측에는 독성탱을 모시고 우측면에는 칠성탱을 두었다. 벽면 탱화 앞에는 인등을 설치하였고 아랫단에는 촛대와 향로 등을 놓았다. 정면 벽 상부와 출입문을 제외한 좌측 벽에는 인등을 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짜고 유리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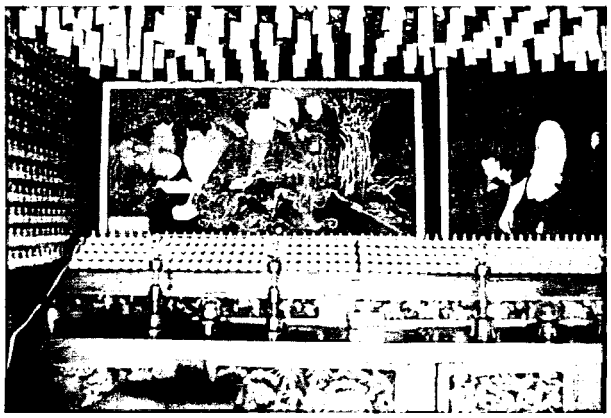
삼성각의 주칸 길이는 정면 3,646㎜, 동측면 3,048㎜로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은 약 11.11㎡이다. 정면과 측면의 길이는 1.19:1 정도 비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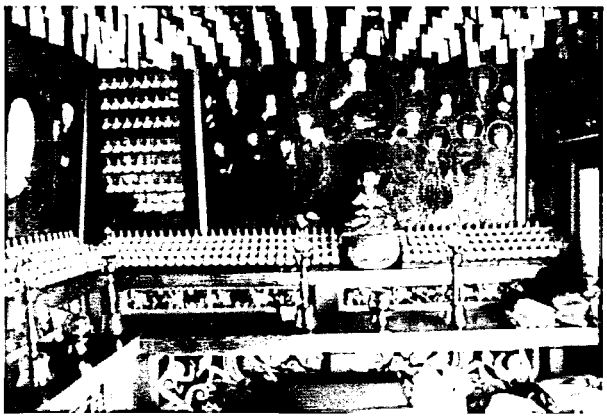
[도면 5-1] 삼성각 평면도

건물 주칸 거리의 실측은 남측면 기단 좌측 상부를 ±0으로 하여 기둥 하부는 +400㎜ 지점에서, 평주 기둥의 상부는 +2,300㎜ 지점에서 기둥 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기둥 상부와 하부 길이의 편차는 2~18㎜ 정도이며, 대체적으로 하부의 주칸거리가 약간 넓으나 차이가 크진 않다. 하부 주칸거리를 기준으로 동서 길이 방향의 주칸거리는 정면 3,646㎜, 배면 3,651㎜로 거의 같다. 남북 방향인 측면의 주칸거리는 좌측 3,058㎜, 우측 3,048㎜로 10㎜ 정도의 편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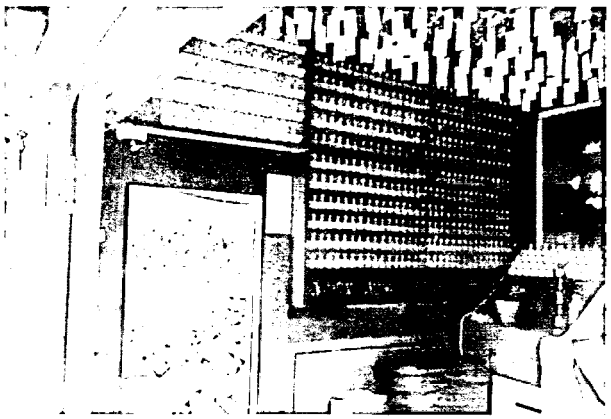
계획 당시 기준이 되는 주칸거리는 정면은 12尺, 측면은 10尺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된 용척을 계산하기 위해 각 주칸거리를 기준이 되는 尺으로 나누어 본 결과, 하부 주칸거리의 용척은 303.8~305.8㎜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편차를 보인다. 삼성각이 근래에 옮겨 지어진 것을 고려할 때, 곡척을 사용하였으리라 판단되며 길이의 편차는 시공오차 혹은 기둥 등의 변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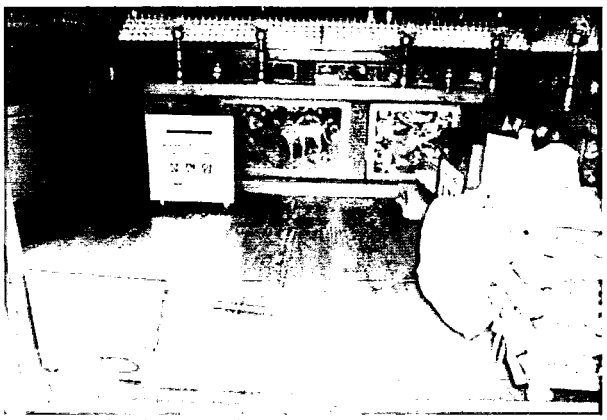
[사진 5-2] 산신탱과 독성탱



[사진 5-3] 칠성탱



[사진 5-4] 인등



[사진 5-5] 바닥의 쪽마루

[표 5-1] 주칸거리 실측표 (단위 : ㎜)

구분		단위	1행	2행	비고
가-나열	하부주칸	㎜	3,646	3,651	12尺기준
		용척	303.8	304.3	
	상부주칸	㎜	3,644	3,633	
		용척	303.7	302.8	
	거리편차	㎜	2.0	18.0	
구분		단위	가열	나열	비고
1-2행	하부주칸	㎜	3,058	3,048	10尺기준
		용척	305.8	304.8	
	상부주칸	㎜	3,043	3,039	
		용척	304.3	303.9	
	거리편차	㎜	15.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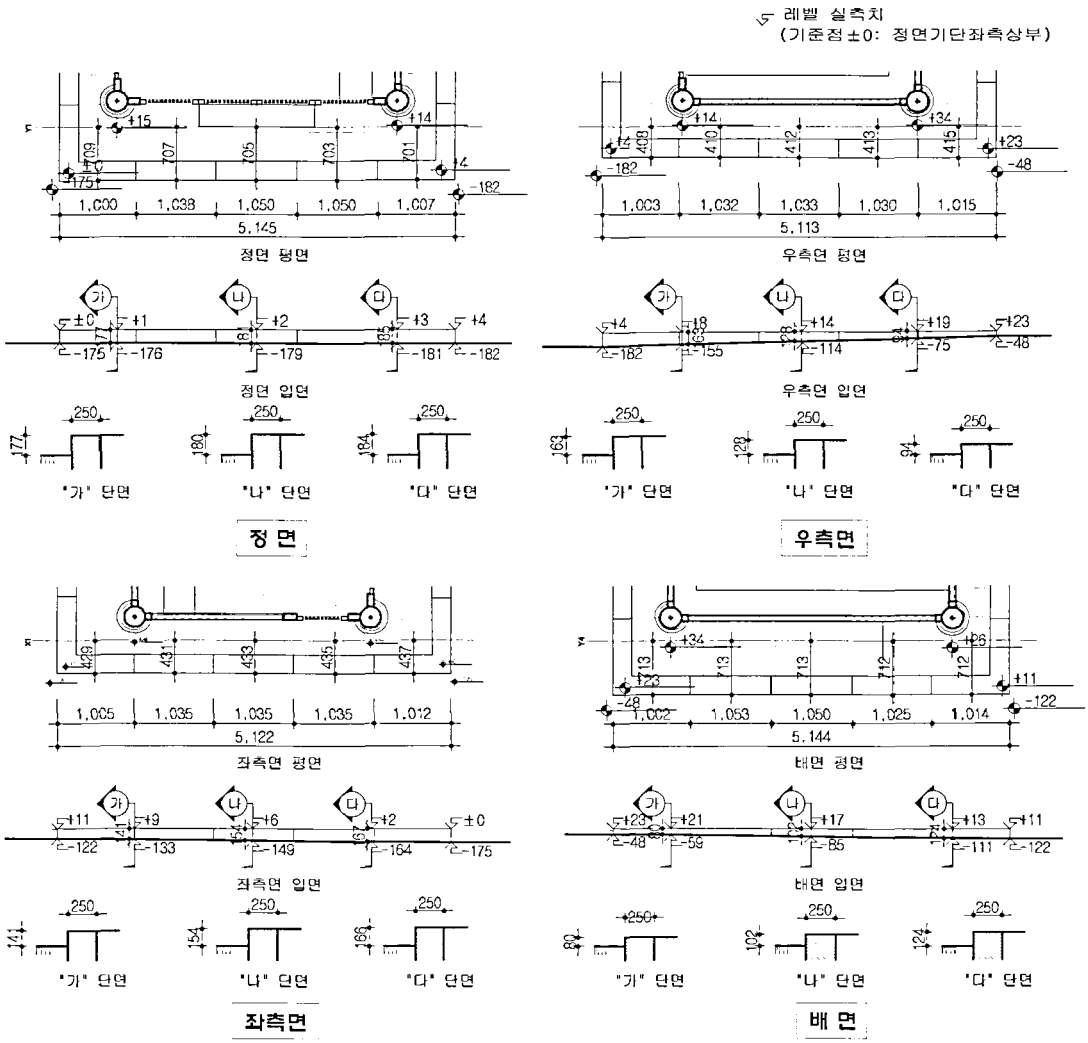
※ 거리편차=하부주칸거리-상부주칸거리

3. 기단 및 초석

3-1. 기단

삼성각은 극락보전과 지장전 사이의 높은 계단 위에 위치한다. 계단을 오르면 나지막한 경계석을 놓고 대리석으로 포장된 바닥이 보이며, 그 상부에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1단으로 쌓았다. 기단 상부 면에는 정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였다.

건물이 놓인 하부 바닥면은 북측에서 남측방향으로 50~160㎜ 정도 높이로 경사를 두어, 우수가 앞쪽으로 흐르도록 하였다. 기단의 높이는 정면의 경우 180㎜ 내외이며, 배면의 동측모서리는 71㎜, 서측모서리는 133㎜ 정도로 서측 바닥면의 레벨이 낮아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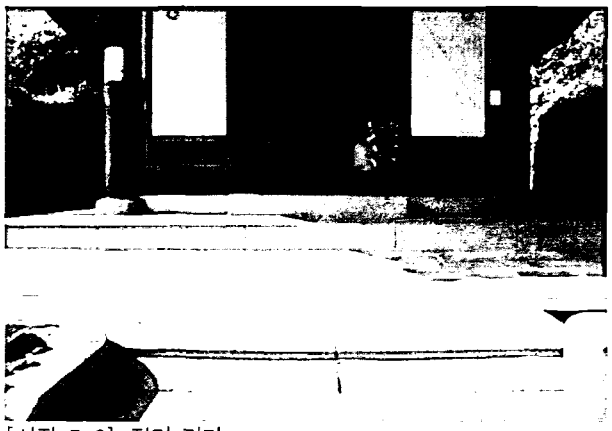


[도면 5-2] 삼성각 기단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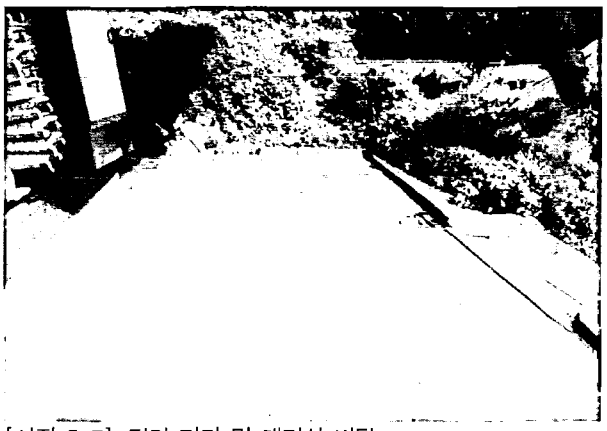
기단석은 너비 250㎜, 길이 1,020~1,050㎜ 내외의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모서리에는 ㄱ자 형태의 모서리석을 설치하였다. 기단 상부에 깐 화강석 판석의 크기는 450×380㎜ 정도이다. 기단 상부에는 정

면에는 300×1,500㎜ 크기의 화강석 디딤돌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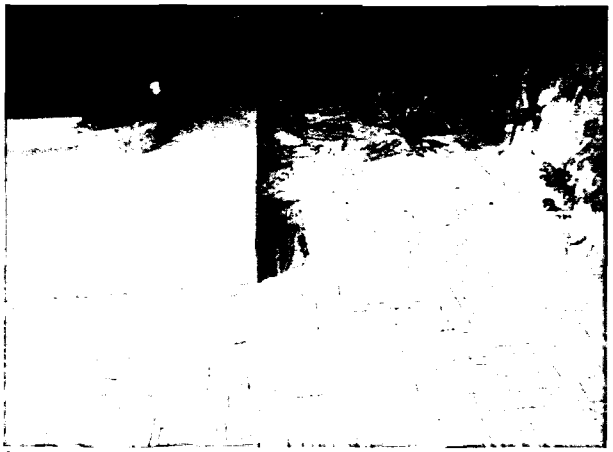
기단의 전체 길이는 정면 5,145㎜, 배면 5,144㎜, 동측면 5,113㎜, 서측면 5,122㎜로, 마주보는 면에서 길이의 편차는 크지 않다. 기둥 중심에서 실측한 기단 내밀기 거리의 경우, 1행 기둥 열에서 정면 기단 끝까지의 거리는 동측이 1,046㎜, 서측이 1,052㎜이며, 2행 기둥 열에서 배면 기단 끝까지의 거리는 동측이 1,019㎜, 서측이 1,013㎜이다. 동서측면 기단 내밀기 거리의 경우, 가열의 기둥 중심에서 서측 기단 끝까지의 거리는 남측이 748㎜, 북측이 743㎜이며, 나열에서 동측 기단 끝까지는 남측이 752㎜, 북측이 750㎜로 양 측면의 기단이 정면에 비해 약간 좁게 조성되어 있다.



[사진 5-6] 정면 기단



[사진 5-7] 정면 기단 및 대리석 바닥



[사진 5-8] 우측면 기단

[사진 5-9] 우측면 기단 상세

3-2.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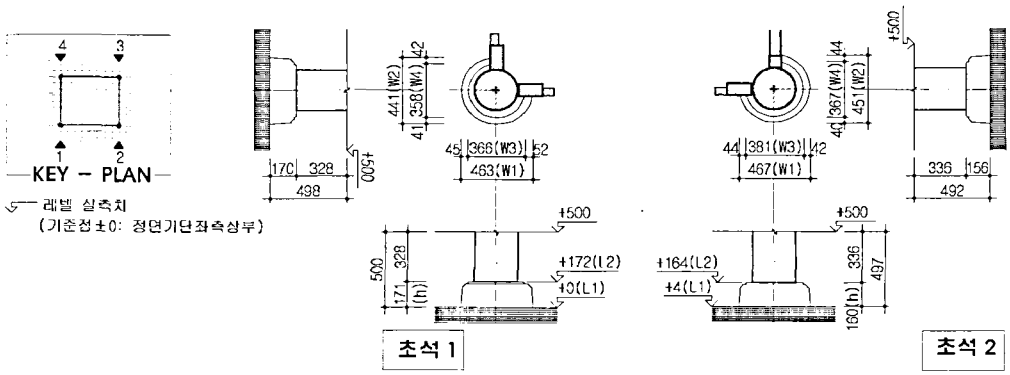
삼성각의 초석은 화강석 원형 초석으로 상부에 주좌를 둔 원통형의 형태이다. 초석은 거친 정다듬 정도의 가공을 하여 설치하였다. 초석의 상부 면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두어 우수가 기둥 내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했으며, 모서리는 둥글게 굴려서 치석하였다.

초석의 너비는 450㎜ 내외이며, 주좌의 너비는 360㎜ 정도이다. 초석 높이의 평균은 약 160㎜이고 정면이 배면에 비해 10~20㎜ 정도 키가 크다. 주좌의 높이는 15㎜ 정도이다. 초석 상부레벨은 +164~172㎜ 사이의 값을 보여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표 5-2] 초석 실측표 (단위 : mm)

구분	초석너비		초석주좌너비		초석높이h	초석하부 레벨 L1	초석상부 레벨 L2	비고
	정면W1	측면W2	정면W3	측면W4				
초석1	463	441	366	358	171	0	172	정면초석
초석2	467	451	381	367	160	4	164	
초석3	447	438	360	359	151	21	172	배면초석
초석4	436	469	359	369	157	13	170	
평 균	453.25	449.75	366.5	363.25	159.75	9.5	169.5	

※ 초석 높이, 초석 상하부 레벨은 정면 실측값으로 표기



[도면 5-3] 초석 상세도

[사진 5-10] 초석 1

[사진 5-11] 초석 2

[사진 5-12] 초석 3

[사진 5-13] 초석 4

4. 목조 가구

4-1. 가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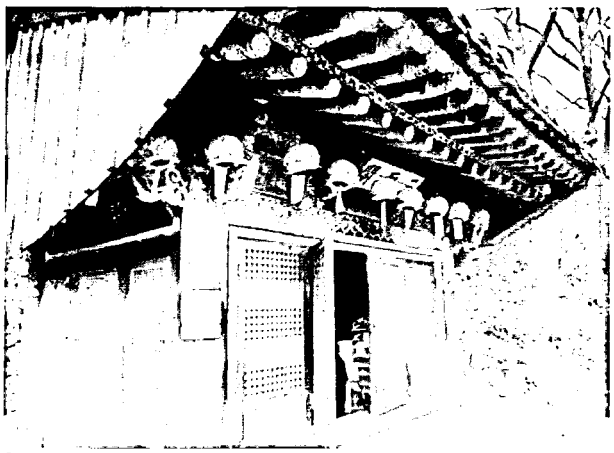
청계사 삼성각은 삼량가의 가구 구조를 하고 있다. 전·후면 기둥에 설치된 주심도리에 직각방향으로 대량을 결구하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운 후 종도리를 걸었다. 종도리와 주심도리에 지지하여 연목을 설치하고 연목 상부에는 부연을 걸어 처마내밀기를 구성하였다.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거리는 1,520㎜ 정도로 전·후면의 길이가 같다. 주심도리에서 연목 끝단까지의 내밀기 거리는 정면이 1,112㎜, 배면이 1,017㎜이며, 주심도리에서 부연 끝단까지의 처마내밀기 거리는 정면이 1,603㎜, 배면이 1,507㎜정도이다. 배면의 내밀기 길이가 정면보다 100㎜ 정도 짧으며, 전체 처마내밀기와 연목 내단 사이의 거리가 거의 같아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측면의 경우, 양쪽 기둥 중심에서 박공판까지의 거리는 우측이 765㎜, 좌측이 806㎜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건물의 양 측면 박공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박공 내밀기 길이는 서까래 3본 정도가 설치될 정도이고, 측면의 보 상부와 풍판 사이의 천장에는 순각판을 설치하였다. 지장전과 건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건물 측면의 전체 길이는 지장전의 2/3 정도이나 처마 내밀기 길이는 거의 같아 내밀기를 길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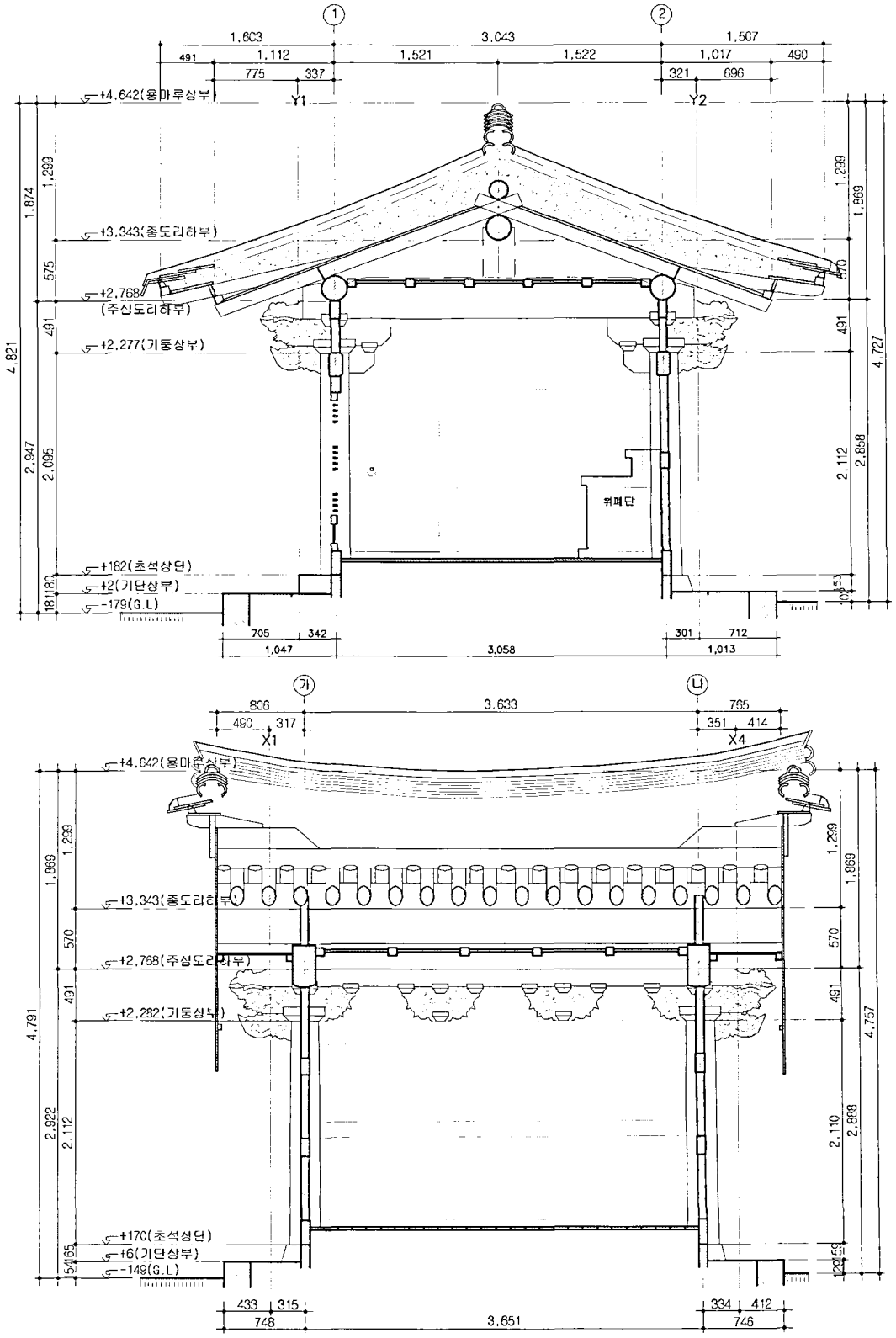
기단 상부에서 용마루 끝까지 건물의 전체 높이는 정면이 4,640㎜, 배면이 4,625㎜이다. 기단 상부에서부터 주심도리 하부까지의 높이는 정면이 2,766㎜, 배면이 2,756㎜이며, 주심도리 하부에서 용마루 끝까지의 높이는 정면이 1,874㎜, 배면이 1,869㎜이다.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한 건물의 기둥부와 지붕부의 비례는 1.48:1 정도로 지붕의 높이가 낮은 편이다. 지붕은 경사를 낮게 하였는데 전체 높이가 낮은 반면 처마 및 박공 내밀기는 길게 하여 전체 지붕 크기의 경우 건물 규모에 비해 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천정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바닥에는 쪽마루를 깔았다. 1칸 크기의 건물 규모에 비해 공포의 형태나 처마의 구성 등에서 격식을 높게 한 편이다.



[사진 5-14] 삼성각 정면

[사진 5-15] 삼성각 우측면



[도면 5-4] 지장전 종·횡단면도

4-2. 기둥

청계사 삼성각은 한 칸 규모로 총 4본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단면은 원형으로 민흘림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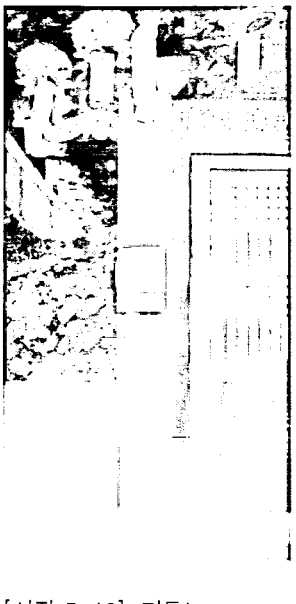
기둥의 실측은 기둥 상부에서부터 300㎜ 단위로 직경 크기 실측하고 기준 레벨에서 ±1,500㎜되는 높이에서부터 기둥 상하부 길이를 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삼성각 기둥의 하부 직경은 평균 252㎜ 정도로 272~288㎜ 사이에 분포한다. 기둥의 상부 직경은 평균 255㎜ 정도이며, 상하부의 직경차이는 15~30㎜ 정도이다. 대체로 크기에 여유가 있는 기둥은 흘림을 두어 치목했으며,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흘림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흘림율은 0.7~1.7정도로 센 편이다.

기둥의 길이는 평균 2,110㎜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며, 기준선 상하부의 길이 역시 비슷한 값을 보인다. 기둥의 세장비는 7.64~7.89 사이로 작은 값을 보이는데, 건물의 비례를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다른 건물에 비해 기둥 길이를 짧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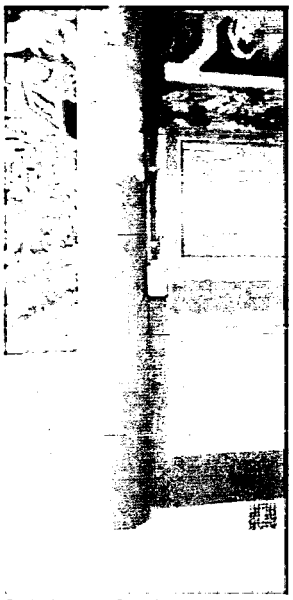
[표 5-3] 기둥 실측표 (단위 : ㎜)

구분	상부 너비 A	하부 너비 B	하부-상부너비 (B-A)	평균 너비 W	최소 너비 C	최대 너비 D	기둥 길이 L=L1+L2	기준선 하부길이 L1	기준선 상부길이 L2	세장비 L/W	흘림율 (B-A)/L *100	비고
기둥1	258	284	26	270.25	258	284	2,105	1,328	777	7.79	1.24	우주
기둥1'	257	272	15	266.88	257	272				7.89	0.71	
기둥2	251	282	31	269.13	251	282	2,116	1,336	780	7.86	1.47	우주
기둥2'	260	281	21	268.88	260	281				7.87	0.99	
기둥3	257	286	29	276.13	257	286	2,110	1,328	782	7.64	1.37	우주
기둥3'	257	288	31	272	257	288				7.76	1.47	
기둥4	247	283	36	268.5	247	283	2,112	1,330	782	7.87	1.70	우주
기둥4'	258	282	24	269.13	258	282				7.85	1.14	
평 균	255.63	282.25	26.63	270.11	255.63	282.25	2,110.75	1,330.50	780.25	7.82	1.26	

※ 기준선은 기준점에서 +1,500㎜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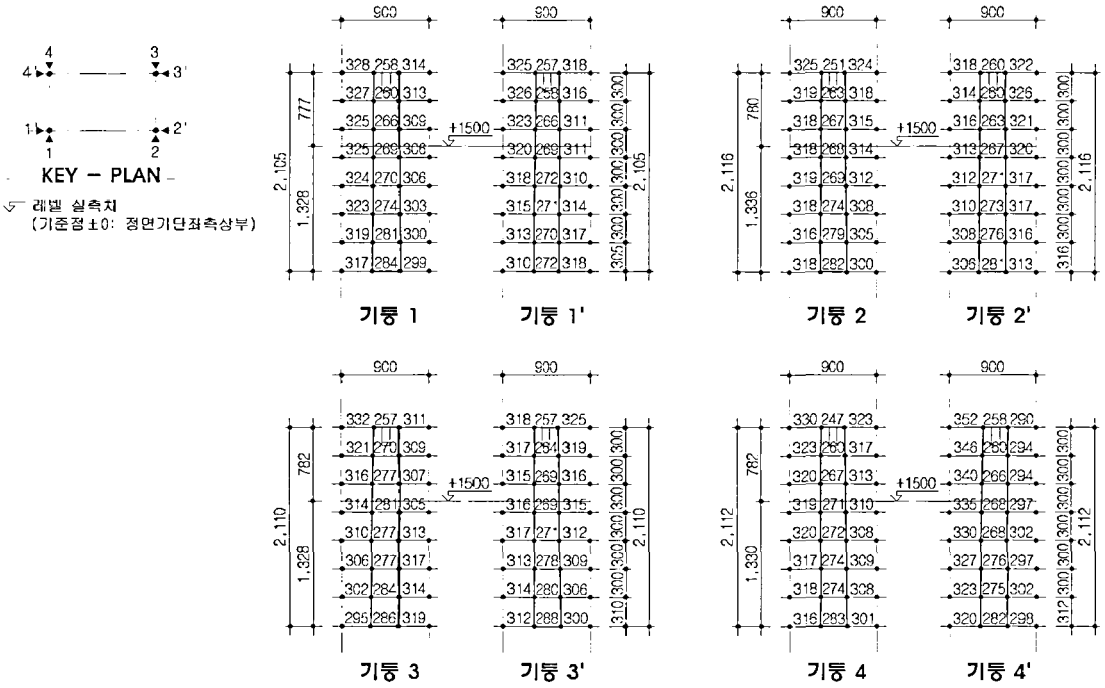
[사진 5-16] 기둥1



[사진 5-17] 기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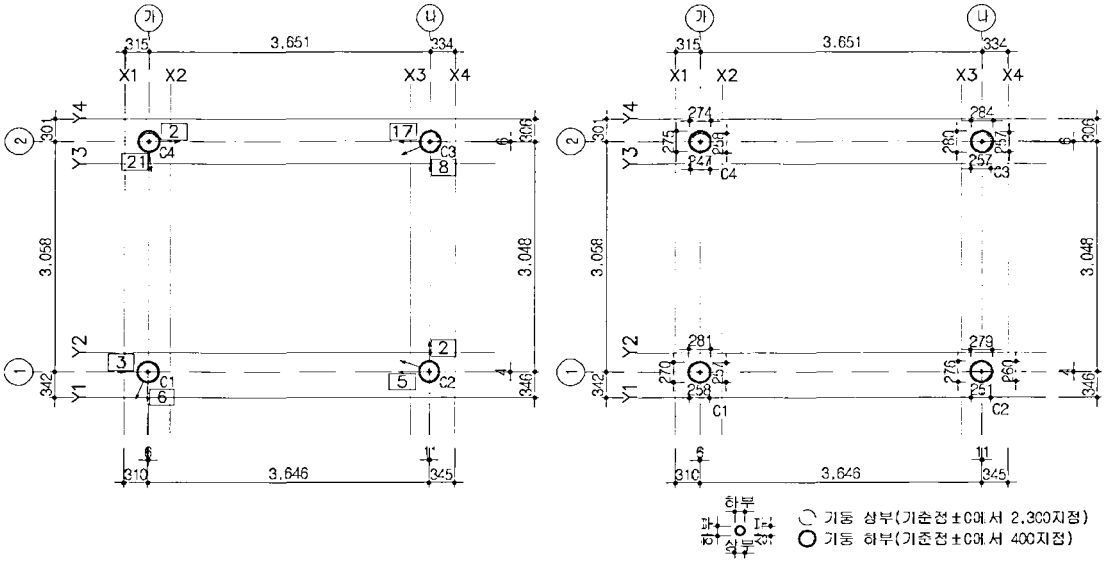
[사진 5-18] 기둥3'

[사진 5-19] 기둥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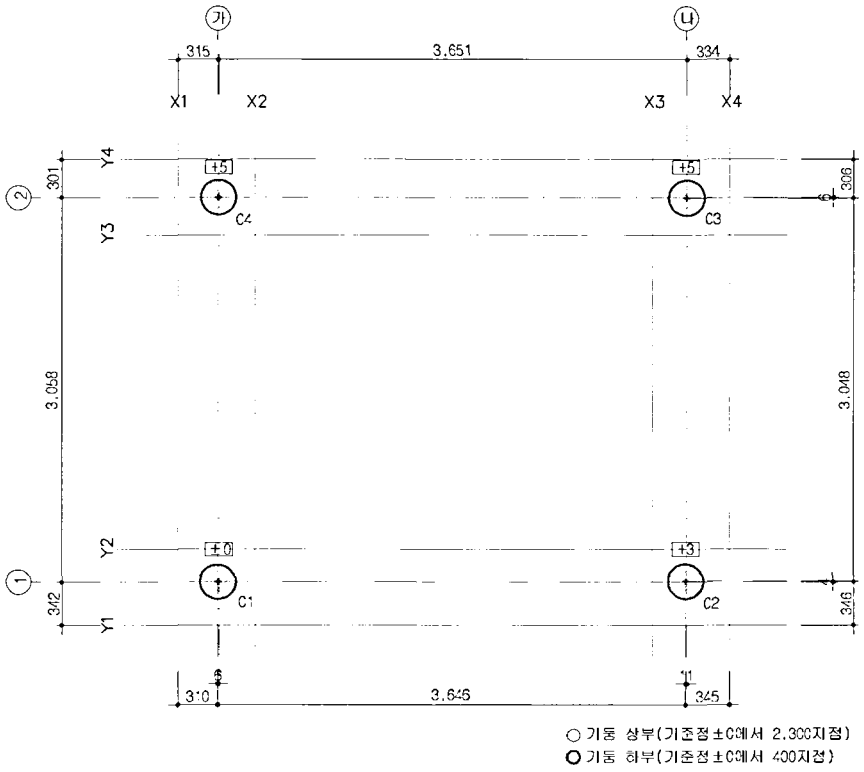


[도면 5-5] 극락보전 기둥 실측도 - 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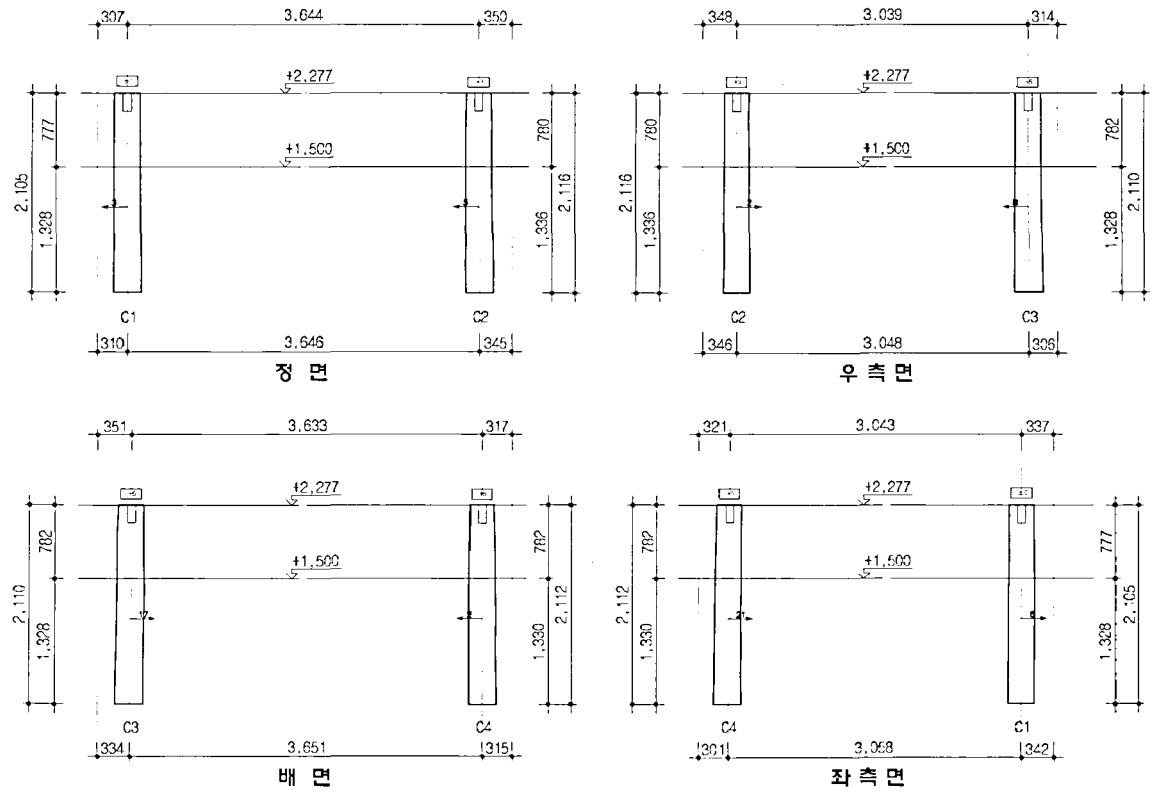
삼성각 기둥의 변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둥 상부면의 레벨과 기둥의 기울기를 실측하였다. 기둥 기울기의 실측은 기둥 하부는 기준점에서부터 +400㎜ 지점에서, 기둥 상부는 +2,300㎜ 지점에서의 변위를 재어 기록하였다. 실측 결과 기둥 2~4는 기울어진 방향이 건물 내부쪽을 향하고 있으며 변위값은 2~21㎜ 정도이다.



[도면 5-6] 기둥기울기 실측도 1



[도면 5-7] 기둥상부레벨 실측도1



[도면 5-8] 기둥상부레벨 실측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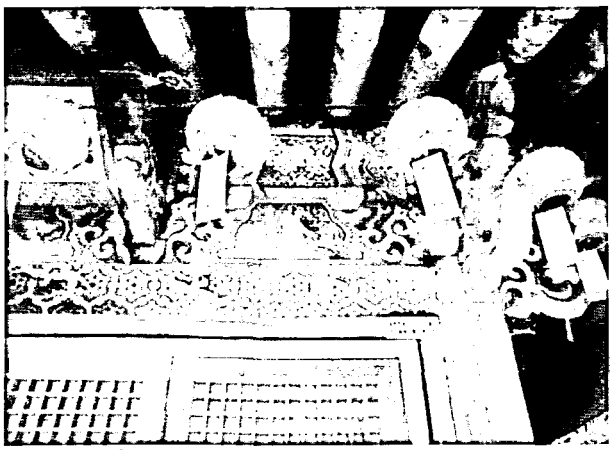
기둥 1의 경우, 기둥이 남서측을 향하고 있으나 그 값은 3㎜, 6㎜로 미미하다. 기둥 4의 남측 변위가 21㎜로 가장 크다. 기둥의 변위 방향으로 보았을 때, 시공시 약간의 안쏠림을 두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변위 값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기둥 상부면 레벨은 기둥 1을 기준으로 한 상대레벨로 정리하였으며, 실측결과 레벨의 편차가 5㎜보다 작아 기둥간의 높이차가 거의 없다. 기둥 1의 상부면 높이는 수직 기준점에서 +2,105㎜에 위치하고 있다.

4-4. 창방

삼성각에는 정면과 배면에 1본씩, 총 2본의 창방이 쓰이고 있다. 측면의 경우, 창방을 사용하지 않고 보 하부에 인방을 가로지르고 벽체를 설치하였다. 창방은 장방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부 모서리는 둥글게 굴려 치목하였다. 단면의 크기는 120×220㎜ 정도이며, 너비와 춤의 비는 1:1.83이다. 창방 뺄목은 기둥의 외단으로 앙서형의 연봉이 초각된 초익공의 역할을 하며, 기둥 중심에서 뺄목 끝까지의 길이는 600~610㎜ 정도이다. 창방 뺄목은 외단에서 주두 경사 굽을 감싸며 이익공과 결구되어 있어 창방의 춤보다 70~80㎜ 정도 춤이 큰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5-20] 정면 창방-중앙부



[사진 5-21] 정면 창방-우측

4-5. 대량

삼성각에는 정면과 배면 기둥을 가로지르는 대량이 2본 설치되어 있다. 실 내부 천장에는 우물 반자가 설치되어 있고 측면 외부의 박공 내밀기 부분은 순각판으로 마감되어 있으므로, 대량 춤의 전체 크기를 알 수 없어 외부로 노출된 부분만을 실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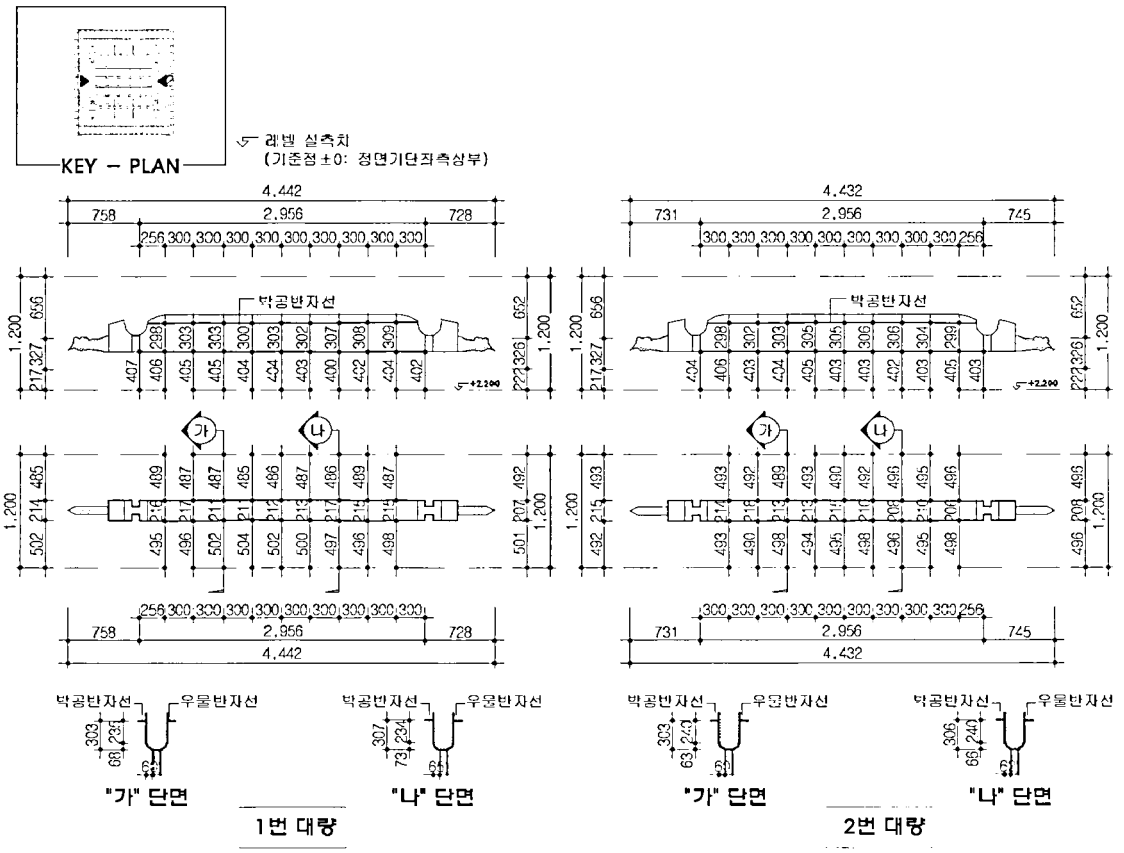
대량 하부에 결구된 전·후 장혀 내부면 사이의 거리로 실측한 대량의 길이는 2,956㎜이며, 총 길이는 4,440㎜ 정도이다. 대량의 하부 모서리는 둥글게 굴려 다듬었으며, 바닥면은 거의 수평으로 치목하였다. 대량의 너비는 210~215㎜ 정도이며, 반자 하부로 드러난 높이는 303㎜ 정도이다. 보 하부에 결구된 장혀 내부 면에서부터 보머리 끝까지의 길이는 730~760㎜ 내외이다. 보머리는 짧게 직절하고 상부는 빗깎아 오각형으로 마무리 한 후 봉황 머리를 붙여 장식하였다.

[사진 5-22] 우측면 대량

[사진 5-23] 좌측면 대량

[사진 5-24] 보머리 정면

[사진 5-25] 보머리 측면



[도면 5-9] 대량 실측도

[표 5-4] 대량 실측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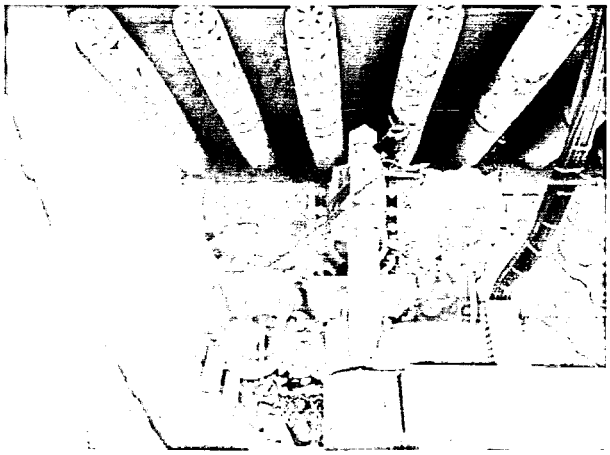
구분		실측지점					평균	내부 길이	전체 길이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2,700				
1	너비	215	215	217	213	212	214.11	2,956	4,442
		211	211	217	216				
	춤	309	308	307	302	303	(303.67)		
		300	303	303	298				
2	너비	206	210	208	210	215	211.89	2,956	4,432
		213	213	218	214				
	춤	299	304	306	306	305	(303.11)		
		305	303	302	298				

※ 대량1,2의 춤은 반자 하부의 높이를 실측한 결과로, 반자 상부 높이는 실측 불가

4-6. 도리와 장혀

삼성각은 삼량가의 가구 구조를 하고 있으며, 주심도리와 종도리가 사용되었다. 주심도리는 2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형의 단면 형태로 단면의 크기는 ϕ240㎜ 정도이다. 주심도리 하부에 결구된 장혀의 단면 크기는 82×116㎜이다. 종도리는 1본이 사용되고 있으며, 원형 단면으로 크기는 주심도리와 거의 같다. 판대공이 바로 종도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종도리 장혀는 쓰이지 않았다.

주심도리와 종도리 뺄목 길이는 측면 기둥의 중심에서부터 좌측 806㎜, 우측 765㎜ 정도이다. 장혀 뺄목의 경우 기둥 외단을 보와 같이 봉황 머리로 조각하여 마무리하였으며, 기둥 중심에서부터 끝단까지 뺄목의 길이는 690㎜ 정도이다.



[사진 5-26] 주심도리 뺄목

[사진 5-27] 주심도리 뺄목과 장혀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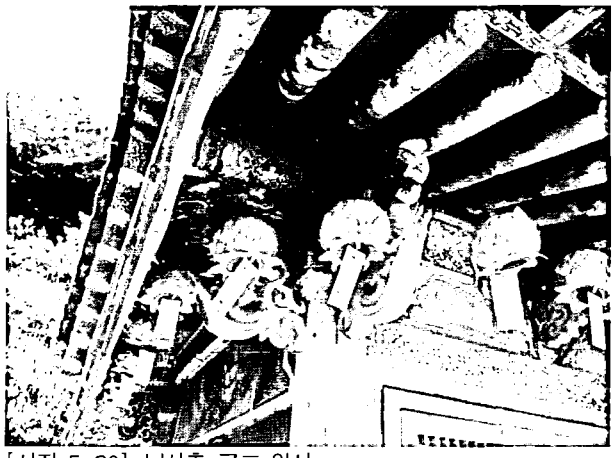
4-7. 공포

청계사 삼성각은 기둥 위에 포를 올리고 정면과 배면 주간에 화반을 2개씩 배치한 주심포계 익공 건물이다. 공포는 이익공(二翼工) 형태로 초익공과 이익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목은 없고 내부는 보아지 형태이다. 전형적인 이익공계의 짜임으로 재주두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포는 4조가 짜여져 있다. 공포 짜임을 살펴보면 기둥 상부에서 창방과 직교하여 초익공을 결구하였고, 초익공의 상부 레벨은 기둥 상면보다 높이 올라와 주두 굽을 감싸고 있다. 도리방향에서는 창방 뺄목이 기둥 바깥 면에서 초익공의 형태로 치목되어 첨차 역할을 하면서 익공 부재와 직각으로 짜여져 있다. 기둥 위에는 주두를 두고 그 위에 십자형 갈을 두어 이익공과 주심첨차를 직교하여 결구하였다. 이익공 위에는 재주두를 두고, 그 위에 보를 설치하였다. 보머리는 짧게 직절하여 마감하고 앞쪽으로 봉황의 머리를 조각한 금수(禽獸)형의 장식을 붙였다. 주심도리는 보머리 위에 직각으로 결구되어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외단의 초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앙서형으로 초각하였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외단부는 보머리보다 길게 돌출되어 있고, 상부에는 연화두형 초각을 두었다. 익공의 내단은 사절형으로 내부 면에 당초를 그려넣었다.

[사진 5-28] 남서측 공포 정면

[사진 5-29] 남서측 공포 측면


[사진 5-30] 남서측 공포 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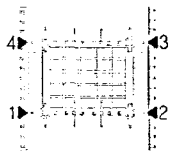
[사진 5-31] 남동측 귀공포 측면

가. 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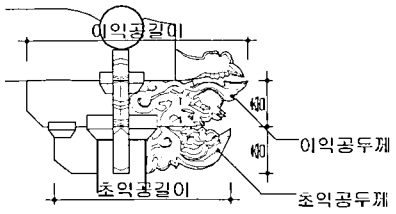
삼성각은 이익공의 짜임으로 초익공과 이익공의 익공재가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익공은 앙서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익공과 이익공에는 당초무늬와 연봉이 초각되어 있다. 익공 부재의 내단은 직절하였고 하부면과 만나는 부분은 사절하였으며, 보 하부를 받치고 있는 보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 사이에는 소로를 1개 결구하였다.

[표 5-5] 익공 조사표 (단위 : ㎜)

구 분		익 공				
		1	2	3	4	평균
초익공	길이	953	962	986	962	966
	춤	258	257	258	267	260
	두께	83	80	80	82	81
이익공	길이	1,273	1,266	1,277	1,286	1,276
	춤	255	254	254	251	254
	두께	80	82	83	80	81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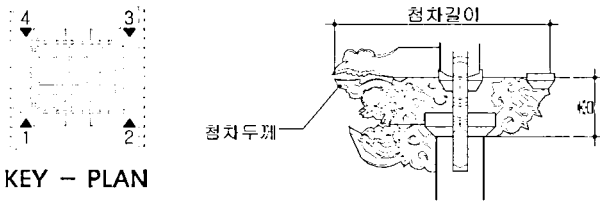
초익공의 전체 길이는 953~986㎜이며, 1번 부재의 길이가 953㎜로 다른 부재들보다 짧은 편이다. 평균 길이는 966㎜이다. 춤은 257~267㎜ 정도이고, 두께는 80~83㎜정도인데, 평균치는 260㎜와 81㎜이다. 이익공의 전체 길이는 1,266~1,386㎜이며, 4번 부재의 길이가 1,286㎜로 다른 부재들 보다 길다. 평균 길이는 1,276㎜ 정도이다. 춤은 351~355㎜ 정도이고, 두께는 80~83㎜정도이며, 평균치는 254㎜와 81㎜이다. 전체길이는 이익공이 초익공보다 310㎜ 정도 길다.

나. 첨차

삼성각의 공포는 익공에 직교하여 주심 상에 주심첨차를 설치하였다. 첨차는 창방과 장혀 사이에 위치하며, 기둥 위에서 이익공과 짜여 진다. 첨차의 내측은 장혀를 받치고, 외측은 이익공과 같이 앙서형의 뺄목으로 나와 있다. 주심첨차의 전체 길이는 1,160~1,202㎜로 평균은 1,176㎜ 정도이다. 내측 춤은 321~326㎜이고 외측은 초익공과 주두굽 위쪽에서 맞닿아 있어 이보다 70㎜ 정도 작은 값을 보인다. 두께는 80~83㎜이고 평균은 82㎜이다. 초익공과 짜여지는 첨차는 창방 뺄목이 대신하고 있으며, 주심에서 외단끝까지는 600㎜ 정도이다.

[표 5-6] 첨차 조사표 (단위 : ㎜)

구 분	첨차				
	1	2	3	4	평균
길이	1,160	1,202	1,182	1,160	1,176
춤	326	321	323	323	323
두께	83	83	80	82	82



다. 화반

정면과 배면의 기둥과 기둥 사이 창방 위에는 화반이 두 개씩 총 4개가 설치되어 있다. 화반은 한 장의 판재로 되어 있으며, 화반 하부와 상부에 소로를 놓아 운공 및 장여를 받치고 있다. 그 형태는 첨차와 같이 당초 문양을 초각하였으며 직각 방향으로 제공을 결구하여 포 화반으로 구성하였다. 규모가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포 화반을 설치하여 화려함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화반의 폭은 730㎜ 내외이고 높이는 325㎜ 정도이다. 두께는 포벽으로 인하여 실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주심도리 장여 폭으로 미루어 81㎜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5-32] 정면 포화반

[사진 5-33] 배면 포화반

화반과 직교하여서 두 개의 제공이 상하로 놓여 있으며, 그 형상은 각각 만개한 꽃봉우리를 새긴 앙서형 이익공 형태와 봉황의 머리를 새긴 보머리 형태이다. 하단 제공의 길이는 1,000㎜ 내외이고 춤은 265㎜ 정도이다. 두께는 80~82㎜로 수장폭과 같다. 상단 제공의 길이는 배면에 설치된 2개는 실측이 불가하며 전면의 경우 1,050㎜ 정도로 하단보다 약간 길다. 춤은 165㎜ 정도로 주심장혀와 직각으로 짜여진다. 두께는 80~83㎜이고 평균치는 82㎜로 하단 제공의 폭과 같다.

라. 장혀뺄목, 창방뺄목

측면에서 박공 내밀기 부분으로는 장혀와 창방 뺄목을 두어 지붕상부 구조를 받치게 하였다. 장혀뺄목의 형태는 보머리 형태와 같이 봉황 머리를 새겼으며, 창방뺄목은 초익공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장혀 뺄목의 길이는 주심에서 670㎜ 정도이고 춤은 약 165㎜이다. 창방 뺄목의 길이는 주심에서 600㎜ 정도로 장혀뺄목보다 약간 짧다. 춤은 254~263㎜정도로 창방 춤보다 70㎜ 정도 크다. 뺄목 부분의 두께는 82㎜ 내외로 수장폭 정도이다.

[사진 5-34] 장혀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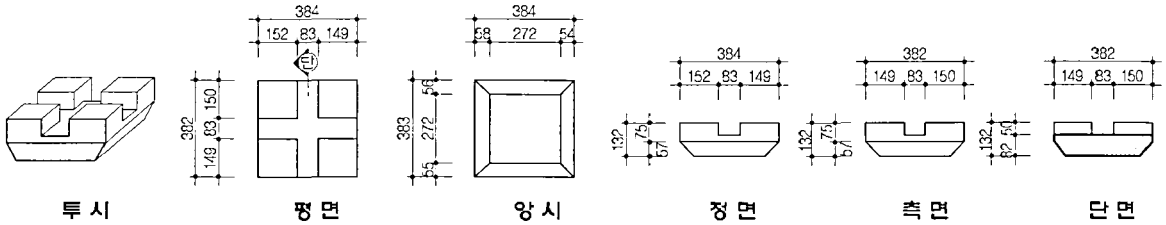
[사진 5-35] 창방 뺄목

마. 주두

주두는 사용된 위치에 따라 주두, 재주두로 구분할 수 있다. 굽의 형태는 모두 사절된 빗굽주두로서 굽받침은 없다.

①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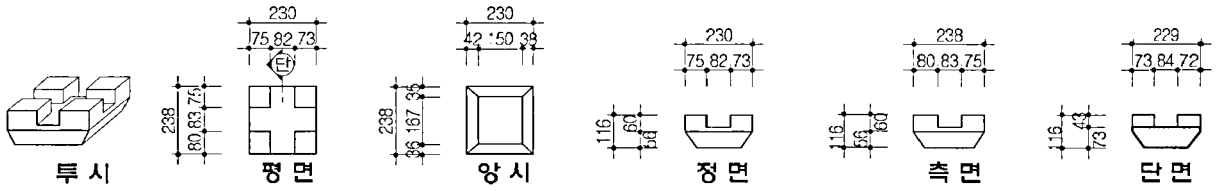
주두의 형태는 상부에 사갈로 홈이 파여 있고, 4개가 사용되었다. 기둥 1의 주두 실측값을 보면 상부크기는 가로 384㎜, 세로 382㎜이며, 하부크기는 가로 272㎜, 세로 272㎜로서 정방형의 형태이다. 전체 높이는 132㎜이며, 굽 높이는 57㎜이고 운두는 75㎜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1.32이다. 갈의 너비는 83㎜ 내외이고 깊이는 50㎜로 나타났다.



[도면 5-10] 주두 상세도

② 재주두

재주두의 형태는 주두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사갈로 홈이 파여 있으며, 이익공과 주심첨차의 상부에 4개가 사용되었다. 기둥 1의 상부 주두 실측값을 보면 상부크기는 가로 230㎜, 세로 238㎜이며, 하부크기는 가로 150㎜, 세로 167㎜이다. 전체 높이는 116㎜이며, 굽 높이는 56㎜이고 운두는 60㎜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1.07이다. 갈의 너비는 84㎜ 내외이고, 깊이는 43㎜로 나타났다.



[도면 5-11] 재주두 상세도

[사진 5-36]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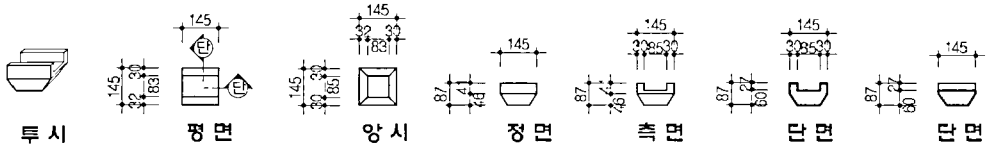
[사진 5-37] 주두와 재주두

바. 소로

소로는 이갈소로와 사갈소로 등이 사용되었다. 형태는 주두와 마찬가지로 사각형이며 굽은 사절된 빗굽소로이다.

① 이갈소로

이갈소로는 주심첨차와 화반의 상부 면에 사용되었다. 소로의 형태는 운두에 행으로 홈이 파여 있고 이곳에 장혀를 결구하여 받고 있다. 실측된 소로의 치수를 살펴보면, 상부 크기는 가로·세로 145㎜이며, 하부크기는 가로 83㎜, 세로 85㎜이다. 전체 높이는 87㎜이며, 굽 높이는 46㎜이고 운두는 41㎜로 굽과 운두의 비는 1 : 0.89이다. 갈의 너비는 85㎜이고, 깊이는 27㎜로 나타났다.



[도면 5-12] 행소로 상세도

[사진 5-38] 행소로

[사진 5-39] 사갈소로

5. 처마

삼성각은 박공지붕으로 정면과 배면 지붕의 양 끝 부분은 박공으로 마감하였다. 박공 하부로는 가구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풍판을 달았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설치한 겹처마 형식이다. 처마내밀기의 길이는 정면이 배면보다 약간 길다. 처마에는 안허리곡과 앙곡을 주었으나, 건물 규모가 크지 않아 처마곡이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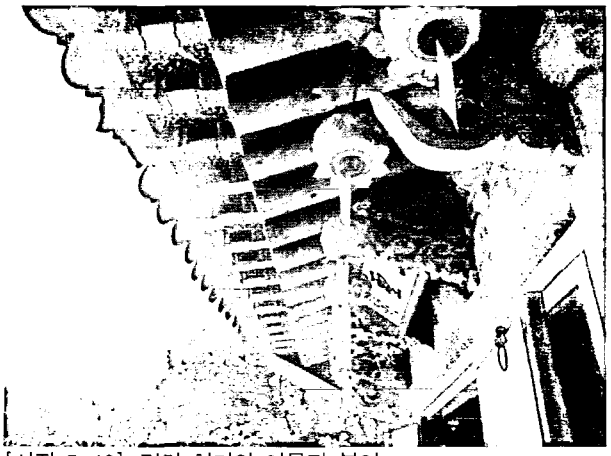
5-1. 연목과 부연

삼성각의 연목과 연목은 정면과 배면에 각각 18개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과 배면의 연목은 종도리 위에서 서로 맞대어 걸었으며, 측면 끝부분 연목은 박공에 붙여 설치하여 풍판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연목의 물매는 10:3.75 정도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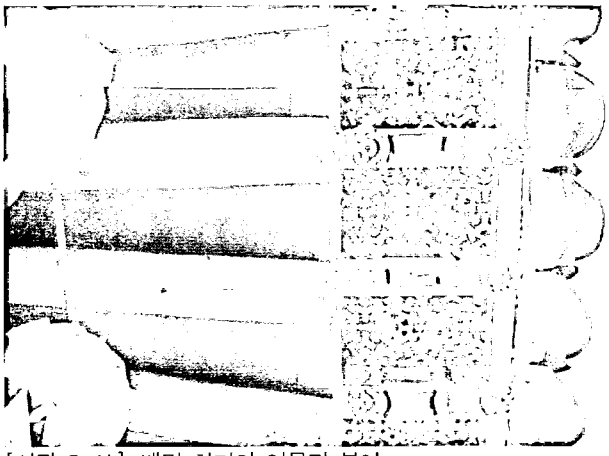
연목의 내밀기는 주심도리장여 외부면을 기준으로 연목마구리 상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값이며, 부연 내밀기는 연목마구리 상단에서 부연마구리 상단까지의 길이이다. 연목내밀기는 정면이 1,020~1,098㎜ 사이인데 비해 배면은 932~968㎜ 정도로, 정면의 길이가 100㎜ 정도 길다. 부연내밀기 길이는 정면과 배면 모두 465㎜ 내외의 값을 보인다. 연목의 경우 처마 중앙 부분과 양끝의 내밀기 길이가 30㎜ 정도 차이가 나며, 부연은 처마 전반에서 거의 비슷한 길이를 보인다.

연목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형으로, 평균 직경은 124㎜ 내외가 사용되었는데, 연목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다. 연목은 끝 마구리 방향으로 하단 부분을 조금 가늘게 후려 깎았는데, 마구리의 단면 크기는 주심도리 상부 직경보다 평균 약 5~6㎜ 정도 작다. 연목 하부의 끝걷기 길이는 300~400㎜ 사이 값을 보인다.

부연 단면 형태는 각부연이고, 마구리는 상단보다 하단이 좁아지는 역사다리꼴 형태이다. 연목과 같이 마구리 방향으로 하단부분을 조금 가늘게 후려 깎아 끝걷기를 하였으며, 마구리는 사절되어 있다. 부연의 너비는 상부가 84㎜ 내외이며, 하부는 약 73㎜로 약 10㎜ 정도 차이를 보인다. 부연의 상부춤은 평균 116㎜ 정도이며, 마구리 춤은 평균 81~83㎜ 정도이다. 부연의 끝걷기 길이는 130~185㎜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부재마다 편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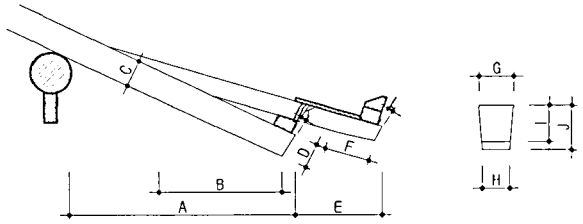
[사진 5-40] 정면 처마의 연목과 부연



[사진 5-41] 배면 처마의 연목과 부연

[표 5-7] 연목, 부연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A 연목 내밀기	B 연목 끝걷기	C 연목 직경	D 연목 마구리	E 부연 내밀기	F 부연 끝걷기	G 부연 상너비	H 부연 하너비	I 부연 마구리춤	J 부연 상부춤	K 연목상부끝 -평고대거리	L 부연상부끝 -평고대거리
	정 면											
1	1,098	362	125	122	465	185	84	75	82	118	15	18
2	1,040	422	127	120	465	175	83	72	82	115	17	17
3	1,034	353	123	118	461	180	84	75	83	118	15	12
4	1,026	335	128	122	464	172	88	77	83	115	17	17
5	1,028	345	125	122	464	140	83	75	80	114	20	21
6	1,023	318	123	119	461	121	87	78	87	119	14	14
7	1,027	351	124	119	460	159	83	77	84	121	15	15
8	1,027	335	120	118	465	153	80	72	83	117	17	18
9	1,032	357	123	121	460	157	84	76	82	115	17	16
10	1,025	300	122	119	464	137	81	72	85	116	14	13
11	1,032	355	122	122	460	150	84	72	83	113	14	13
12	1,020	310	121	118	460	165	85	77	85	115	16	20
13	1,020	345	124	118	460	145	83	72	81	112	15	15
14	1,025	325	125	120	462	157	84	74	81	115	15	17
15	1,026	322	122	120	463	128	82	71	82	118	17	20
16	1,030	332	121	117	464	148	83	77	83	116	17	18
17	1,031	332	121	117	461	160	82	73	83	117	18	20
18	1,043	322	120	119	463	137	84	71	85	116	17	16
평균	1,032.61	340.06	123.11	119.50	462.33	153.83	83.56	74.22	83.00	116.11	16.11	16.67
구분	배면											
1	968	392	120	117	468	141	88	77	82	119	18	15
2	964	332	120	115	460	133	82	68	77	120	15	19
3	950	344	120	112	474	203	82	74	80	118	15	13
4	957	320	119	115	463	204	86	74	83	118	13	15
5	944	300	123	122	470	190	80	71	79	118	13	18
6	932	307	125	119	465	152	83	73	84	107	13	14
7	938	342	125	122	460	158	84	74	79	115	13	15
8	943	332	123	115	465	173	88	77	82	112	17	15
9	932	307	122	118	465	163	80	72	78	117	17	16
10	938	323	127	122	462	163	82	69	83	117	16	16
11	947	337	123	119	461	177	85	77	82	117	15	17
12	943	320	132	124	462	177	81	71	85	117	12	15
13	950	340	130	118	462	148	85	77	83	115	17	16
14	955	315	125	120	463	159	80	67	83	110	18	16
15	954	353	128	118	456	150	82	74	79	114	14	15
16	955	307	122	112	465	188	84	73	84	114	15	17
17	953	325	128	120	462	150	85	77	83	114	15	17
18	960	302	130	120	460	154	83	72	78	116	15	17
평균	949.06	327.67	124.56	118.22	463.50	165.72	83.33	73.17	81.33	115.44	15.06	15.89



5-2. 처마 내밀기

처마 내밀기는 주심도리장여 외부면에서 연목과 부연 상단부까지의 거리를 실측한 값이다. 삼성각은 맞배 지붕으로 처마에는 그 값이 크지는 않으나 연목에 안허리곡이 있어 내밀기 길이의 변화를 보인다.

정면의 연목 내밀기 최소값은 12, 13번에서 1,020㎜이고, 전체 처마 내밀기 최소값은 역시 12, 13에서 1,480㎜이다. 부연내밀기 길이는 위치에 상관없이 460~465㎜ 정도로 일정하다. 정면의 연목 내밀기 최대값은 1번에서 1,098㎜이고,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대값은 1번에서 1,563㎜이나 반대쪽 처마끝과 비교할 때 50㎜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면의 연목 내밀기 최소값은 6번에서 932㎜이고,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소값은 6, 9번에서 1,397㎜이다. 배면의 연목 내밀기 최대값은 1번에서 968㎜이고, 처마 전체의 내밀기 최대값은 1에서 1,436㎜이다.

[표 5-8] 처마내밀기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연목	부연	전체	연목	부연	전체
1	1,098	465	1,563	968	468	1,436
2	1,040	465	1,505	964	460	1,424
3	1,034	461	1,495	950	474	1,424
4	1,026	464	1,490	957	463	1,420
5	1,028	464	1,492	944	470	1,414
6	1,023	461	1,484	932	465	1,397
7	1,027	460	1,487	938	460	1,398
8	1,027	465	1,492	943	465	1,408
9	1,032	460	1,492	932	465	1,397
10	1,025	464	1,489	938	462	1,400
11	1,032	460	1,492	947	461	1,408
12	1,020	460	1,480	943	462	1,405
13	1,020	460	1,480	950	462	1,412
14	1,025	462	1,487	955	463	1,418
15	1,026	463	1,489	954	456	1,410
16	1,030	464	1,494	955	465	1,420
17	1,031	461	1,492	953	462	1,415
18	1,043	463	1,506	960	460	1,420

*부연,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연목내밀기는 주심장혀 바깥면에서 연목상부끝까지, 부연내밀기는 연목상부 끝에서 부연상부 끝까지의 거리를 나타냄

전체적으로 처마내밀기의 값은 처마의 가운데 부분이 짧고 양 끝단으로 가면서 차츰 길어지며, 정면이 배면에 비해 약간 큰 값을 보인다. 중앙부와 양 끝단의 내밀기 길이의 차이는 정면 1번을 제외하면 25~35㎜ 정도의 값을 보이며, 정면과 배면 길이의 차이는 약 100㎜ 정도이다. 위치에 따른 부연 길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처마내밀기의 차이는 연목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정면 처마의 경우 처마내밀기의 최소값이 처마 우측부분에 치우쳐 있고 배면의 경우 좌측 부분에서 나타나 처마선에 다소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주심도리와 중도리 간격은 1,520㎜ 내외로 전체 처마내밀기 거리와 비슷하거나 내단의 길이가 길어 구조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규모에 비해 연목 내밀기를 길게 하였다.

5-3. 안허리곡과 앙곡

삼성각은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므로 처마곡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으나, 양 끝이 처져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안허리곡과 앙곡을 두고 있다.

안허리곡은 수평규준틀인 Y1과 Y4에서 처마끝 방향으로 2,000㎜를 수평 이동한 선에서 연목과 부연의 마구리 상단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측하였다. 처마 양끝의 부연과 기준선 사이의 거리 실측결과는 정면 서측인 1번 부연은 723㎜이고, 동측인 18번 부연은 727㎜이다. 배면 동측인 1번 부연은 769㎜, 서측인 18번 부연은 790㎜이다. 동일한 규준틀로부터의 처마 양끝의 거리 차이는 정면은 4㎜, 배면은 2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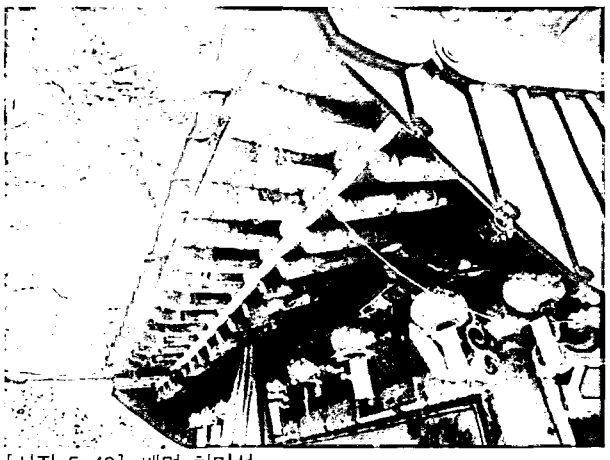
각 면의 부연 안허리곡은 가장 많이 내밀어진 부연을 기준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정면은 부연 1번을 기준으로 하여 12번 연목에서의 거리차가 33㎜으로 가장 크고, 배면은 부연 1번을 기준으로 하여 6번 연목에서 56㎜만큼 차이가 난다. 부연 안허리곡은 대체로 처마의 양 끝부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나 최대값이 처마의 중앙부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처마선이 부분적으로 흐트러졌음을 알 수 있다.

처마 양끝의 연목의 안허리곡 실측결과는 정면의 경우, 1번 연목 1,212㎜, 18번 연목 1,217㎜로 거리차가 거의 없다. 배면의 경우 1번 연목은 1,269㎜, 18번 연목은 1,277㎜로 양 끝단의 편차는 8㎜정도이다.

연목 안허리곡은 정면과 배면 모두 1번을 기준으로 하여, 정면은 12번에서 33㎜로 가장 큰 거리차가 나며, 배면은 6번 연목에서 46㎜만큼 차이가 난다.

종합해 보면 연목을 설치하면서 의도적으로 안허리곡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처마선이 변형되었으나 중앙부에서 양끝으로 갈수록 처마 길이가 길어지는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정면 안허리곡의 최대값은 연목과 부연 모두 33㎜ 내외이고 배면의 경우는 46~56㎜ 정도이나, 인위적으로 설정한 수평기준틀과 건물 사이의 오차와 변위 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진 5-42] 정면 처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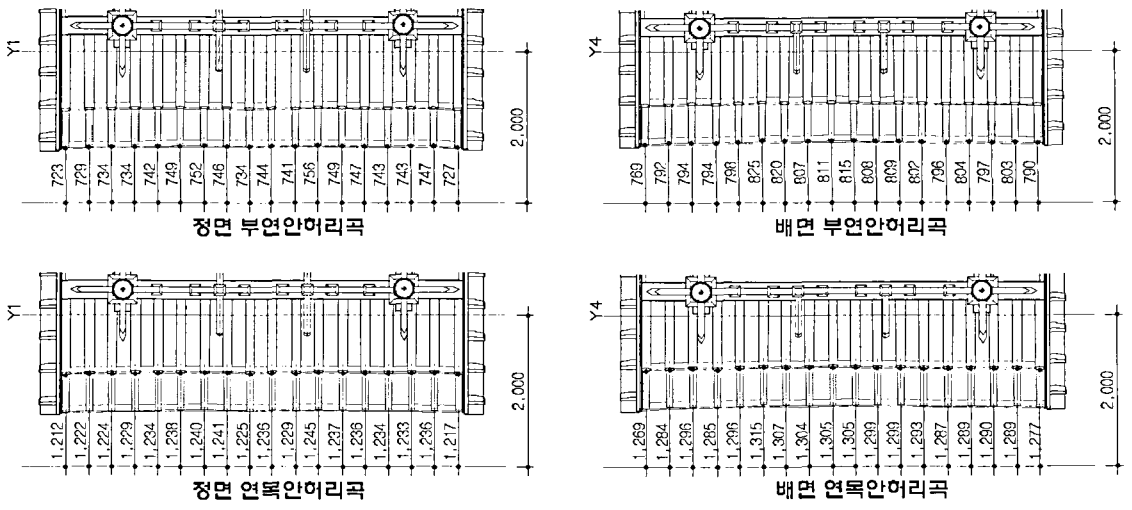


[사진 5-43] 배면 처마선

[표 5-9] 안허리곡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부연	비교	연목	비교	부연	비교	연목	비교
1	723	0	1,212	0	769	0	1,269	0
2	729	6	1,222	10	792	23	1,284	15
3	734	11	1,224	12	794	25	1,296	27
4	734	11	1,229	17	794	25	1,285	16
5	742	19	1,234	22	798	29	1,296	27
6	749	26	1,238	26	825	56	1,315	46
7	752	29	1,240	28	820	51	1,307	38
8	746	23	1,241	29	807	38	1,304	35
9	734	11	1,225	13	811	42	1,305	36
10	744	21	1,236	24	815	46	1,305	36
11	741	18	1,229	17	808	39	1,298	29
12	756	33	1,245	33	809	40	1,299	30
13	749	26	1,237	25	802	33	1,293	24
14	747	24	1,236	24	795	26	1,287	18
15	743	20	1,234	22	804	35	1,289	20
16	743	20	1,233	21	797	28	1,290	21
17	747	24	1,236	24	803	34	1,289	20
18	727	4	1,217	5	790	21	1,277	8

※ 부연,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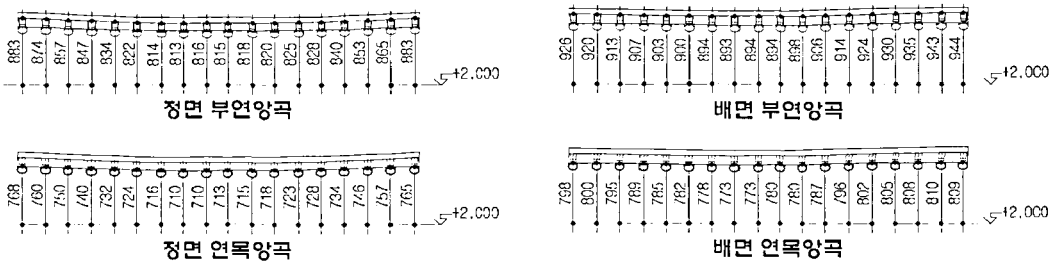
[도면 5-13] 안허리곡 실측도

앙곡은 수직 기준점인 남서측 기단 상부 ±0점으로부터 2,000㎜ 지점을 기준으로 연목과 부연 마구리 하단 높이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처마 양 끝의 연목의 높이를 ±0인 수직기준점에서의 레벨로 계산한 결과, 정면에서 서측인 1번 연목은 +2,768㎜이고, 동측 끝인 18번은 +2,765㎜이다. 배면은 동측 1번 연목의 레벨이 +2,798㎜, 서측 18번 연목의 레벨은 +2,809㎜이다. 각 면의 가장 낮은 위치의 연목과 가장 높이가 높은 양 끝부분의 거리차이는 정면의 경우 연목 8, 9번에서 58㎜, 배면의 경우 연목 8, 9번에서 36㎜이다.

처마 양끝의 부연을 ±0인 수직기준점에서의 레벨로 계산하면, 정면 1번과 18번은 +2,883㎜이고, 배면은 동측 1번이 +2,926㎜, 서측이 26번이 +2,944㎜의 레벨을 보인다. 각 면의 가장 낮은 위치의 부연과 처마 끝 부연의 높이차를 비교하면 정면은 부연 8번에서 70㎜, 배면은 부연 8번에서 51㎜만큼 낮은 위치에 있다. 부연 앙곡의 경우 정면과 배면 모두 처마의 가운데 부분에서 최저값을 나타내며, 연목에 비해 그 값이 큰 편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삼성각 처마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끝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앙곡을 유지하고 있다. 앙곡의 크기는 정면이 배면보다 크며, 부연이 연목보다 크다. 연목과 부연의 최저점은 정면보다 배면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정면의 처마 길이가 약간 더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면 5-14] 앙곡 실측도

[표 5-10] 앙곡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부연	비교	연목	비교	부연	비교	연목	비교
1	883	0	768	0	926	18	798	11
2	874	9	760	8	920	24	800	9
3	857	26	750	18	913	31	795	14
4	847	36	740	28	907	37	789	20
5	834	49	732	36	903	41	785	24
6	822	61	724	44	900	44	782	27
7	814	69	716	52	894	50	778	31
8	813	70	710	58	893	51	773	36
9	816	67	710	58	894	50	773	36
10	815	68	713	55	894	50	780	29
11	818	65	715	53	898	46	780	29
12	820	63	718	50	906	38	787	22
13	825	58	723	45	914	30	796	13
14	828	55	728	40	924	20	802	7
15	840	43	734	34	930	14	805	4
16	853	30	746	22	935	9	808	1
17	865	18	757	11	943	1	810	-1
18	883	0	765	3	944	0	809	0
※ 부연,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표 5-11] 앙곡 레벨 비교 (단위 : ㎜)

구분			정면		배면	
			좌(서)	우(동)	좌(동)	우(서)
처마 양끝	연목	부재번호	1	18	1	18
		하부레벨	+2,768	+2,765	+2,798	+2,809
	부연	부재번호	1	18	1	18
		하부레벨	+2,883	+2,883	+2,926	+2,944
가장낮은 위치부재	연목	부재번호	8, 9		8, 9	
		하부레벨	+2,710		+2,773	
	부연	부재번호	8		8	
		하부레벨	+2,813		+2,893	
※ 부연, 연목 번호는 각 면의 좌측에서 시작						

5-6. 박공

삼성각의 박공은 한 면에 2개 널을 앞뒤 연목에 각각 대어 붙여 종도리 부분에서 맞닿도록 설치되어 있고, 지네철 등의 철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박공널에는 각각 7개씩의 목기연을 설치하였으며, 두 박공널이 만나는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에도 1본이 더 설치되어 좌·우측면에 각각 15개씩의 목기연이 짜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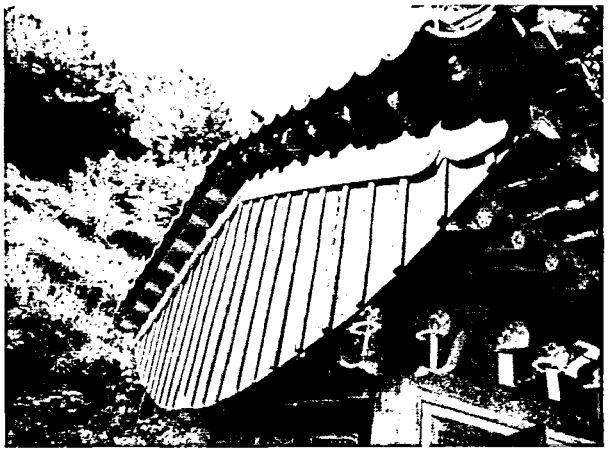
박공의 높이와 도리와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종도리와 주심도리가 모두 박공의 하부에 위치하여 풍판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풍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도리 마구리 부분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공면의 결구부 부분은 집우사를 받고 있는 적심목 등에 지지하여 결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공은 대체로 380㎜ 정도 너비의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각 부분마다 목재의 조건에 맞추어 약간씩 그 형태를 달리하였다. 우측면 남측 박공의 경우 폭이 380㎜ 정도를 유지하다가 끝부분에서 310㎜ 정도로 좁아지고 있으며, 북측 역시 기본 폭은 380㎜ 내외이고 게눈각 부분에서 끝을 한번 접어 치목하였다. 좌측면 박공 역시 우측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처마끝 쪽 박공 하단 부분에는 게눈각을 초각하여 마감하였다. 박공널의 두께는 45㎜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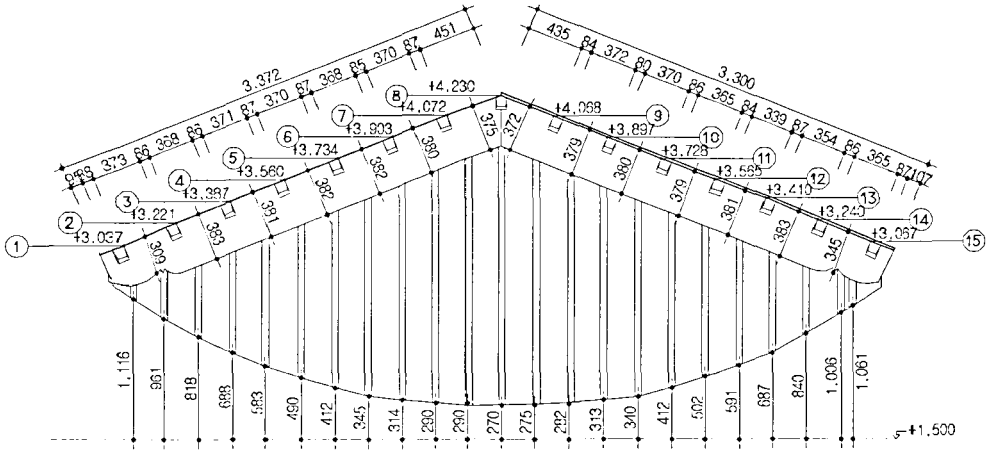
[사진 5-44] 우측면 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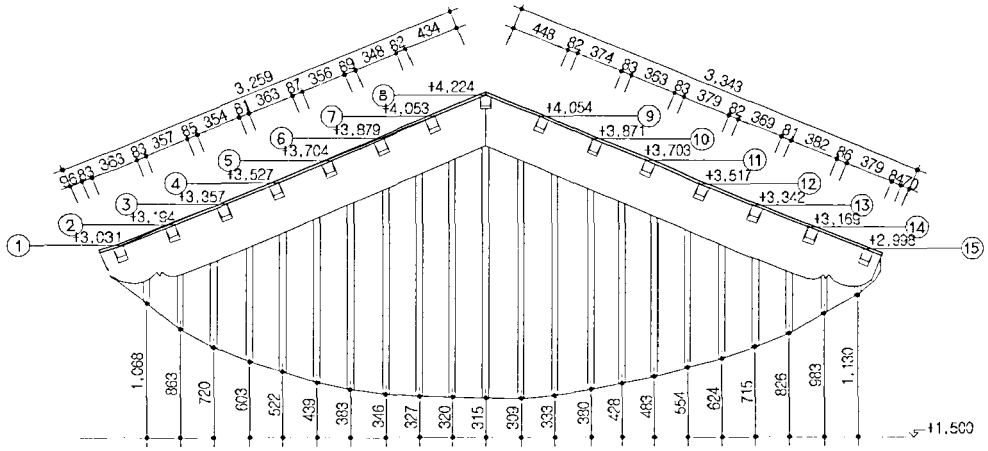
[사진 5-45] 좌측면 합각

[사진 5-46] 게눈각



[사진 5-47] 풍판





[도면 5-15] 삼성각 박공 상세도

5-6. 풍판

삼성각의 풍판은 박공면 안쪽에 풍판널 상부를 붙이고, 세로 방향으로 널을 맞대어 설치하였다. 풍판널은 너비 260㎜ 내외, 두께 20㎜ 정도로 중앙부에서 양 처마 끝으로 대칭되도록 널을 붙였다. 널의 맞댄 부분에는 졸대를 널과 같이 세로로 붙여 널의 이음부를 보강해주는 동시에 의장적인 역할을 한다.

풍판의 하부 마감선은 양끝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전체적으로 둥글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기준레벨에서 +1,500㎜ 위치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풍판의 하부 레벨을 실측한 결과, 건물 좌측인 서측면의 경우 중앙부는 기준선에서 315㎜의 올라간 위치에 있으며, 양끝은 각각 1,130㎜, 1,068㎜의 값을 보인다. 중앙부와 양끝단의 높이차는 815㎜, 753㎜으로 그 차이가 큰 편이다. 우측인 동측면은 중앙부의 값이 270㎜ 정도이고, 양끝은 1,116㎜, 1,061㎜로 그 차가 각각 846㎜, 791㎜이다. 풍판은 정면쪽 끝단의 레벨이 배면보다 약간 높이 위치하는데, 이는 연목의 레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풍판 안쪽에는 풍판 띠장이 설치되어 있다. 풍판 띠장은 풍판 하부와 중앙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부 띠장은 풍판의 하단 모양에 맞추어 꺾어 설치하였고 중앙부 띠장은 순각판을 설치할 반자틀 역할을 한다. 풍판 널 사이는 졸대를 대어 마감하였다.

5-7. 목기연

삼성각에 설치된 목기연은 좌측면 15개, 우측면 15개로 양측 면의 개수가 같다. 목기연의 형태는 부연과 같이 각재를 사용하였으며, 마구리는 상단보다 하단이 좁아지는 역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다. 마구리 방향으로 하단을 약간 후려 깎았으며, 마구리는 사절되어 있다. 다만 박공과의 반턱맞춤 결구를 위해 박공과 맞춤하는 하부 부분은 따내어 엎을장 형태로 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기연내밀기는 거의 일정하여 220㎜ 내외이다. 목기연 상부에는 목기연 개판과 연암을 설치하고 내림마루를 형성하였다. 목기연 단면의 평균 크기는 85×117㎜ 내외이다. 마구리의 하부 너비는 75㎜ 정도로 상부에 비해 10㎜ 정도 폭을 좁게 하였다. 마구리의 높이는 약 81㎜로, 35㎜ 정도 하부를 후려 깎아 끝걷이를 두었다. 끝걷기 길이는 130㎜ 내외이다. 목기연은 전반적으로 부연과 비슷한 단면 크기의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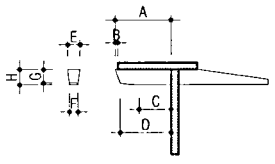
[사진 5-48] 목기연

[사진 5-49] 박공과 목기연 결구부

[표 5-12] 목기연 실측조사표 (단위 : ㎜)

구분	A	B	C	D	E	F	G	H
	우측면							
1	221	11	75	214	88	76	84	119
2	217	12	86	210	86	74	82	118
3	217	17	57	204	86	73	82	116
4	217	13	54	204	87	76	81	117
5	217	11	77	209	87	76	80	115
6	217	8	80	204	85	75	84	119
7	218	6	50	207	87	75	83	115
8	215	10	65	204	85	76	70	97
9	217	12	88	203	84	77	80	116
10	213	6	75	204	80	70	78	117
11	216	10	62	207	86	73	77	115
12	220	11	84	209	85	78	80	117
13	223	13	75	213	87	75	82	118
14	219	11	60	208	86	73	79	118
15	220	10	70	208	87	74	80	116
평균	217.80	10.73	70.53	207.20	85.73	74.73	80.86	116.86
	좌측면							
1	223	10	71	209	83	73	76	118
2	214	13	75	202	83	73	80	119
3	215	20	37	206	85	71	81	120
4	220	20	65	209	81	73	77	115
5	215	16	77	200	87	72	84	115
6	218	14	80	211	89	73	85	116
7	217	10	87	206	83	74	82	118
8	220	15	110	209	83	74	70	90
9	213	5	105	204	82	73	81	116
10	218	13	92	205	83	72	88	116
11	215	10	70	205	83	75	84	120
12	214	14	72	203	82	72	81	116
13	219	17	45	207	81	73	78	116
14	218	15	68	207	86	73	82	117
15	218	9	40	207	84	76	82	119
평균	217.13	13.40	72.93	206.00	83.67	73.13	81.05	1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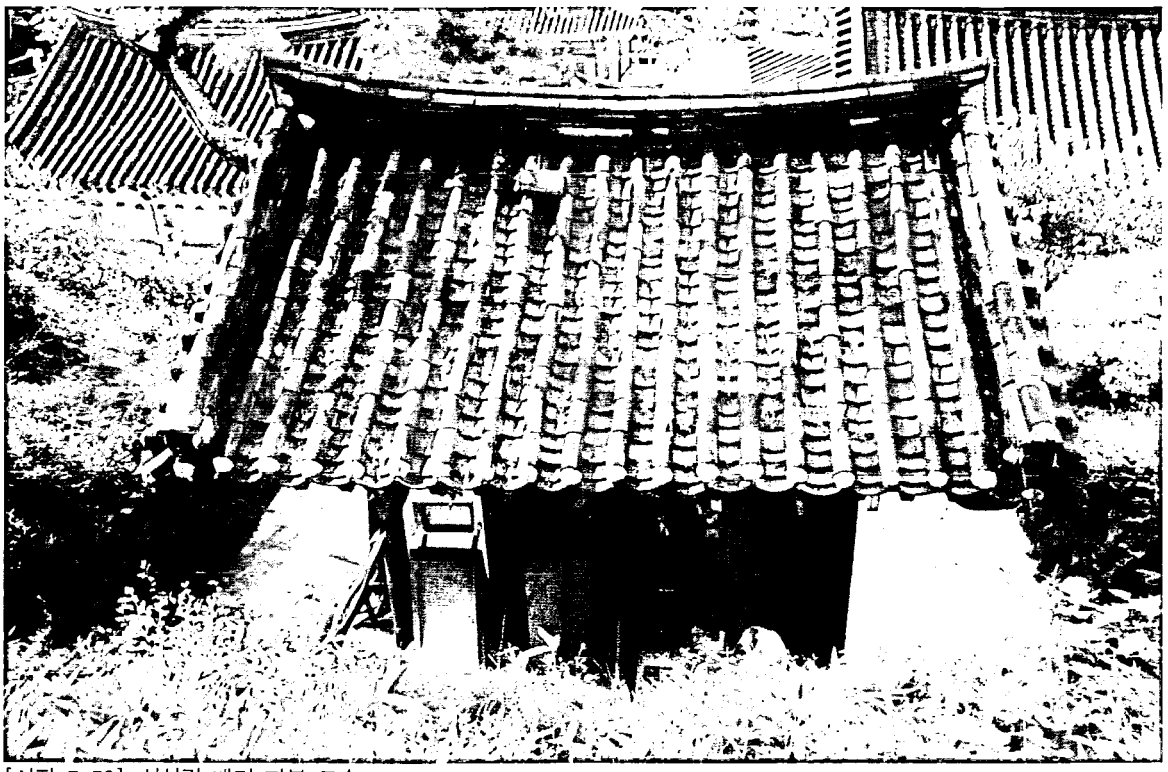
※ G,H(목기연 춤)의 평균값 계산시 중앙부 목기연값은 제외



6. 지붕

삼성각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용마루와 4개의 내림마루로 지붕마루를 이루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와 5단의 적새로 구성되어 있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가 3단이다. 용마루는 가운데가 낮고, 양끝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마루의 끝은 수키와 2개를 옆으로 쌓아 머거불로 받치고, 그 위에 망와를 설치하였으며, 내림마루 끝에도 망와를 세웠다. 정면의 바닥기와 끝선은 숫막새와 암막새로 마감하였고, 배면은 막새를 사용하지 않고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기와는 중와를 사용하였다.

삼성각의 지붕의 경우, 내림마루 끝부분에 강회몰탈 마감이 떨어진 곳이 있으며, 배면의 경우 와초 및 낙엽이 쌓여 있어 건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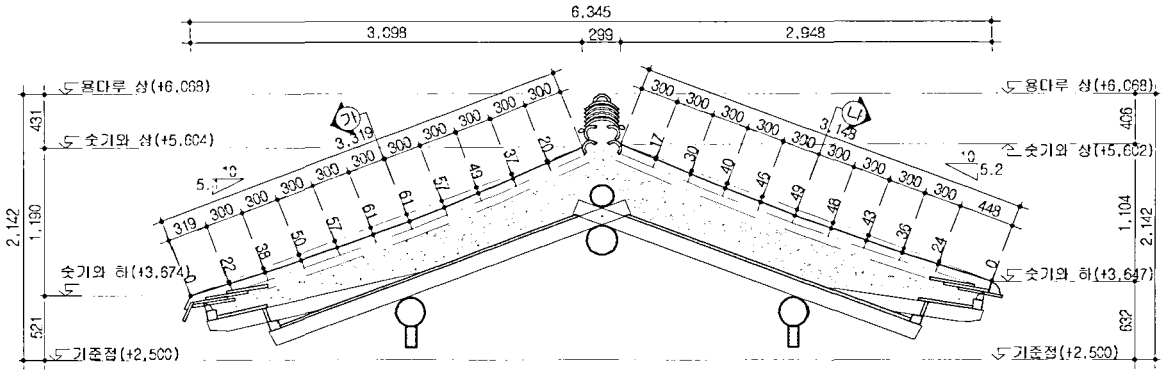


[사진 5-50] 삼성각 배면 지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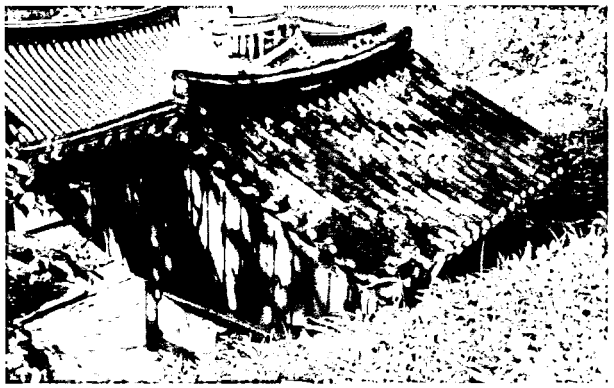
6-1. 지붕곡

바닥기와는 단면상 중간 부분이 약간 욱어지는 곡선을 이루고 있다. 지붕의 길이는 정면 3,319㎜, 배면 3,148㎜로 정면과 배면 길이가 거의 같다. 수직 기준점에서의 기와 레벨은 정면 수키와 하부 끝단의 경우 +3,021㎜이고, 상부 끝은 +4,211㎜이다. 배면은 하부가 +3,132㎜이고, 상부는 +4,236㎜이다. 정면의 지붕물매는 10:3.8이고, 배면은 10:3.7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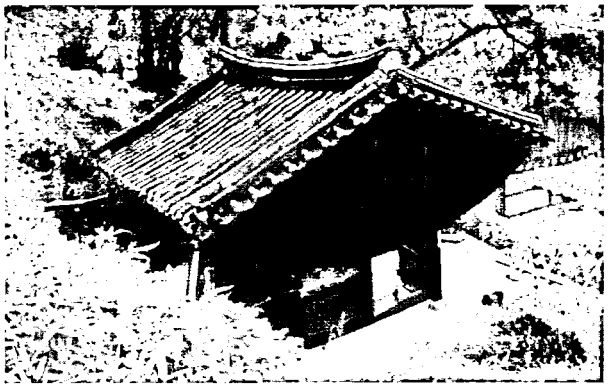
지붕곡은 수키와 골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한 직선에서부터 300㎜ 간격으로 수키와 등까지의 거리를 실측한 것이다. 정면은 상부에서 1,500㎜ 내려온 지점의 곡이 가장 세며, 배면 또한 1,500㎜ 지점이 가장 세다. 정면은 61㎜, 배면은 49㎜ 정도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두 면 모두 바닥기와 양끝을 연결한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휘어 내려가 있는데, 정면과 배면 모두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도면 5-16] 삼성각 바닥기와곡 실측도



[사진 5-51] 배면 지붕



[사진 5-52] 배면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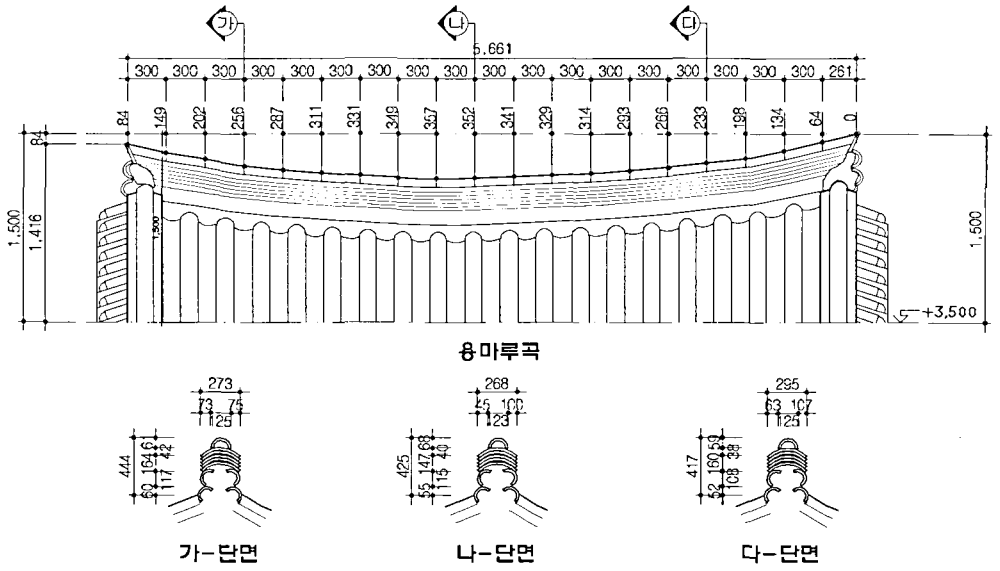
6-2. 지붕마루곡

용마루는 중앙을 중심으로 양끝이 완만하게 휘어 오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가 5,6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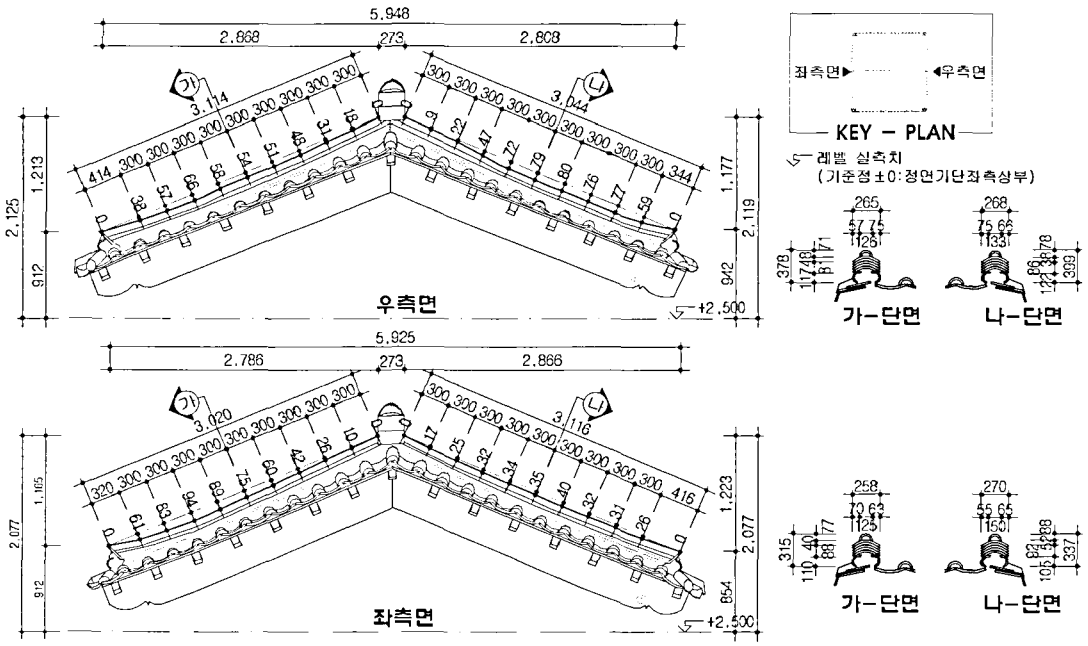
용마루곡은 용마루 좌측 상부 끝지점을 기준으로 한 수평선에서 300㎜ 간격으로 기준 높이와의 높이차를 재는 방법으로 실측하였다. 기준점의 레벨은 용마루 좌측 최고점의 높이로 좌측가단 상부 지점에서 +4,916㎜의 위치에 있다. 용마루 우측 끝지점은 좌측보다 84㎜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수평기준선과의 최대 높이차는 좌측에서 2,400㎜ 지점에서 나타나며, 그 값은 357㎜이다. 용마루곡이 가장 센 지점이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 끝으로 휘어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용마루 적새는 5단으로 수키와와 착고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의 적새 상부까지의 전체 높이는 417~444㎜ 정도이며, 너비는 암키와 폭인 300㎜ 내외이다.

내림마루는 거의 직선으로 뻗어 내리다가 끝부분에서 휘어오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 건물 우측의 정면 내림마루의 길이는 3,114㎜이며, 배면 쪽은 3,044㎜이다. 좌측면 내림마루 길이는 정면 쪽이 3,116㎜, 배면 쪽이 3,020㎜이다. 좌우측면 모두 정면 내림마루의 길이가 배면보다 더 긴 값을 보이며, 그 차이는 우측면이 70㎜, 좌측면이 96㎜ 정도이다.



[도면 5-17] 용마루곡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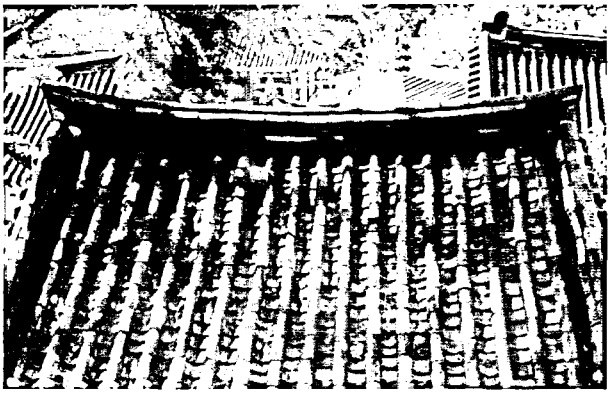


[도면 5-18] 내림마루곡 실측도

내림마루곡은 내림마루 적새인 수키와 등선의 상·하부 양 끝을 0으로 기준하여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에서부터 300㎜ 간격으로 수키와 등선까지의 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실측하였다. 내림마루는 전체 길이의 2/3 정도 내려간 지점이 높이가 가장 낮았으며, 각 부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값은 우측면은 66㎜, 80㎜이고 좌측면은 94㎜, 40㎜이다. 좌측면 중 배면의 욱은 곡이 가장 크다.

내림마루의 높이는 수직 기준점으로부터 2,500㎜ 위에 위치한 수평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내림마루 하부 끝 높이의 경우, 우측면은 정면 912㎜, 배면 942㎜만큼 기준선보다 위에 위치하며, 좌측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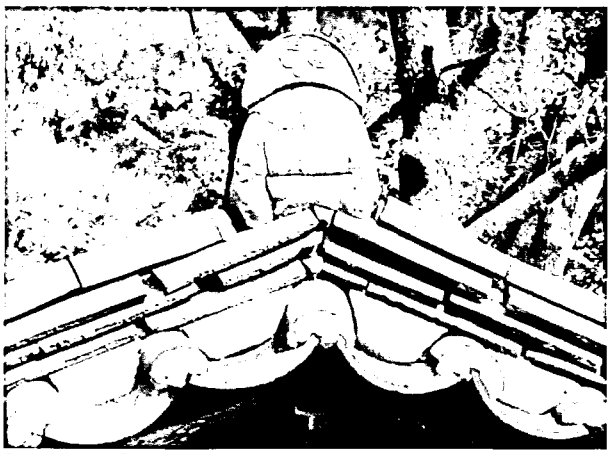
정면 912㎜, 배면 854㎜만큼 올라온 위치이다. 용마루 적새와 만나는 내림마루 상부 끝 지점까지의 거리는 기준선에서 2,077~2,125㎜ 정도이다. 내림마루의 단면 높이는 315~399㎜ 정도이다.


[사진 5-53] 용마루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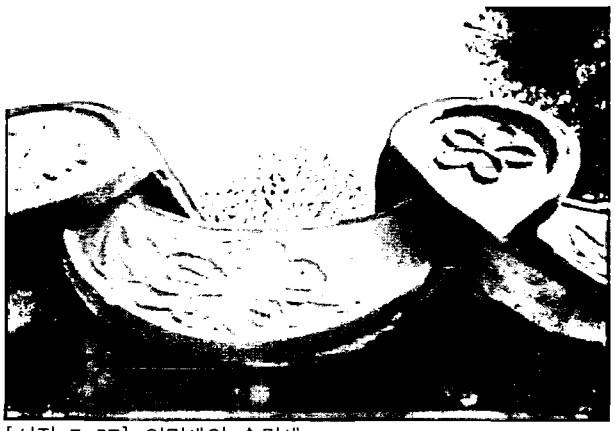
[사진 5-54] 내림마루(좌측 배면)

6-3. 기와

삼성각에 사용된 기와는 암기와, 수키와, 숫막새, 암막새, 수막새, 착고, 부고 등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사용하였다. 현재 바닥기와는 한식 기와 중와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5-55] 용마루 망와

[사진 5-56] 내림마루 망와


[사진 5-57] 암막새와 수막새

[사진 5-58]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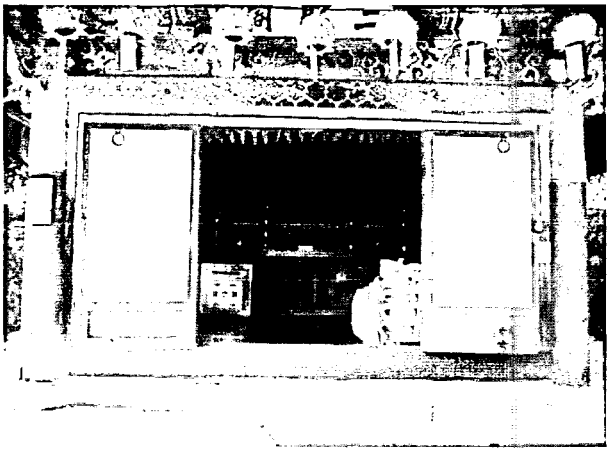
삼성각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암막새를 뒤집어 망와로 사용하였다. 암막새에는 양각으로 5잎의 무궁화와 잎새를 새겼다. 암막새의 크기는 바닥 너비가 267㎜, 길이는 335㎜ 정도이고, 입면 높이는 105㎜ 정도이다. 용마루 망와는 적새 끝에 망와를 올리고 수막새를 두 장을 뉘여서 쌓아 머거블로 사용하고, 그 사이는 강회몰탈로 마감하였다. 내림마루 망와는 암막새를 뒤집어 올리고 숫막새 두 개를 연결해서 쌓아 사이를 강회몰탈로 마감하거나 수키와를 뉘여 쌓아 머거블로 사용하였다.

수막새에는 5잎의 꽃잎을 양각으로 새겼으며 하부 모양이 뾰쪽한 형태이다. 간혹 둥그렇게 모여있는 여러 꽃잎 가운데 꽃술이 새겨진 막새 형태도 섞여 있다. 수막새의 너비는 118㎜ 정도이며, 입면 높이 147㎜, 전체 길이는 33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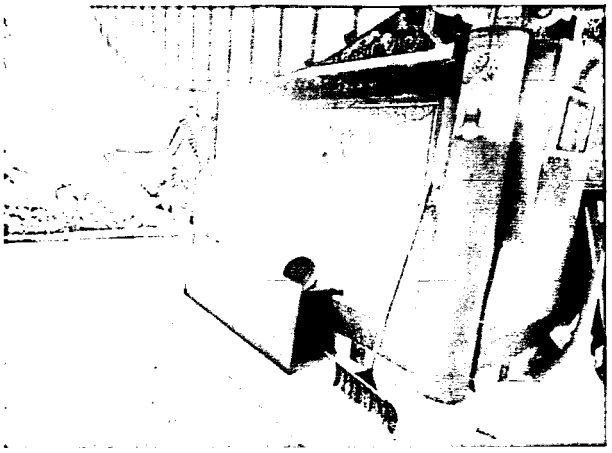
7. 기타

7-1. 인방과 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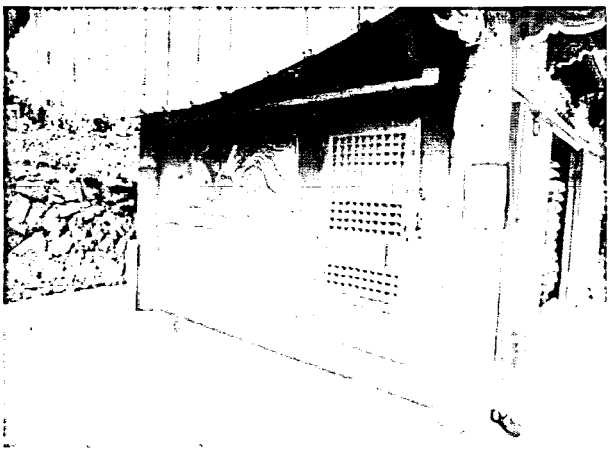
청계사 삼성각의 정면은 모두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벽체와 출입문을 두었으며, 우측면과 배면은 벽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정면에는 하인방과 상인방을 설치한 후, 4짝의 창호를 달았다. 정면 부재의 단면 크기는 하인방 83×220㎜, 상인방 83×154㎜, 문선 83×153㎜ 정도이다.



[사진 5-59] 정면 모습



[사진 5-60] 우측면 모습



[사진 5-61] 좌측면 모습

[사진 5-62] 배면 모습

건물의 좌측면에는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창호를 달기 위해 상인방과 문선을 두어 문얼굴을 만들었으며, 창호 옆 공간에는 중인방을 두었다. 벽체로 구성된 우측면 역시 좌측면과 같은 높이에 상·중·하인방을 설치하고 벽선을 두었으며, 배면에는 창방이 있어 상인방을 생략하고 중인방과 하인방을 설치한 후 벽선을 세웠다. 좌·우측면보다 배면의 중인방 높이가 약간 높게 설치되었다. 양 측면의 보와 중인방 사이의 벽체와 배면의 상부 벽체에는 벽화를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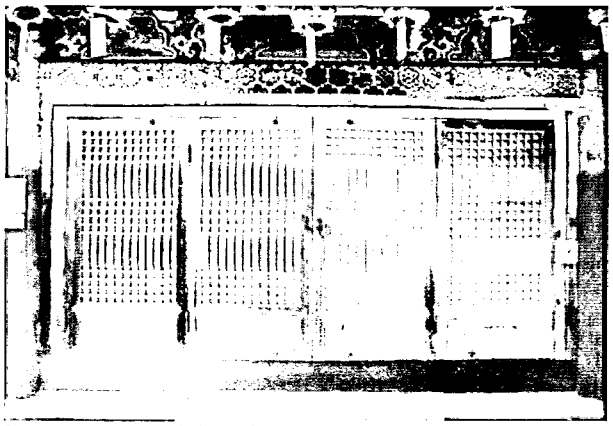
7-2. 천장

삼성각의 천장은 우물반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물반자는 보의 측면에 반자돌림대를 대고 반자대를 설치하여 반자틀을 짠 후, 소란을 대고 위에서 반자청판을 덮었다. 반자틀은 80×75㎜ 내외이며, 반자청판의 크기는 552×428㎜ 정도이다. 반자틀은 상부의 도리 등에 달대를 달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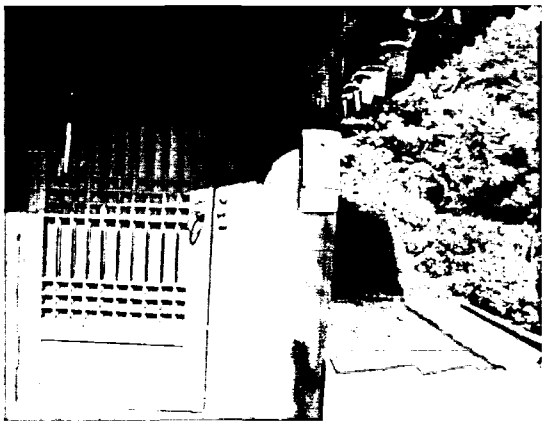
7-3. 창호

삼성각에는 정면에 네짝 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좌측면에는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여 참배객들이 출입하도록 하였다. 창호는 모두 세살창문으로 하부에는 궁판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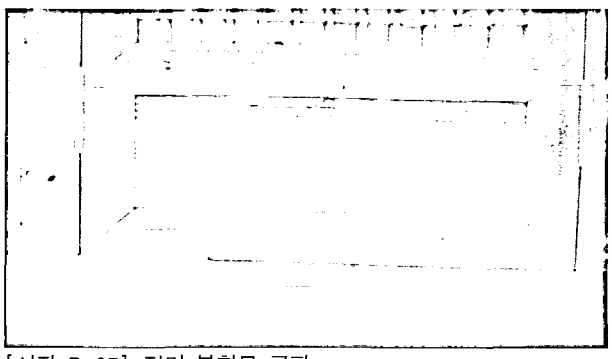
정면 분합문의 전체 크기는 3,042×1,500㎜이고 한짝의 너비는 760㎜ 내외이다. 문울거미의 단면은 77×76㎜ 정도이고, 울거미 가운데는 쌍사로 쇠시리를 넣었다. 문살은 14×38㎜이며, 궁판의 크기는 608×183㎜ 정도이다. 좌측면에 설치된 외여닫이문의 크기는 664×1,378㎜이며, 문울거미나 문살의 단면 크기는 정면과 같다. 궁판의 크기는 509×1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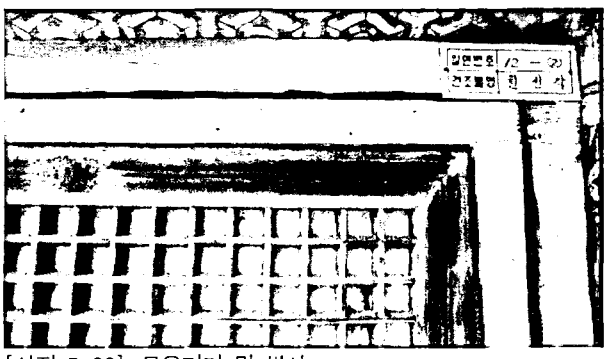
[사진 5-63] 정면의 네짝 분합문



[사진 5-64] 측면의 한짝 분합문



[사진 5-65] 정면 분합문 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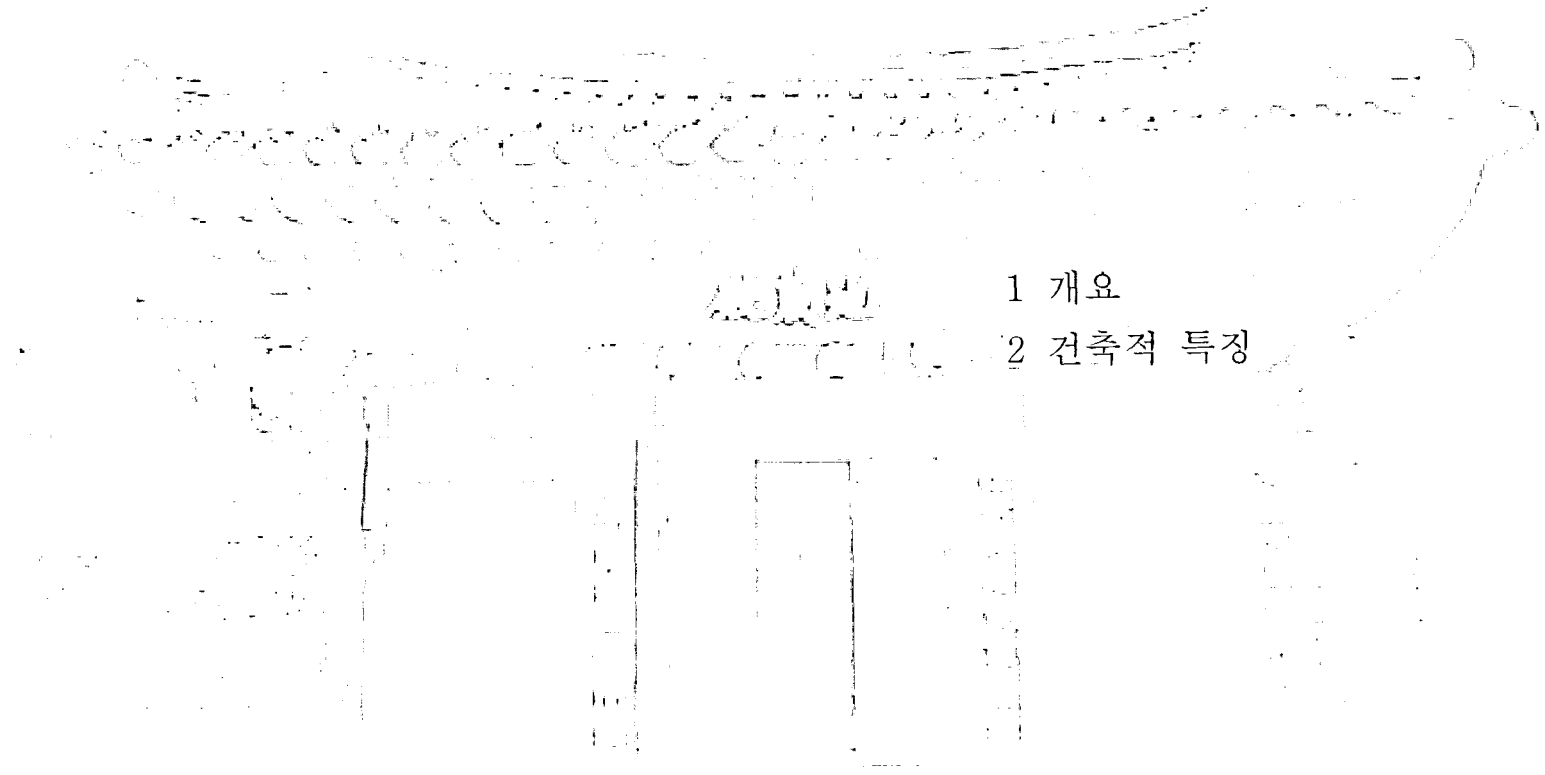


[사진 5-66] 문울거미 및 쌍사

여 백

제 6 장

종합고찰



1 개요
2 건축적 특징

여 백

제 6 장 종합고찰

1. 개요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청계사(淸溪寺)는 청계산의 망경대와 국사봉 사이에서 응봉으로 흐르는 지맥의 남측 경사면 중턱(해발 260m)에 위치하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청계사의 약사(略史)를 보면, 신라 때 초창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고려 문신인 조인규(趙仁規, 1227~1308)가 1284년 창건하여 사세(寺勢)의 확장을 이끌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배불(排佛)을 전면에 내세우고 불교를 탄압하였지만, 왕실은 실질적인 호불(護佛) 조치를 취하였다. 청계사 또한 태종 대에는 왕실의 자복사(資福寺)로 선정되었고, 연산군 대에는 한 때 봉은사를 대신해 선종의 본찰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영조 대에는 동궁시절 정조가 청계사를 원당(願堂)으로 삼기도 하는 등 왕실의 비호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사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화재 등으로 몇 차례 소실 및 중창을 거듭하였으며,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876년(고종 13) 실화로 소실한 것을 1900년(고종 37) 재건하였다. 해방 이후 1955년 주지로 취임한 비구니(比丘尼) 아연(娥演)이 다시 중창을 하였고, 월덕(月德)·탄성(呑星)·월탄(月呑) 등의 역대 주지들이 그 뜻을 계승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청계사는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출가지로 경허선사의 선맥을 이은 만공, 금오, 월산 선사의 승탑이 있는 등 선종의 본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계사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으로서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자형 평면이다. 가구는 3량가로 주심도리 사이에 대량을 결구하고 대공을 세운 후, 종도리를 올렸다. 주심도리는 원형의 굴도리를, 종도리는 장방형의 납도리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기단은 정면은 장대석 두벌대로, 배면은 외벌대로 되어있고, 초석은 화강석 사다리꼴의 원형 초석이다. 기둥은 원형의 민흘림기둥이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포 사이에는 포대공이 짜여있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바닥은 쪽마루를 깔았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양측면에 박공과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지장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며 1990년대의 기록들에 산신각 혹은 칠성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엔가 용도가 변경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표 6-1] 청계사 지장전 건물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평 면	정면 3칸 × 측면 1칸	대 공	동자주
바닥면적	27.63㎡	처 마	겹처마
가 구	3량가	지 붕	맞배지붕
기 단	화강석 두벌대, 외벌대 기단	기 와	중와
주 초 석	화강석 원형 초석	내부바닥	쪽마루
기 둥	원형 민흘림기둥	벽 체	외엮은 회벽 마감
공포양식	이익공	창 호	세살분합문
도 리	굴도리, 납도리	천 장	우물천장

청계사 삼성각에는 산신탱, 독성탱, 칠성탱이 모셔져 있으며, 불단과 벽면에는 신도들의 생년월일 등이 적힌 인등이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작은 전각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건물의 기단은 정면은 장대석 외벌대로 되어있고, 초석은 화강석 원통형 초석으로 얕은 주좌가 설치되어 있다. 기둥은 원형의 민흘림기둥이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포 사이에는 포대공이 짜여있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바닥은 쪽마루를 깔았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양측면에 박공과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청계사 종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지장전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지어진 삼성각이 있었다고 하나 그 위치는 현재와는 다르다. 1980년대 초에 예전의 삼성각(현 지장전)에서 탱화를 모셔와 봉안하고,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2] 청계사 삼성각 건물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평 면	정면 1칸 × 측면 1칸	대 공	동자주
바닥면적	11.11㎡	처 마	겹처마
가 구	3량가	지 붕	맞배지붕
기 단	화강석 외벌대 기단	기 와	중와
주 초 석	화강석 원통형 초석	내부바닥	쪽마루
기 둥	원형 민흘림기둥	벽 체	외엮은 회벽 마감
공포양식	이익공	창 호	세살분합문
도 리	굴도리	천 장	우물천장

2. 건축적 특징

가. 지장전

청계사는 청계산의 남쪽 태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남북 방향으로 경사가 큰 편으로, 경내에 축대를 쌓아 대지를 여러 단으로 정리하여 전각을 배치하였다. 청계사 지장전은 극락보전, 봉향각 등과 함께 경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마당에 조성된 두 단의 석축 위에 남향으로 자리한다.

청계사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전각으로 건물의 전·후면에 각각 4본씩의 기둥을 사용하여 평면을 구성하였다. 지장전 주칸의 전체길이는 정면 6,062㎜, 동측면 4,558㎜로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은 약 27.63㎡이다. 정면과 측면의 길이는 1.33:1 정도의 비례를 보인다. 실측결과로 살펴본 계획 당시의 주칸거리는 정면 어칸 8尺, 정면 협칸 6尺, 측면 칸은 15尺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된 용척을 계산하기 위해 각 주칸거리를 기준이 되는 尺으로 나누어 본 결과, 1尺은 302~303.8㎜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303㎜ 전후값을 보인다.

건물의 대지에는 장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깔아 마감한 석축 상부에 장대석 기단을 쌓고, 기단 상부면에는 정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였다. 기단 주변의 하부 바닥면은 각자 높이를 달리하는데, 이러한 바닥조건에 맞추어 정면 기단과 좌측면은 두벌대로, 우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전의 초석은 화강석 원형 초석으로 초반이나 주좌 등을 따로 두지 않았고,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모양이다. 초석의 높이는 정면 초석이 평균 209㎜, 배면 초석이 평균 184.5㎜ 정도이다.

기둥은 총 8본으로 민흘림을 주었고, 하부 직경은 평균 290㎜, 상부 직경은 평균 284㎜ 정도이다. 대체로 크기에 여유가 있는 기둥은 흘림을 두어 치목했으며,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흘림을 두지 않았다. 기둥의 평균 길이는 2,682㎜ 정도이다.

기둥의 귀솟음을 실측한 결과, 전체적으로 귀솟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귀솟음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건물 전체로 볼 때, 기둥의 변위는 대체적으로 시계 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주칸 거리 등과의 연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우주에서의 변위가 크지 않고 기울기의 방향도 건물 외부를 향하고 있는 등 일정하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 안쏠림을 판단하기 어렵다.

청계사 지장전은 3량가의 가구 구성을 하고 있어 정면과 배면 기둥을 가로지르는 대량이 4본 설치되어 있다. 대량의 윗면 중앙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상부의 종도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양 측면의 경우 밖으로 보이는 동자주 양쪽 옆면으로 긴 삼각형 모양의 부재를 덧대어 판대공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지장전은 기둥 위에 포를 올리고 주간에는 화반을 1개씩 배치한 주심포계 익공 건물이다. 공포는 이익공(二翼工) 형태로 초익공과 이익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목은 없으며 내부는 보아지 형태이다. 전형적인 이익공계의 짜임으로 재주두가 설치되어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외단의 초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초익공은 앙서형으로, 이익공은 수서형으로 초각하였다. 이익공 위에는 재주두를 두고, 그 위에 보를 설치하였고 보머리는 봉황의 머리를 조각한 금수(禽獸)형이다. 주심도리는 보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지장전의 연목과 부연은 정면 26개, 배면 26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전의 가구는 삼량가로 연목

은 주심도리에서 종도리까지 한 부재로 걸쳐지며, 종도리 위에서 정면과 배면의 연목이 서로 엇갈려 걸려 있다. 측면 끝부분 연목은 박공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박공에 면하게 설치하고 종도리 위에서 뒷뿌리가 맞걸리도록 하였다. 연목의 물매는 10:4.54 정도이며, 연목의 전체길이는 4m 내외의 긴 부재를 사용하였다. 건물의 주심도리와 중도리 간격은 2,270㎜ 내외로 건물의 규모에 비해 연목 내밀기가 짧은 편인데, 이는 삼량가 가구구조와 측면의 넓은 주칸거리라는 건물 구조의 특성상 연목길이가 길어지는 부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내밀기를 다소 크게 하여 전체 처마내밀기가 1,500㎜ 내외의 값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처마 내밀기의 길이차이는 70~100㎜ 정도로 정면과 배면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지장전은 맞배지붕으로 처마의 양 끝이 처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안허리곡과 앙곡을 두고 있다. 정면 안허리곡의 최대값은 연목과 부연 모두 90㎜ 내외이고 배면의 경우는 110㎜ 정도이나, 인위적으로 설정한 수평기준틀과 건물 사이의 오차와 변위 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처마의 앙곡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끝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변위가 발생되어 있다. 처마 앙곡 형태는 정면과 배면에서 동측부분이 약간 쳐져있으며, 서측 끝부분에서 앙곡이 둔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앙곡의 크기는 정면보다 배면이, 연목보다 부연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값의 편차가 있어 정확한 수치로 단정하긴 어렵다.

지장전의 양 측면에는 박공을 설치하고 풍판을 달았으며, 측면 기둥 중심에서 박공까지의 거리는 우측이 868㎜, 좌측이 883㎜정도로 서까래 3본이 설치될 너비로 내밀기 하였다. 건물의 양 측면 박공 하부에는 풍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 측면 내밀기 부분에 하중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장전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용마루와 4개의 내림마루로 지붕마루를 이루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와 5단의 적새로 구성되어 있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가 3단이다. 지장전에 사용된 기와는 암기와, 수키와, 숫막새, 암막새, 수막새, 착고, 부고 등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사용하였다. 막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사용되어 과거 여러 차례 기와공사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바닥기와는 한식 기와 중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배면 지붕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키와가 탈락되고 기와곡이 움푹 내려간 듯 부분적으로 변형이 나타나고 있어 건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삼성각

청계사 삼성각은 극락보전과 지장전 사이에 놓여 진 계단 위에 동쪽으로 5° 정도 틀어져 남향으로 자리 잡은 건물로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삼성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작은 전각이다. 건물의 정면에는 네짝의 분합문을, 좌측 앞부분에는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으며, 참배객들은 좌측문을 이용하여 법당을 출입할 수 있다. 법당의 북측면의 좌측에는 산신탱을, 우측에는 독성탱을 모시고 우측면에는 칠성탱을 두었으며, 탱화 앞과 벽면에는 인등을 설치하였다.

삼성각의 주칸 길이는 정면 3,646㎜, 동측면 3,048㎜로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은 약 11.11㎡이다. 계획 당시 기준이 되는 주칸거리는 정면은 12尺, 측면은 10尺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된 용척을 계산하기 위해 각 주칸거리를 기준이 되는 尺으로 나누어 본 결과, 하부 주칸거리의 용척은 303.8~305.8㎜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편차를 보인다. 삼성각이 근래에 다시 지어진 것을 고려해볼 때, 곡척을 사용

하였으리라 판단되며 길이의 편차는 시공오차 혹은 기둥 등의 변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바닥 상부에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1단으로 쌓았으며, 기단 상부 면에는 정방형의 화강석 판석을 설치하였다. 삼성각의 초석은 화강석 원형 초석으로 상부에 주좌를 둔 원통형으로 거친 정다듬 정도의 가공을 하여 설치하였다. 초석 높이의 평균은 약 160㎜이고 초석의 너비는 450㎜ 내외이며, 주좌의 너비는 360㎜ 정도이다.

삼성각에는 총 4본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원형의 민흘림을 준 형태이다. 기둥의 하부 직경은 평균 282㎜ 정도이고 상부 직경은 평균 255㎜ 정도이며, 상하부의 직경차이는 15~30㎜ 정도이다. 기둥의 길이는 평균 2,110㎜ 정도이다. 세장비는 7.64~7.89 사이의 작은 값을 보이는데, 건물의 비례를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다른 건물에 비해 기둥 길이를 짧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삼성각은 삼량가의 가구 구조를 하고 있다. 전·후면 기둥에 설치된 주심도리에 직각방향으로 대량을 결구하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운 후 종도리를 걸었다.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거리는 1,520㎜ 정도로 전·후면이 같다. 주심도리에서 연목 끝단까지의 내밀기 거리는 정면이 1,112㎜, 배면이 1,017㎜이며, 주심도리에서 부연 끝단까지의 처마내밀기 거리는 정면이 1,603㎜, 배면이 1,507㎜정도이다. 배면의 내밀기 길이가 정면보다 100㎜ 정도 짧으며, 전체 처마내밀기와 연목 내단 사이가 거의 같아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천정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바닥에는 쪽마루를 깔았다. 1칸 크기의 건물 규모에 비해 공포나 지붕형식 등 격식을 높게 한 편이다.

측면의 경우, 양쪽 기둥 중심에서 박공판까지의 거리는 우측이 765㎜, 좌측이 806㎜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박공 내밀기는 서까래 3본 정도가 설치될 정도이고 내밀기 부분 천장에도 순각판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양 측면 박공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규모에 비해 측면의 내밀기 길이가 길고, 풍판의 규모가 커 측면의 하중이 도리 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각의 연목과 연목은 정면과 배면에 각각 18개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과 배면의 연목은 종도리 위에서 서로 맞대어 걸었다. 측면 끝부분 연목은 박공에 붙여 설치하여 풍판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연목의 물매는 10:3.75 정도로 낮은 편이다. 정면의 처마 내밀기 값은 1,480~1,563㎜이고, 배면의 내밀기 값은 1,397~1,436㎜으로 정면의 내밀기 길이가 약간 길다. 지장전과 건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측면의 너비는 지장전의 2/3 정도이나 처마 내밀기 길이는 거의 같아 내밀기를 길게 하였다.

삼성각은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므로 처마곡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으나, 양 끝이 처져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안허리곡과 앙곡을 두고 있다. 실측결과, 연목을 설치하면서 의도적으로 안허리곡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처마선이 변형되었으나 중앙부에서 양끝으로 갈수록 처마 길이가 길어지는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정면 안허리곡의 최대값은 연목과 부연 모두 33㎜ 내외이고 배면의 경우는 46~56㎜ 정도이나, 인위적으로 설정한 수평기준틀과 건물 사이의 오차와 변위 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삼성각 처마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끝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앙곡을 유지하고 있다. 각 면의 가장 낮은 위치의 연목과 가장 높이가 높은 양 끝부분의 높이 차이는 정면의 경우 58㎜, 배면의 경우 36㎜이다. 부연의 높이차를 비교하면 정면은 70㎜, 배면은 51㎜만큼 낮은 위치에 있다. 부연 앙곡의 경우 정면과 배면 모두 처마의 가운데 부분에서 최저값을 나타내며, 연목에 비해 그 값이 큰 편이다. 앙곡의 크기는 정면이 배면보다 크며, 연목이 부연보다 크다. 연목과 부연의 최저점과 최저점은 배면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정면의 처마 길이가 약간 더 길기 때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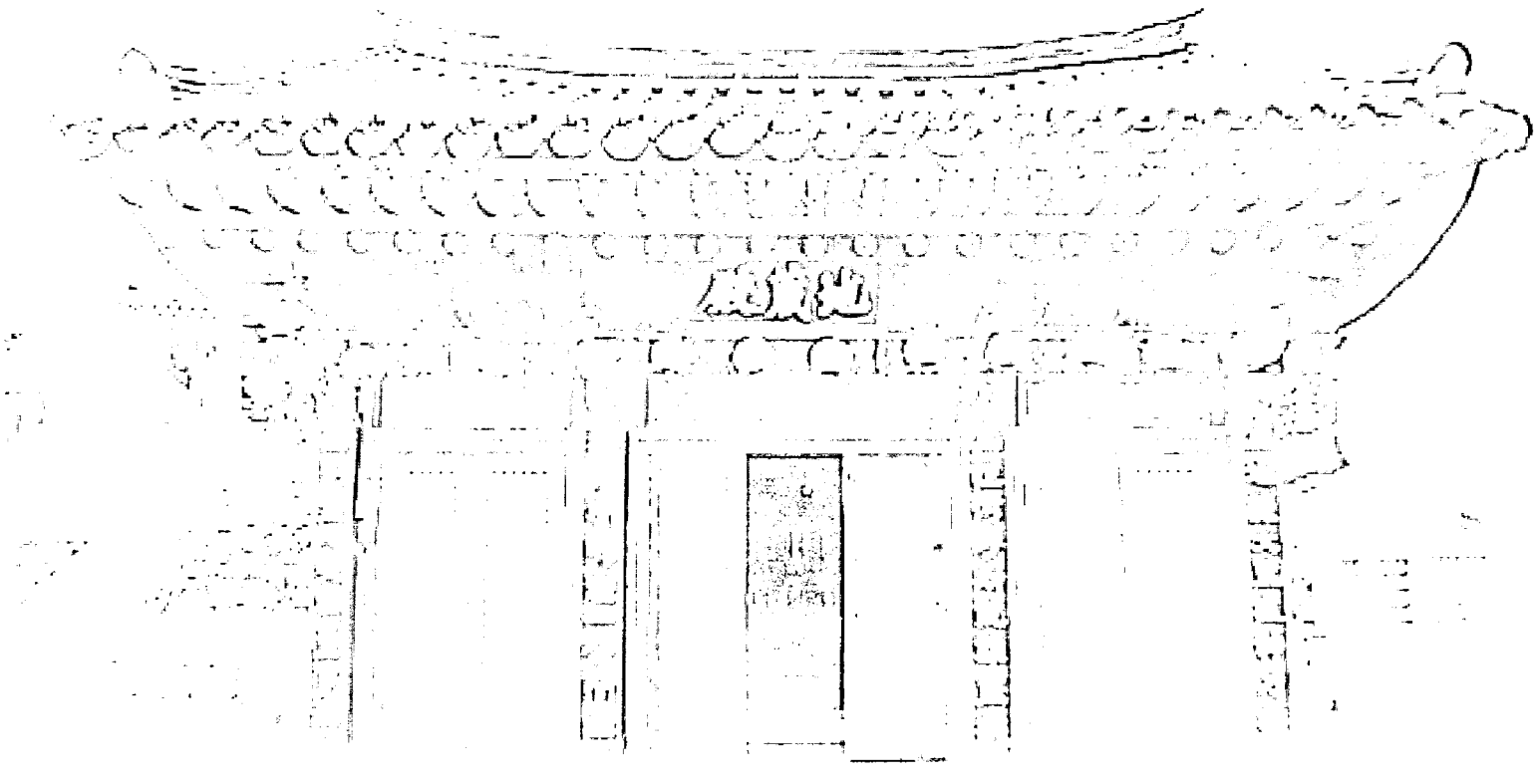
로 보인다.

삼성각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용마루와 4개의 내림마루로 지붕마루를 이루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와 5단의 적새로 구성되어 있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가 3단이다. 용마루는 가운데가 낮고, 양끝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마루의 끝은 수키와 2개를 옆으로 쌓아 머거불로 받치고, 그 위에 망와를 설치하였으며, 내림마루 끝에도 망와를 세웠다. 바닥기와 끝선은 숫막새와 암막새로 마감되어 있다. 기와는 중와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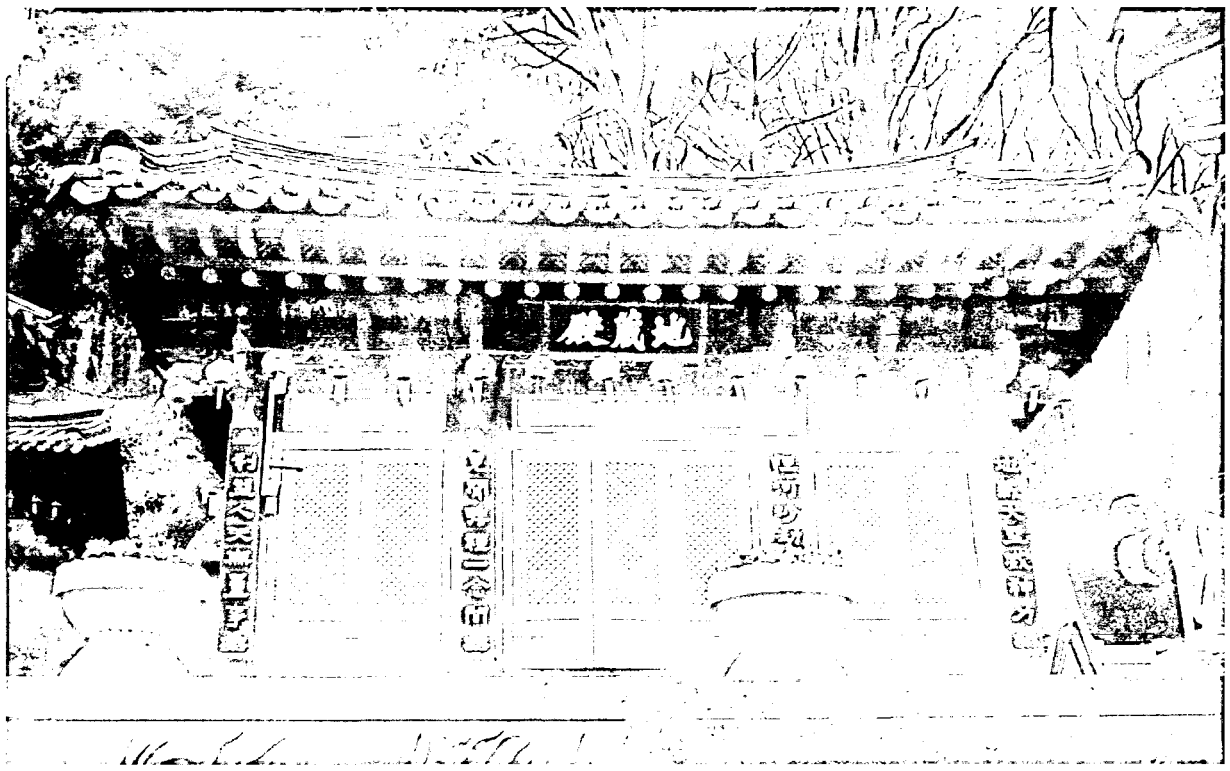
삼성각의 배면 지붕의 경우, 와초 및 낙엽이 쌓여 있어 건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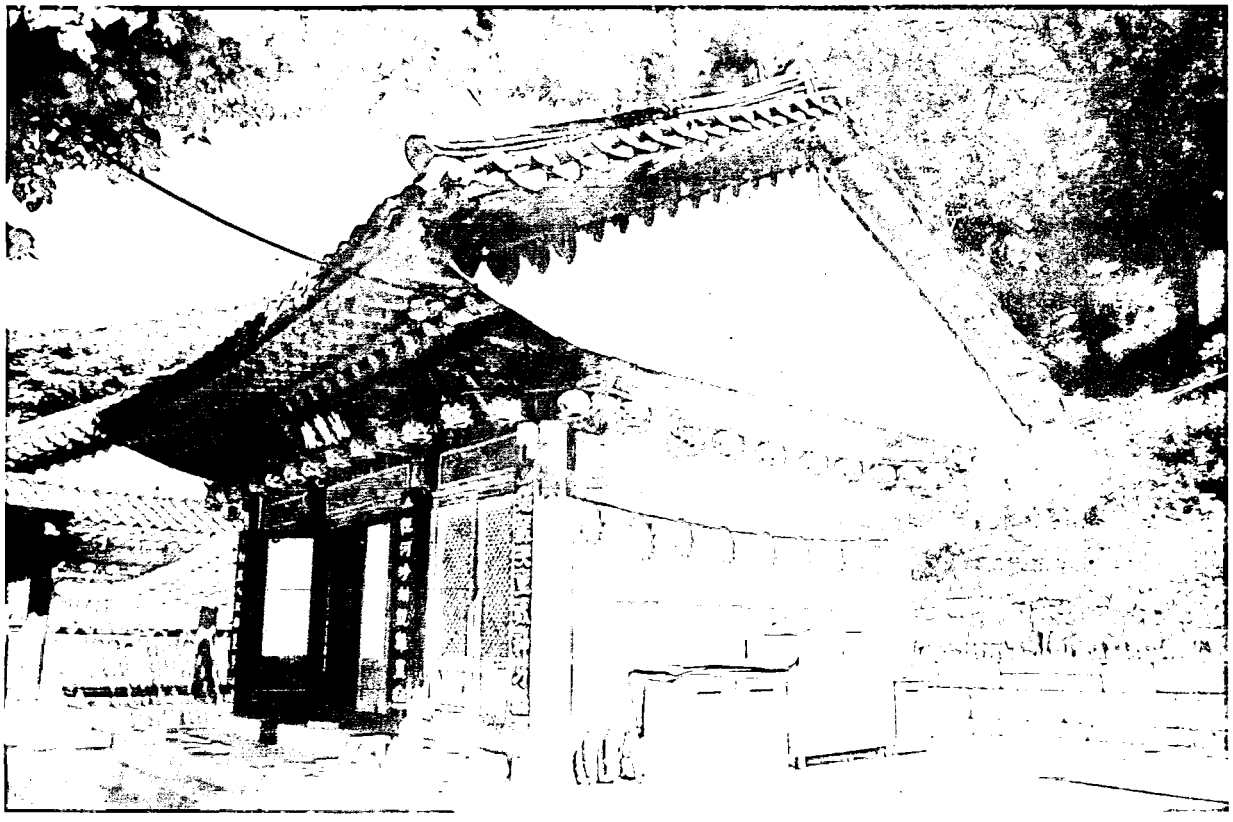
단색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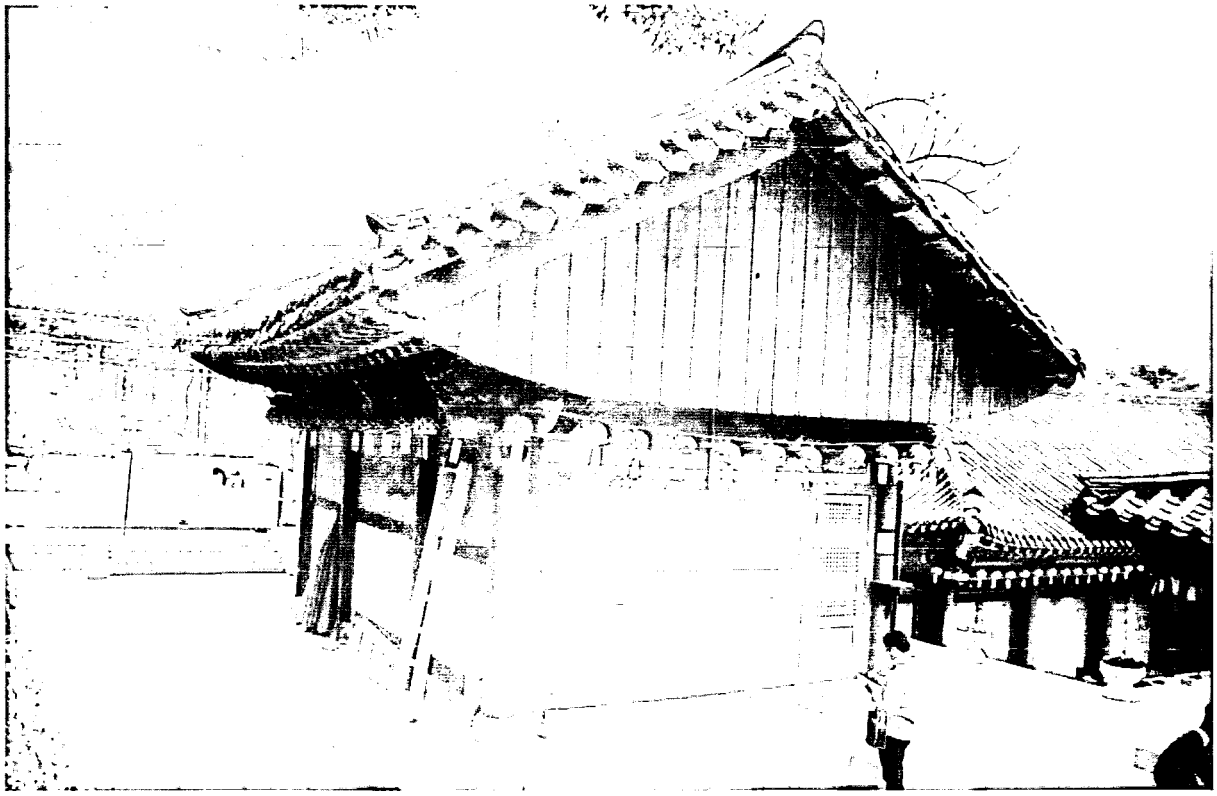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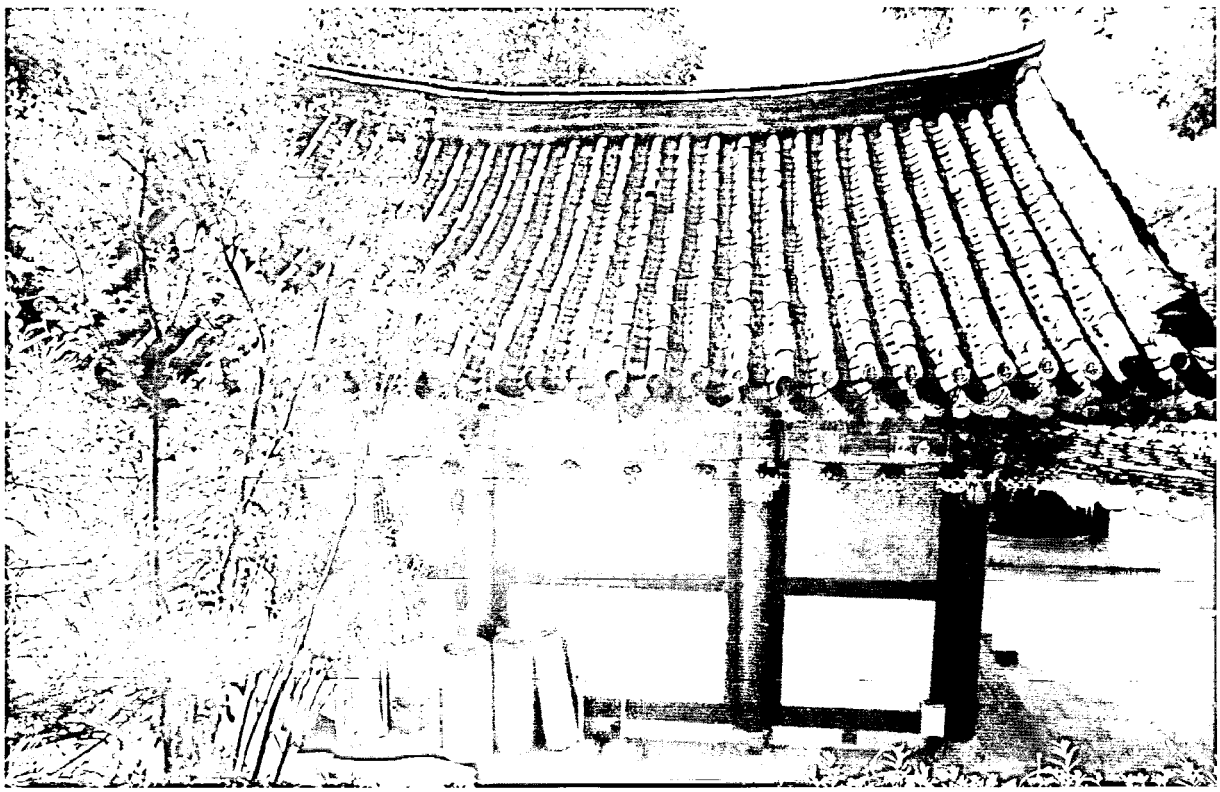
청계사 지장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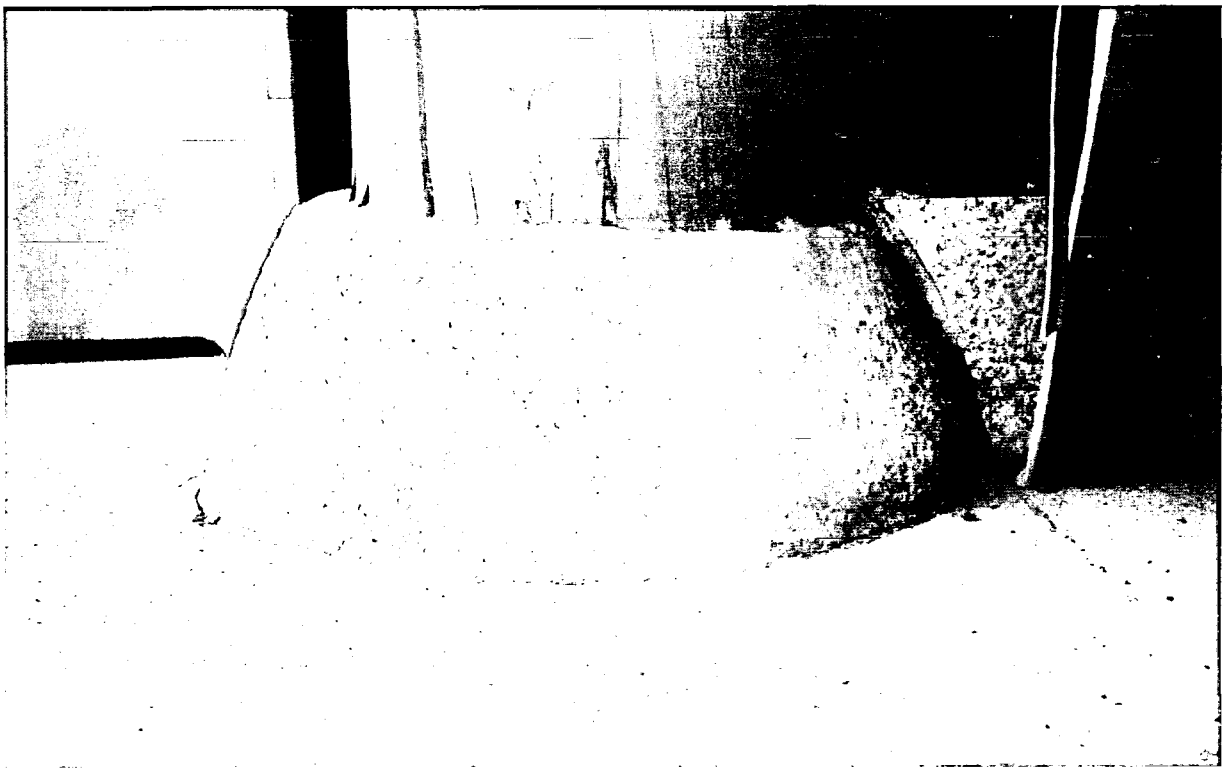
청계사 지장전 우측면



청계사 지장전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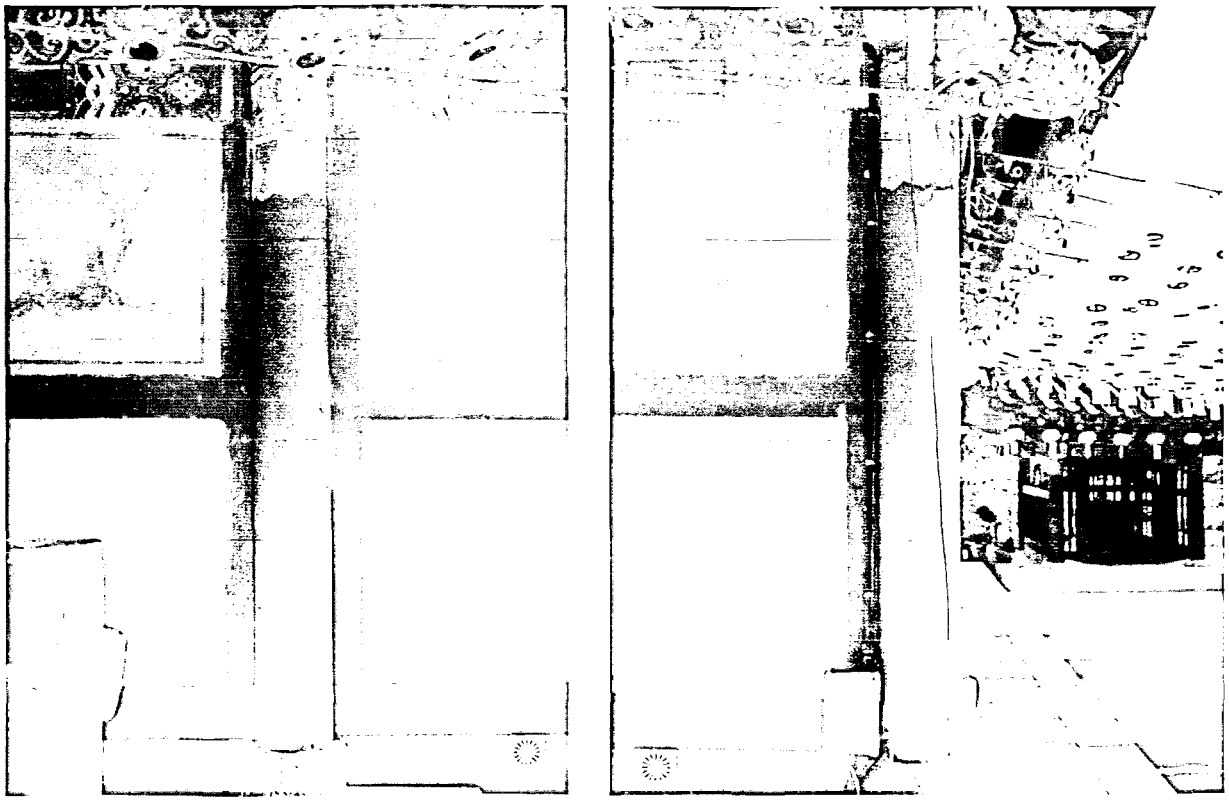


청계사 지장전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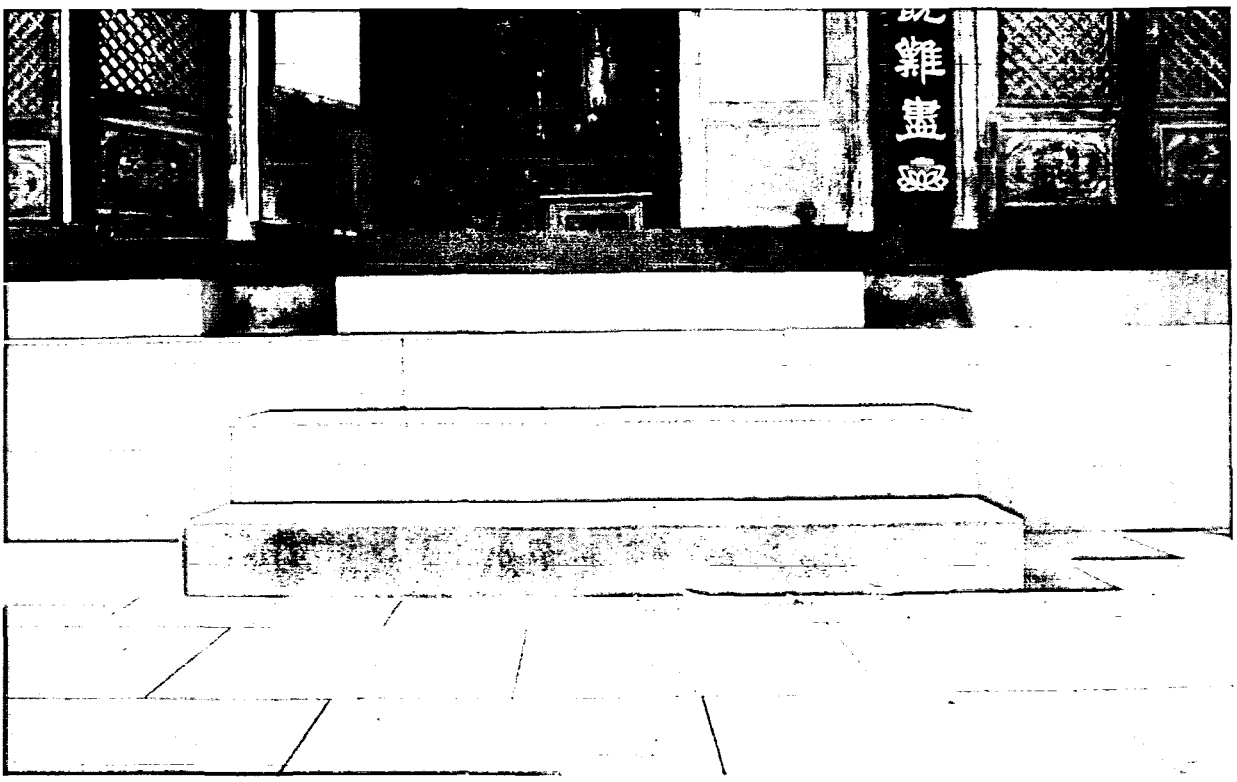


지장전 배면 5번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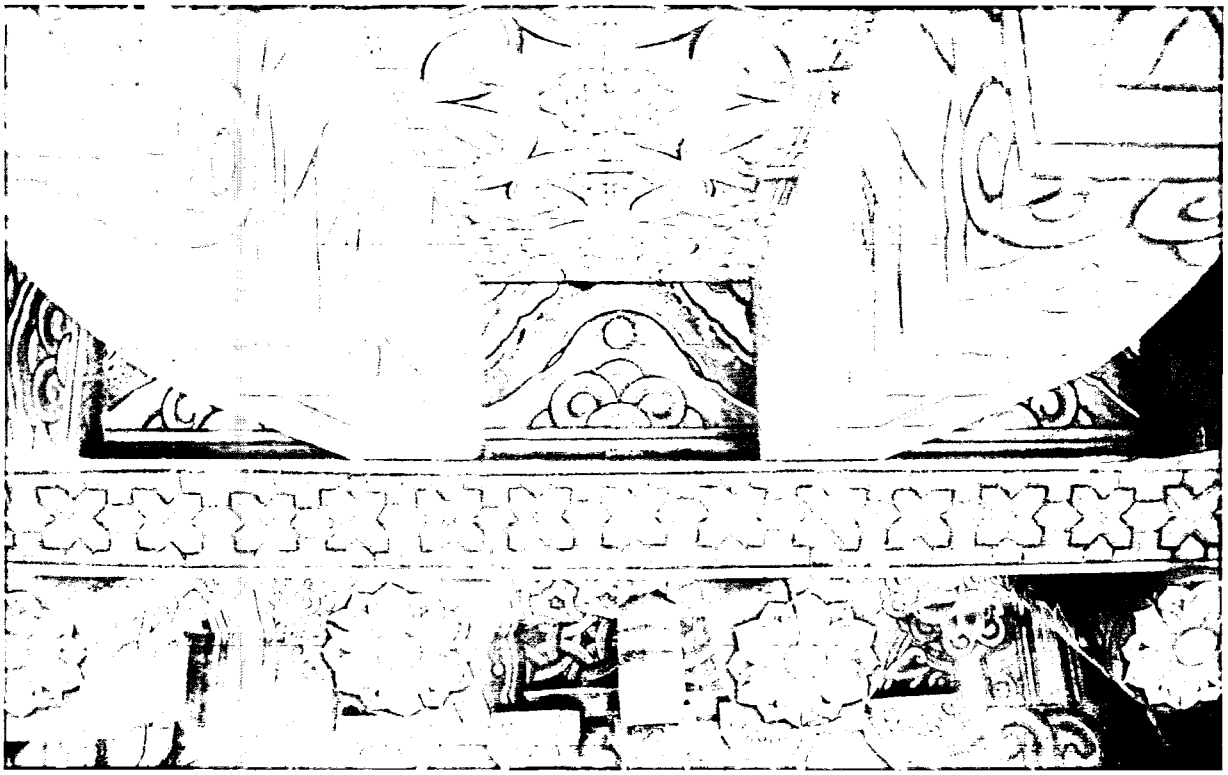
지장전 배면 6번 초석



지장전 배면 7번, 8번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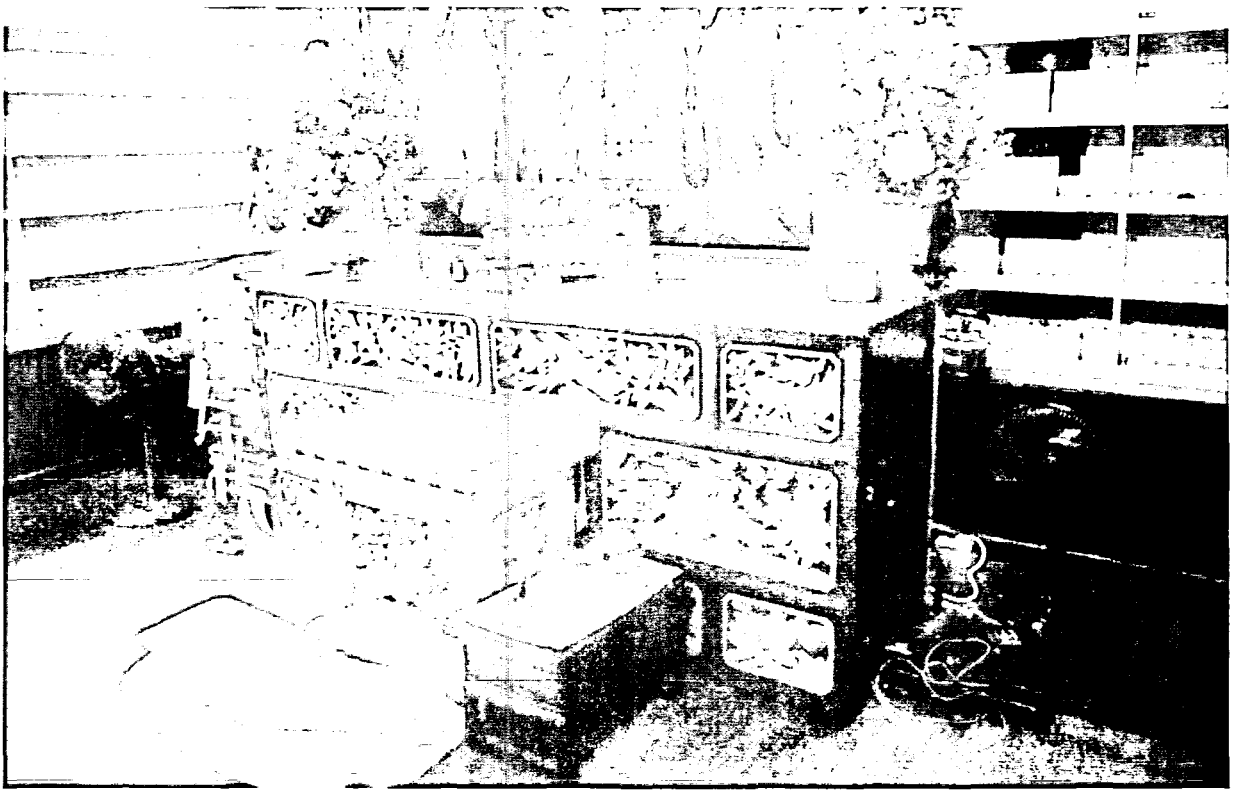
지장전 정면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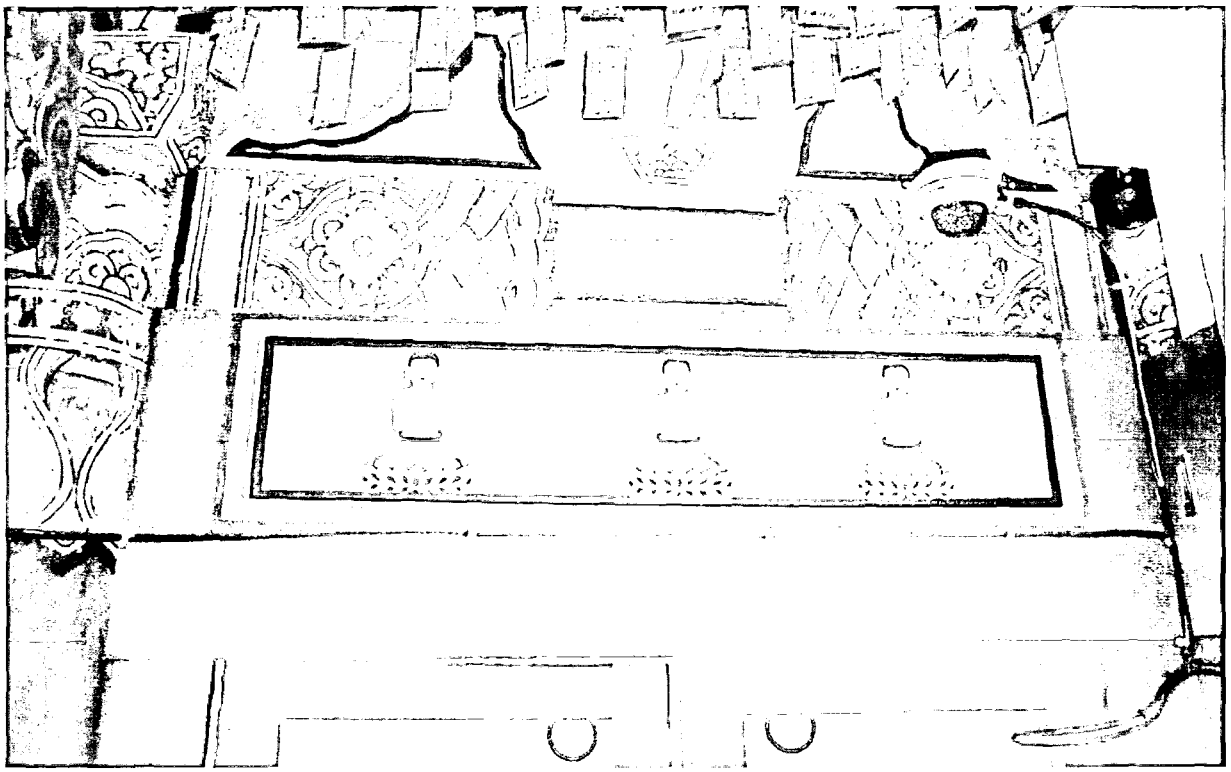
지장전 부연착고

지장전 박공 게눈각

지장전 연목 및 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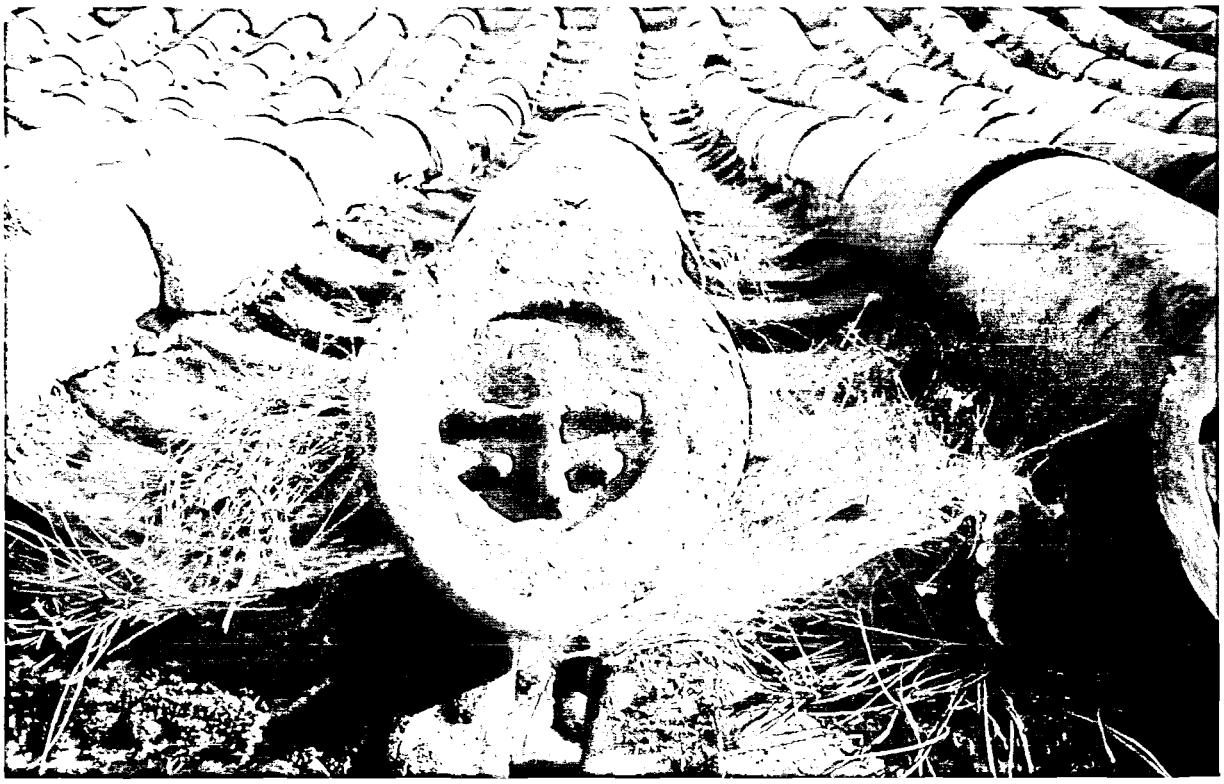


지장전 내부 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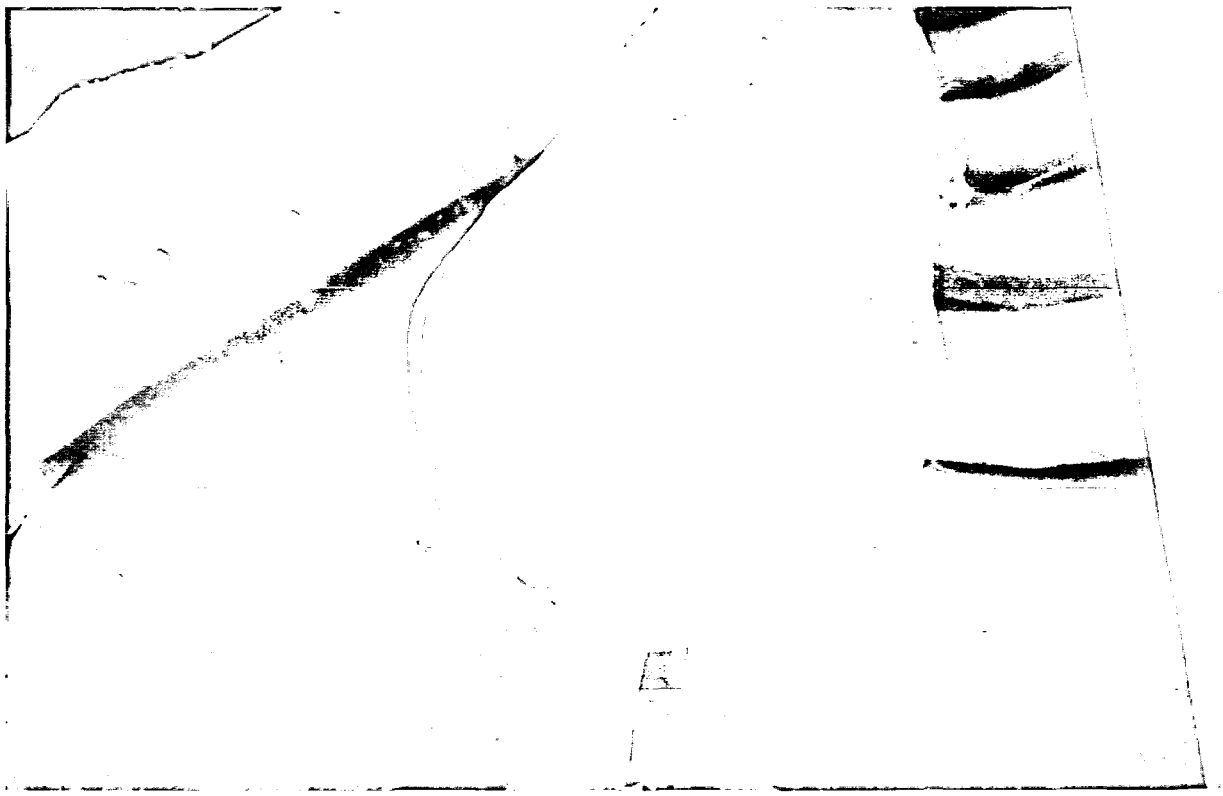


지장전 내부 벽화

지장전 숫막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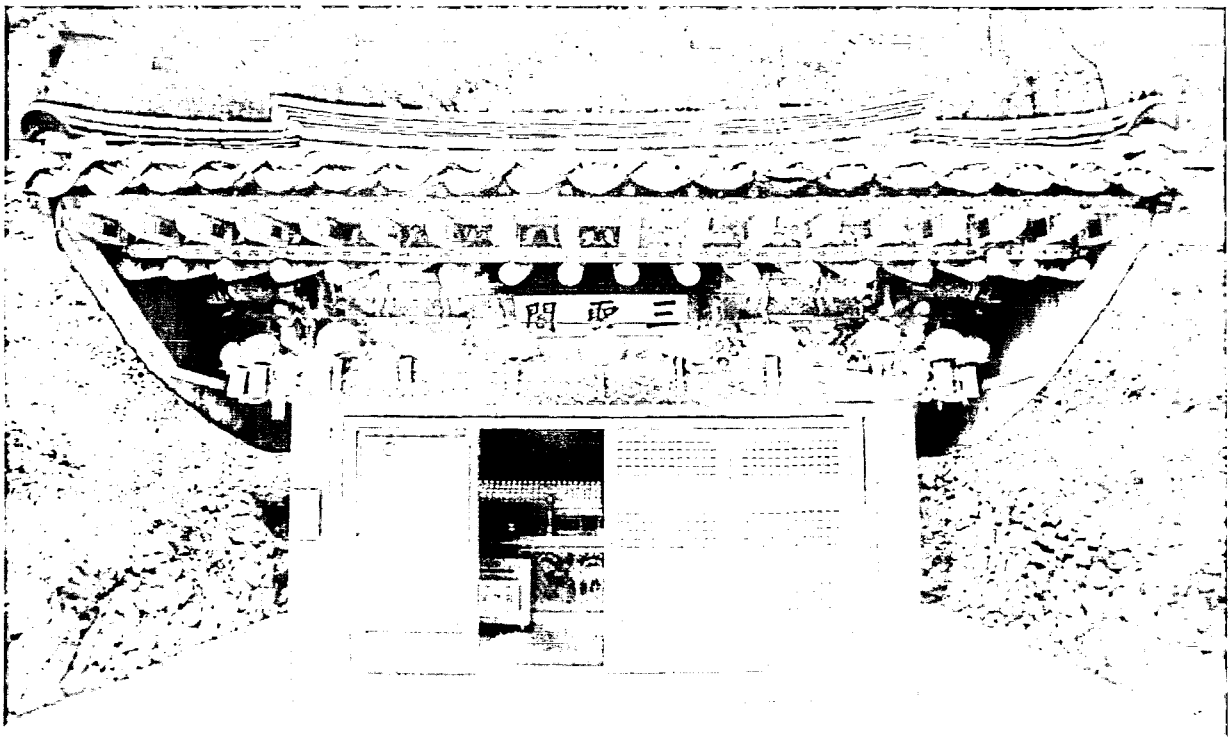
지장전 숫막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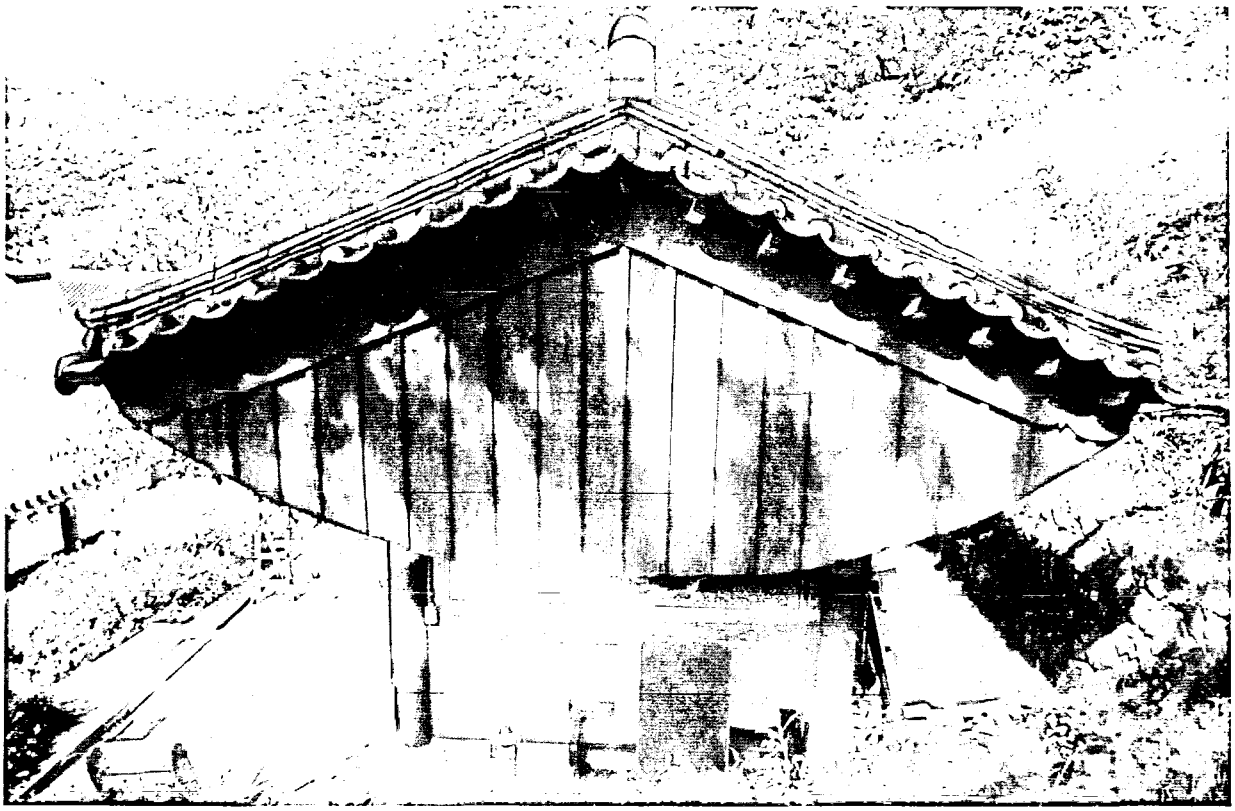
지장전 내부 숫막새3

지장전 암막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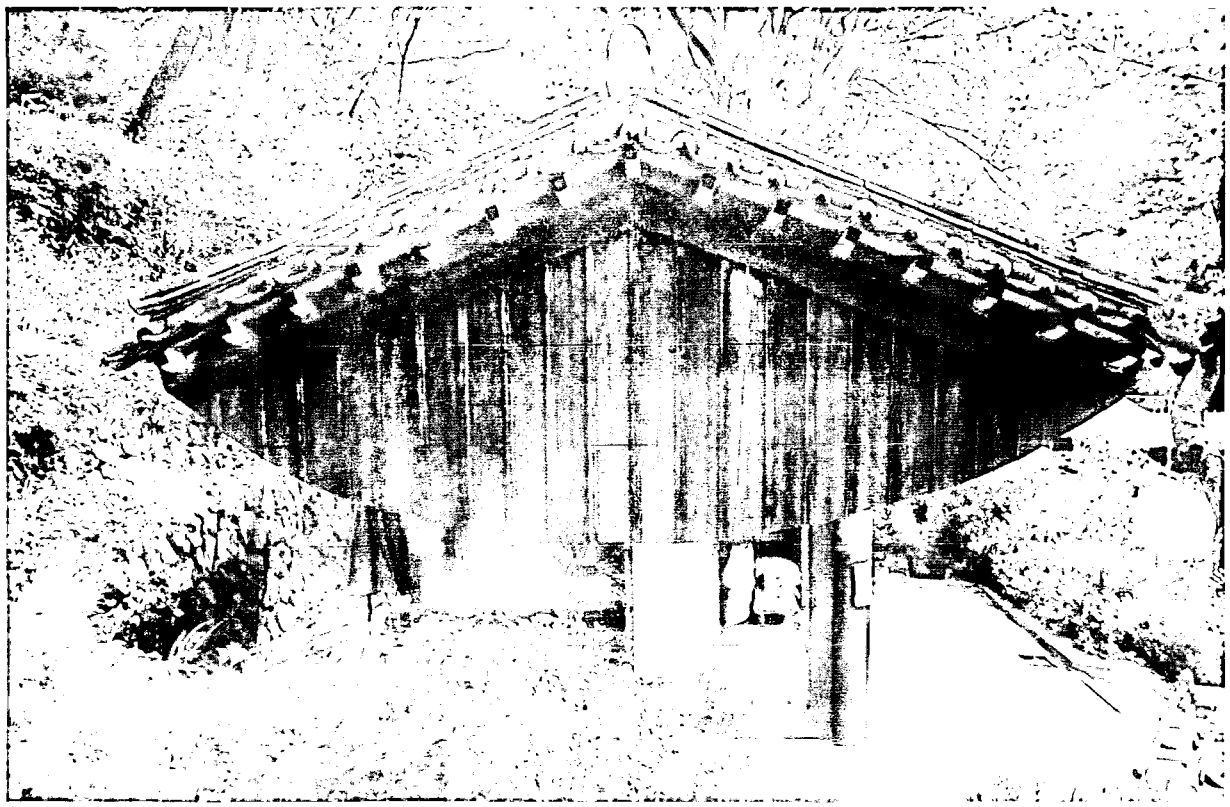
지장전 암막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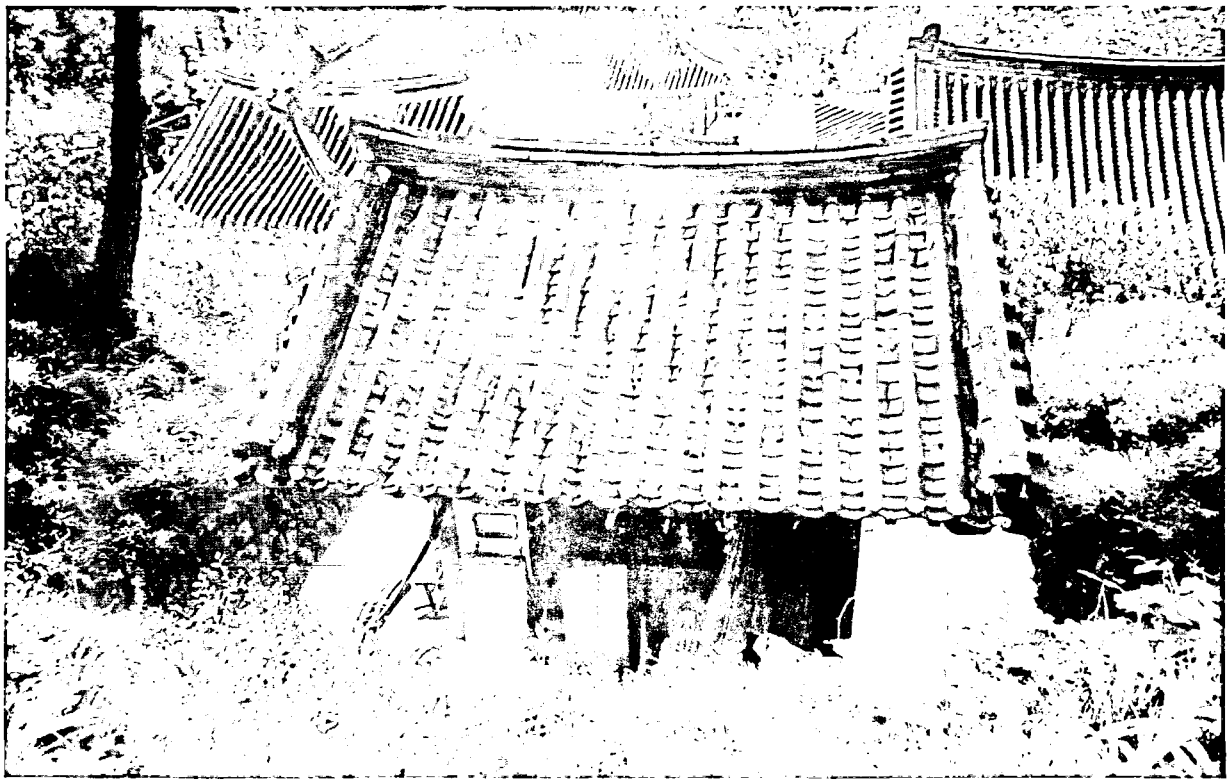
삼성각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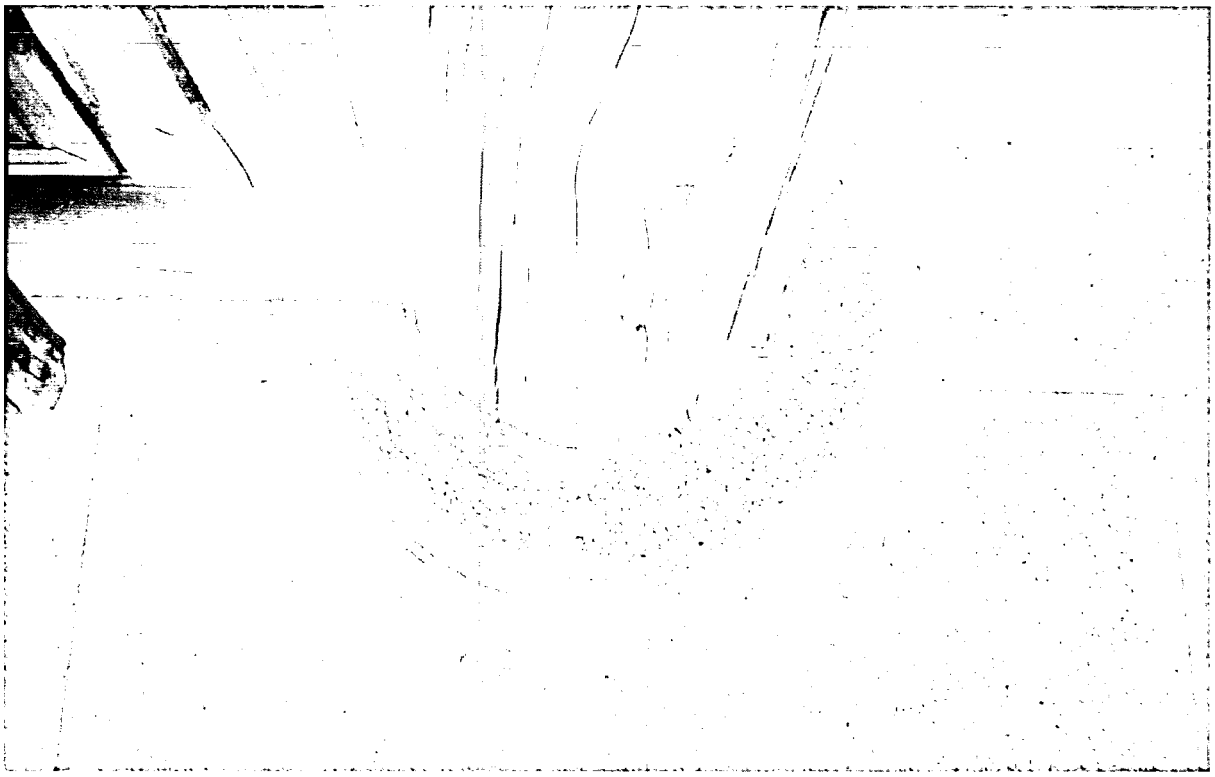
삼성각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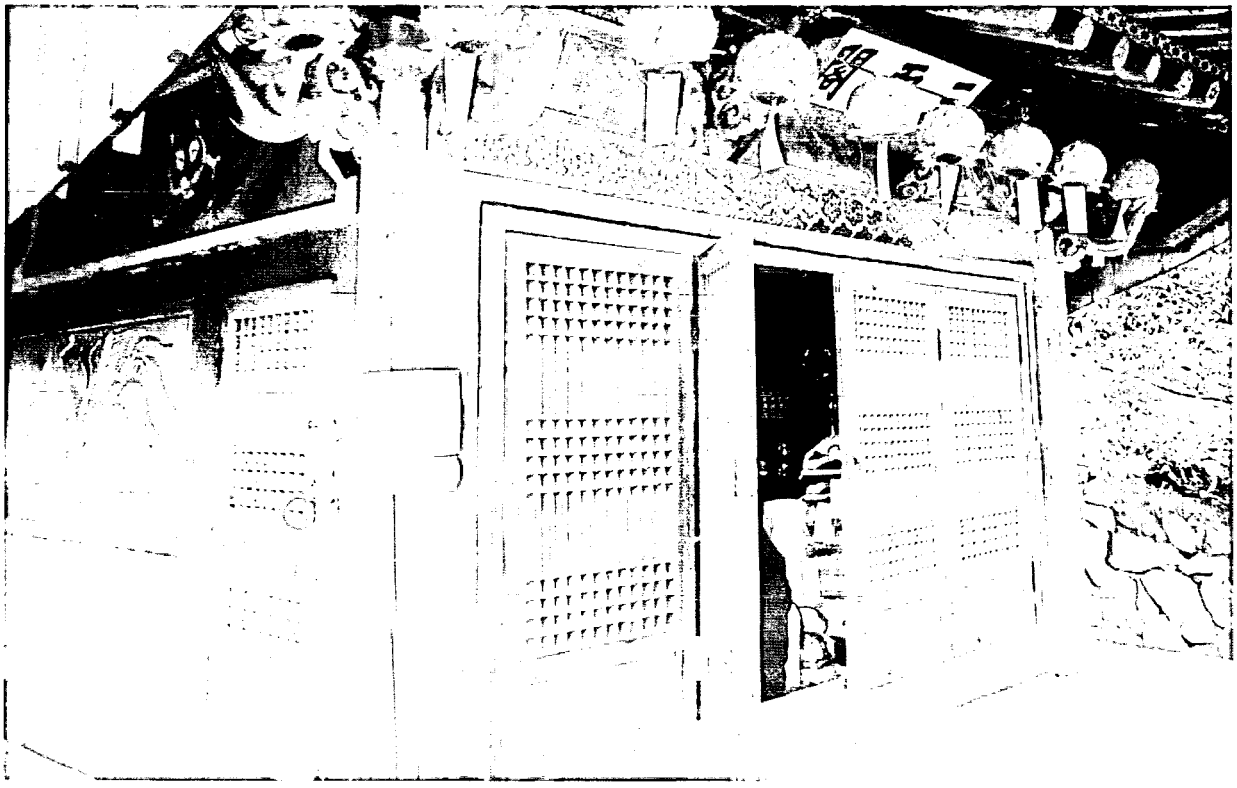
삼성각 좌측면



삼성각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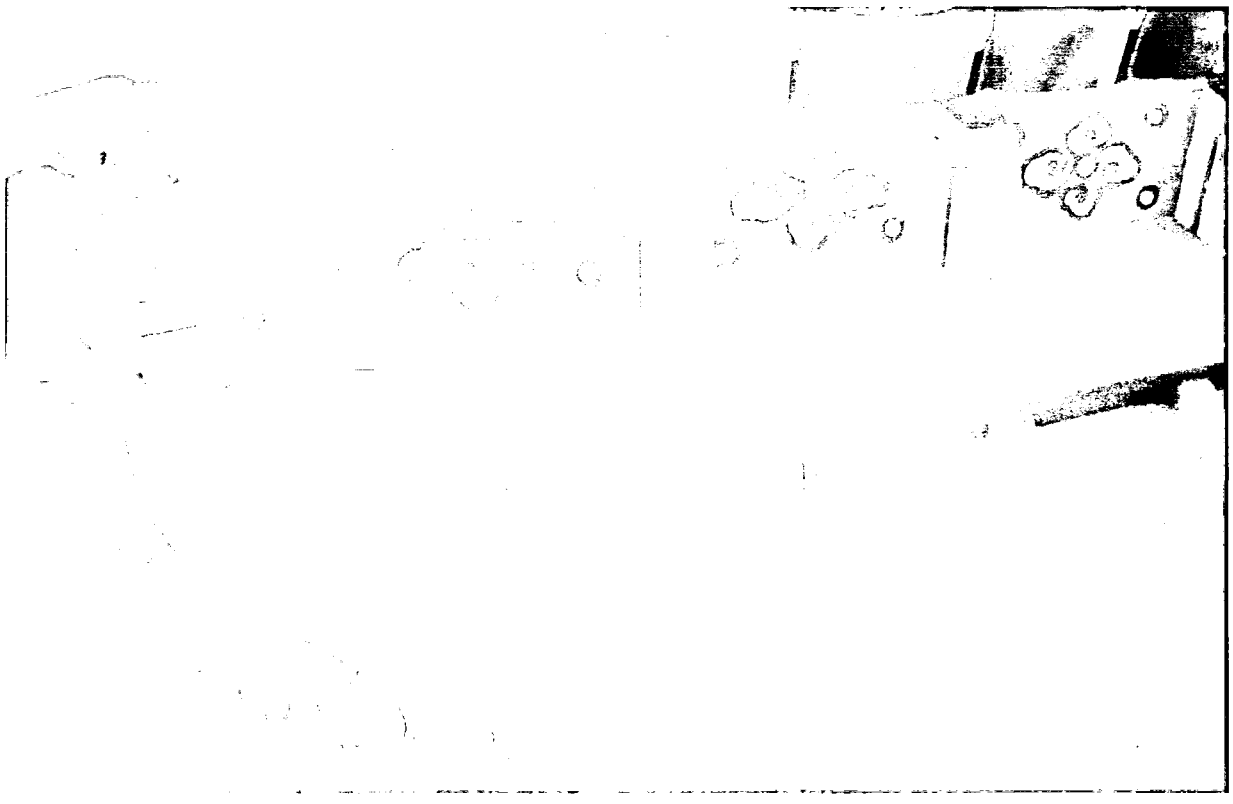


삼성각 정면 2번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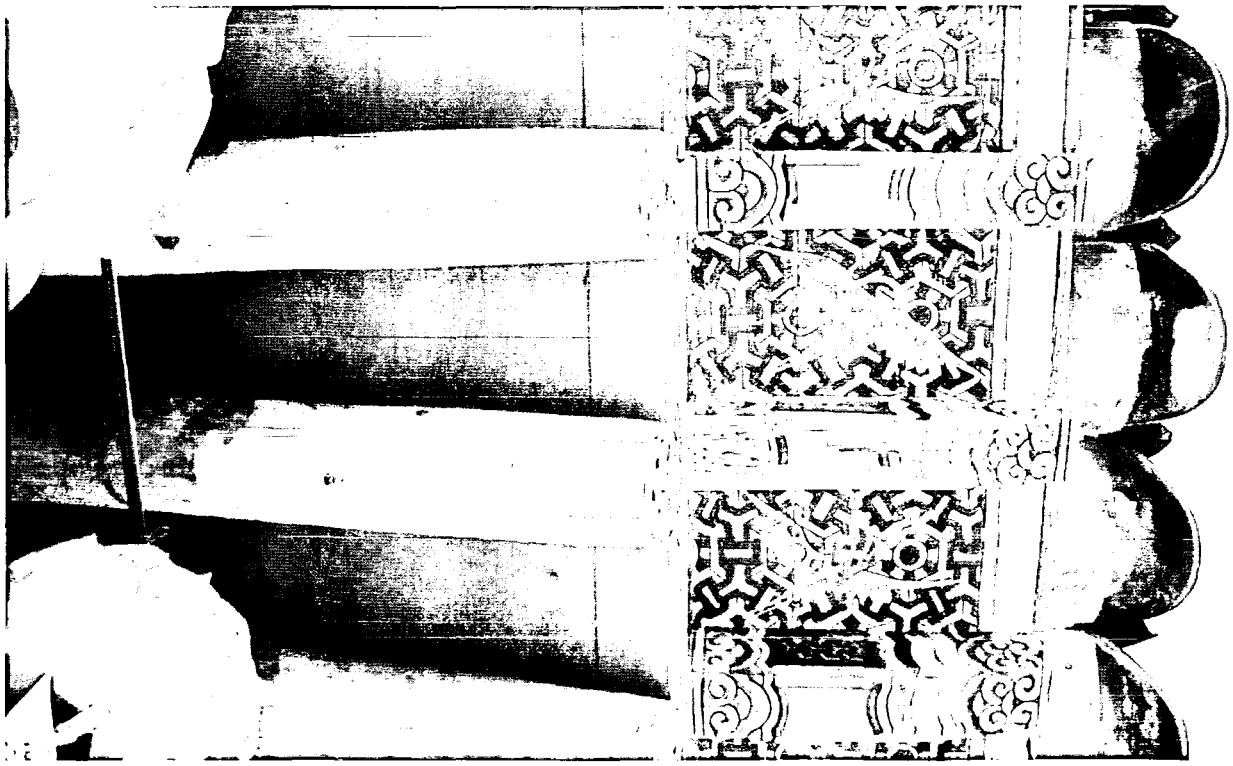


삼성각 정면 측면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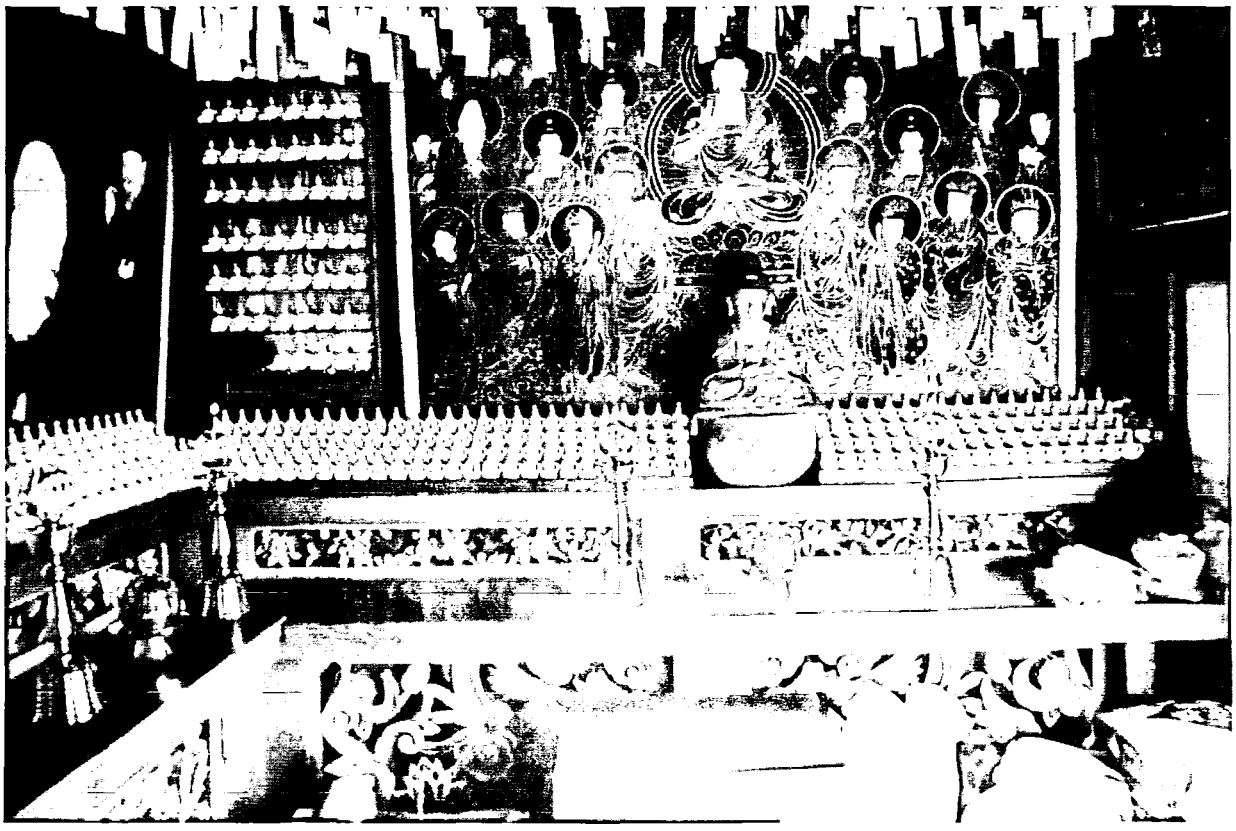
삼성각 박공내부



삼성각 박공 게눈각



삼성각 연목 및 부연



삼성각 내부 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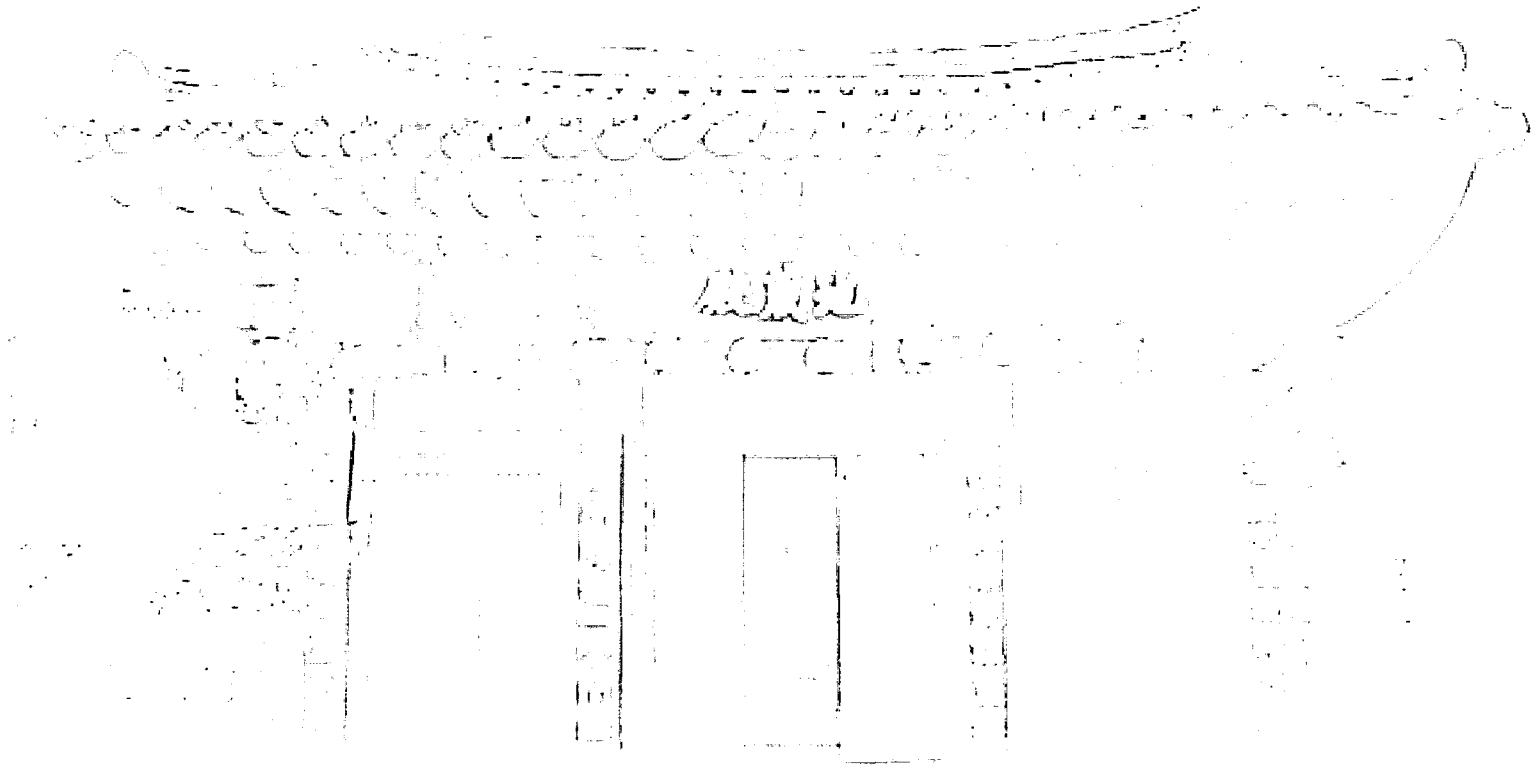
삼성각 숫막새와 암막새

삼성각 망와

여 백

부 록

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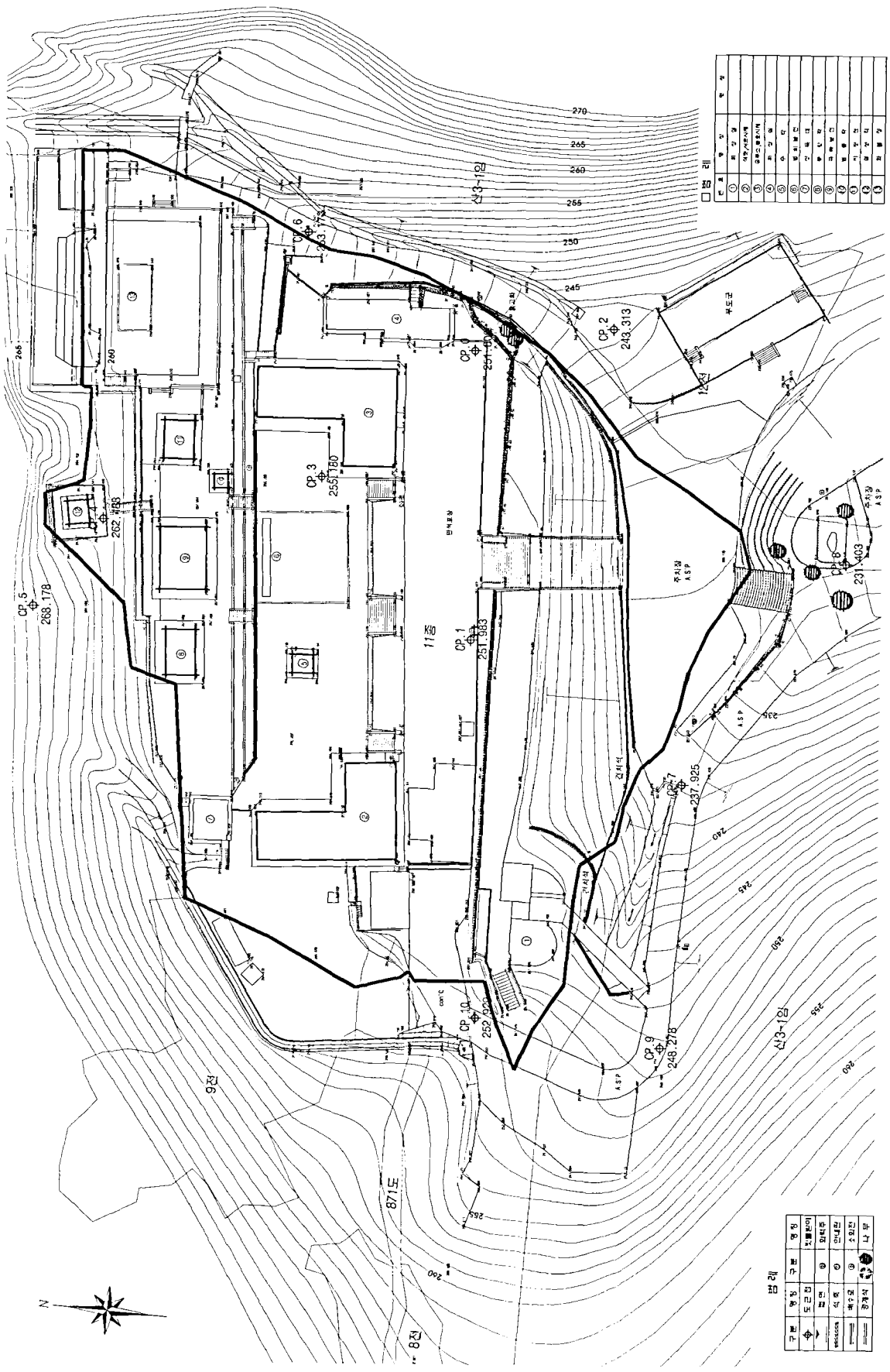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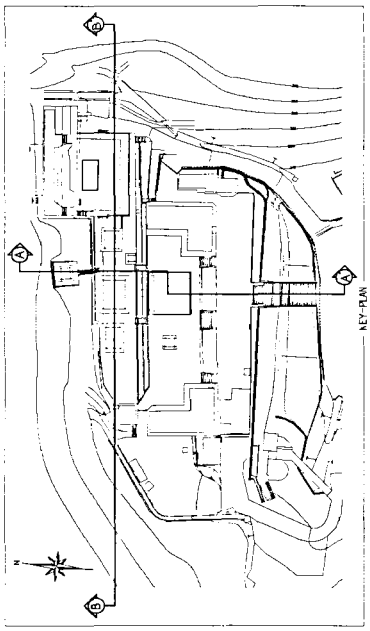
도면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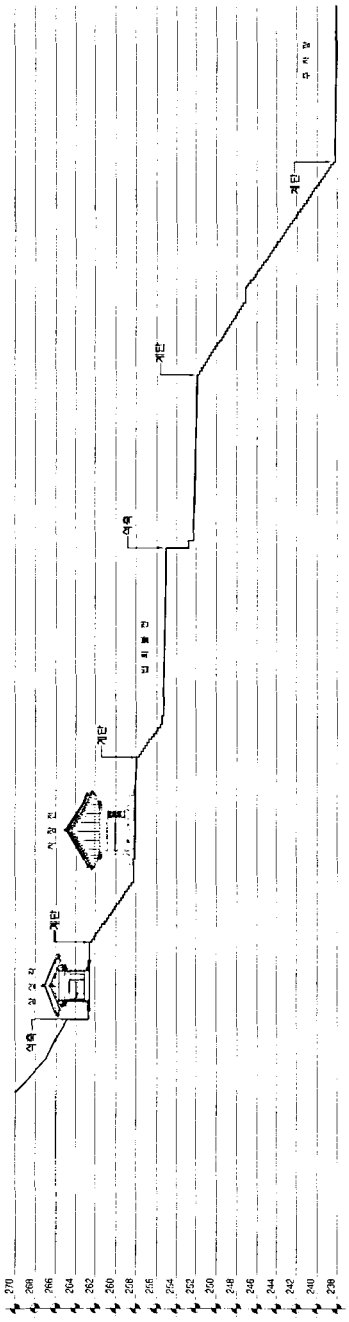
청계사 전체배치도 ····· 213
청계사 대지종횡단면도 ····· 214
지장전 수평기준선설정도 ····· 215
지장전 평면도 ····· 216
지장전 정면도 ····· 217
지장전 우측면도 ····· 218
지장전 좌측면도 ····· 219
지장전 배면도 ····· 220
지장전 종단면도 ····· 221
지장전 횡단면도 ····· 222
지장전 천장평면도 ····· 223
지장전 지붕평면도 ····· 224
지장전 기단실측도1 ····· 225
지장전 기단실측도2 ····· 226
지장전 초석실측도 ····· 227
지장전 기둥실측도1 ····· 228
지장전 기둥실측도2 ····· 229
지장전 주칸거리실측도(하부) ····· 230
지장전 주칸거리실측도(상부) ····· 231
지장전 기둥기울기실측도1 ····· 232
지장전 기둥기울기실측도2 ····· 233
지장전 기둥귀솟음실측도1 ····· 234
지장전 기둥귀솟음실측도2 ····· 235
지장전 기둥귀솟음실측도3 ····· 236
지장전 WD-1,2창호 및 철물상세도 ····· 237
지장전 WD-3, 4 창호 및 철물상세도 ····· 238
지장전 창방변위도 ····· 239
지장전 대량실측도1 ····· 240

지장전 대량실측도2 ····· 241
지장전 익공실측도 ····· 242
지장전 첨차실측도 ····· 243
지장전 운공, 화반, 보아지실측도 ····· 244
지장전 주두, 소로실측도 ····· 245
지장전 정면 연목, 부연실측도 ····· 246
지장전 배면 연목, 부연실측도 ····· 247
지장전 앙곡실측도 ····· 248
지장전 안허리곡실측도 ····· 249
지장전 박공실측도1 ····· 250
지장전 박공실측도2 ····· 251
지장전 용마루곡실측도 ····· 252
지장전 내림마루곡실측도 ····· 253
지장전 지붕곡실측도 ····· 254
지장전 주련실측도 ····· 255
지장전 현판실측도 ····· 256
지장전 기와실측도 ····· 257
삼성각 수평기준선설정도 ····· 258
삼성각 평면도 ····· 259
삼성각 정면도 ····· 260
삼성각 우측면도 ····· 261
삼성각 좌측면도 ····· 262
삼성각 배면도 ····· 263
삼성각 종단면도 ····· 264
삼성각 횡단면도 ····· 265
삼성각 천장평면도 ····· 266
삼성각 지붕평면도 ····· 267
삼성각 기단실측도1 ····· 268
삼성각 기단실측도2 ····· 269
삼성각 초석실측도 ····· 270
삼성각 주칸거리실측도(하부), (상부) ····· 271
삼성각 기둥기울기실측도1, 2 ····· 272
삼성각 기둥귀솟음실측도1 ·····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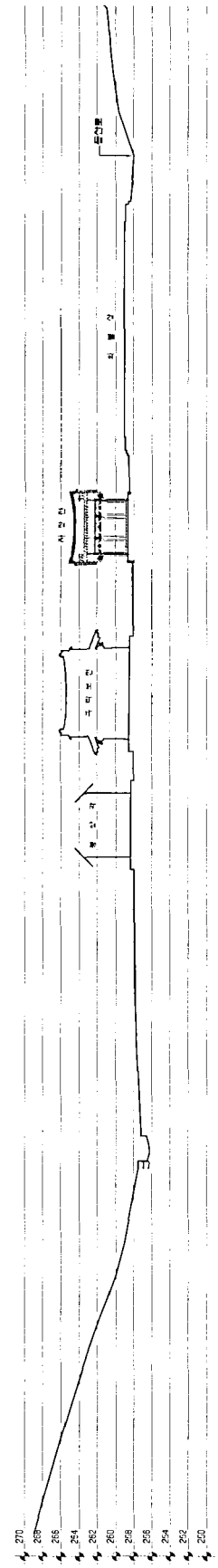
삼성각 기둥귀솟음실측도2 ····· 274
삼성각 기둥귀솟음실측도3 ····· 275
삼성각 기둥실측도 ····· 276
삼성각 WD-1,2창호 및 철물상세도 ····· 277
삼성각 대량실측도 ····· 278
삼성각 익공실측도 ····· 279
삼성각 첨차실측도 ····· 280
삼성각 운공, 화반, 보아지실측도 ····· 281
삼성각 주두, 소로실측도 ····· 282
삼성각 정면 연목, 부연실측도 ····· 283
삼성각 배면 연목, 부연실측도 ····· 284
삼성각 앙곡실측도 ····· 285
삼성각 안허리곡실측도 ····· 286
삼성각 박공실측도1 ····· 287
삼성각 박공실측도2 ····· 288
삼성각 용마루곡실측도 ····· 289
삼성각 내림마루곡실측도 ····· 290
삼성각 지붕곡실측도 ····· 291
삼성각 현판실측도 ····· 292
삼성각 기와실측도 ····· 293


청계사 배치평면도
범례
구분 명칭 구분 명칭
도로경계 보호수
등고선 외삼문
식생 연화문
복개천 소원전
공개지 나무
N
871도
8천
6천
산3-1임
CP.1 251.983
CP.2 243.313
CP.3 255.180
CP.4 262.488
CP.5 268.178
CP.6 263.172
CP.7 237.925
CP.8 231.403
CP.9 248.278
CP.10 252.922
11칸
부도군
주차장 ASP
건너서
0
7.5
15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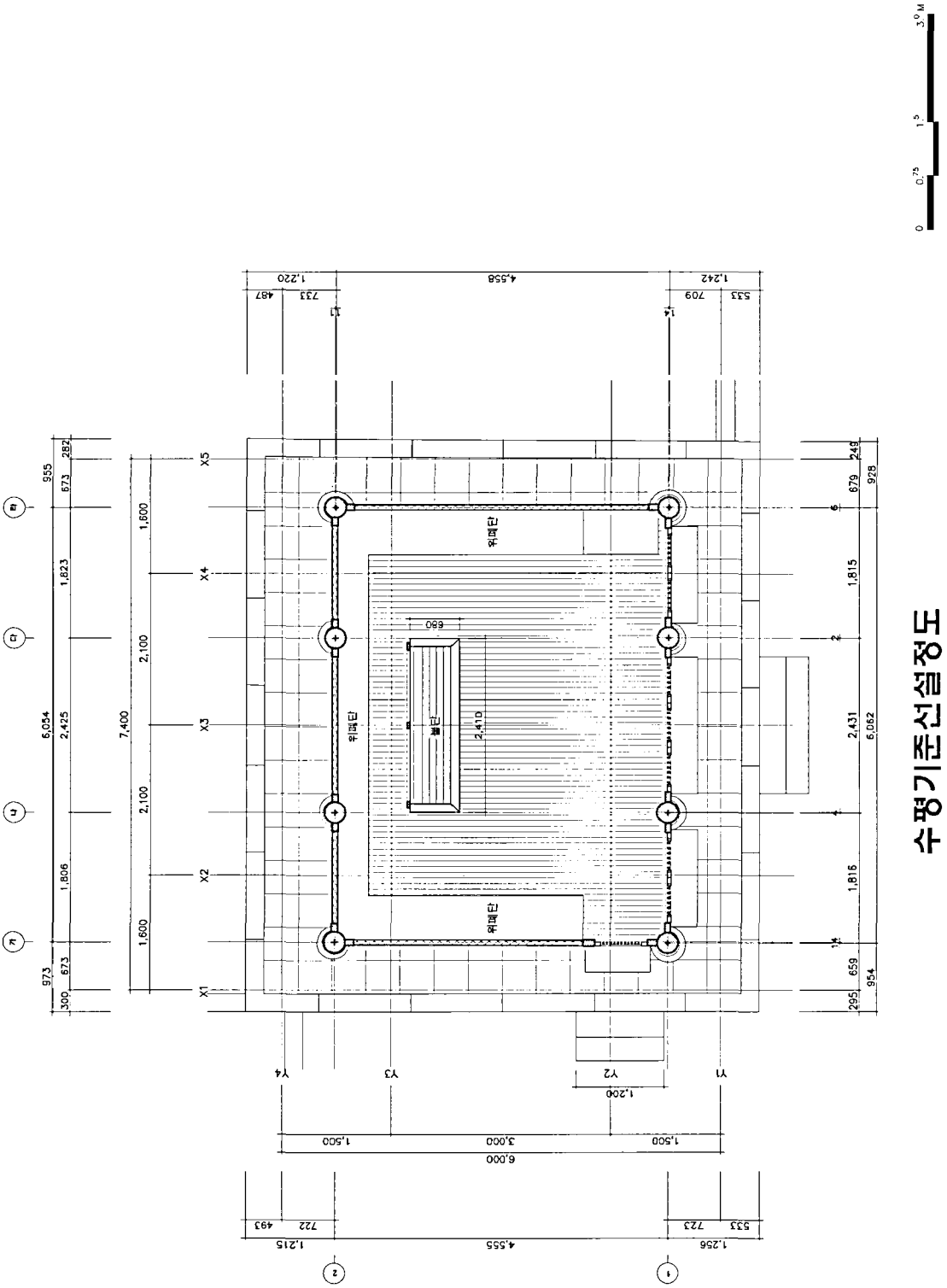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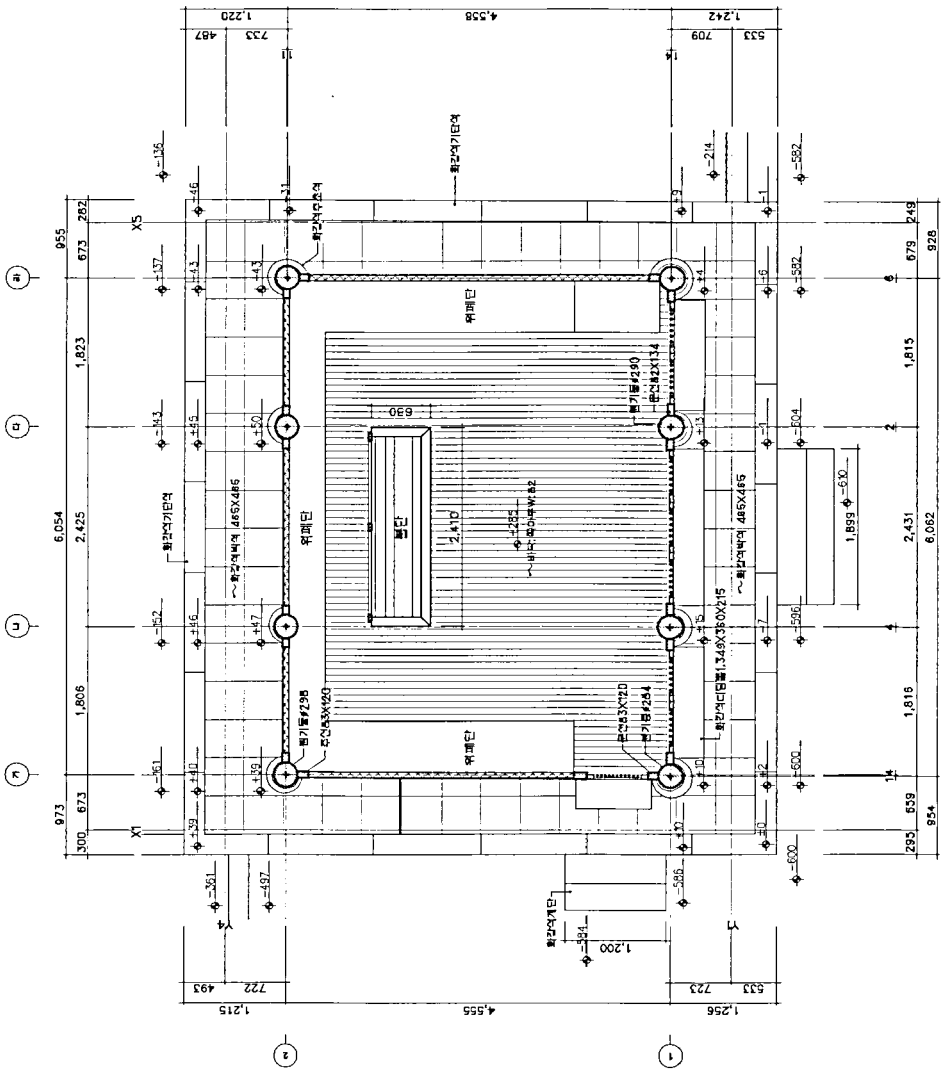


A~A' 대지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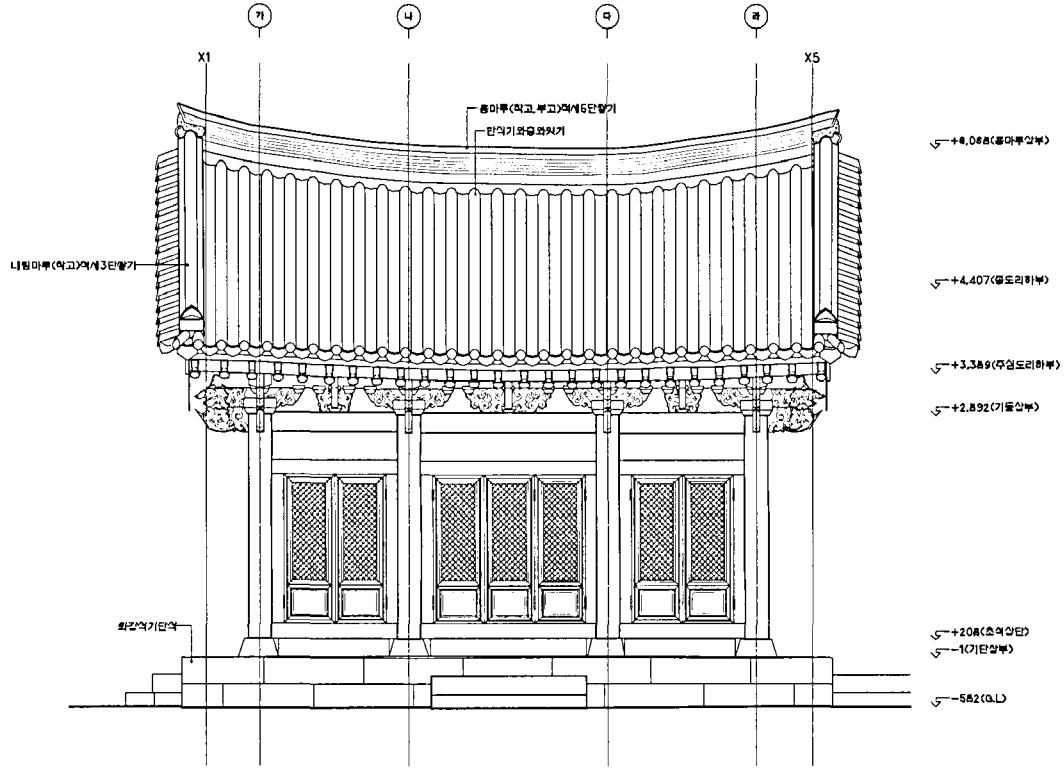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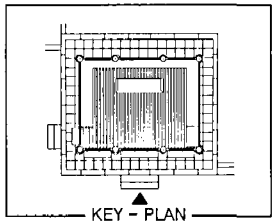
B~B' 대지단면도


0
0.75
1.5
3.0 M
수평기준선설정도
휘메탄
휘메탄
휘메탄
680
2,410
X1
X2
X3
X4
X5
Y1
Y2
Y3
Y4
1,600
2,100
2,100
1,600
7,400
6,000
1,500
3,000
1,500
1,200
4,558
1,220
733
487
1,242
709
533
4,555
1,215
722
493
1,256
723
533
6,054
955
673
282
2,425
1,823
1,806
973
673
300
928
679
249
1,815
2,431
1,816
954
659
295
6,062



지장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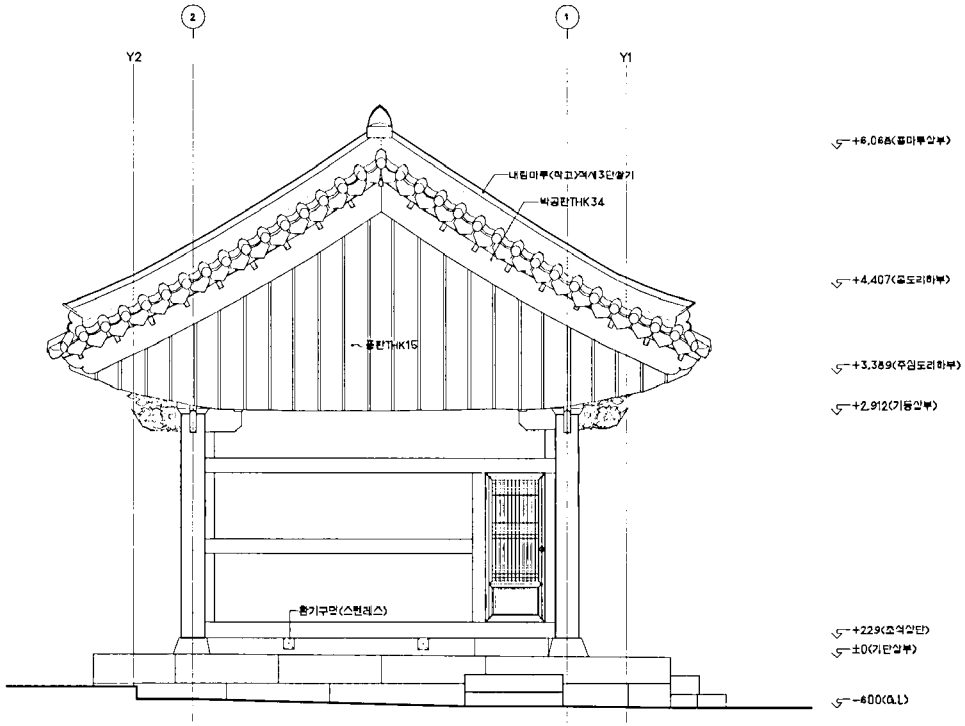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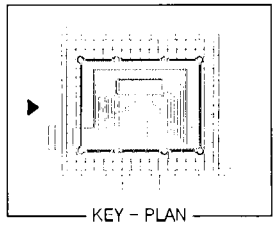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정면기단좌측상부)

지장전 정면도

0 0.75 1.5 3.0 M

지장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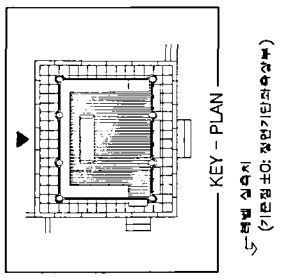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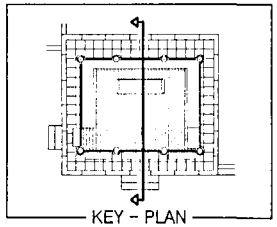
레벨 설정치
(기준점 ±0: 설연기단좌측상부)

지장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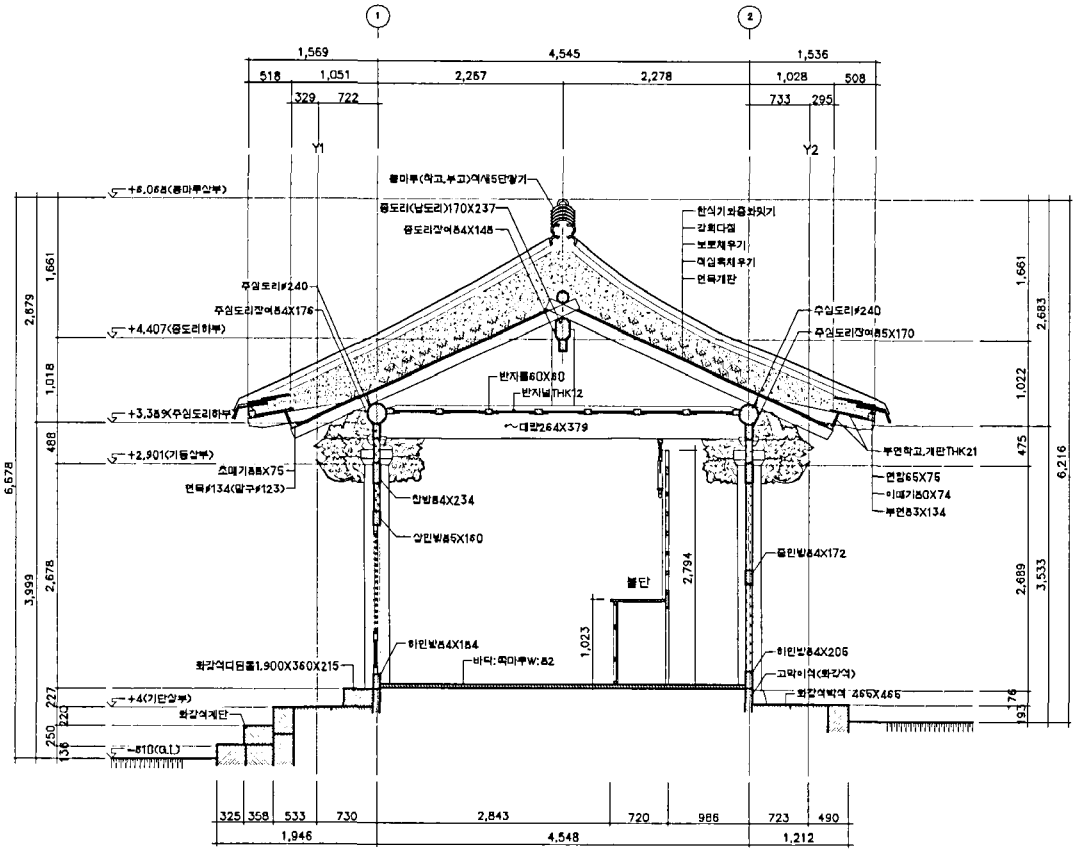
0 0.75 1.5 3.0 M



지장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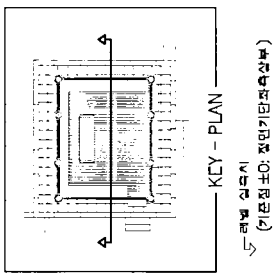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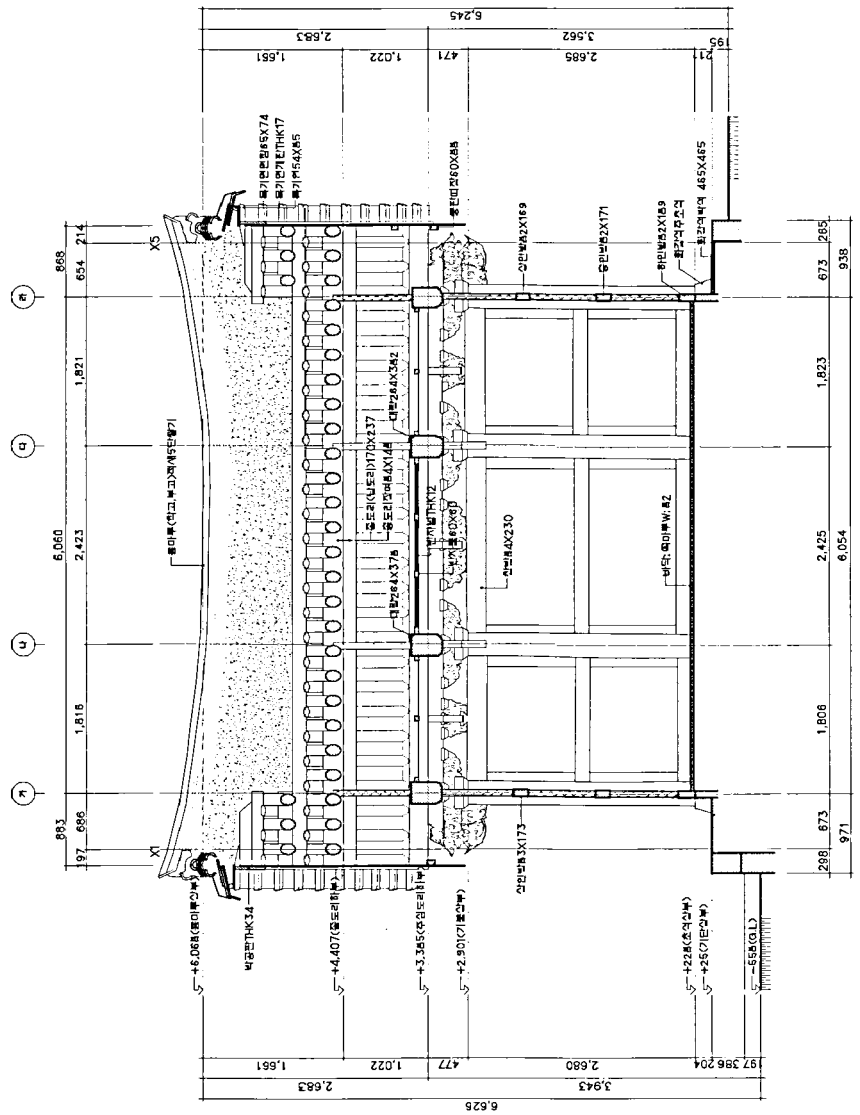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절면기단좌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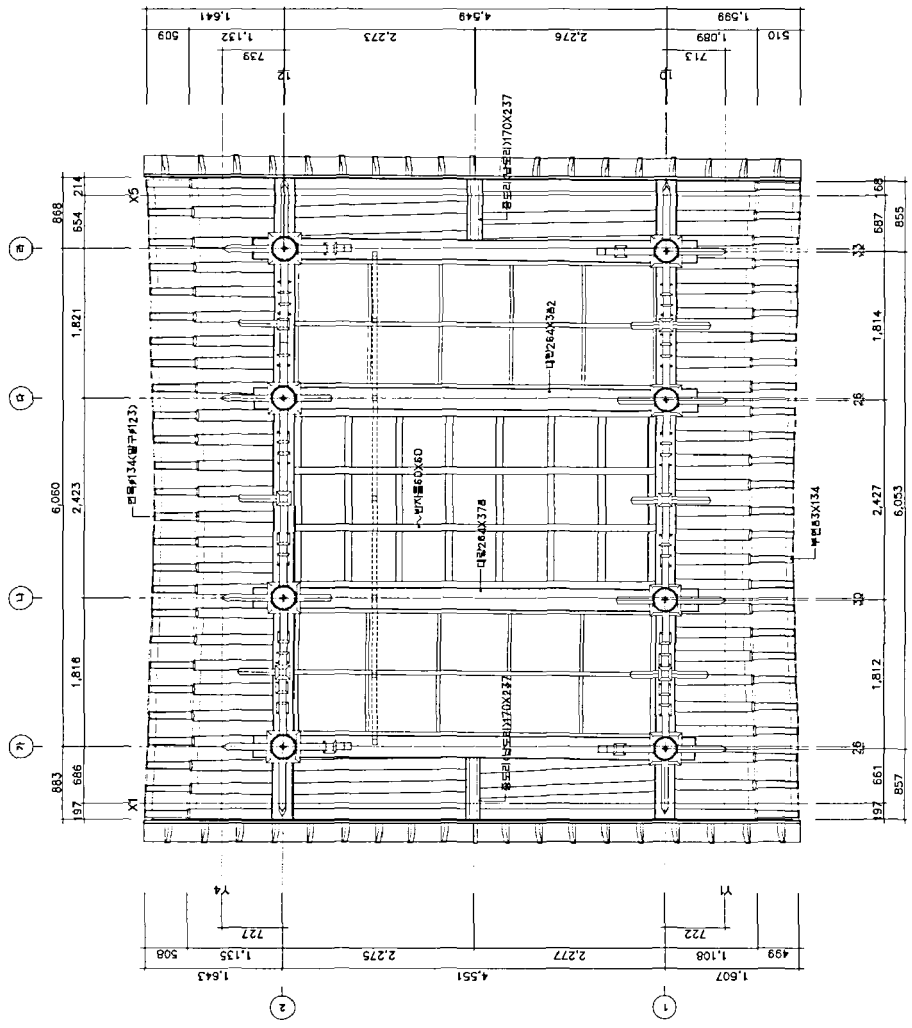
지장전 중단면도

0 0.75 1.5 3.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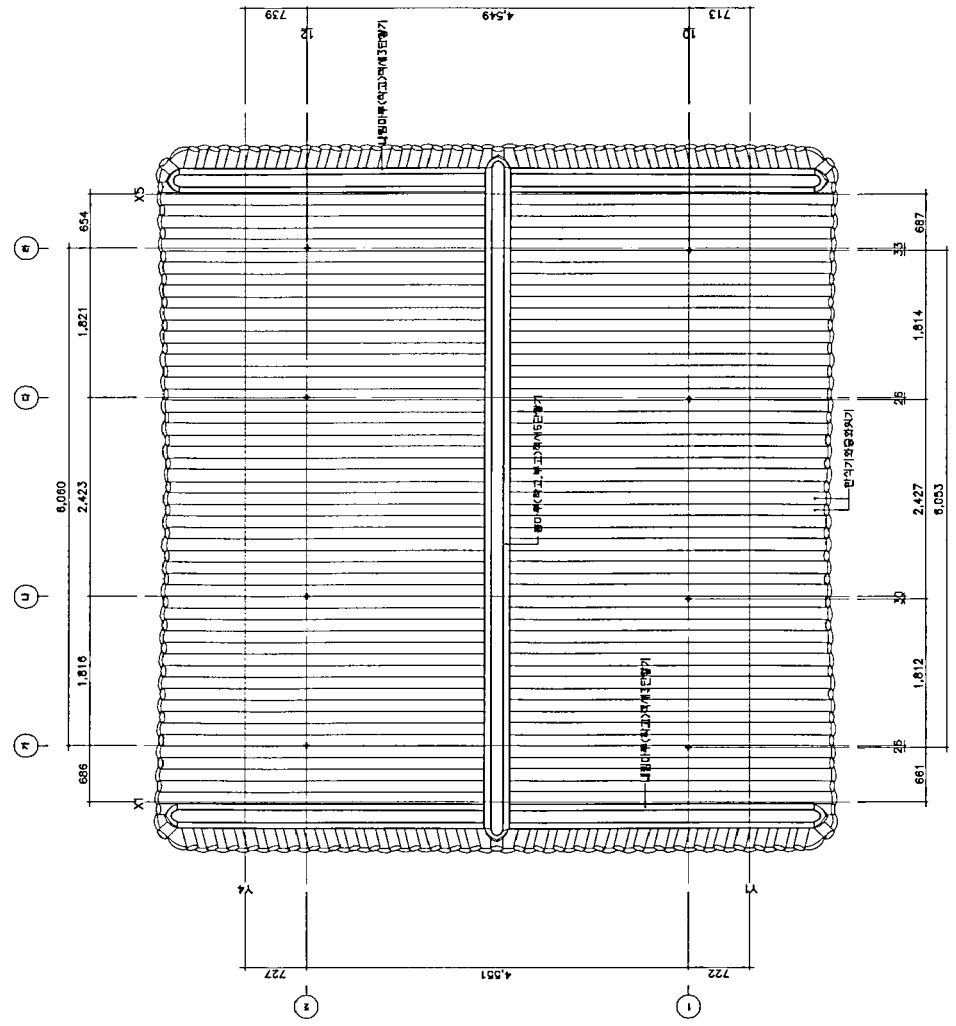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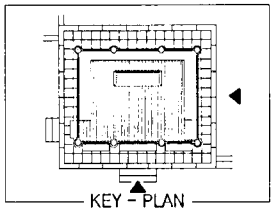
지장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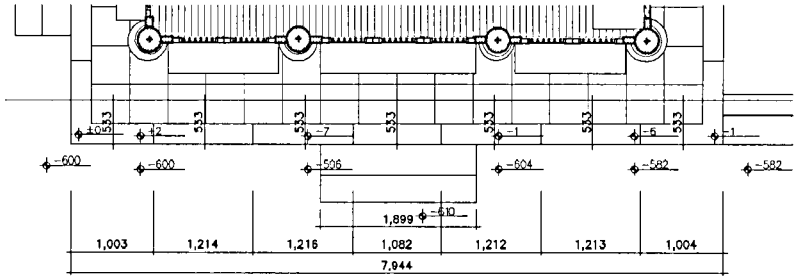
지장전 천장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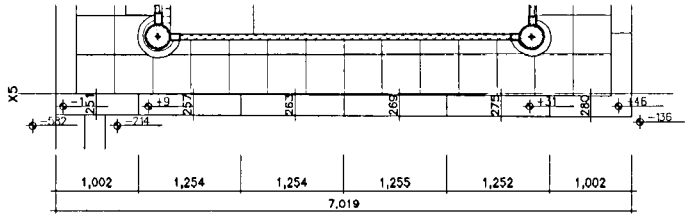
지장전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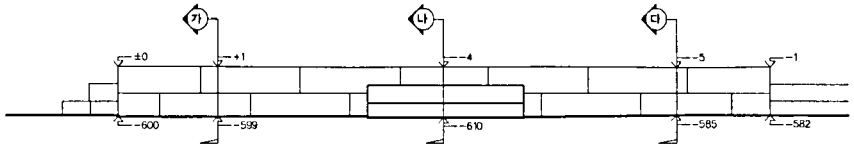
레벨 실측치
(기준점 ±0점은 기단좌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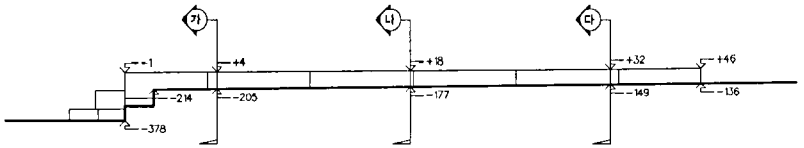
정면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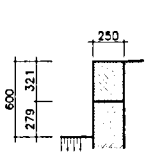
우측면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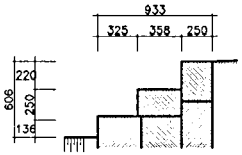
정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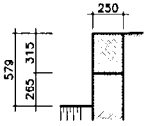
우측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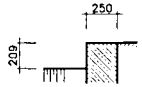
"가"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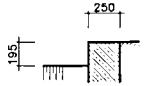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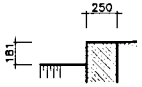
"다" 단면



"가"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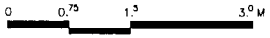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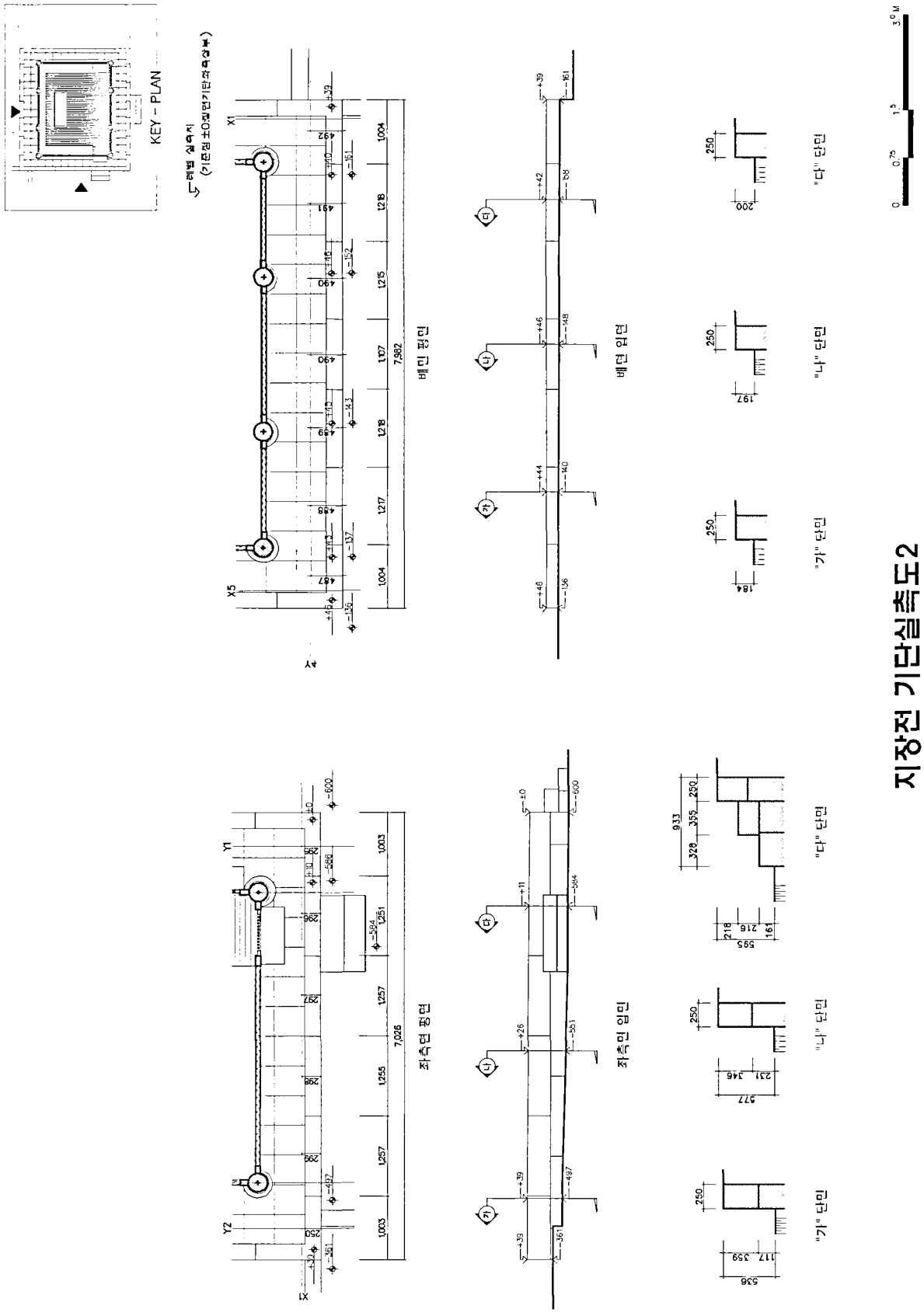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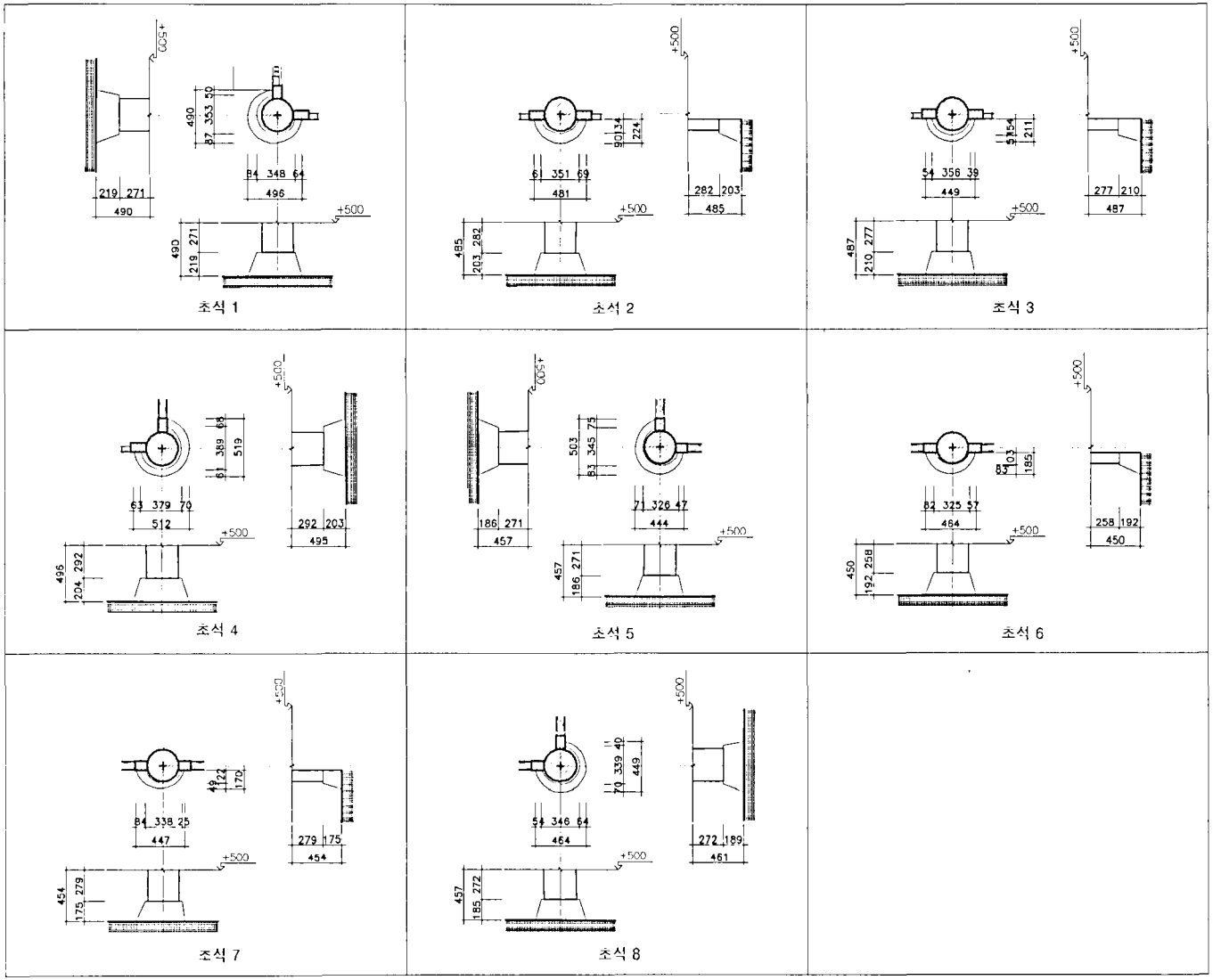
"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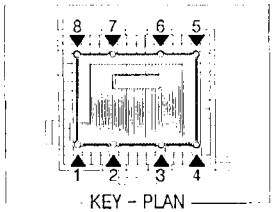
지장전 기단실측도1




KEY - PLAN
기단 상단 레벨 설정치
(기준점 ±0.00m 기단 적심 상부)
베면 평면
베면 입면
"가" 단면
"나" 단면
"다" 단면
"라" 단면
좌측면 평면
좌측면 입면
"가" 단면
"나" 단면
"다" 단면
0
0.75
1.5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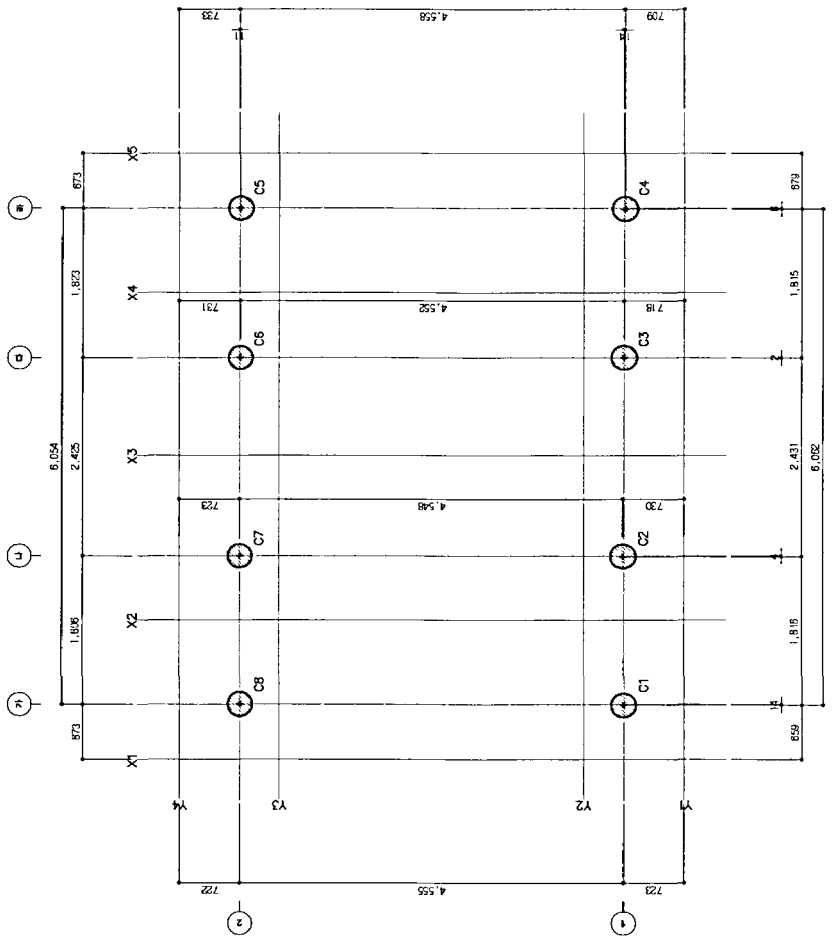
지장전 기단실측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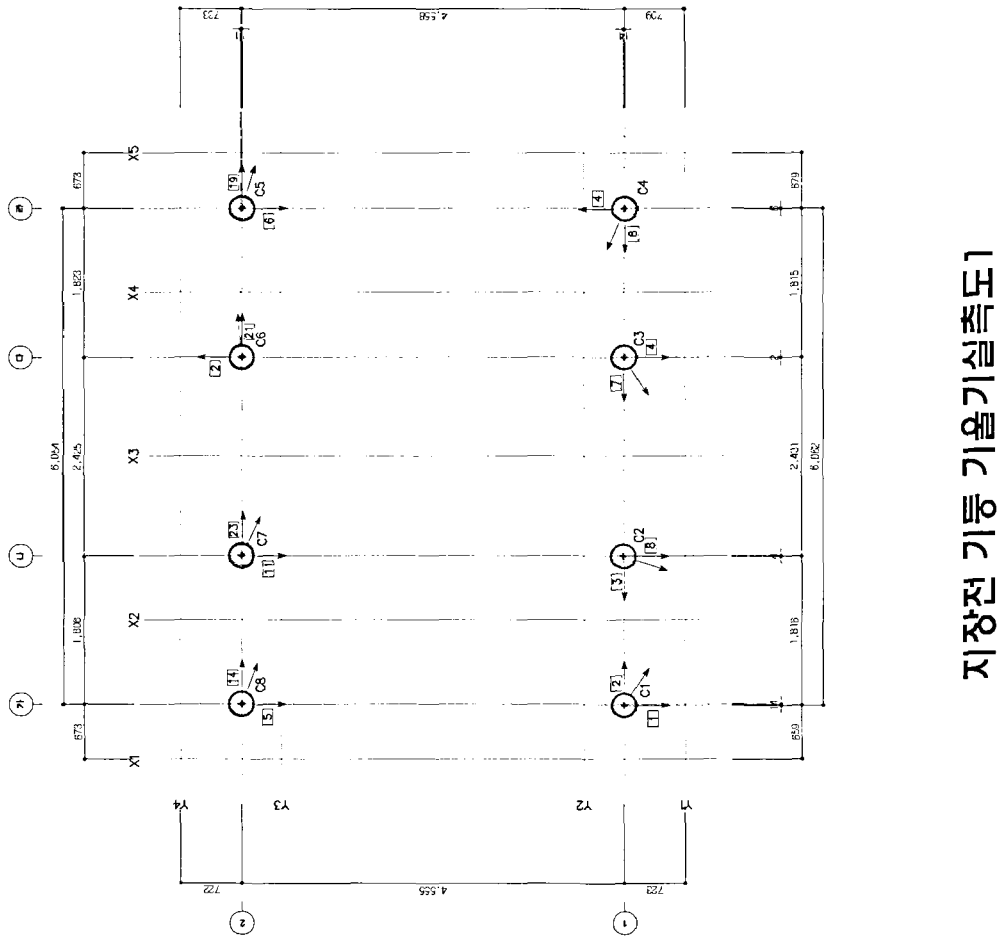
지장전 초석실측도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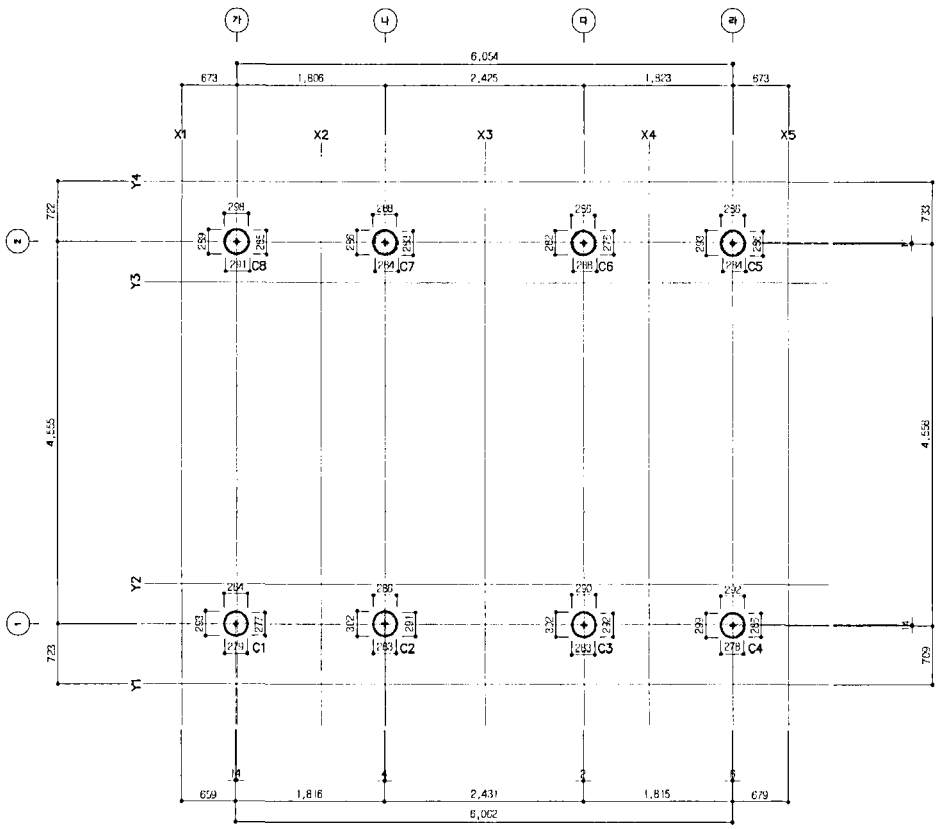


지장전 주칸거리실측도(하부)

지장전 주칸거리실측도(상부)



지장전 기둥 기울기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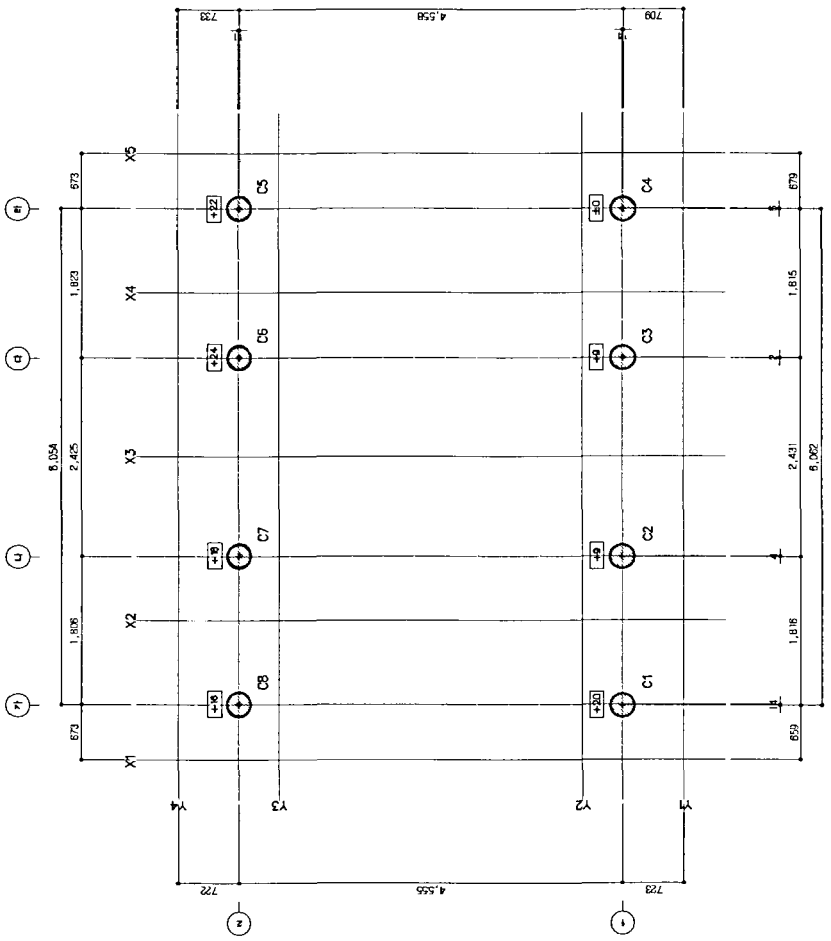


○ 기둥 상부(기준면±0에서 2,900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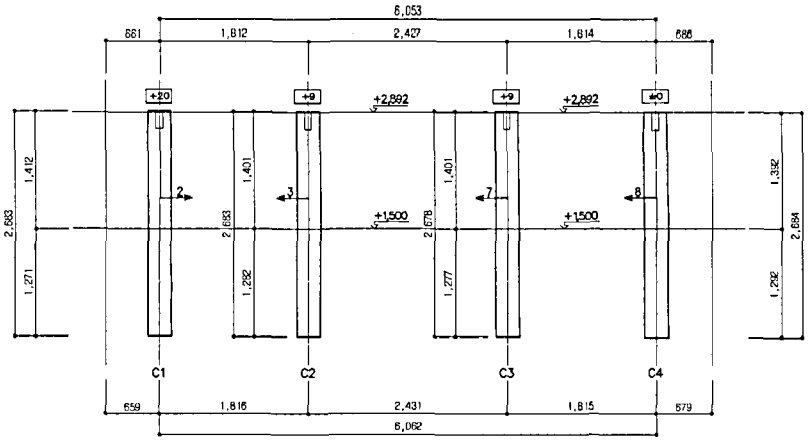
○ 기둥 하부(기준면±0에서 500지점)

0 0.75 1.5 3.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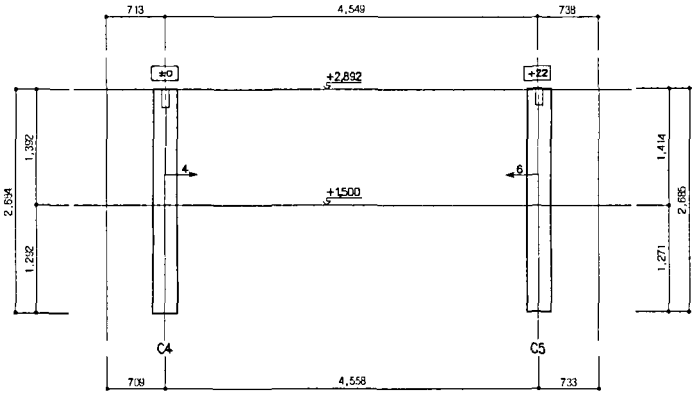
지장전 기둥 기울기실측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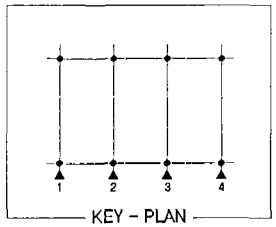
지장전 기둥 귀솟음실측도1



정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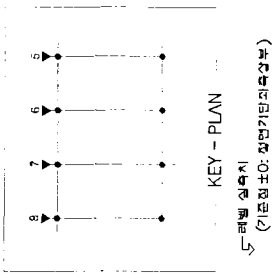
우 측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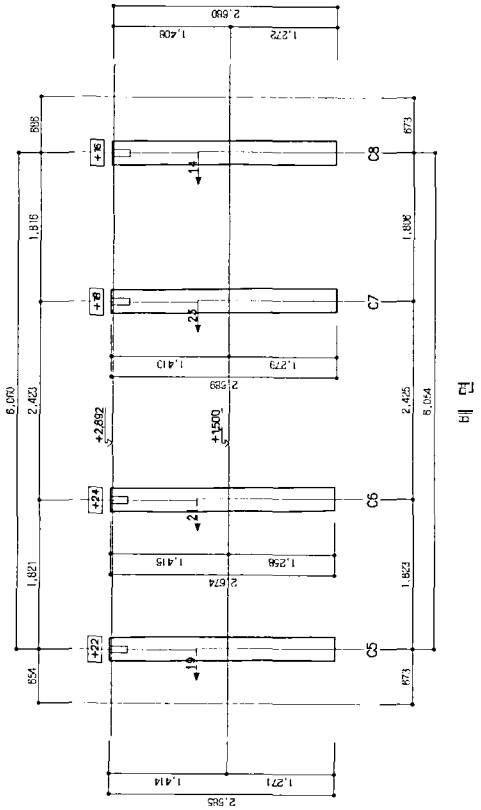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정면기단좌욕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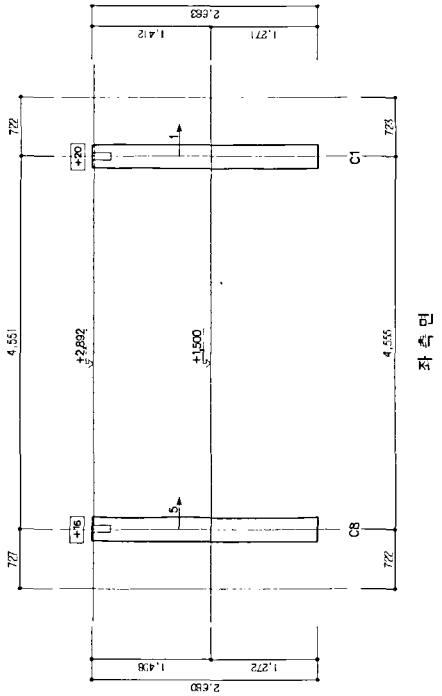
지장전 기둥 귀솟음실측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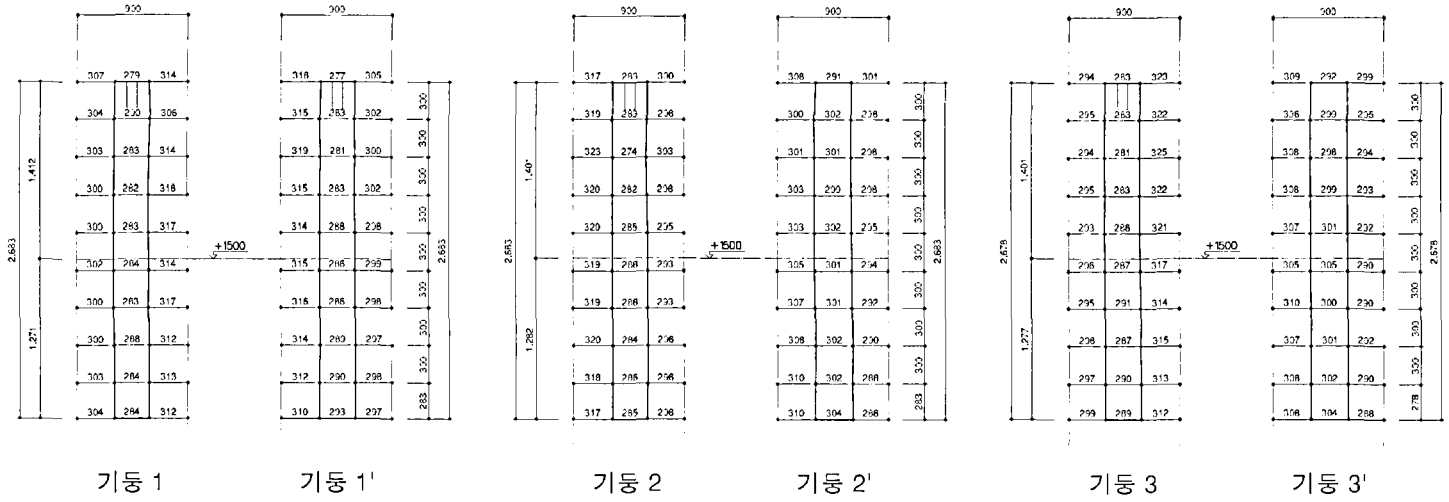
0 0.75 1.5 3.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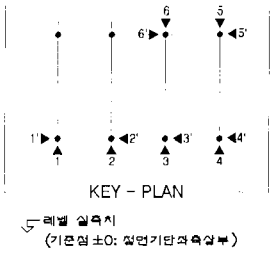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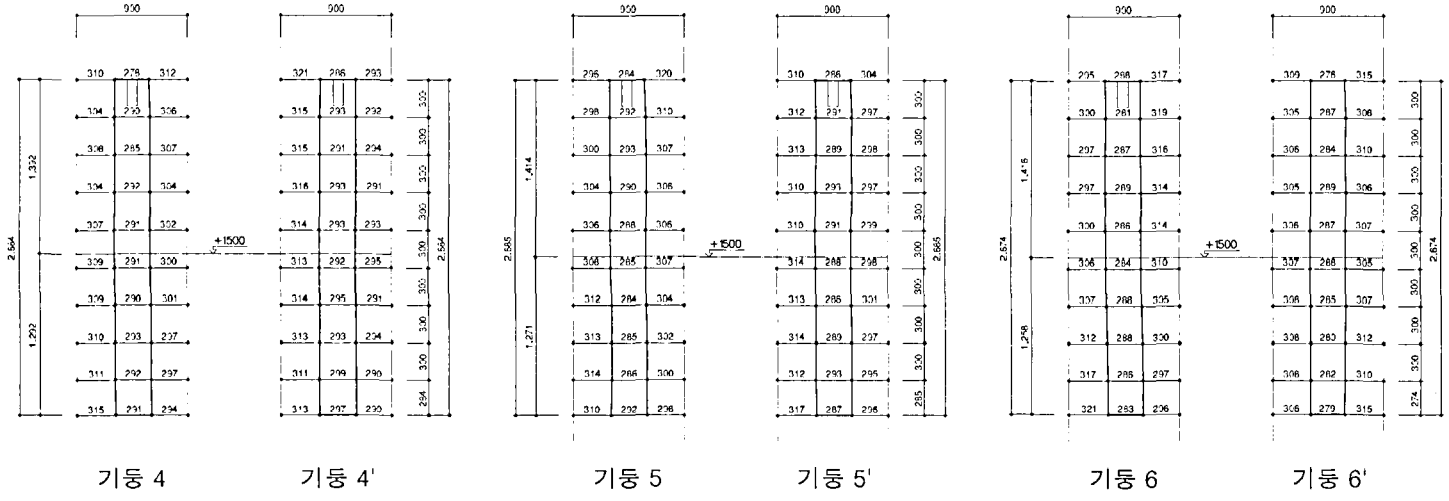
지장전 기둥 귀솟음실측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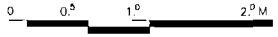



900
+1500
기둥 1
기둥 1'
기둥 2
기둥 2'
기둥 3
기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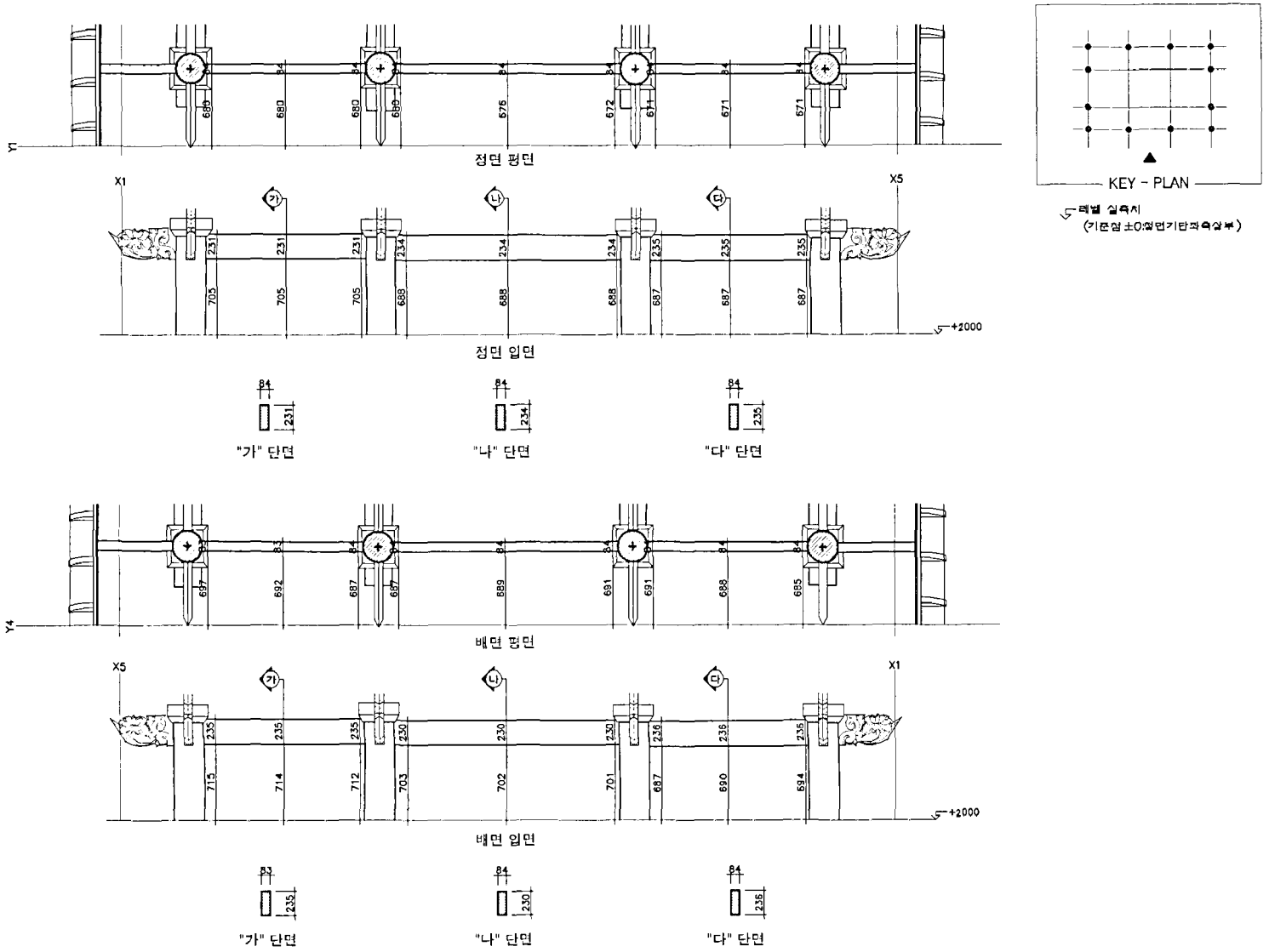

KEY - PLAN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접합기단좌측상부)


900
+1500
기둥 4
기둥 4'
기둥 5
기둥 5'
기둥 6
기둥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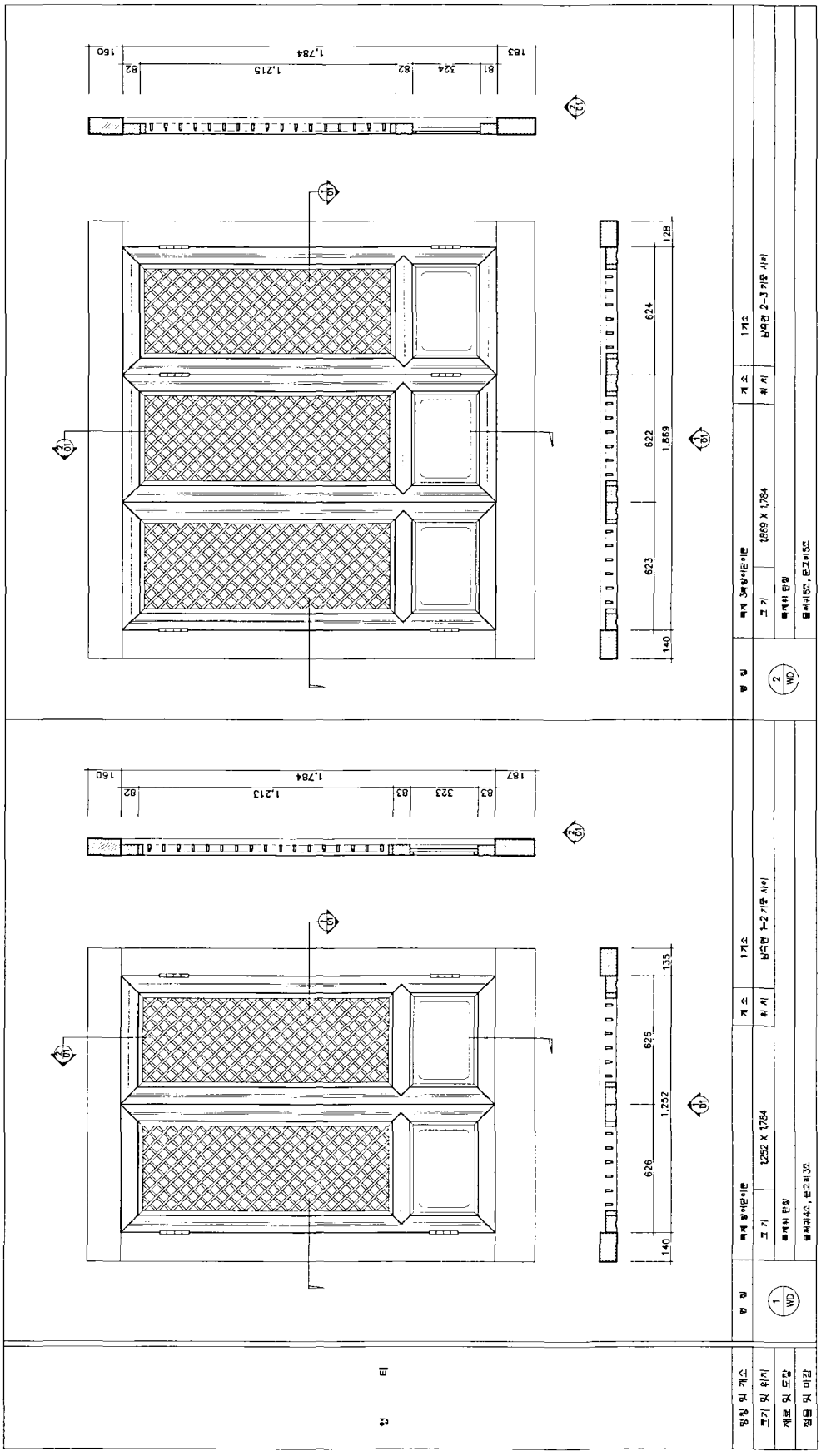
지장전 기둥실측도1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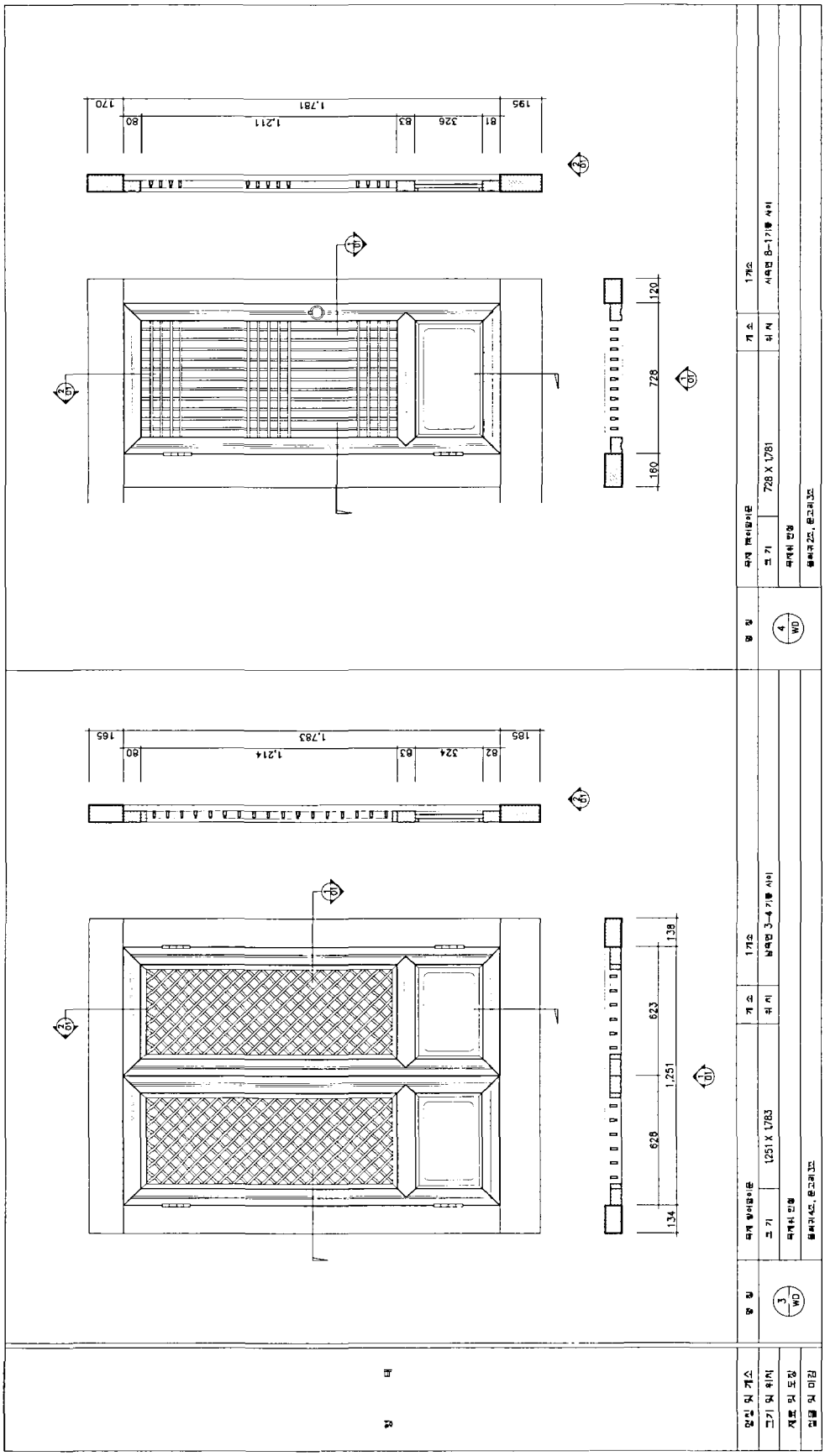
지장전 기둥실측도2


Y1
정면 평면
X1
X5
가
나
다
+2000
정면 입면
"가" 단면
"나" 단면
"다" 단면
Y4
배면 평면
배면 입면
KEY - PLAN
레벨 설정시
(기준점 ±0:정면기단좌측상부)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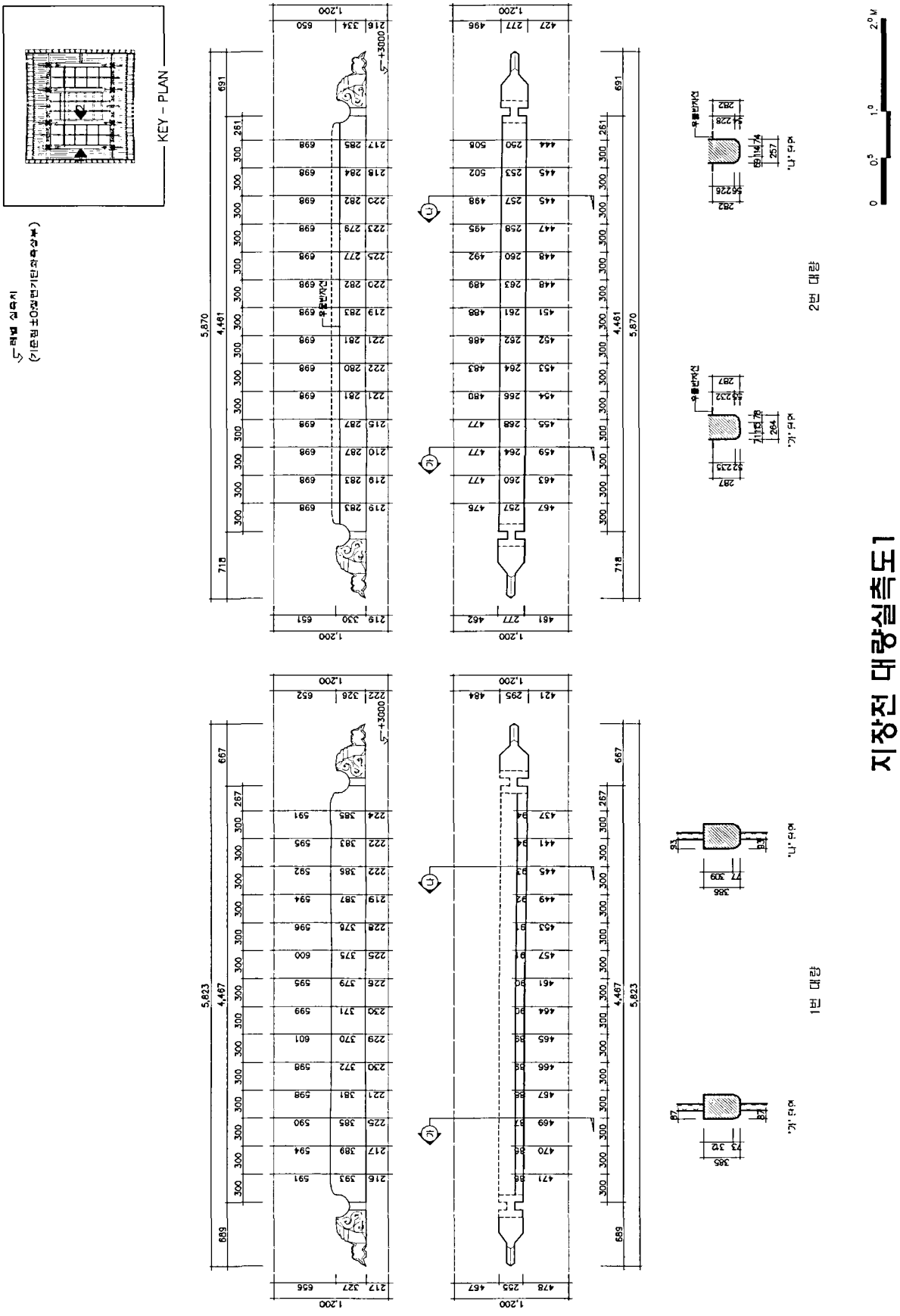
지장전 창방변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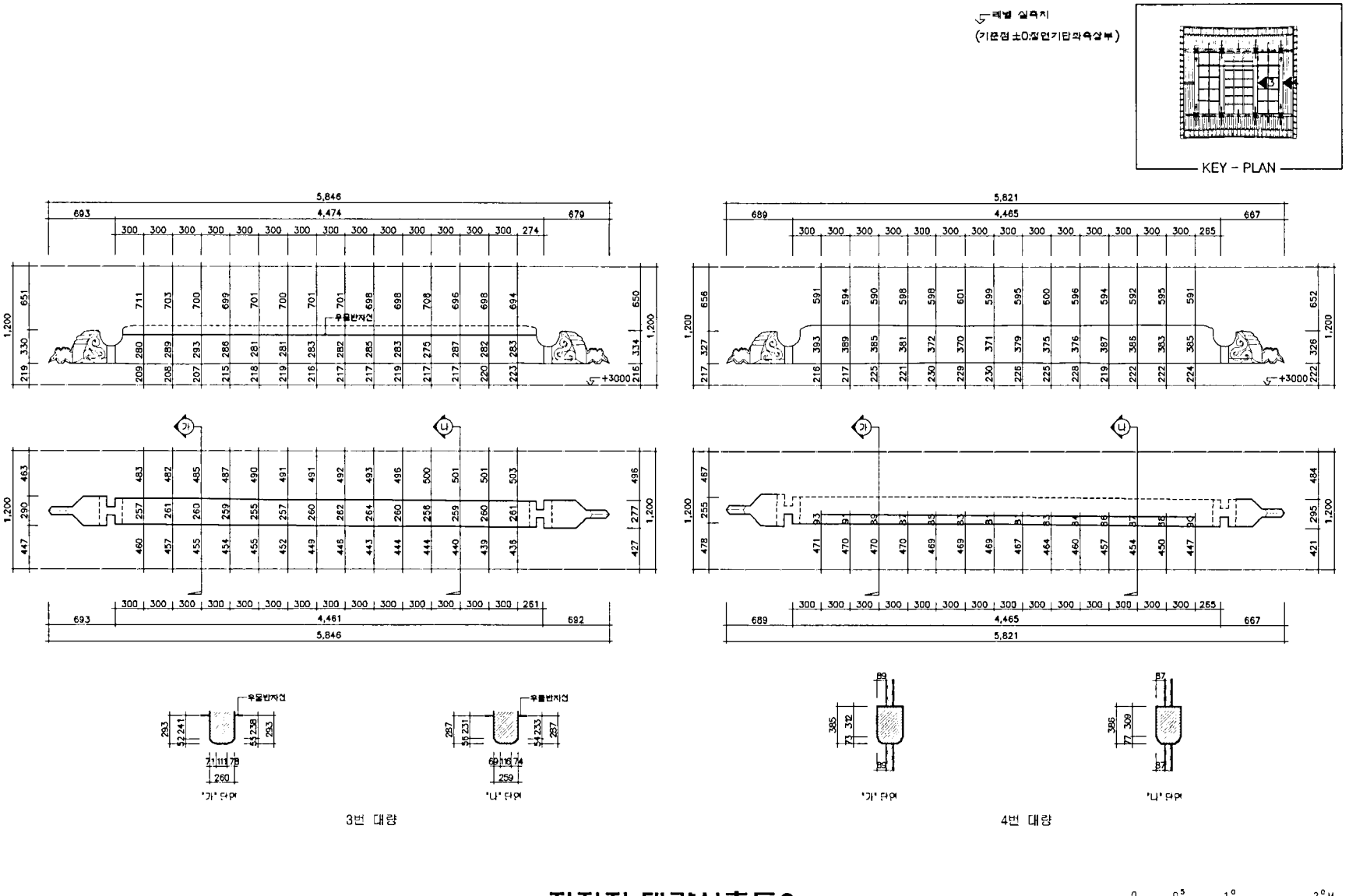


지장전 WD-1, 2 창호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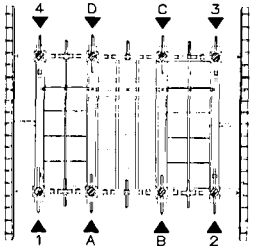
지장전 WD-3, 4 창호상세도


지장전 대량실측도1
KEY - PLAN
2번 대갑
1번 대갑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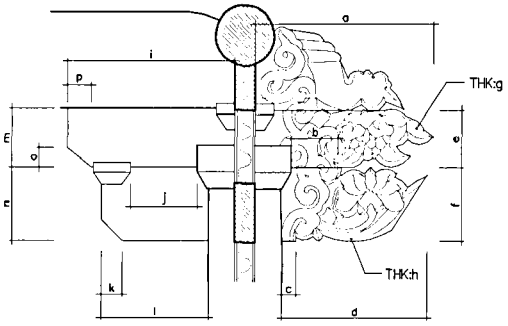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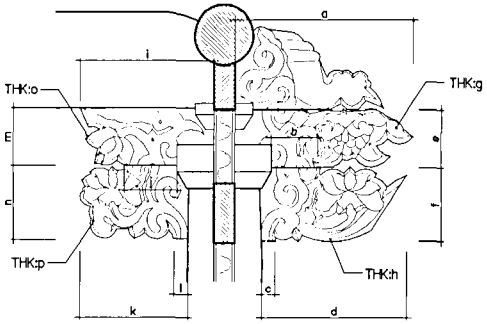
지장전 대량실측도2

0 0.5 1.0 2.0 M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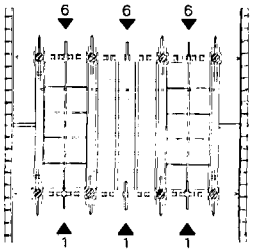


■ 주심도리익공 실측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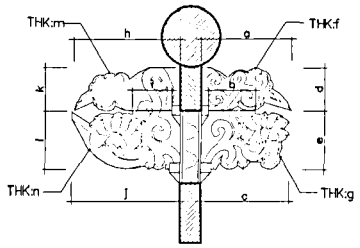
(단위:mm)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755	161	32	604	230	288	83	87	680	284	86	150	234	276	78	96
2	754	162	24	594	235	289	82	83	690	285	86	111	238	286	84	88
3	716	159	27	596	227	290	81	84	684	281	86	113	226	295	88	85
4	750	163	24	583	232	282	84	83	687	287	83	118	231	290	81	87
A	736	161	27	591	228	280	86	83	543	185	110	22	227	289	84	83
B	754	163	28	603	230	292	85	85	540	195	115	25	230	288	83	83
C	752	167	18	613	225	295	81	83	540	190	137	27	229	288	84	83
D	750	170	25	604	230	288	83	85	538	185	130	24	230	291	80	82

익공실측도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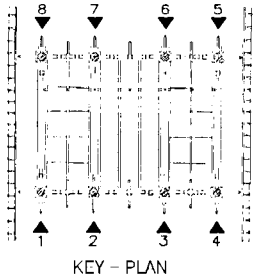
■ 주심도리익공 실측 조사표

(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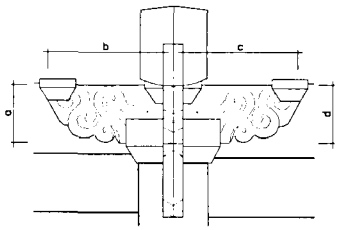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	180	170	177	174	228	83	82	354	82	375	172	229	83	84
2	183	157	503	174	229	83	84	367	70	358	168	230	84	82
3	178	185	193	170	229	82	81	381	85	368	174	232	82	82
4	164	166	197	173	235	84	81	-	-	-	-	-	-	-
5	171	154	198	171	235	83	82	-	-	-	-	-	-	-
6	163	153	196	173	232	83	80	-	-	-	-	-	-	-

운공실측도

0 0.25 0.5 1.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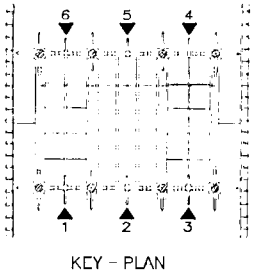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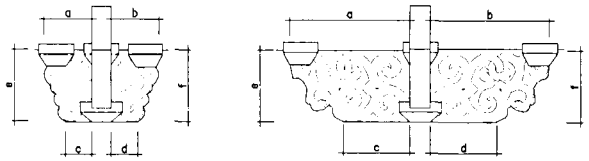
■첨차 실측 조사표 (단위:mm)

구분	a	b	c	d
1	-	-	170	225
2	228	168	177	277
3	228	170	176	231
4	225	168	-	-
5	-	-	173	227
6	225	165	175	227
7	237	168	176	228
8	228	177	-	-

지장전 첨차실측도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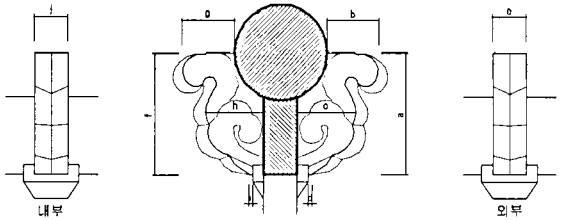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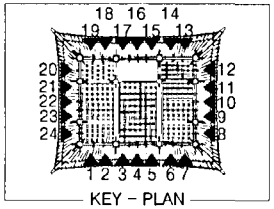
■화반 실측 조사표 (단위:mm)

구분	a	b	c	d	e	f
1	187	181	102	98	291	291
2	187	185	265	271	291	290
3	172	188	85	92	289	288
4	183	190	100	103	288	290
5	185	190	267	265	290	290
6	183	184	112	97	290	291

지장전 화반실측도

0 0.25 0.5 1.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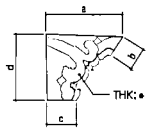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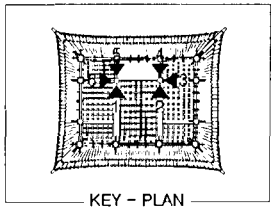


■ 극락보전 운공 실측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a	320	318	328	320	325	317	324	317	322	323	319	328	324	323	322	326	323	316	318	330	322	320	323	322
b	150	142	147	145	144	142	144	148	145	146	145	144	142	148	142	146	150	142	144	148	146	148	147	145
c	152	156	150	153	153	153	153	154	157	162	160	155	156	156	151	161	157	155	157	150	157	156	160	156
d	13	14	7	10	8	11	8	10	15	8	20	13	12	7	6	15	12	7	11	6	9	11	13	10
e	87	88	89	88	91	87	87	84	89	90	88	88	87	90	88	87	87	90	87	89	89	87	88	88
f	321	319	325	322	324	318	323	319	321	321	320	325	323	322	321	324	324	315	316	328	324	318	321	323
g	153	145	149	142	146	145	145	146	146	147	147	143	143	146	144	148	151	145	147	147	145	144	148	148
h	150	152	151	151	153	155	154	155	156	160	157	156	157	157	155	160	156	155	154	154	155	156	159	157
i	15	16	10	12	11	13	9	12	13	11	15	16	14	10	9	15	12	7	11	5	8	10	14	12
j	88	88	89	90	90	89	88	87	86	89	89	88	86	88	87	88	85	87	89	91	90	88	90	91

운공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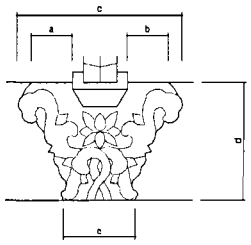




■ 극락보전 보아지 실측표

구분	1	2	3	4	5	6
a	326	330	333	350	322	330
b	72	75	74	70	98	84
c	110	114	102	96	120	108
d	224	222	245	241	246	242
e	94	88	90	88	89	89

보아지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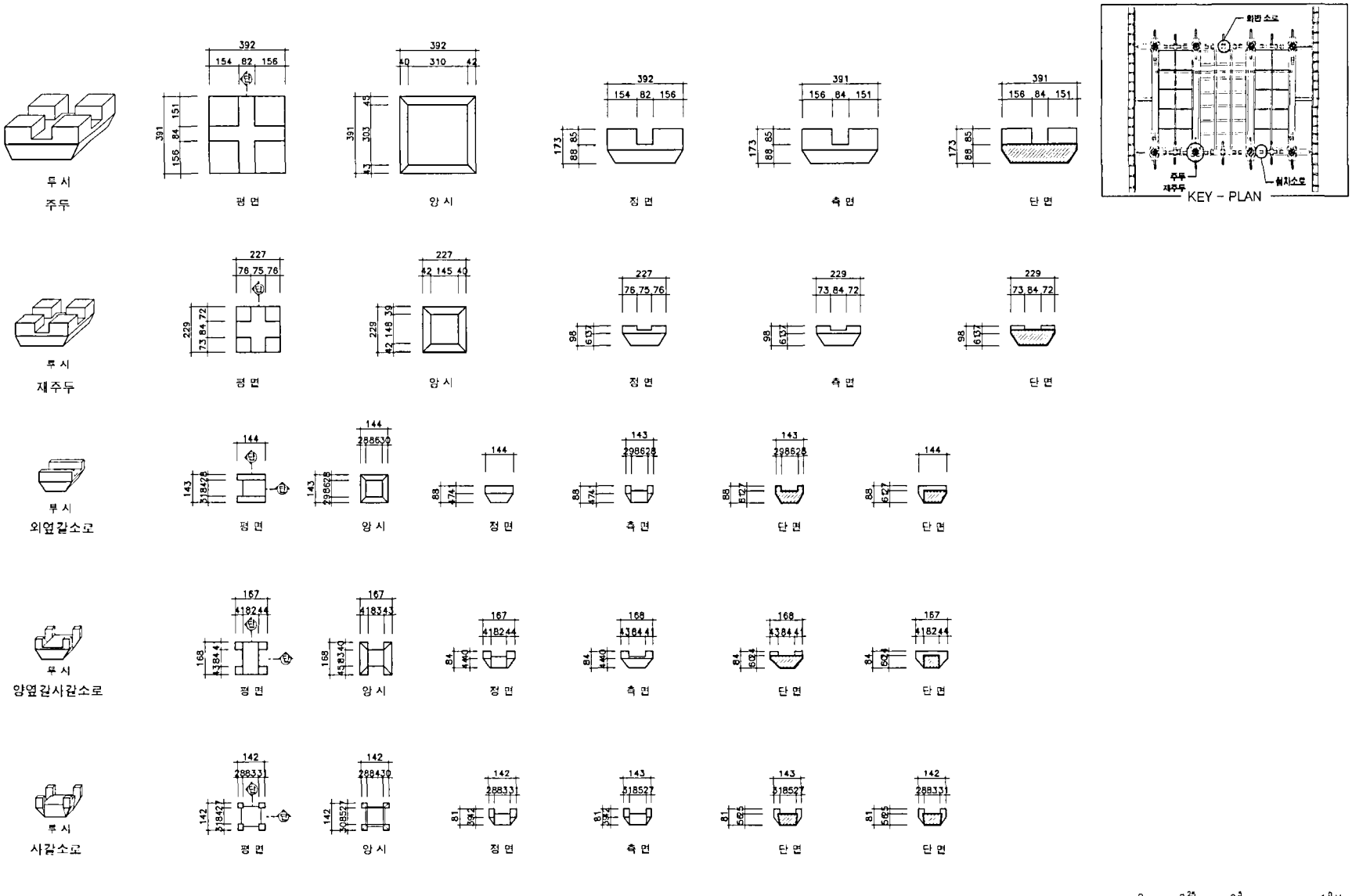
화반

■ 극락보전 화반 실측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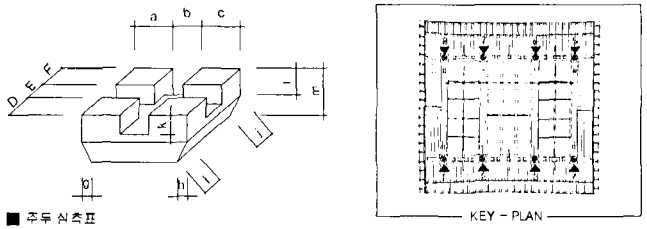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a	110	105	106	112	113	113	111	109	107	110	123	109	109	114	110	111	112	103	112	108	105	103	112	107
b	109	109	107	98	108	118	108	113	120	112	104	107	106	97	108	106	110	109	114	105	108	110	107	115
c	434	433	434	433	438	438	433	427	431	432	433	435	437	438	430	432	433	436	435	437	437	434	437	432
d	310	294	302	303	298	299	295	300	304	297	296	296	298	297	293	295	294	297	296	296	290	294	296	300
e	167	168	180	182	178	177	178	168	173	170	175	177	185	182	175	188	189	185	182	180	185	192	184	174

화반실측도

0 0.25 0.5 1.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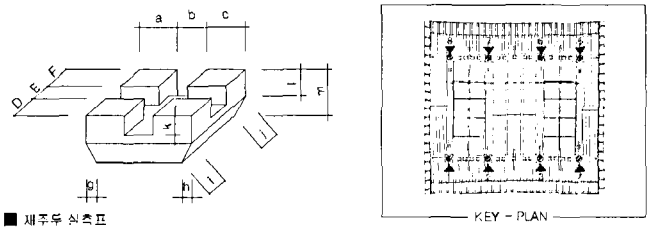


지장전 주두,재주두,소로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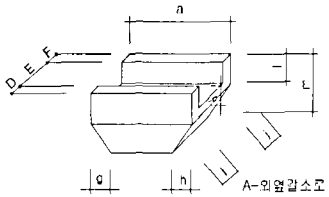
■ 주두 실측표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1	154	#2	156	156	#4	151	40	42	43	45	#5	107	173
2	150	#3	153	145	실측	150	41	37	39	39	##	107	174
3	153	#4	150	151	실측	151	43	3#	3#	42	#6	106	167
4	153	#4	157	151	#3	151	42	37	39	3#	#9	107	170
5	155	#3	151	151	#1	150	44	40	45	40	#4	104	164
6	150	#3	152	149	실측	실측	36	40	3#	실측	#2	10#	176
7	152	#3	150	14#	실측	실측	39	45	43	실측	##	103	165
8	155	#5	154	151	#3	152	47	44	43	42	#6	10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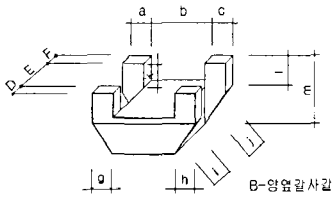


■ 재주두 실측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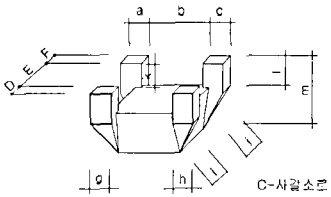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1	76	75	76	72	#4	73	42	40	42	39	20	37	9#
2	75	#3	75	77	실측	73	43	42	39	40	24	42	102
3	74	#4	75	73	실측	70	44	41	39	3#	21	41	95
4	74	#4	79	71	#3	73	34	40	39	41	35	49	112
5	74	#3	76	73	#1	74	42	40	39	40	31	44	104
6	73	#3	76	76	실측	실측	39	3#	40	실측	19	40	95
7	74	#3	75	72	실측	실측	42	43	3#	실측	24	42	106
8	76	#5	75	74	#3	74	40	41	39	39	34	47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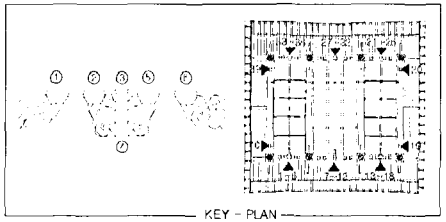
A-외엽갈소로



B-양엽갈사갈소로



C-사갈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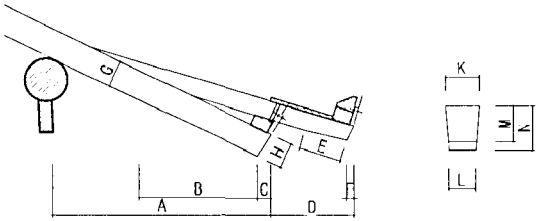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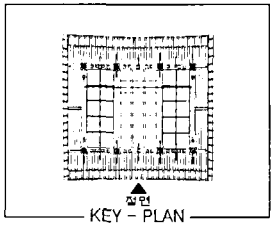
■ 소로 실측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a	144	143	2#	41	144	145	145	144	30	42	145	143	146	144	30	45	144	144	143	144	149	144	29	파손	파손	143	143	142	31	4#	143	144	144	142	30	45	144	144	143	144
b			#3	#2					#4	#4					#3	#3							#5						#3	#3					#4	#3				
c			31	44					35	43					29	43							30						2#	43					30	47				
d	31	27	31	43	30	27	33	30	30	44	30	30	29	27	32	44	30	30	31	30	29	27	31			29	29	27	34	44	31	2#	2#	34	32	45	32	29	31	30
e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f	2#	29	27	41	30	29	25	30	31	43	30	31	34	30	29	45	31	29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g	2#	32	2#	41	27	32	31	30	29	43	2#	29	2#	34	30	42	27	32	34	34	31	32	2#			32	27	30	2#	44	30	25	24	31	30	42	24	2#	2#	32
h	30	27	30	43	29	35	34	2#	30	39	32	30	2#	25	31	43	2#	30	31	29	33	33	29			2#	32	32	26	34	2#	32	30	27	27	3#	31	27	32	2#
i	29	27	30	45	29	2#	29	2#	2#	42	27	29	27	24	31	42	25	29	30	2#	30	27	30			29	2#	27	29	44	29	26	26	29	30	43	30	29	30	30
j	2#	2#	27	40	2#	26	24	25	30	43	30	29	32	30	2#	43	30	29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실보
k	27	24	2#	24	2#	25	25	23	25	25	23	27	35	26	27	24	25	27	26	24	27	25	26			23	27	27	27	26	27	29	20	23	26	25	21	29	29	29
l	41	44	42	40	40	3#	41	39	40	40	3#	37	42	43	41	40	41	40	42	39	40	37	41			40	3#	41	42	41	40	42	41	40	43	40	40	41	44	45
m	##	##	#1	#4	##	#6	##	#4	#6	#4	#7	#6	#4	#7	#7	#4	#6	##	#5	#5	##	#9	#7			##	##	#7	##	#3	#6	#9	#7	##	#4	#3	#7	##	##	#9
TYPE	A	A	B	C	A	A	A	A	B	C	A	A	A	A	B	C	A	A	A	A	A	A	B	C	A	A	A	A	B	C	A	A	A	A	B	C	A	A	A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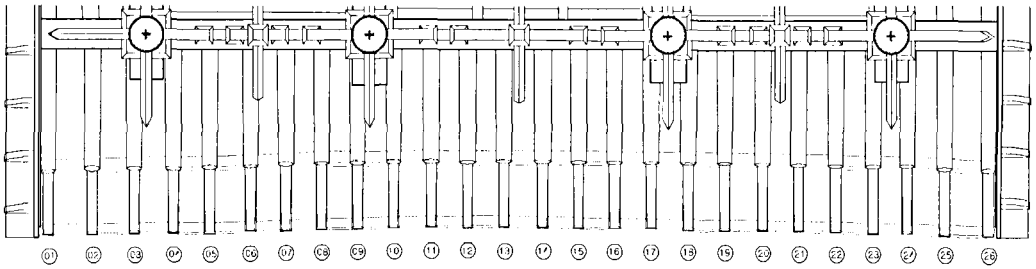
지장전 주두,재주두,소로실측표

0 0.125 0.25 0.5 M





레벨 실측치
(기준점 ±0정면기단좌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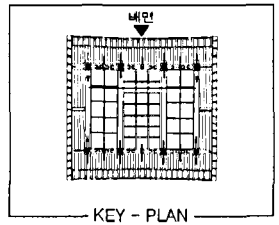
■ 정면 연목,부연 실측 조사표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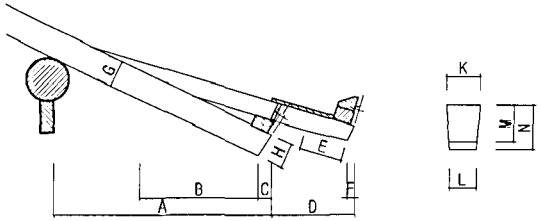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A	1,033	1,024	1,010	1,005	994	990	967	966	952	953	952	954	950	942	957	950	956	964	962	962	974	950	922	950	1,005	1,010
B	590	534	525	570	540	525	560	540	500	515	533	510	537	530	550	540	540	555	548	560	547	557	560	550	565	560
C	33	47	34	52	55	27	26	25	34	34	29	30	28	32	30	22	22	23	24	26	30	28	33	10	32	22
D	485	486	482	483	497	498	510	502	498	504	504	498	498	503	500	503	510	508	514	510	509	505	517	515	510	498
E	143	154	146	148	148	147	140	163	124	132	133	136	150	145	155	164	137	147	182	145	150	152	135	130	132	125
F	14	20	17	14	22	12	13	16	17	15	10	17	15	14	13	17	10	18	12	8	13	14	10	11	10	12
G	128	138	133	135	134	132	137	134	131	133	136	138	134	143	134	131	136	143	137	136	133	135	140	136	133	123
H	110	123	120	125	120	120	125	119	122	117	127	127	123	132	125	120	124	129	118	125	124	122	128	125	122	113
I	25	17	22	22	18	21	14	21	22	18	21	18	17	20	22	20	15	22	17	20	20	21	16	15	18	25
J	18	16	13	15	16	17	16	15	17	17	17	20	16	15	17	18	17	18	16	12	15	14	21	17	16	20
K	87	84	83	84	86	88	88	83	85	85	84	81	82	87	78	90	84	82	82	84	80	87	82	85	84	88
L	74	71	66	71	73	70	72	70	71	68	70	67	69	69	68	74	69	73	74	68	68	74	68	66	73	82
M	100	97	103	102	108	100	94	99	103	98	98	105	98	103	98	103	100	102	100	106	102	109	105	100	98	97
N	133	132	137	135	137	134	134	136	131	134	133	134	135	134	138	136	132	137	138	134	132	137	134	135	13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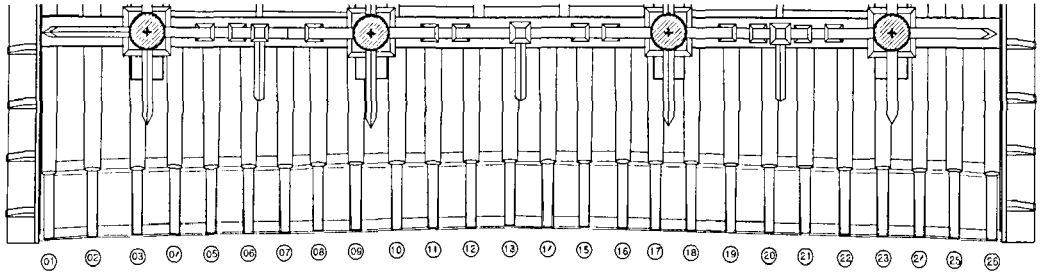
지장전 정면 연목,부연실측도

0 0.5 1.0 2.0M



레벨 실측치
(기준점 ±0:정면기단석축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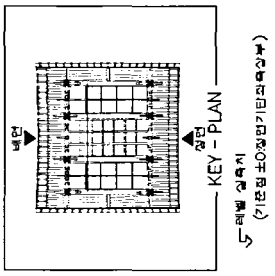
■ 배면 연목,부연 실측 조사표

(단위 mm)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A	1,060	1,032	1,027	1,010	1,011	997	994	992	978	975	976	963	962	970	973	977	980	980	995	1,000	1,007	1,022	1,018	1,036	1,040	1,058
B	580	560	550	555	520	526	545	550	542	548	535	540	520	528	552	546	515	522	540	522	550	530	538	572	564	587
C	30	32	31	32	35	37	25	33	26	12	28	23	29	33	27	32	28	27	28	26	24	27	30	33	24	35
D	498	508	504	510	494	498	496	500	508	494	488	498	486	498	495	503	503	518	508	508	498	500	510	495	507	495
E	47	151	128	148	143	126	140	145	144	138	140	130	152	146	143	137	137	135	139	155	136	157	145	157	152	140
F	13	12	7	9	14	17	12	10	11	14	15	11	13	10	11	15	14	13	15	7	17	10	14	18	16	13
G	127	145	137	133	137	134	135	144	138	146	136	132	134	138	130	134	138	128	130	134	143	131	135	134	141	132
H	115	132	122	122	120	123	125	130	124	133	125	123	120	124	117	120	124	118	121	125	130	120	123	123	128	120
I	26	15	21	17	25	20	17	14	14	17	23	17	22	28	20	21	16	15	20	19	18	21	17	22	17	29
J	20	22	14	17	17	15	14	13	17	16	17	17	17	17	17	16	17	17	15	12	8	13	14	15	18	21
K	86	86	81	84	84	83	83	83	92	84	89	88	83	93	83	84	90	82	85	83	84	85	93	88	84	89
L	79	72	70	72	67	70	70	70	75	72	68	72	65	64	72	73	72	66	68	65	73	66	72	69	67	80
M	102	106	97	97	103	107	102	105	93	104	102	102	103	100	98	97	105	103	100	95	99	102	105	107	100	105
N	130	139	137	133	137	136	134	138	131	134	137	136	134	134	131	134	135	132	135	133	137	140	138	134	140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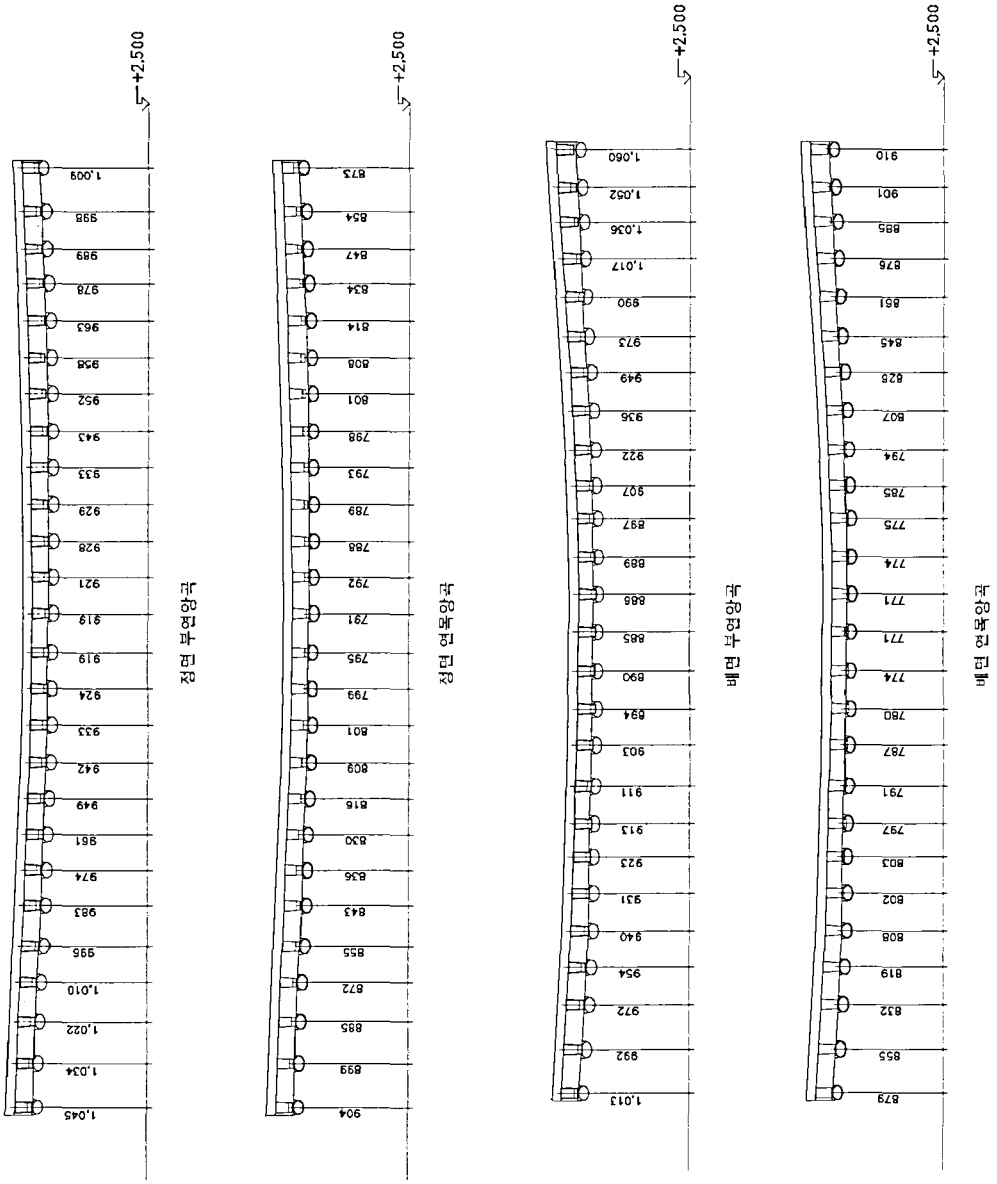
지장전 배면 연목,부연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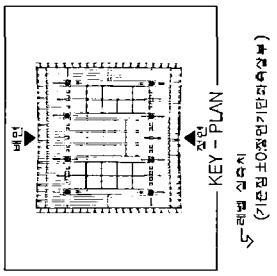
0 0.5 1.0 2.0 M


KEY - PLAN
배면
정면
레벨 설정치
(기준점 또는 정밀기준점 설정)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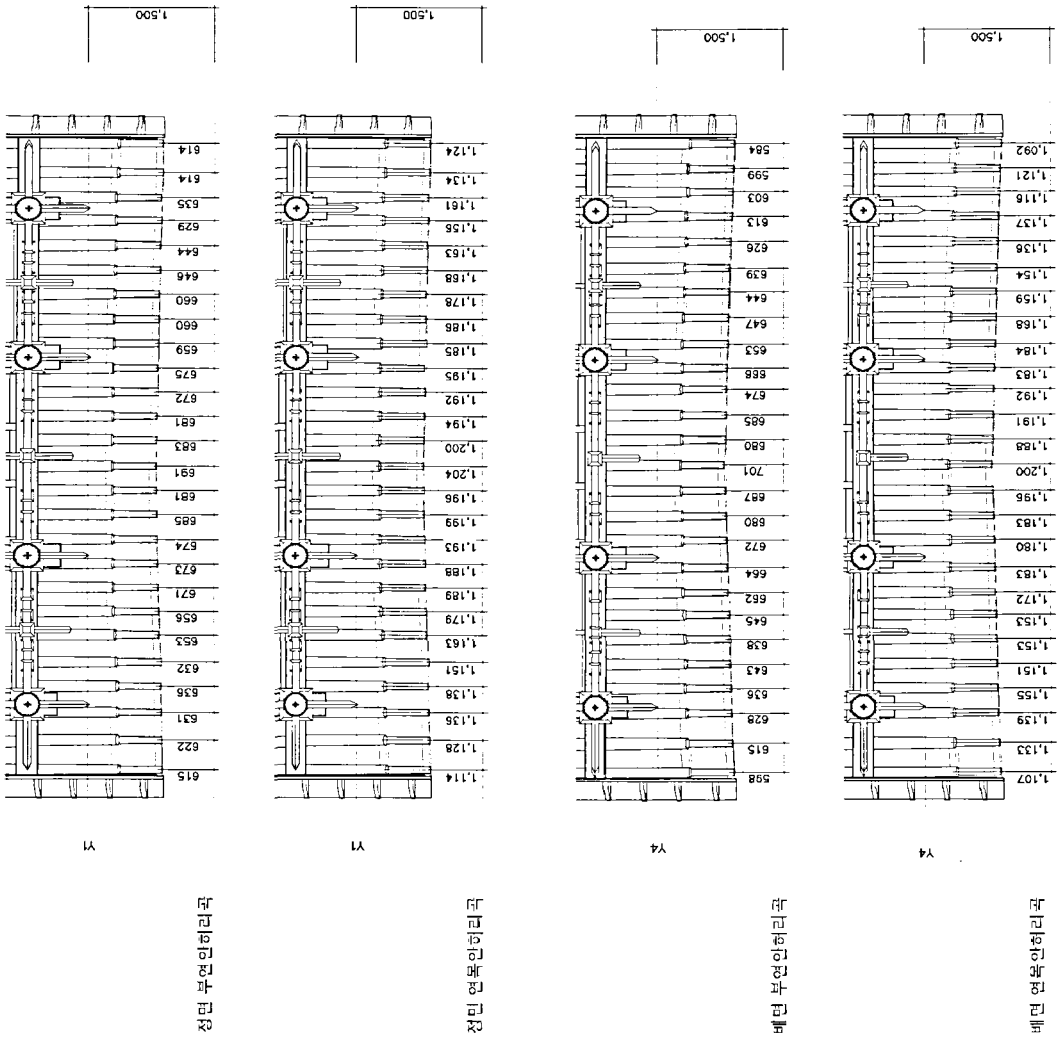
지장전 앙곡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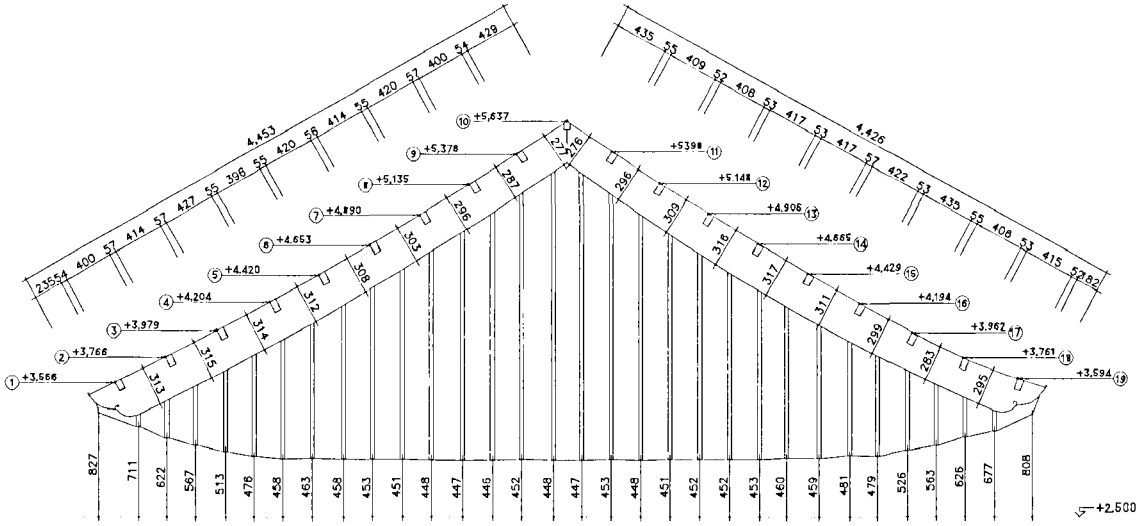

+2,500
1,045
998
989
978
963
958
952
943
933
929
928
921
919
919
924
933
942
949
961
974
983
995
1,010
1,022
1,034
정면 부연앙곡
+2,500
873
854
847
834
814
808
801
798
793
789
788
792
791
795
799
801
809
816
830
836
843
855
872
885
899
904
정면 연목앙곡
+2,500
1,060
1,052
1,036
1,017
990
973
949
936
922
907
897
889
885
885
890
894
903
911
913
923
931
940
954
972
992
1,013
배면 부연앙곡
+2,500
910
901
885
876
861
845
825
807
794
785
775
771
771
774
780
787
791
797
803
802
808
819
832
855
879
배면 연목앙곡


KEY - PLAN
베면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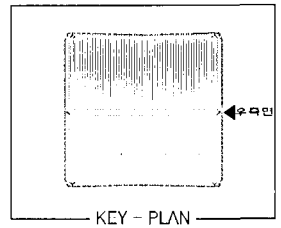
0
0.75
1.5
3.0M

지장전 안허리곡선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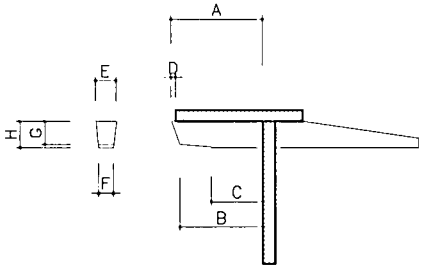

베면 연목안허리곡
베면 부연안허리곡
정면 연목안허리곡
정면 부연안허리곡



우측면 박공 입면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정면기단좌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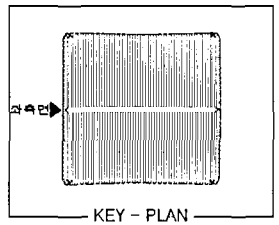


■ 우측면 목기연 신축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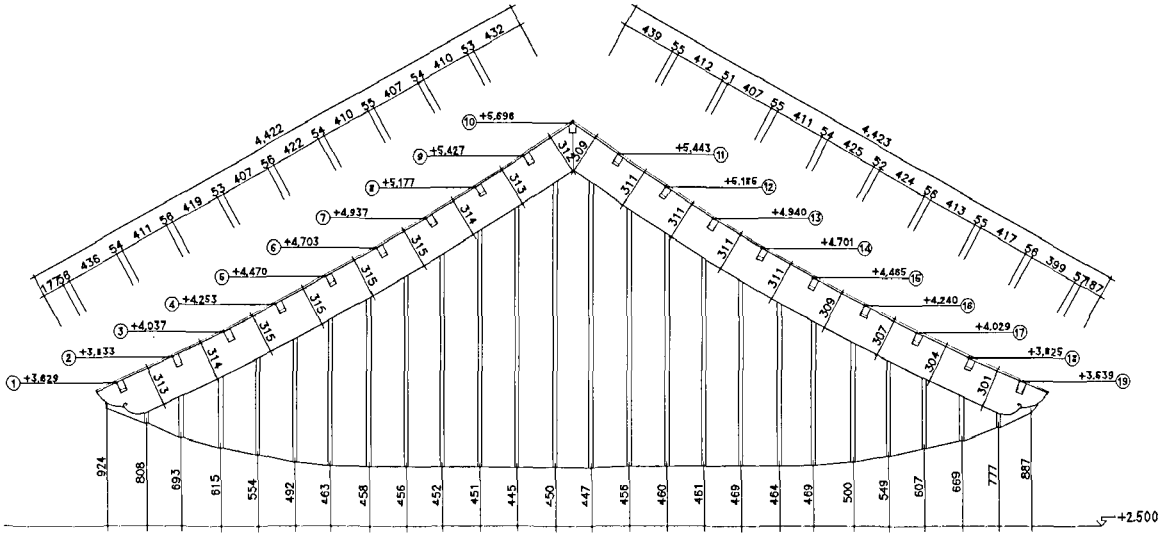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A	234	240	244	244	245	243	243	243	244	246	245	243	247	243	250	250	245	247	244
B	223	232	233	236	232	231	231	232	233	232	235	234	235	234	235	235	232	234	234
C	135	152	176	152	173	157	170	183	177	175	170	166	177	174	178	164	160	170	156
D	12	8	13	15	13	17	17	24	21	17	15	18	21	16	24	22	21	20	22
E	54	57	57	55	55	56	55	57	54	53	55	52	53	53	57	53	55	53	52
F	44	48	48	51	50	47	50	52	49	50	50	47	48	47	52	49	46	48	50
G	72	65	64	58	68	66	65	64	65	60	63	58	65	67	63	65	63	63	66
H	77	87	87	92	98	90	89	87	82	84	86	88	88	89	94	82	90	86	87

지장전 박공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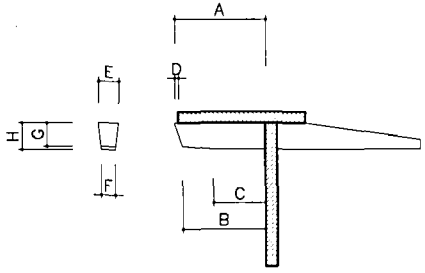
0 0.5 1.0 2.0 M



레벨 실측시
(기준점 ±0:정면기단좌측상부)



좌측면 박공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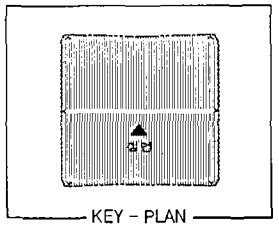
■ 좌측면 목기연 실측 조사표

(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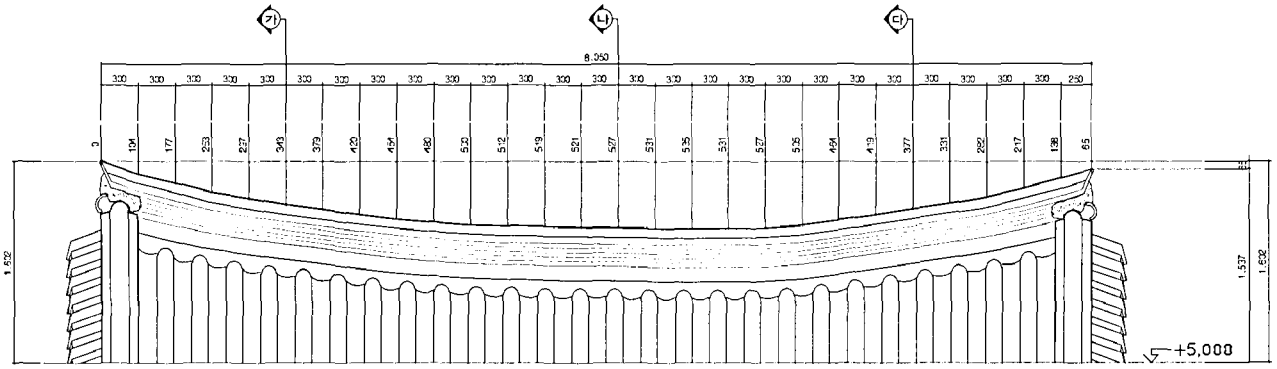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A	237	246	245	244	243	246	244	247	243	245	244	242	246	245	243	244	247	247	240
B	230	232	232	233	232	234	236	233	234	237	234	233	233	232	231	234	236	235	226
C	178	170	170	168	167	173	180	172	175	177	169	178	180	173	175	174	164	172	173
D	12	20	22	16	17	17	20	18	19	21	17	14	15	12	13	14	11	12	8
E	58	54	58	53	56	54	55	54	53	53	55	51	56	54	52	56	55	57	57
F	49	50	53	49	49	51	50	52	51	51	52	51	53	51	49	50	47	50	42
G	65	65	64	64	63	62	63	63	60	58	64	65	63	64	65	64	60	67	67
H	88	90	90	88	89	87	88	85	84	83	92	87	88	91	88	86	90	89	91

지장전 박공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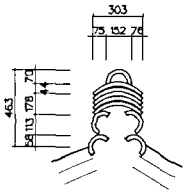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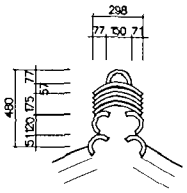
레벨 실측치
(기준점 ±0:정면기단좌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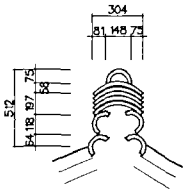
용마루곡



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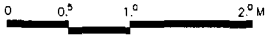


나-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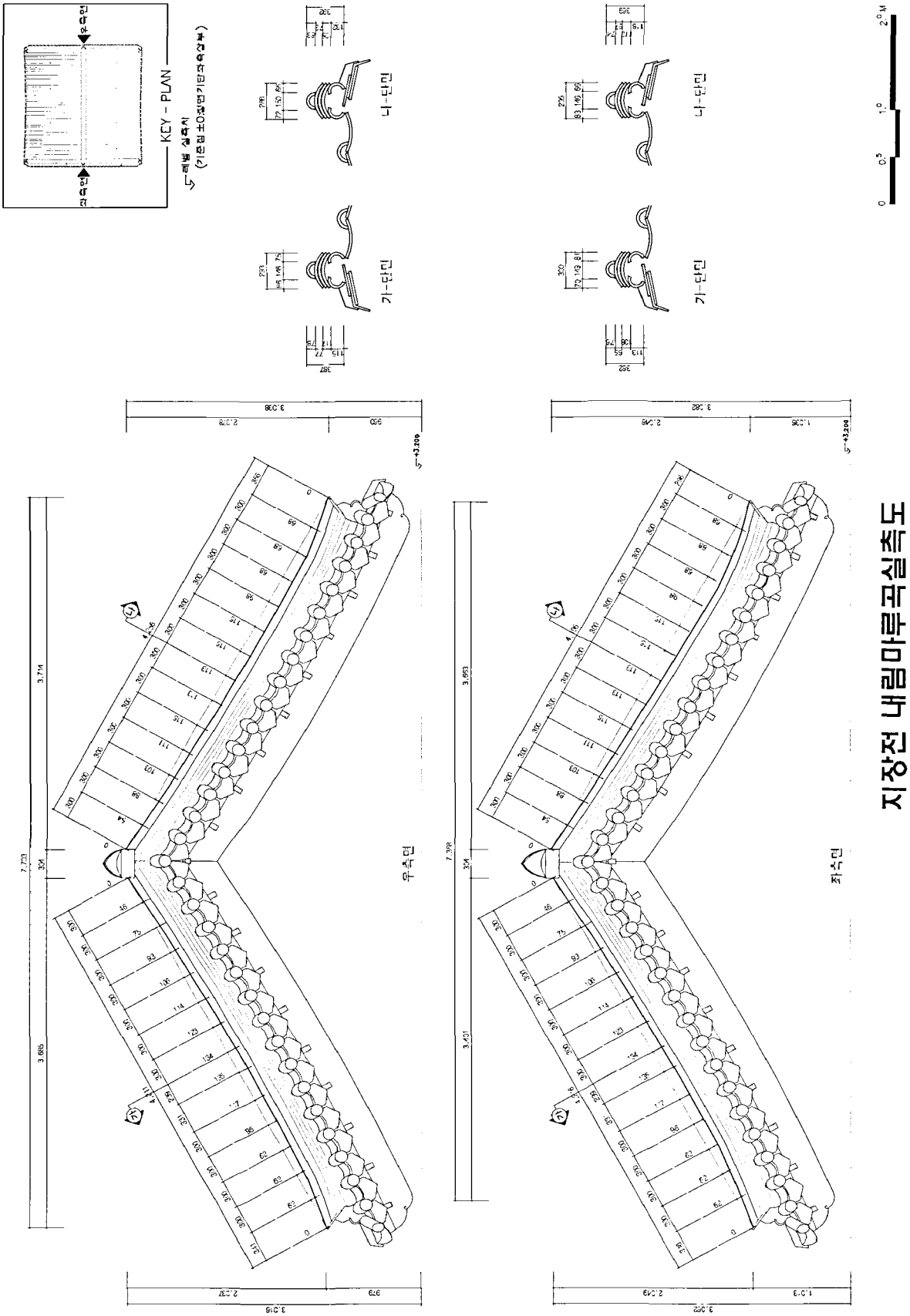


다-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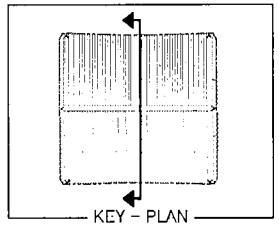
지장전 용마루곡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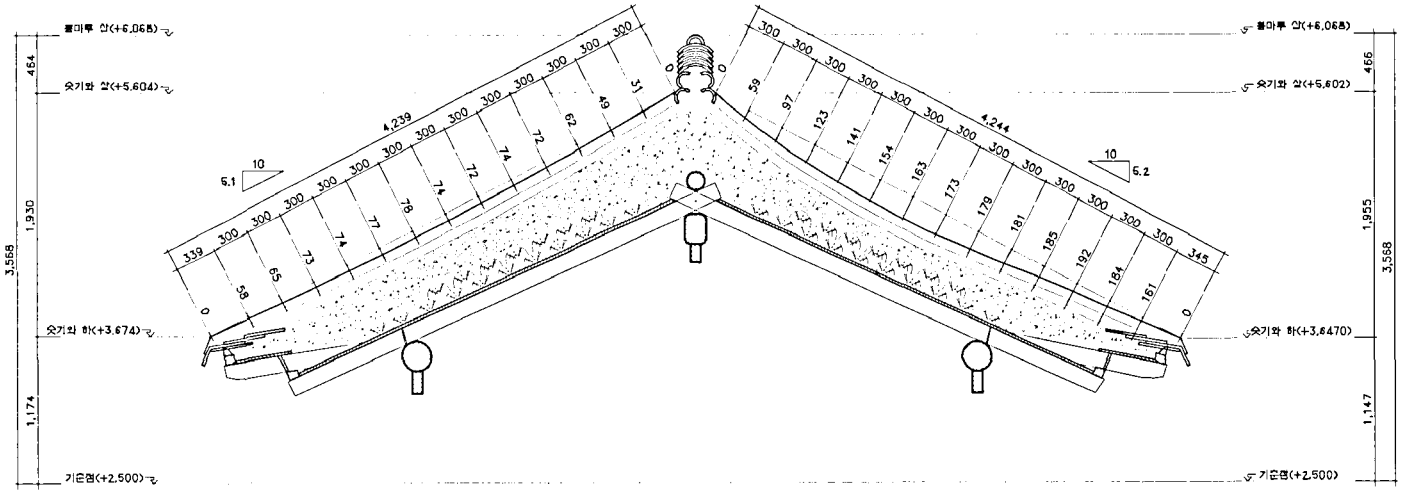
부록 - 도면



지장전 내림마루곡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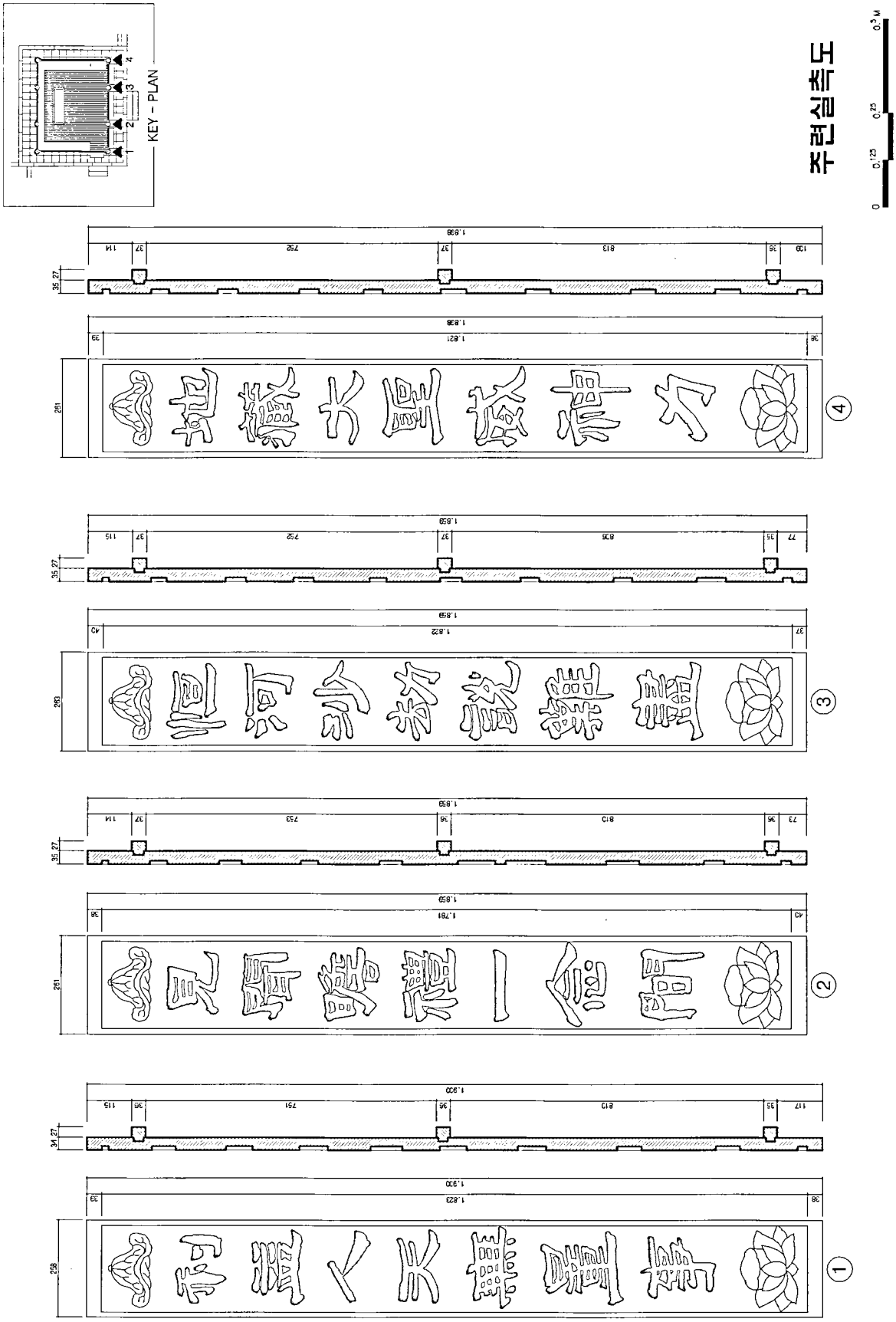
레벨 실측치
(기준점 ±0:접현기단과육상부)



지장전 지붕곡실측도

0 0.5 1.0 2.0 M

부록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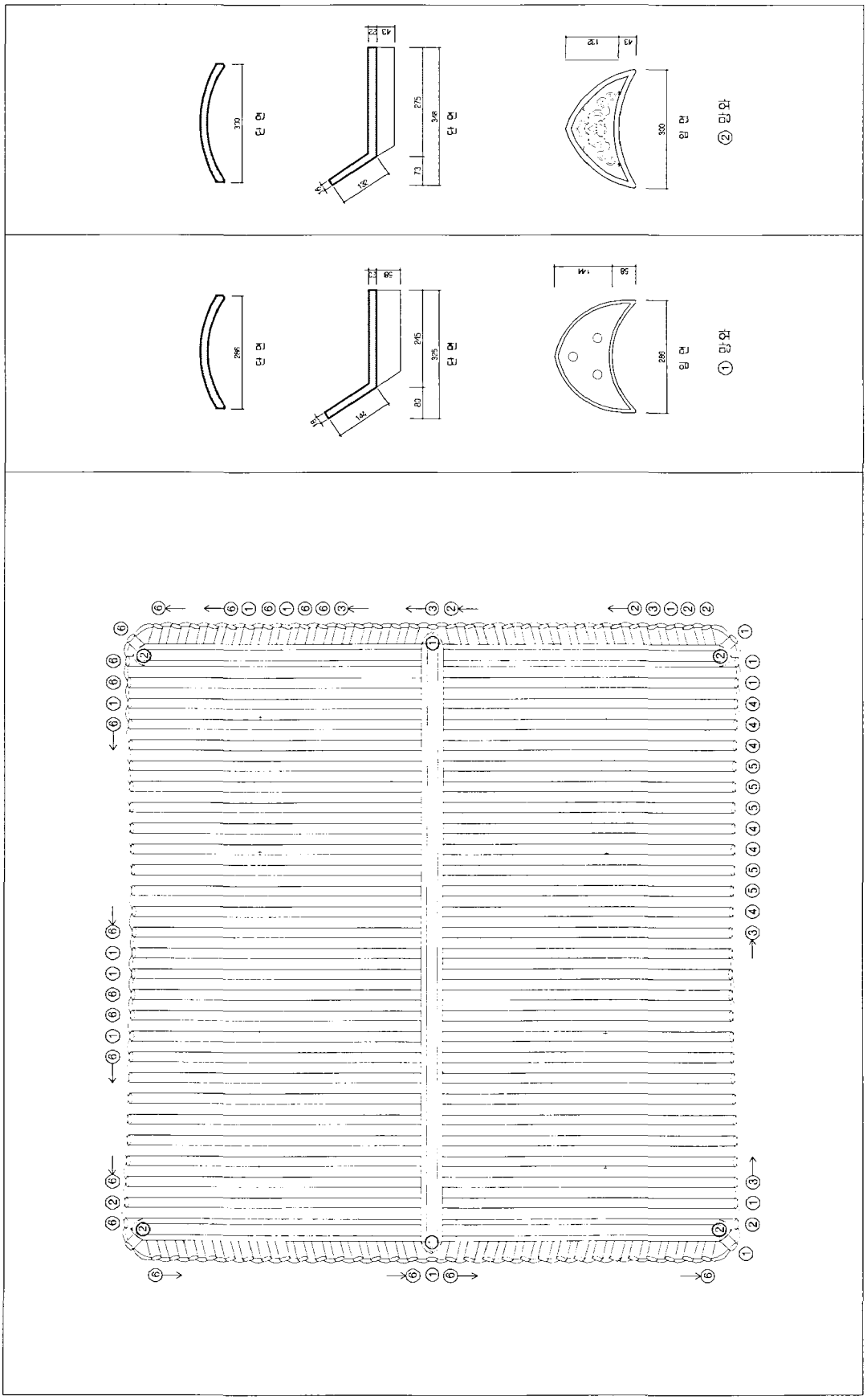

KEY - PLAN
주련실측도
0
0.125
0.25
0.5 M
①
②
③
④

0
0.125
0.25
0.5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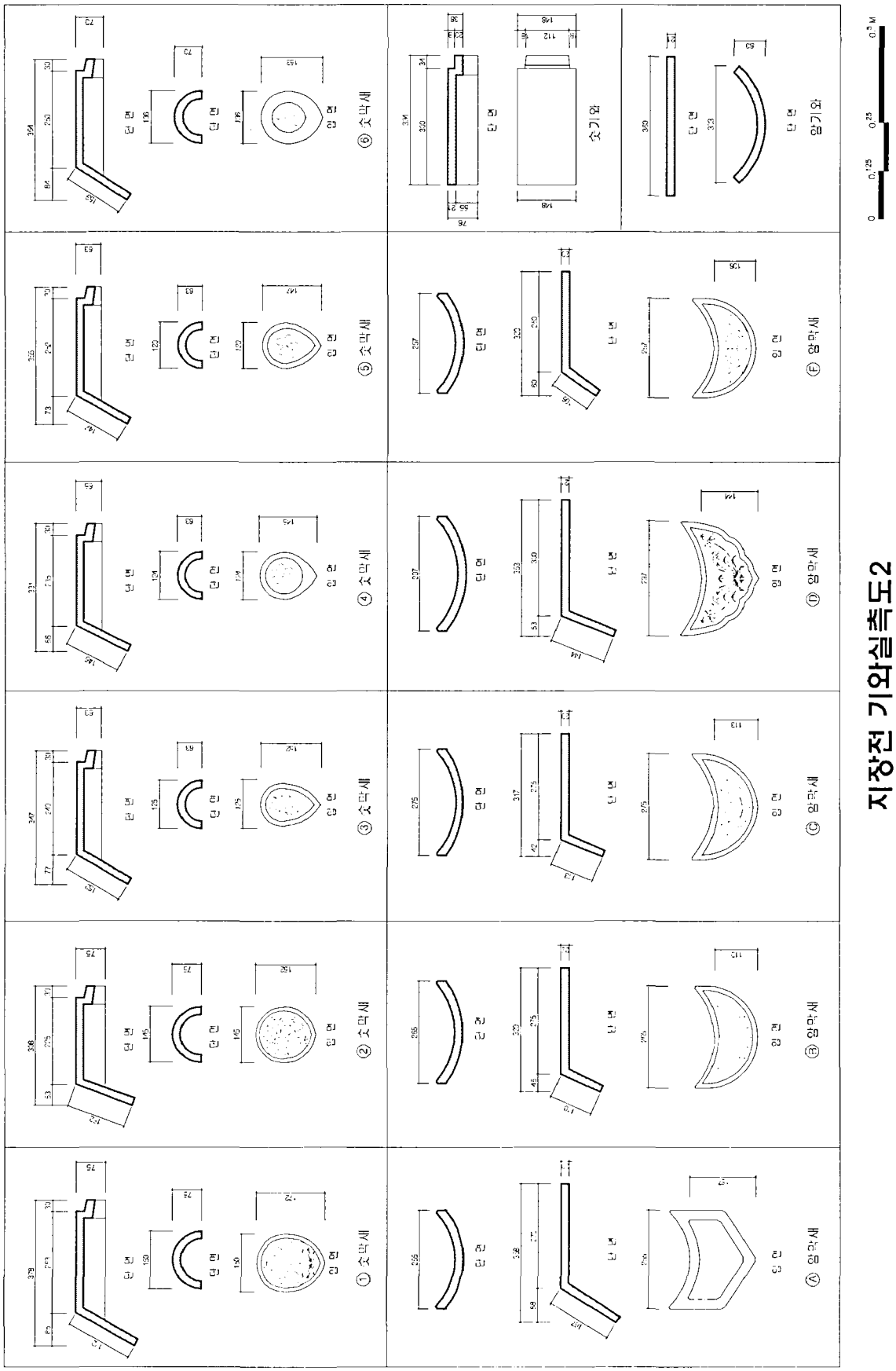
825
73
360
73
230
THK21
45°
812
53
288
53
335

825
538
230
1,738
1,338
225
238

지장전 현판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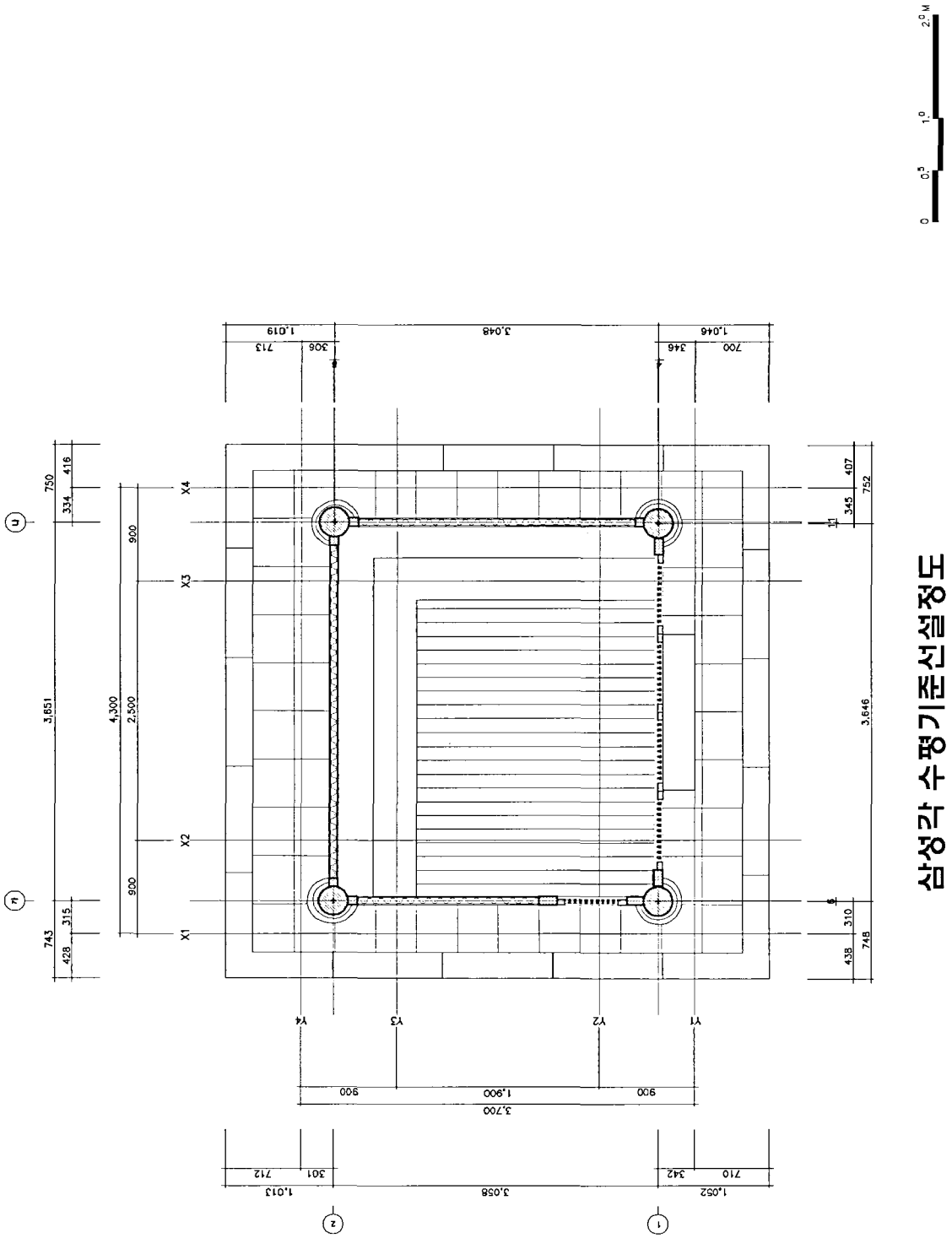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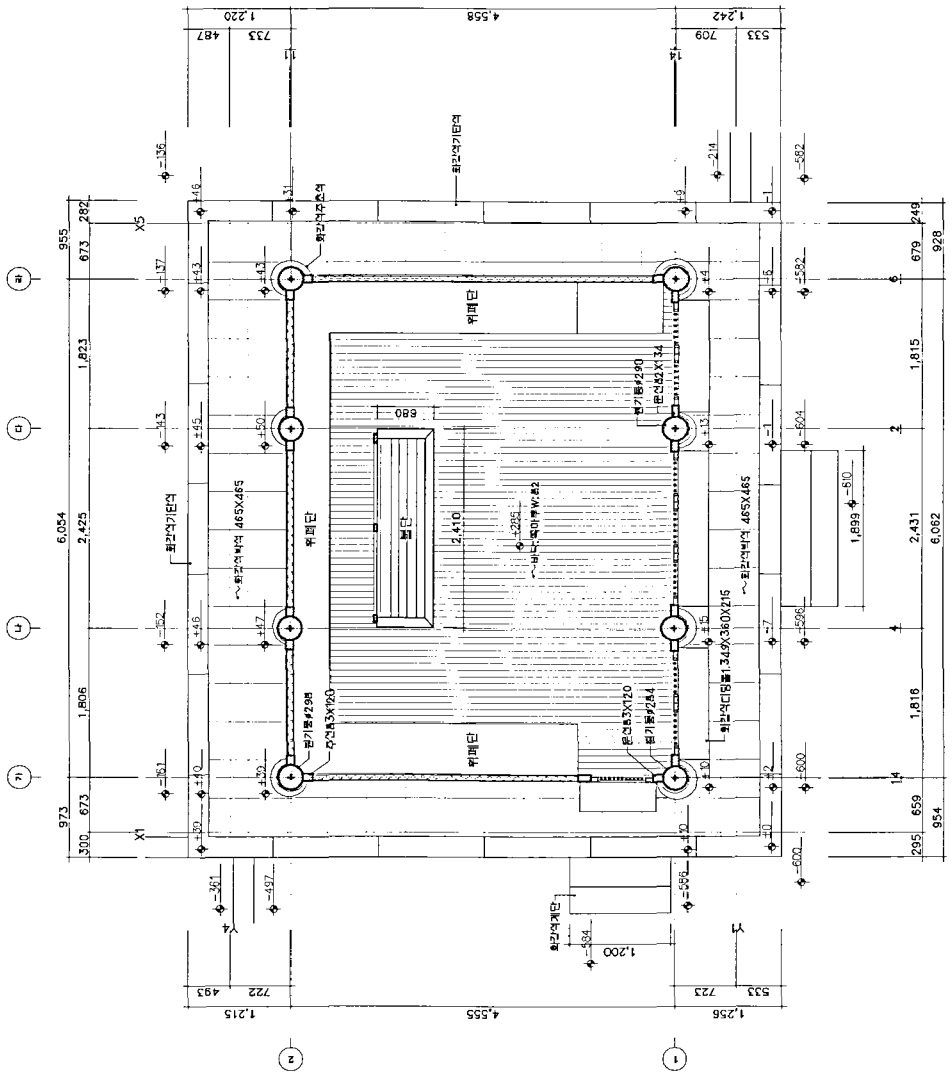
지장전 기와실측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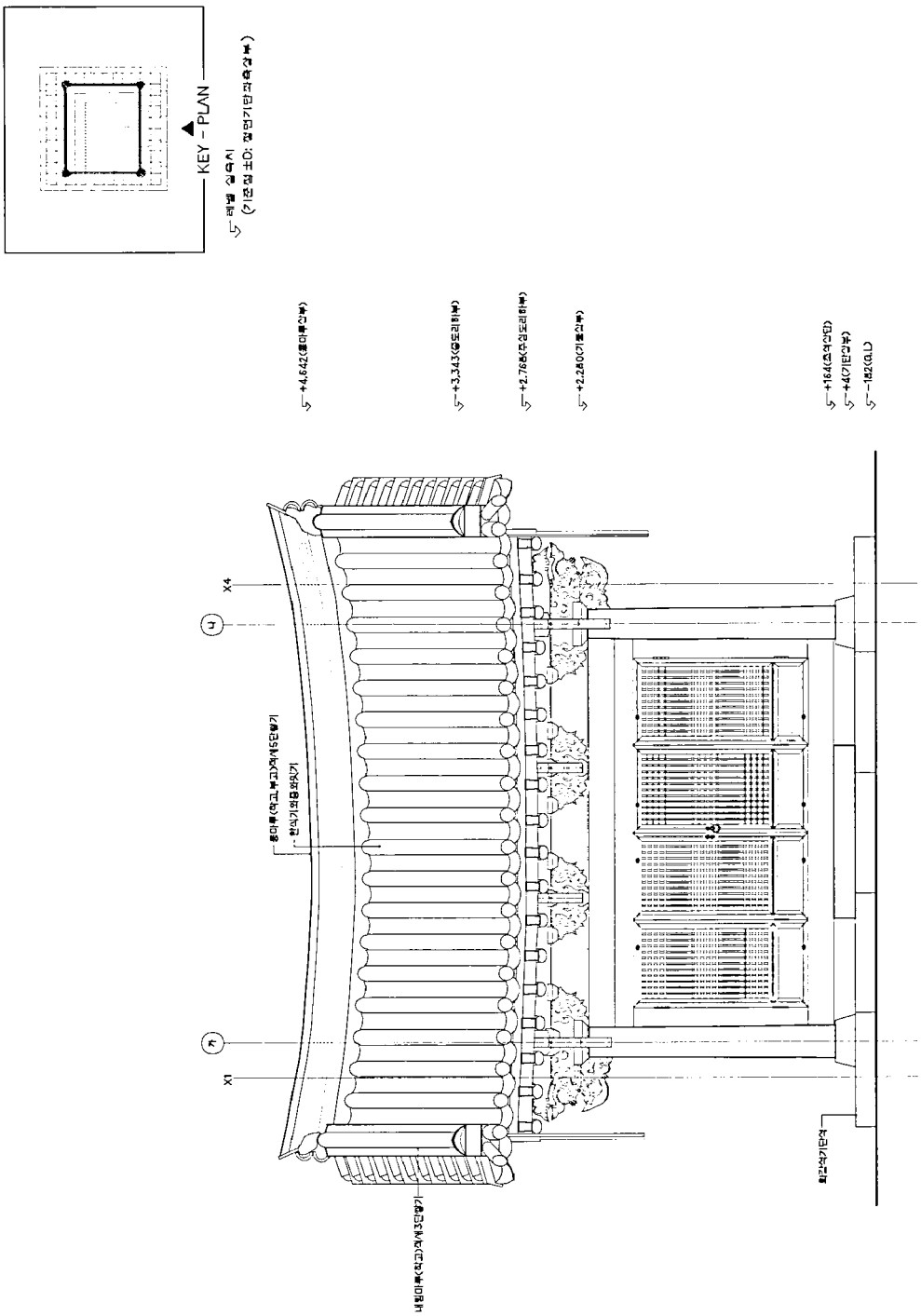

① 숫막새
② 숫막새
③ 숫막새
④ 숫막새
⑤ 숫막새
⑥ 숫막새
숫기와
Ⓐ 암막새
Ⓑ 암막새
Ⓒ 암막새
Ⓓ 암막새
Ⓕ 암막새
암기와
단 면
정 면
0
0.125
0.25
0.5 M

지장전 기와실측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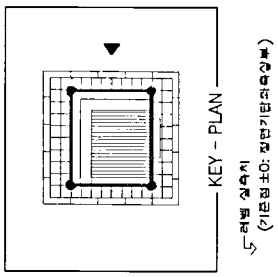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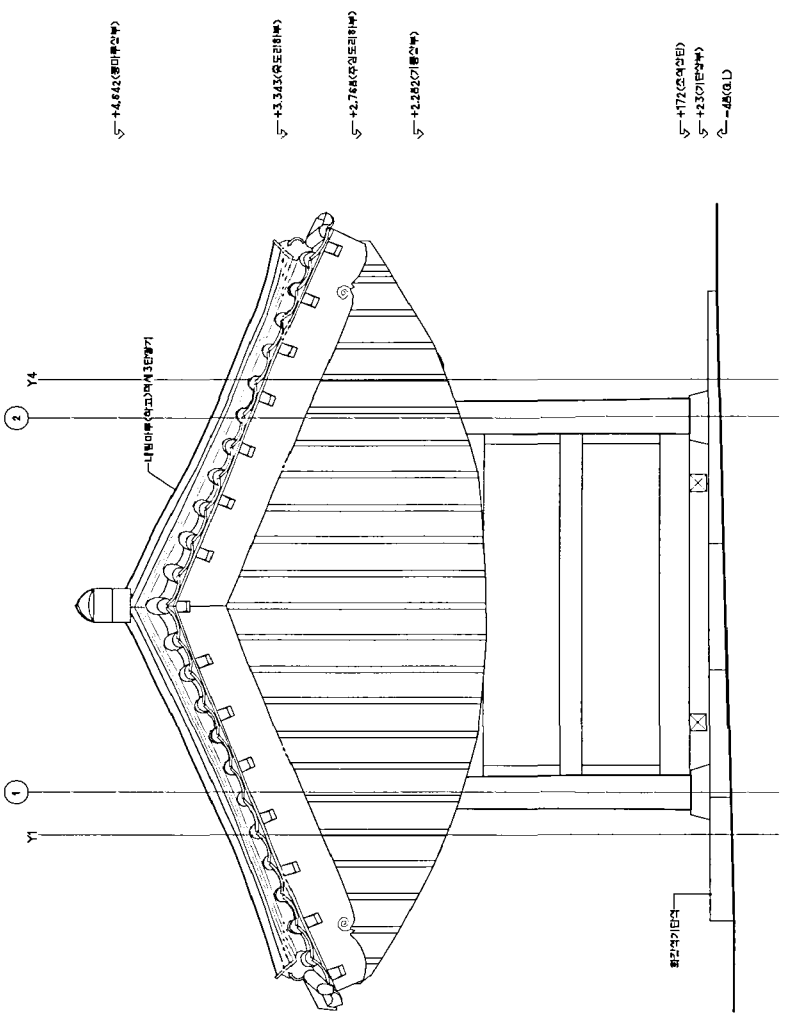

0
0.5
1.0
2.0M
삼성각 수평기준선설정도


0
0.75
1.5
3.0M
4,558
4,555
1,220
1,242
1,215
1,256
X5
X1
Y4
Y3
1
2
가
나
다
라
4,823
6,054
6,062
1,806
1,816
973
954
1,200
680
2,410
1,899
위폐단
지장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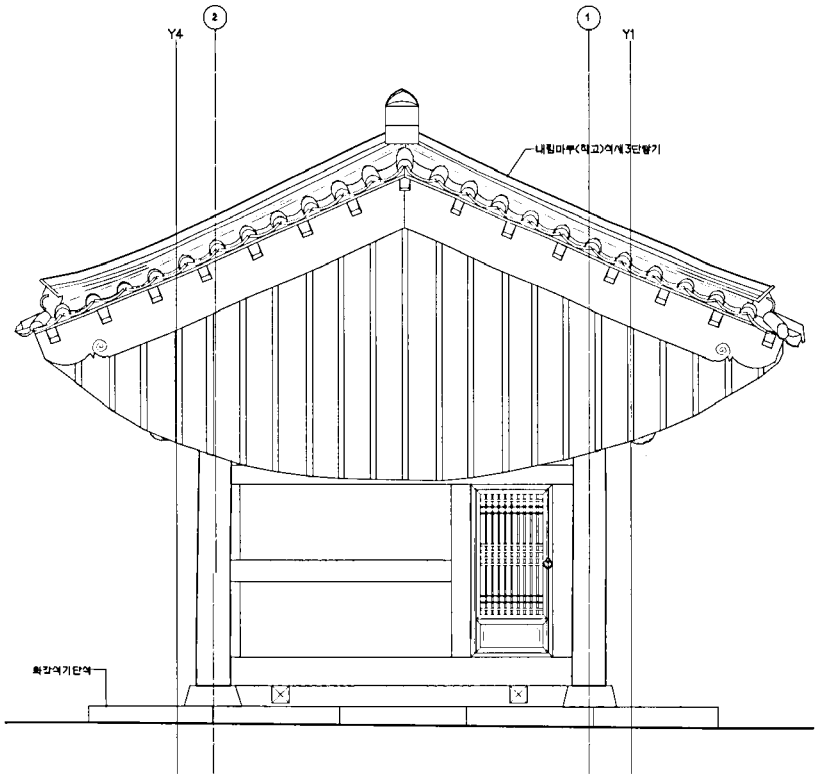
삼성각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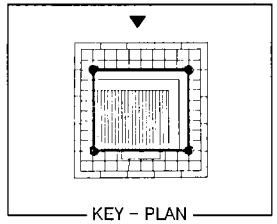

KEY - PLAN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정면기단외측상부)
+4.642(용마루상부)
+3.343(추모리하부)
+2.768(추모리하부)
+2.262(기둥상부)
+1.72(건물입구)
+1.23(기단상부)
±0.0(G.L)
Y4
Y1
2
1
회전각기단석

0
0.5
1.0
2.0 M

삼성각 우측면도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정면기단석축상부)

+4,642(용마루상부)

+3,343(합도리하부)

+2,788(주심도리하부)

+2,277(기둥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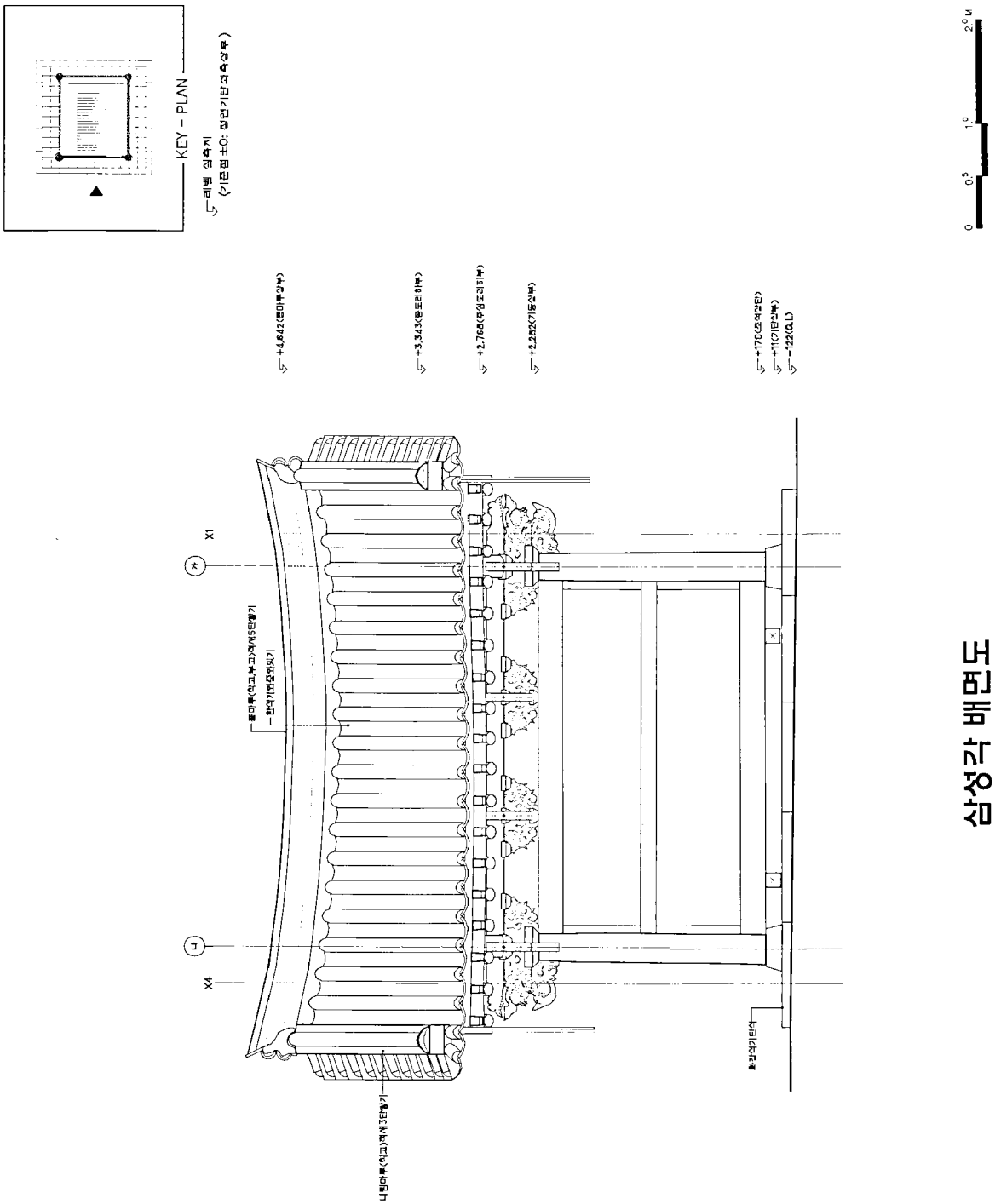
+172(초역상단)

±0(기단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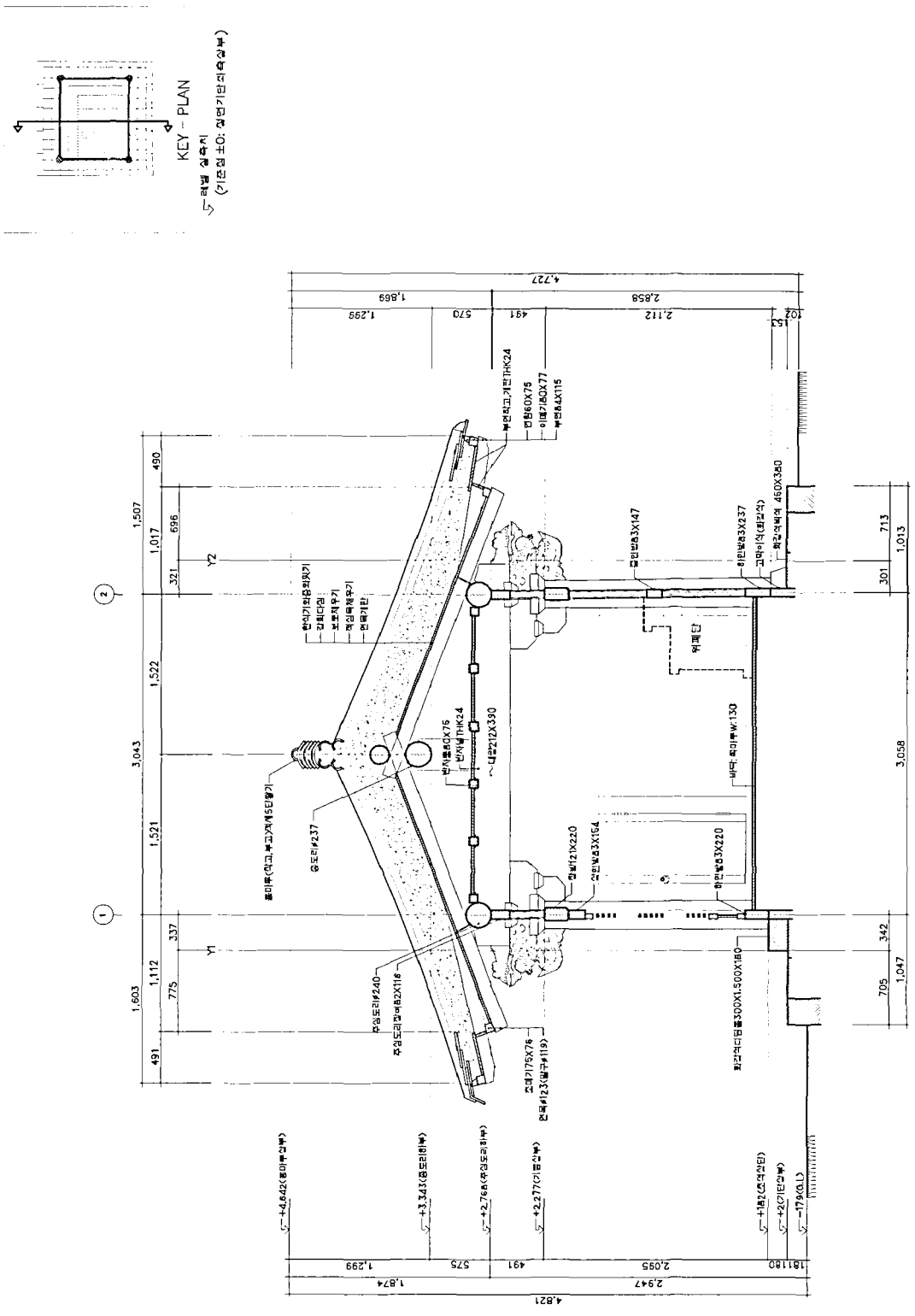
-176(G.L)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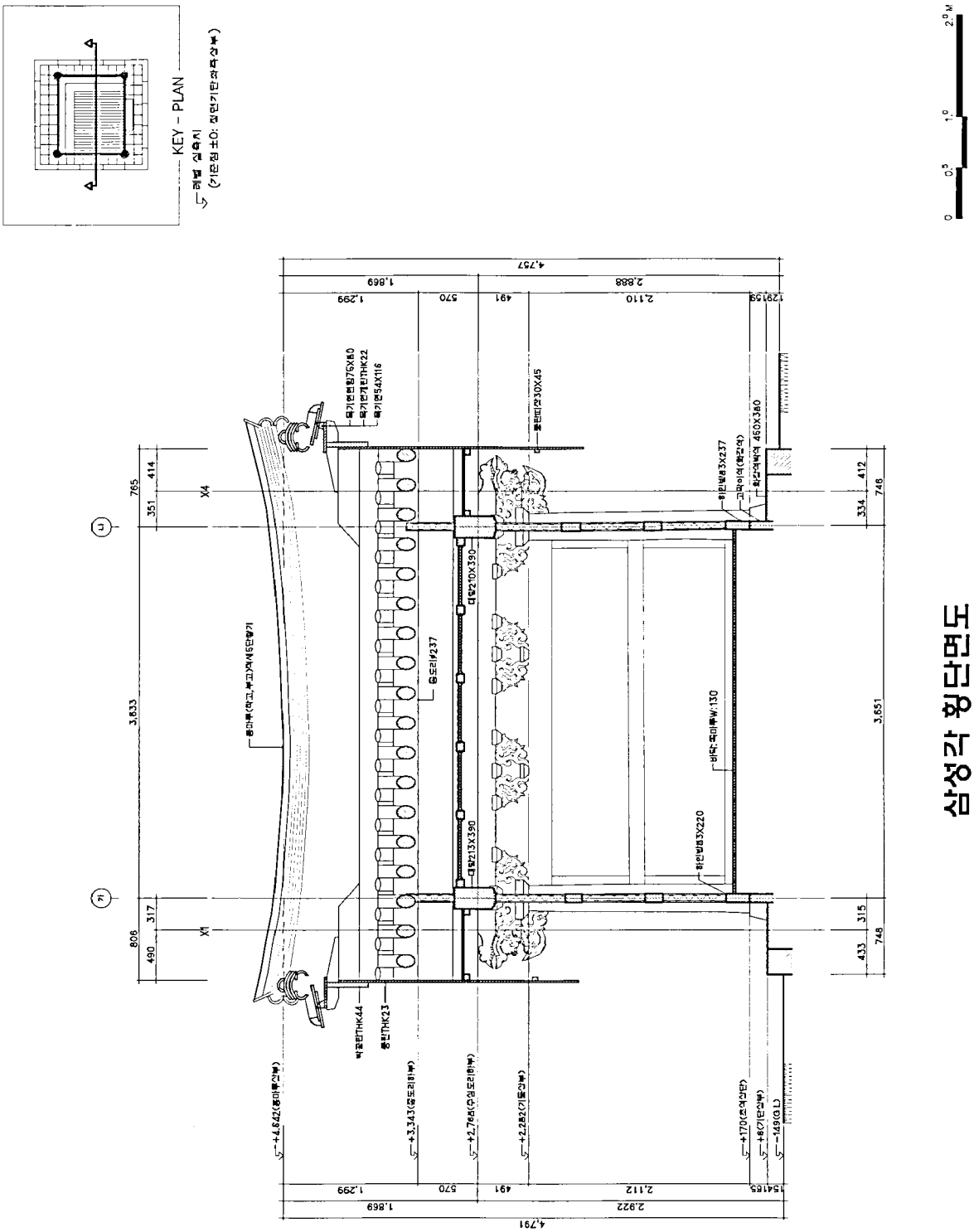
삼성각 좌측면도


KEY - PLAN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잡면기타의 측상부)
+4.612(용마루상부)
+3.343(용두리하부)
+2.768(주심도리하부)
+2.282(기둥상부)
+1.702(초익상단)
+1.107(평주하부)
-122(G.L)
X1
X4
내림마루(적고,부고)처리5단합기
합각기와갈장치
내림마루(적고)처리3단합기
합각기와단석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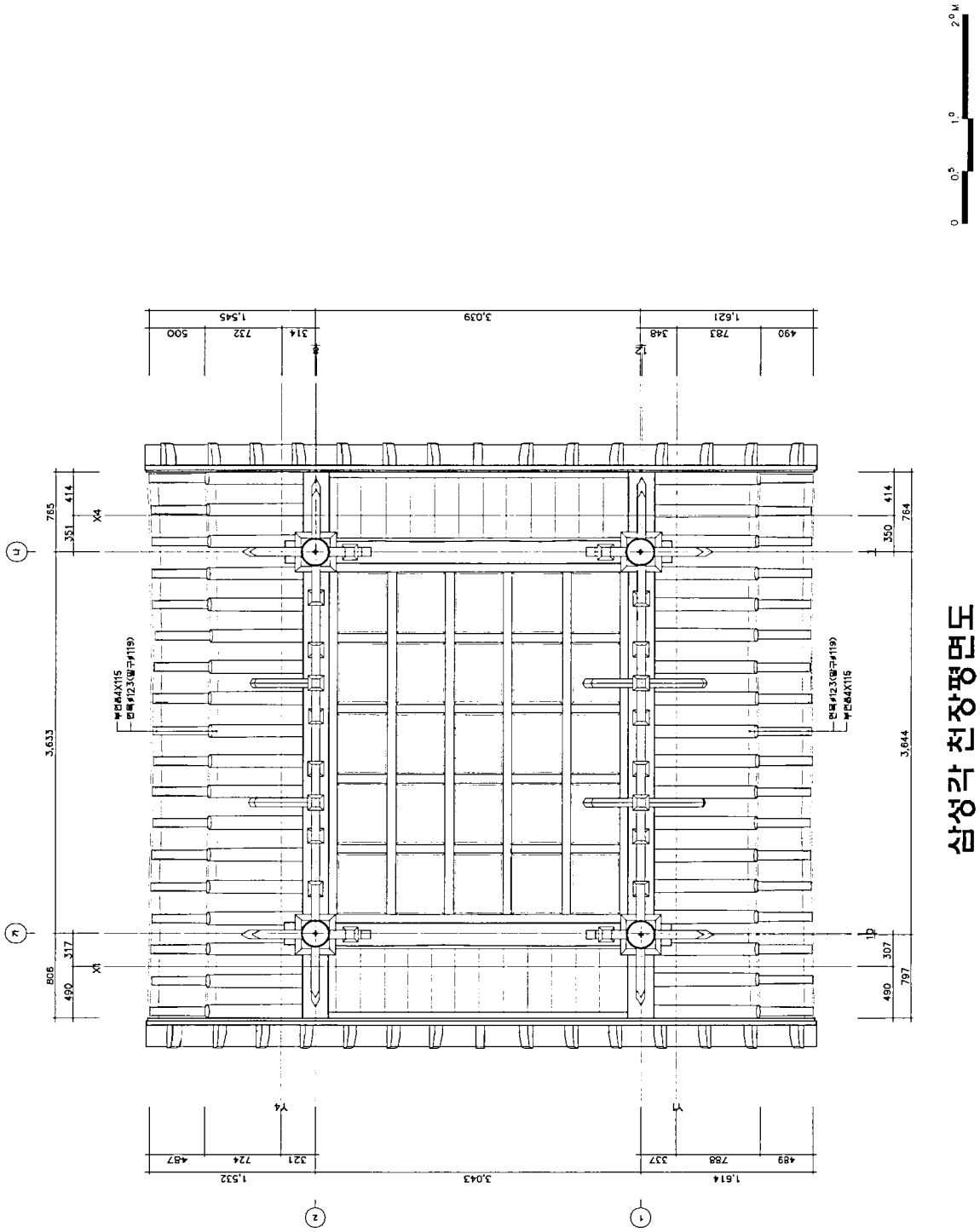
삼성각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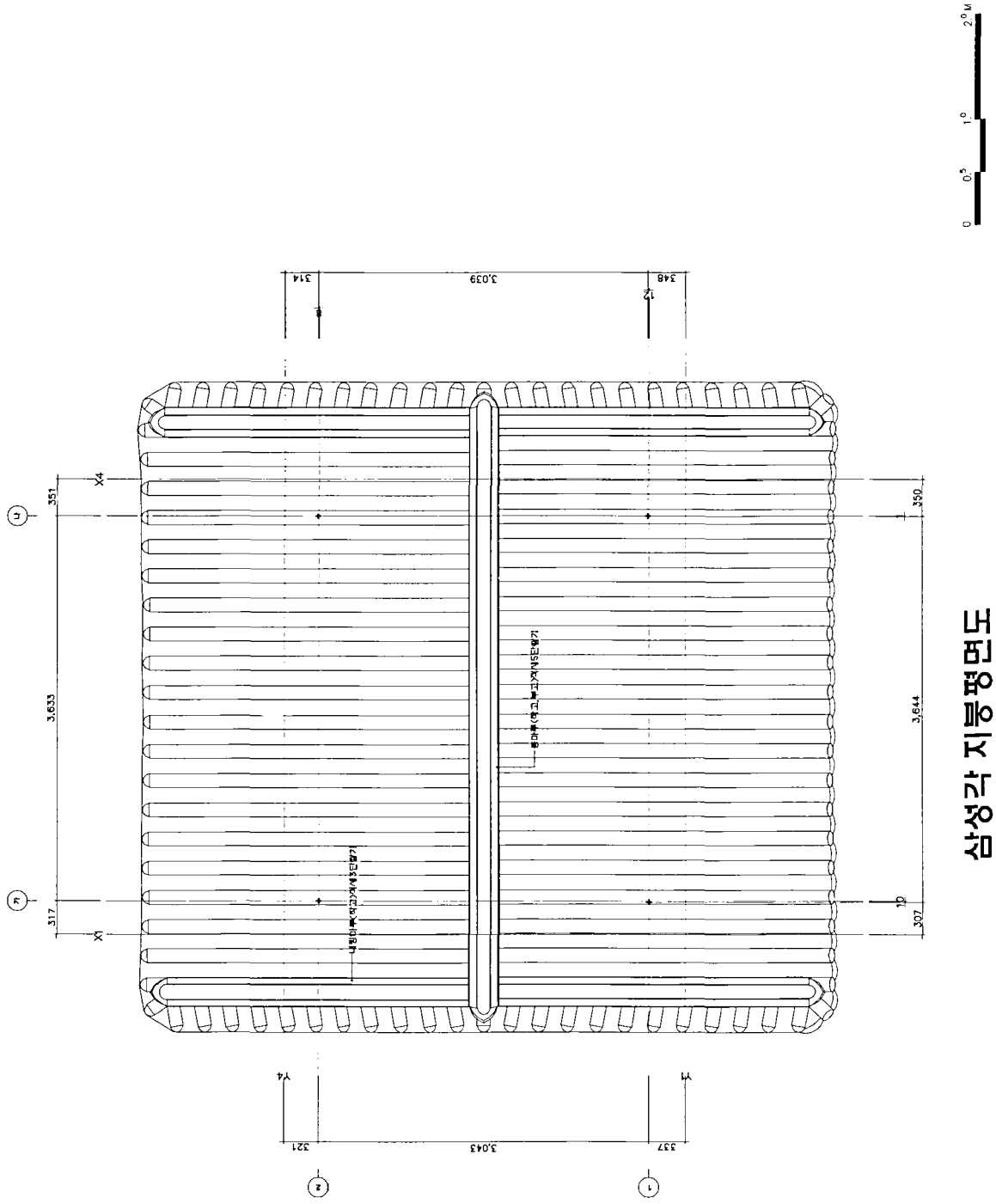
삼성각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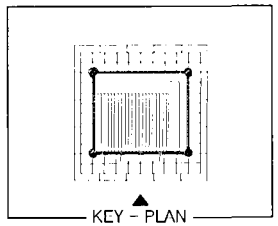
삼성각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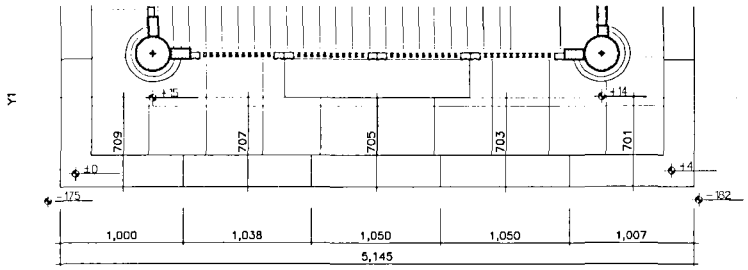

0
0.5
1.0
2.0M
1,545
500
732
314
3,039
1,621
348
783
490
785
414
351
X4
3,633
806
317
X1
490
764
414
350
3,644
797
307
490
Y4
Y1
1,532
321
724
487
3,043
1,614
337
788
489
2
1

삼성각 천장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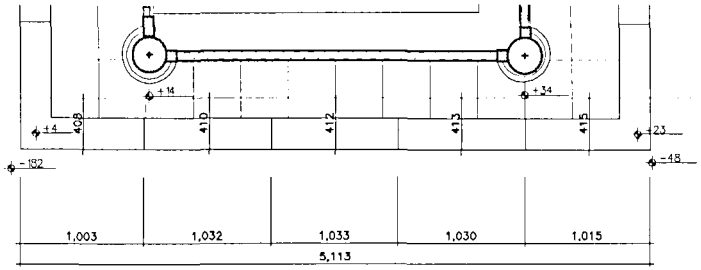


삼성각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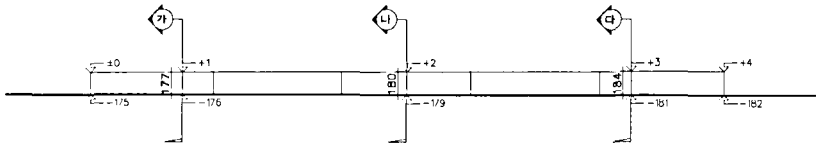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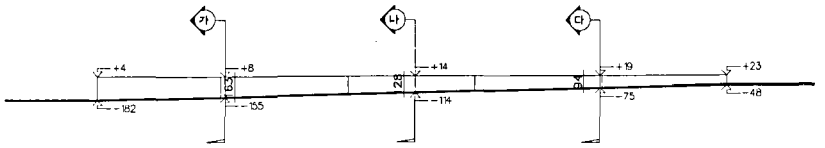
정면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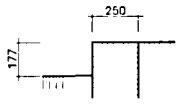
우측면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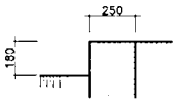
정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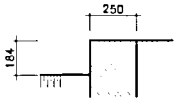
우측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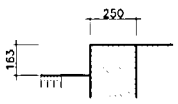
"기"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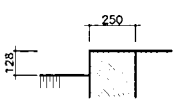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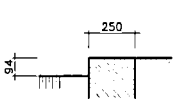
"다" 단면



"가"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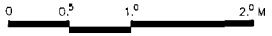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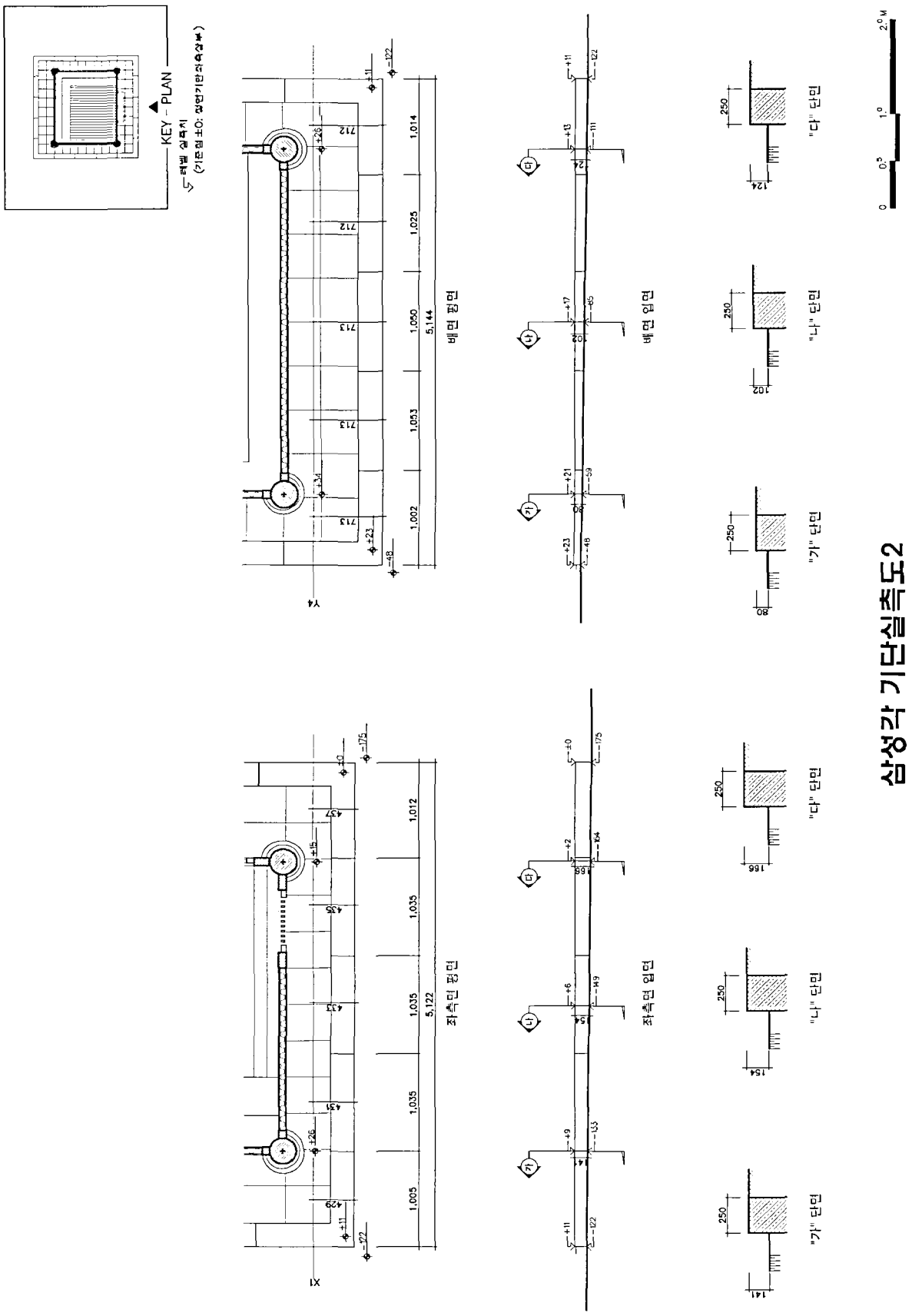
"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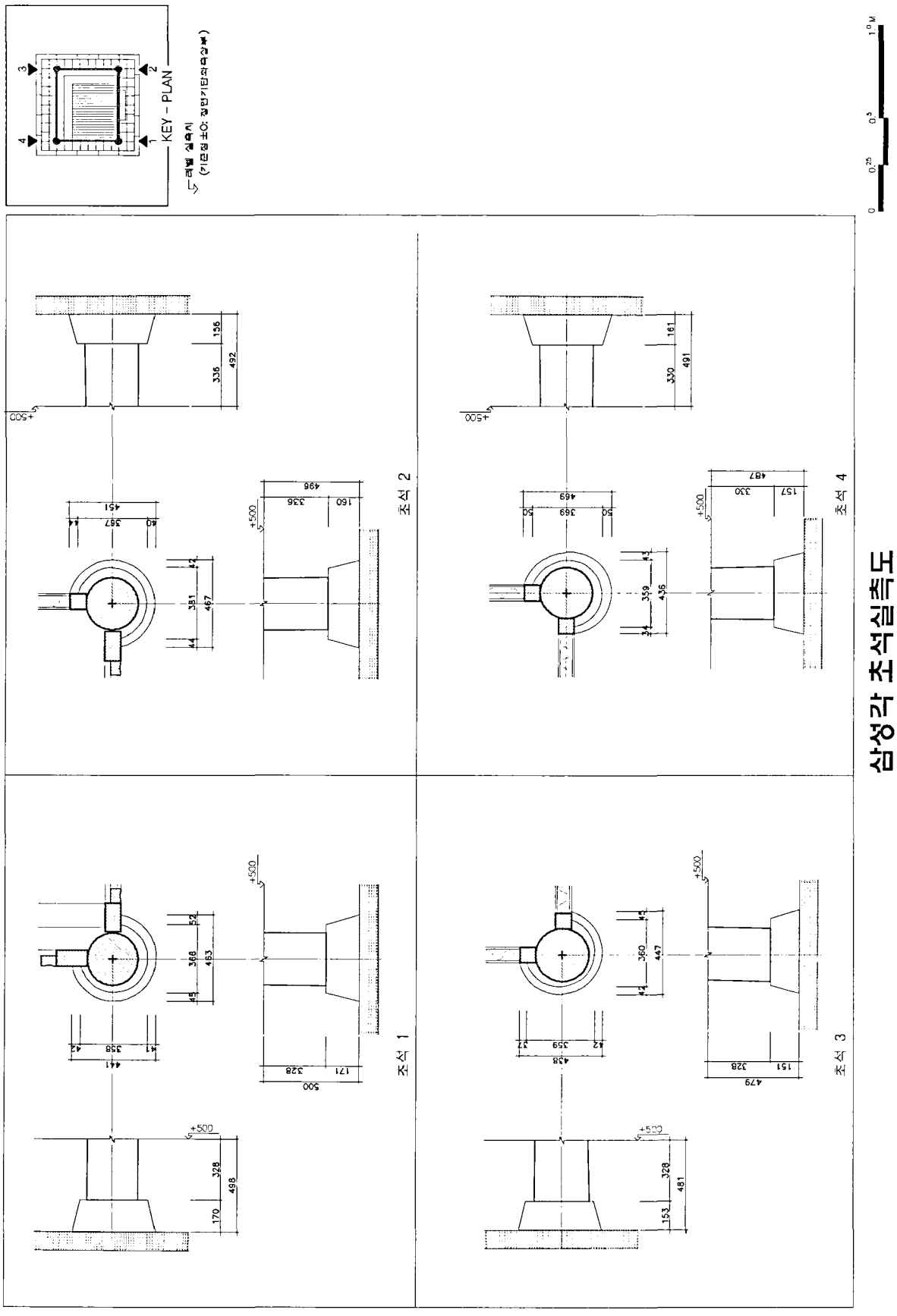
"다" 단면

삼성각 기단실측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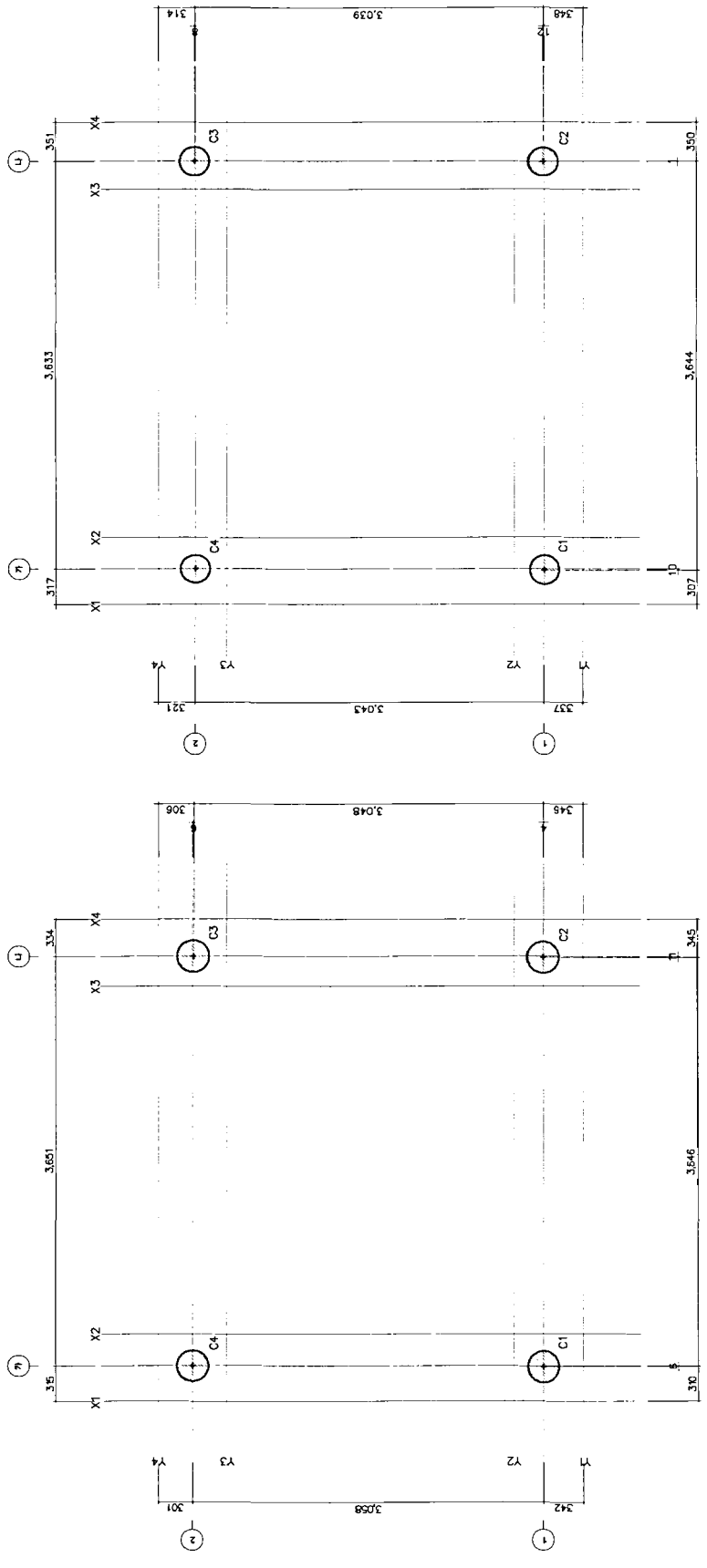



KEY - PLAN
레벨 실측치
(기준점 ±0: 정면기단석상부)
배면 평면
배면 입면
좌측면 평면
좌측면 입면
"다" 단면
"나" 단면
"가" 단면
0 0.5 1.0 2.0 M

삼성각 기단실측도2



삼성각 초석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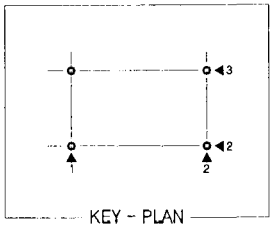
삼성각 주칸거리실측도(상부)

삼성각 주칸거리실측도(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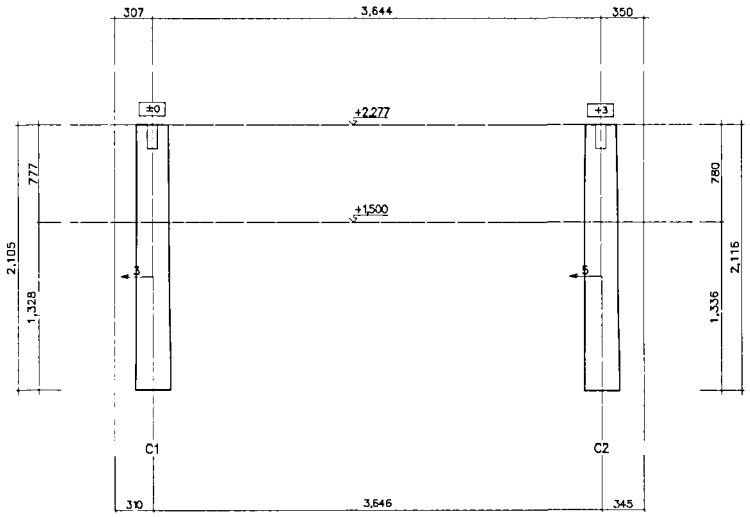
삼성각 기둥 기울기실측도1

삼성각 기둥 기울기실측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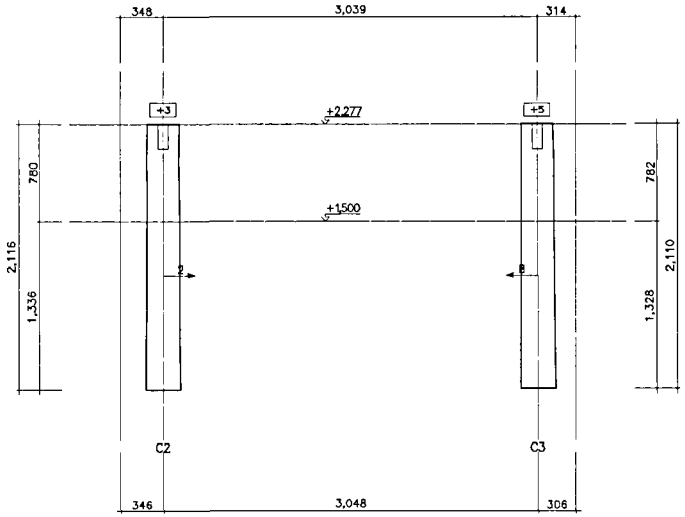
삼성각 기둥 귀솟음실측도1



레벨 실측시
(기준점 ±0: 정면기단좌측상부)



정 면



우 측 면

±0:"기둥C1"

±0:"기둥C1"상부 기준 각 기둥 상부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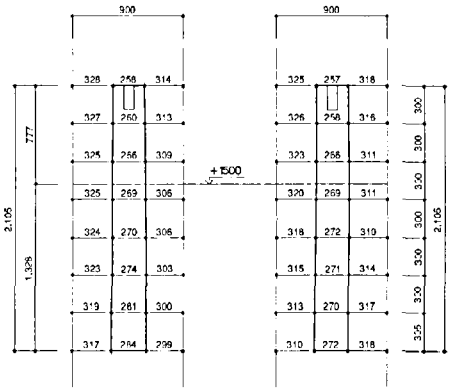
○ 기둥 상부(기준점±0에서 2,300지점)

● 기둥 하부(기준점±0에서 400지점)

0 0.5 1.0 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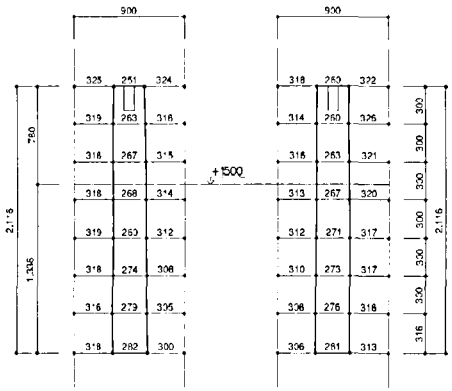
삼성각 기둥 귀솟음실측도2

삼성각 기둥 귀솟음실측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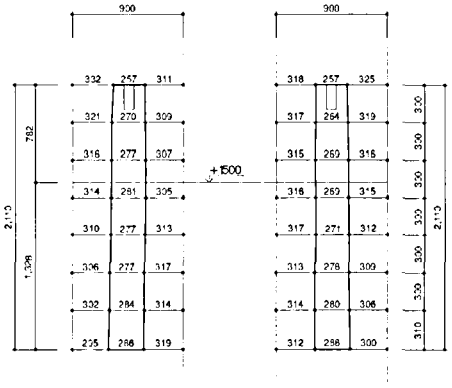
기둥 1

기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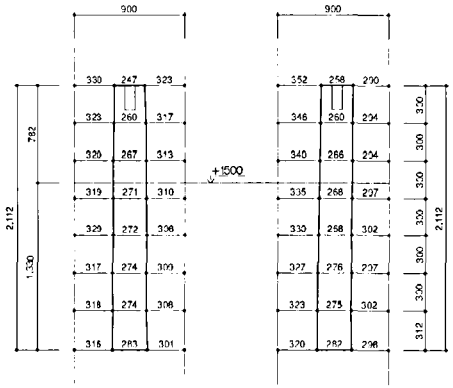
기둥 2

기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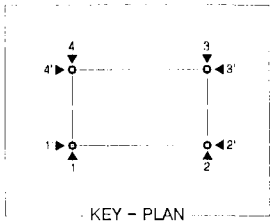
기둥 3

기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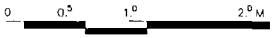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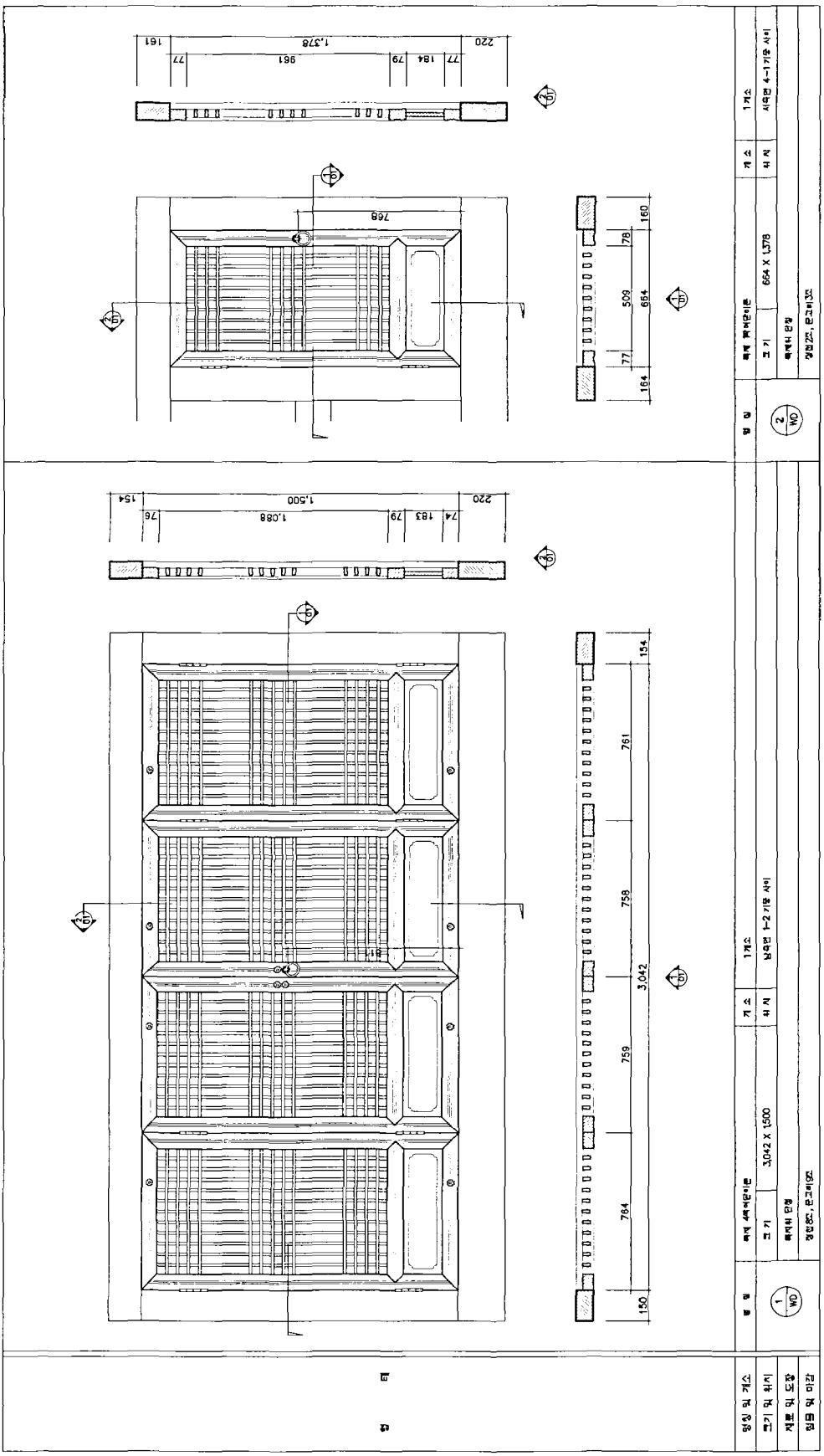
기둥 4

기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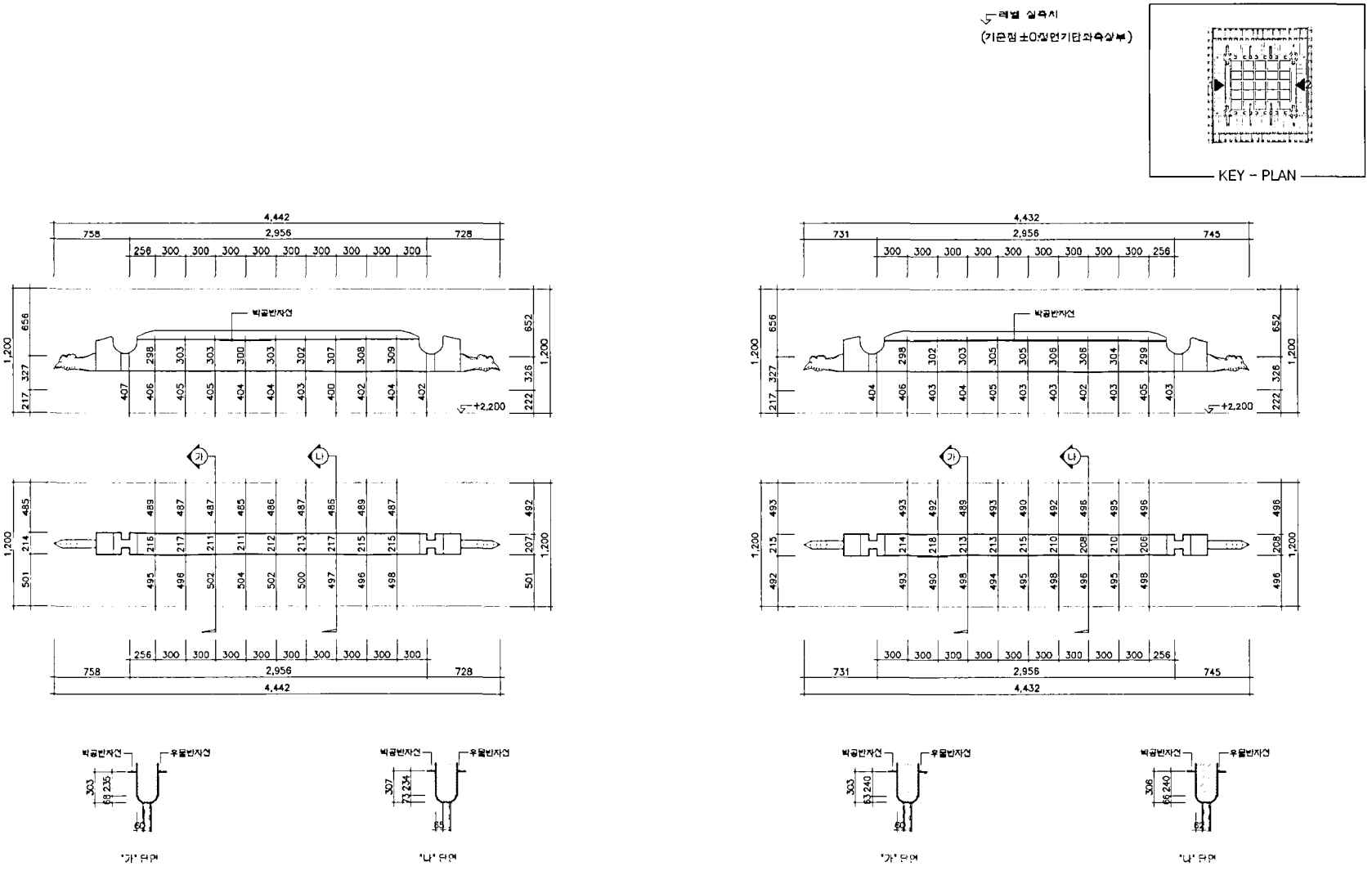


삼성각 기둥실측도





삼성각 WD-1, 2 창호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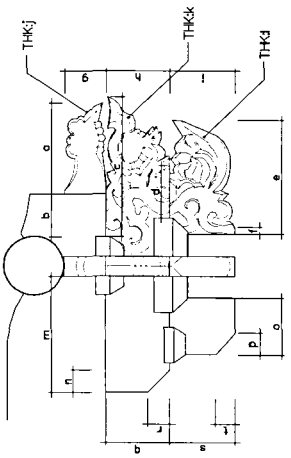

레벨 설측시
(기준점 ±0점연기타좌측상부)
KEY - PLAN
4,442
758
2,956
728
256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박공반자선
+2,200
가
나
4,432
731
745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56
우물반자선
"가" 단면
"나" 단면
1번 대량
2번 대량
0 0.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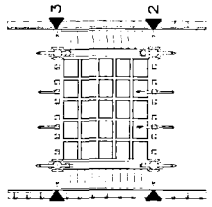
삼성각 대량실측도

익공실측도

■ 익공실측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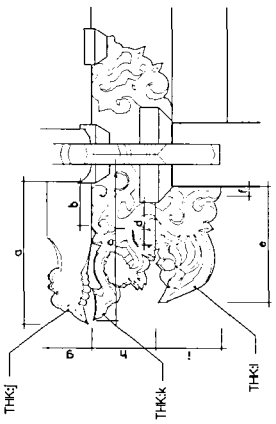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392	178	646	160	460	38	173	255	258	82	80	83	470	90	235	90	260	88	257	78
2	395	176	634	168	464	38	170	254	257	83	82	80	475	84	238	86	257	92	253	82
3	415	175	648	169	458	42	175	254	258	84	83	80	472	88	234	89	257	92	257	75
4	428	177	654	168	462	33	168	251	257	81	80	82	475	87	240	90	257	84	261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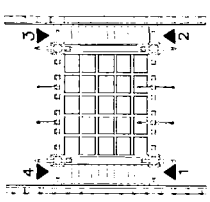




■ 익공실측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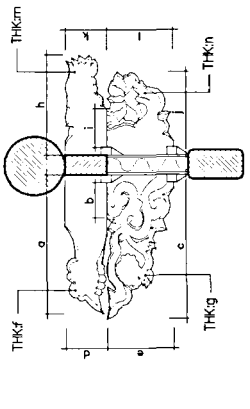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1	582	180	635	157	472	38	165	256	263	81	83	83
2	570	176	673	156	460	35	168	251	255	83	83	84
3	577	174	658	163	472	38	167	253	257	82	80	85
4	580	174	652	160	458	37	175	253	254	83	82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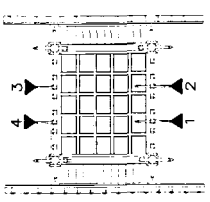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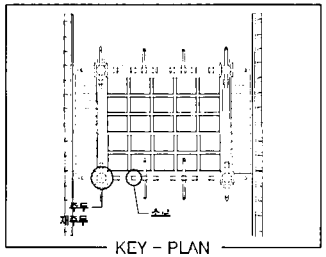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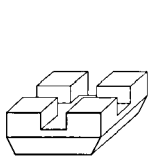
■ 익공실측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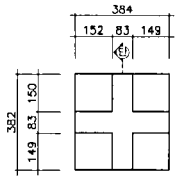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	566	170	550	230	259	80	80	505	185	36	36	36	36	36
2	576	167	544	229	261	83	82	511	185	36	36	36	36	36
3	573	168	534	229	262	82	82							
4	585	166	535	228	264	82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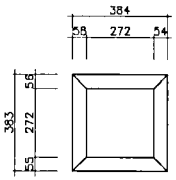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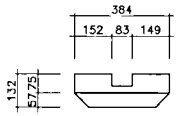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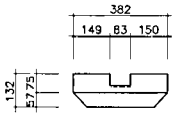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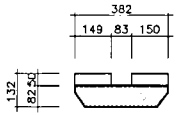

부 시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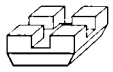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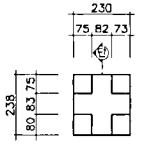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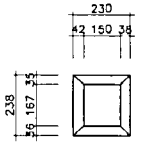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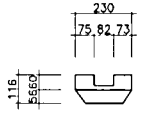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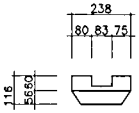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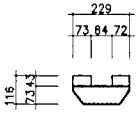

부 시
재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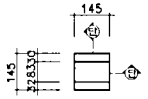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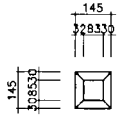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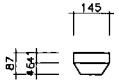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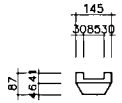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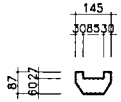
부 시
이갈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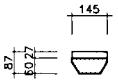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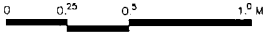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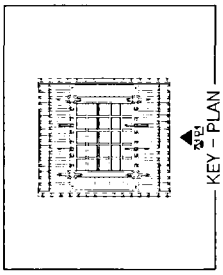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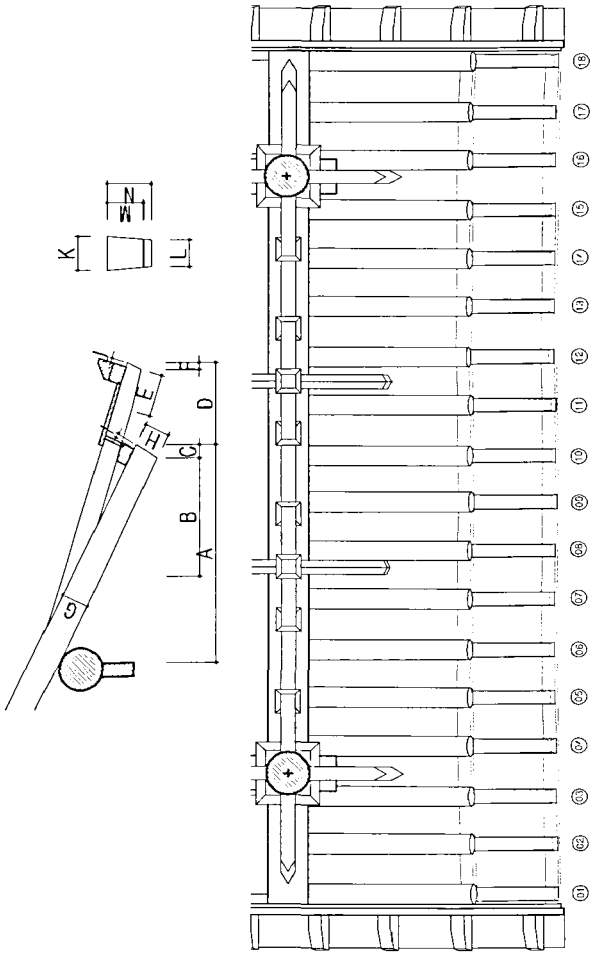


산성각 주두,재주두,소로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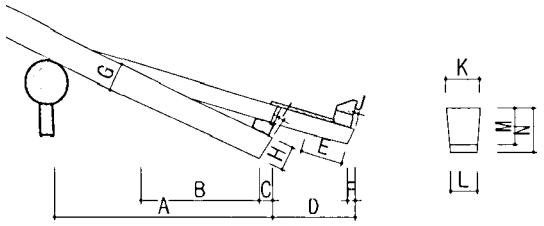
삼성각 정면 연목,부연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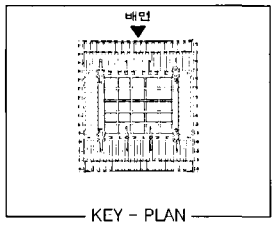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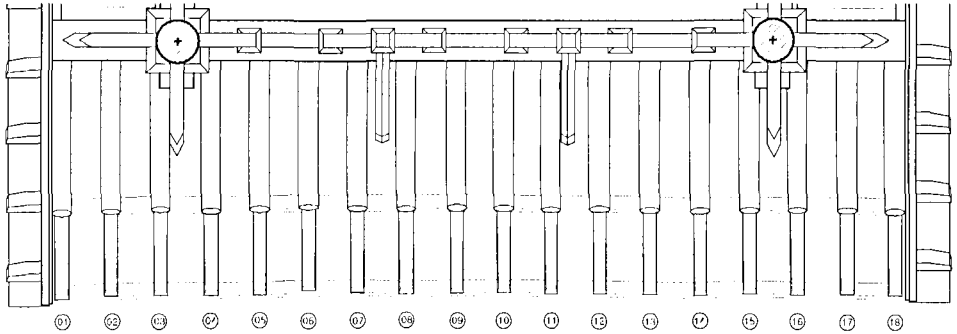
■ 정면 연목,부연 실측 조사표

(단위:mm)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	1,098	1,040	1,034	1,026	1,025	1,023	1,027	1,027	1,032	1,025	1,032	1,020	1,020	1,025	1,026	1,030	1,031	1,043
B	362	422	353	335	345	318	351	335	357	300	355	310	345	325	322	332	332	322
C	35	33	37	40	33	34	28	27	38	34	34	30	26	34	35	32	28	34
D	465	465	461	464	464	461	460	465	460	464	460	460	460	462	463	464	461	463
E	185	175	180	172	140	121	159	153	157	137	150	165	145	157	128	148	160	137
F	24	28	29	31	28	28	28	30	31	28	28	29	28	27	28	26	28	27
G	125	127	123	128	125	123	124	120	123	122	122	121	124	125	122	121	121	120
H	122	120	118	122	122	119	119	118	121	119	122	118	118	120	120	117	117	119
I	15	17	15	17	20	14	15	17	17	14	14	16	15	15	17	17	18	17
J	18	17	12	17	21	14	15	13	16	13	13	20	15	17	20	18	20	16
K	84	83	84	88	83	87	83	80	84	81	84	85	83	84	82	83	82	84
L	75	72	75	77	75	78	77	72	76	72	72	77	72	74	71	77	73	71
M	82	82	83	83	80	87	84	83	82	85	83	85	81	81	82	83	83	85
N	118	115	118	115	114	119	121	117	115	116	113	115	112	115	118	116	117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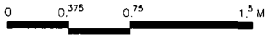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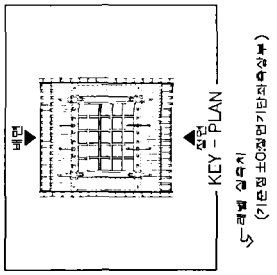
■ 배면 연목,부연 실측 조사표

(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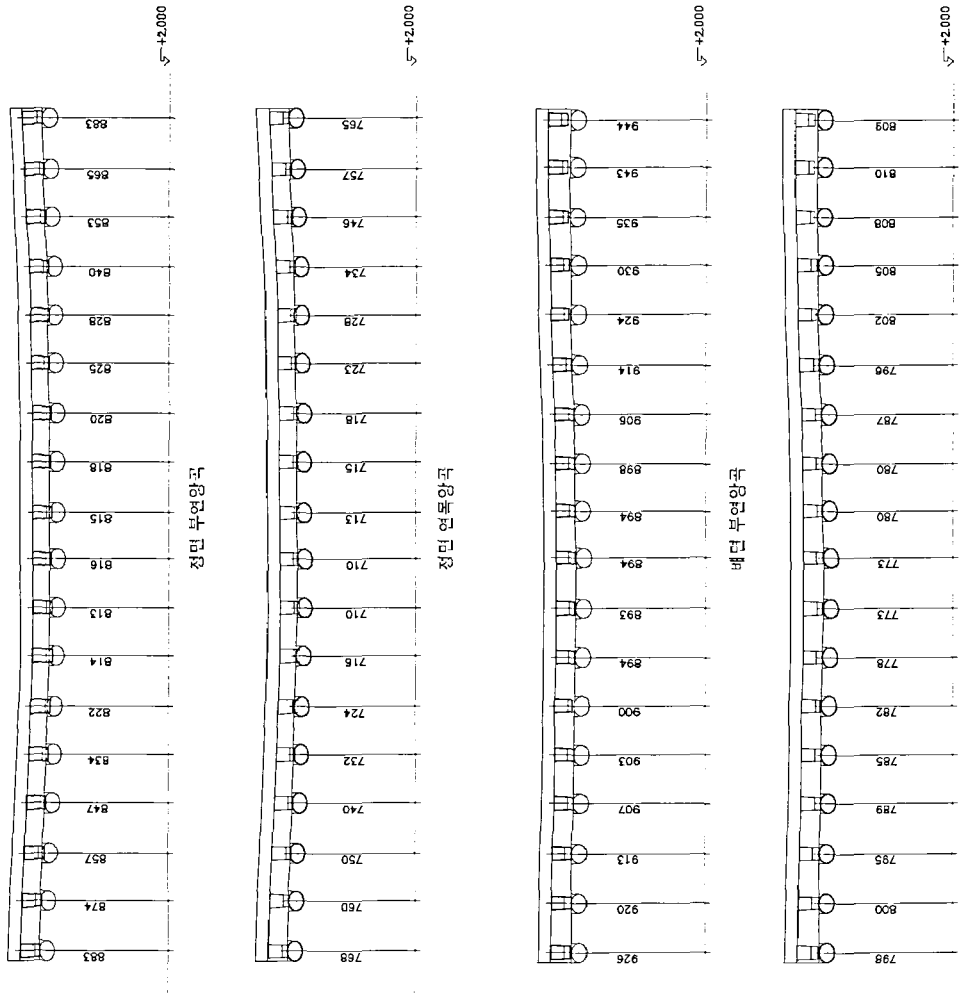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	968	964	950	957	944	932	938	943	932	938	947	943	950	955	954	955	953	960
B	392	332	344	320	300	307	342	332	307	323	337	320	340	315	353	307	325	302
C	43	32	34	38	40	33	35	33	43	37	35	38	37	38	37	35	38	43
D	468	460	474	463	470	465	460	465	465	462	461	462	462	463	456	465	462	460
E	141	133	203	204	190	152	158	173	163	163	177	177	148	159	150	188	150	154
F	32	32	28	28	28	25	27	32	29	28	29	28	29	28	29	28	24	27
G	120	120	120	119	123	125	125	123	122	127	123	132	130	125	128	122	128	130
H	117	115	112	115	122	119	122	115	118	122	119	124	118	120	118	112	120	120
I	18	15	15	13	13	13	13	17	17	16	15	12	17	18	14	15	15	15
J	15	19	13	15	18	14	15	15	16	16	17	15	16	16	15	17	17	17
K	88	82	82	86	80	83	84	88	80	82	85	81	85	80	82	84	85	83
L	77	68	74	74	71	73	74	77	72	69	77	71	77	67	74	73	77	72
M	82	77	80	83	79	84	79	82	78	83	82	85	83	83	79	84	83	78
N	119	120	118	118	118	107	115	112	117	117	117	117	115	110	114	114	114	116

삼성각 배면 연목,부연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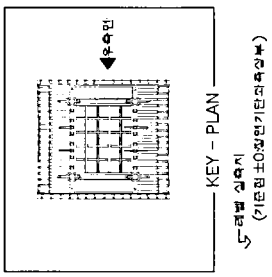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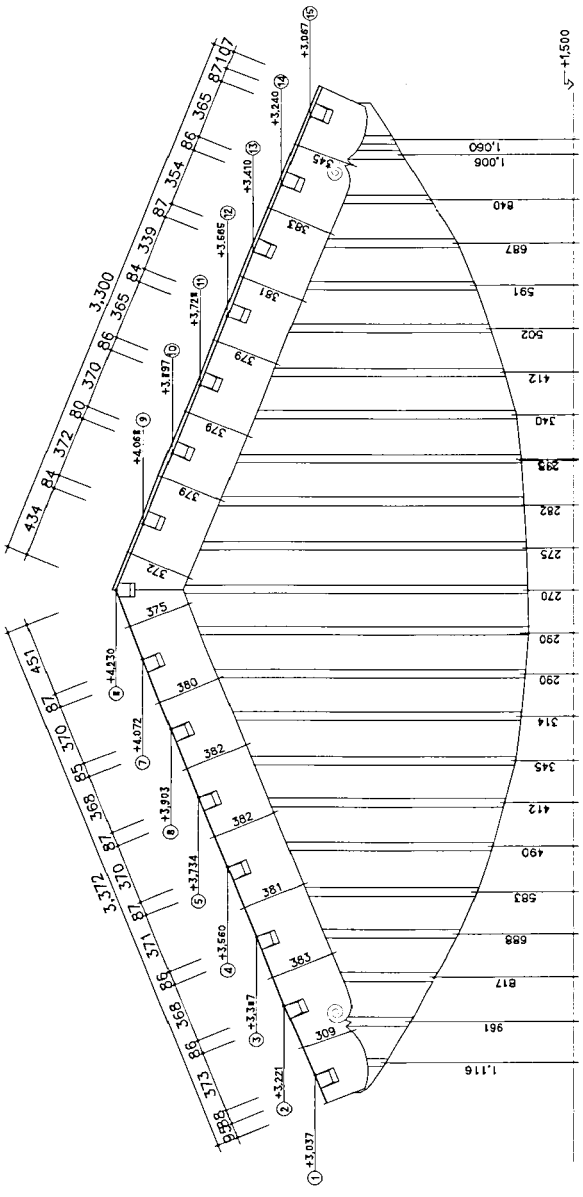


삼성각 앙곡실측도



용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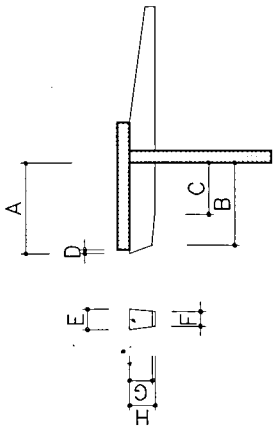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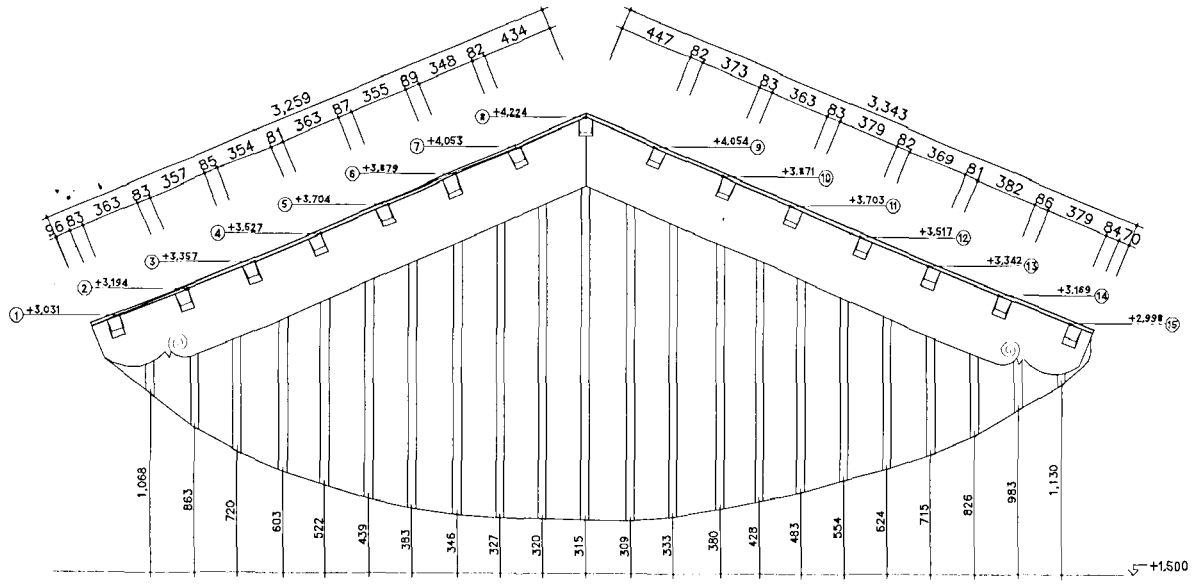
■ 우측면 무기인 실측 조사표

(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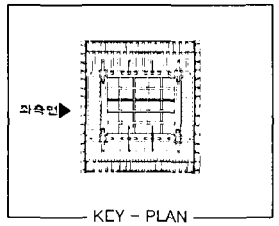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A	221	217	217	217	217	217	218	215	217	213	216	220	223	219	220
B	214	210	204	204	209	204	207	204	203	204	207	209	213	208	208
C	75	86	57	54	77	80	50	65	85	75	62	84	75	60	70
D	11	12	17	13	11	8	6	10	12	6	10	11	13	11	10
E	85	86	86	87	87	85	87	85	84	80	86	85	87	86	87
F	76	74	73	76	76	75	75	76	77	70	73	78	75	73	74
G	84	82	82	81	80	84	83	80	80	78	77	80	82	79	80
H	119	118	118	117	115	119	115	97	116	117	115	117	118	118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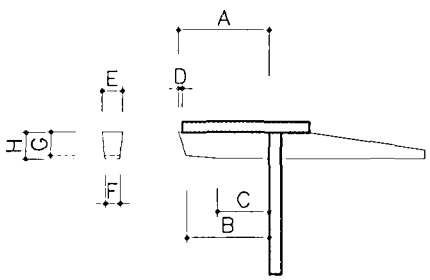
삼성각 박공상세도



좌측면 박공입면



레벨 실측치
(기준점 ±0:접면기단좌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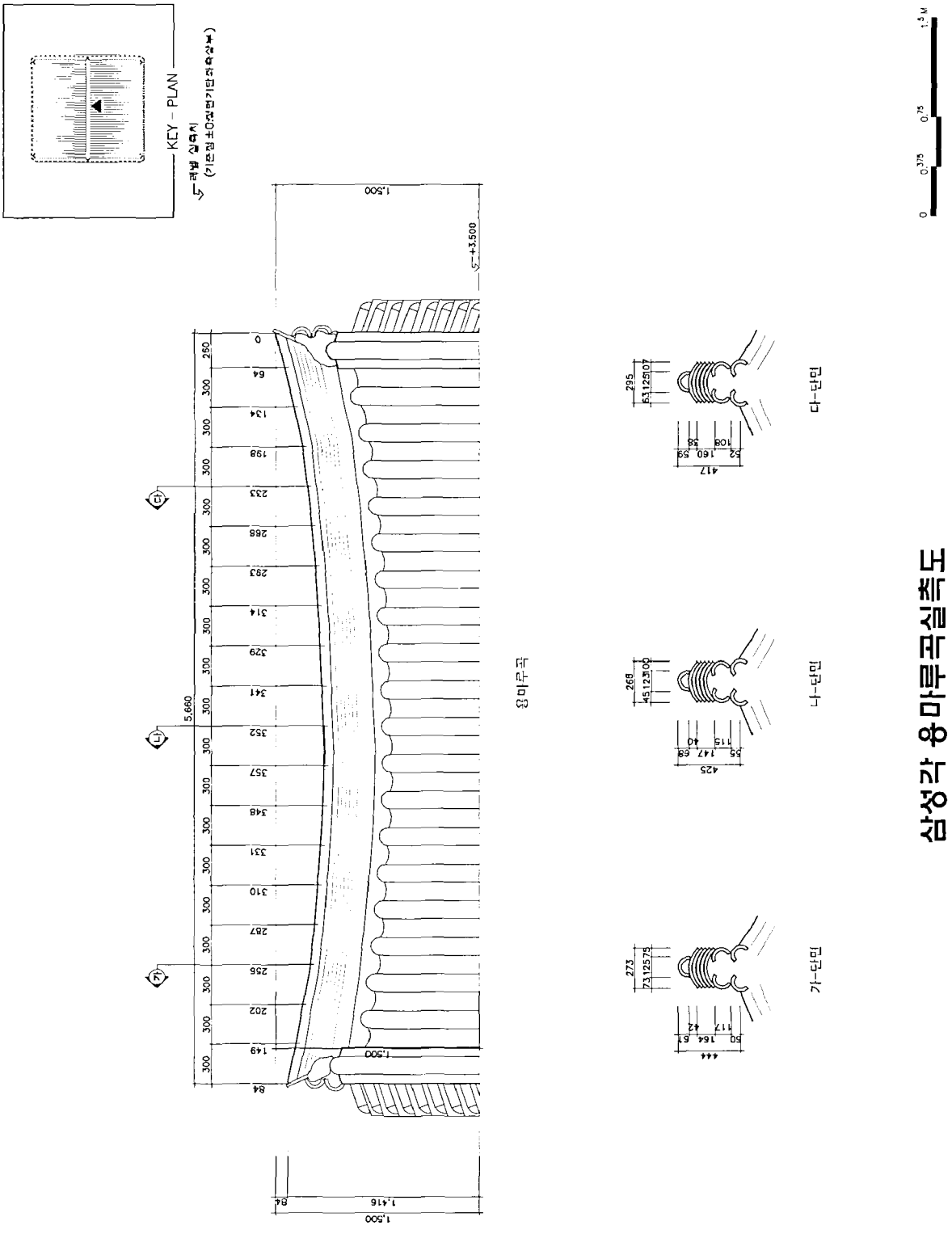
■ 좌측면 복기인 실측 조사표

(단위:mm)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A	223	214	215	220	215	218	217	220	213	218	215	214	219	218	218
B	209	202	206	209	200	211	206	209	204	205	205	203	207	207	207
C	71	75	37	65	77	60	67	110	105	92	70	72	45	68	40
D	10	13	20	20	16	14	10	15	5	13	10	14	17	15	9
E	83	83	85	81	87	89	83	83	82	83	83	82	81	86	84
F	73	73	71	73	72	73	74	74	73	72	75	72	73	73	76
G	76	80	81	77	84	85	82	70	81	85	84	81	78	82	82
H	115	119	120	115	115	116	115	90	116	116	120	116	116	11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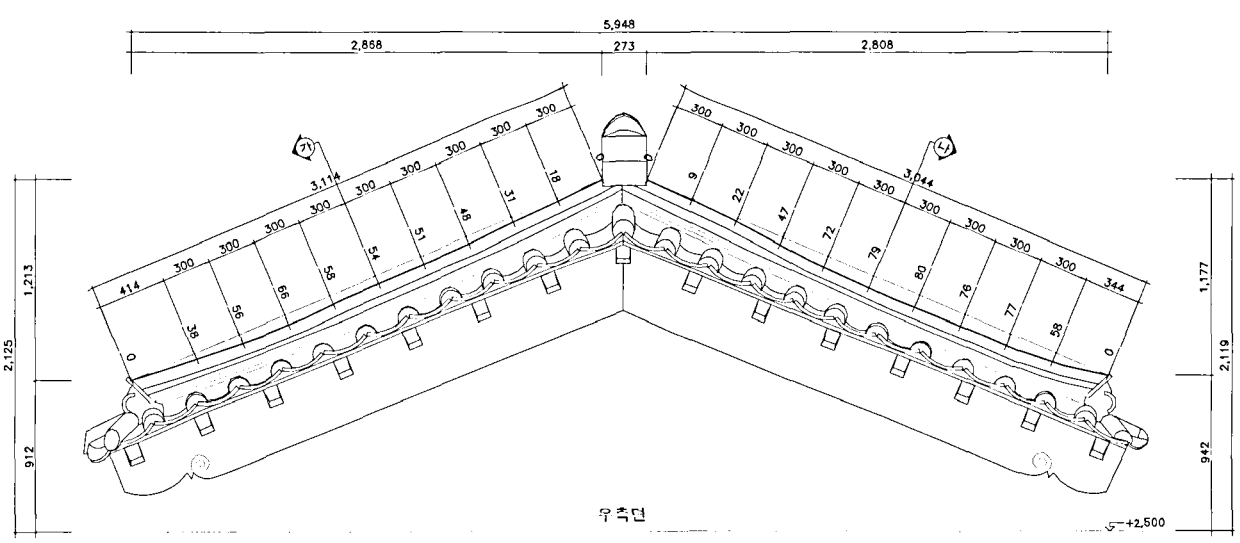
삼성각 박공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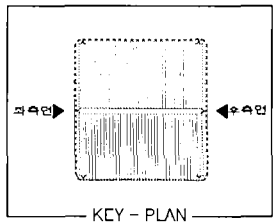
0 0.375 0.75 1.5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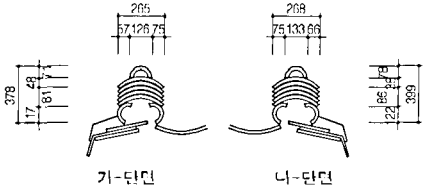

삼성각 용마루목실측도
KEY - PLAN
수평 실측치
(기준점 ±0으로 기입된 측정치)
+3,500
1,500
5,660
1,500
1,416
84
용마루목
0
64
134
198
233
268
283
314
329
341
352
357
348
331
310
287
256
202
149
84
260
300
가-단면
나-단면
다-단면
0
0.375
0.75
1.5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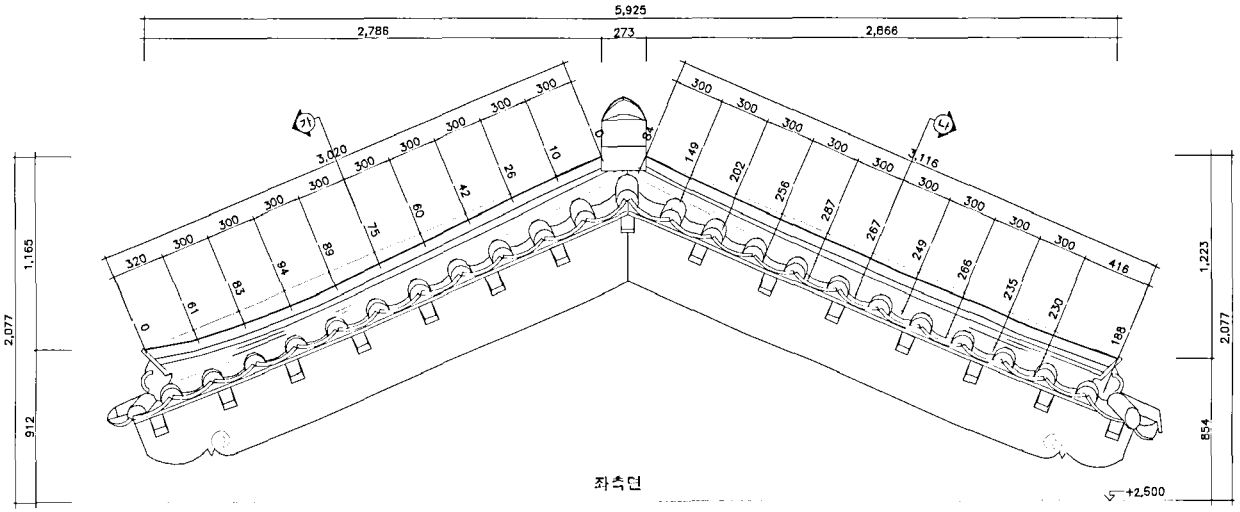
KEY - PLAN
(기준점 ±0.0=현 기단의 윗면 중앙)
0
0.375
0.75
1.5 M
2,142
632
1,104
406
2,948
299
3,098
6,345
5.2
5.1
2,142
521
1,190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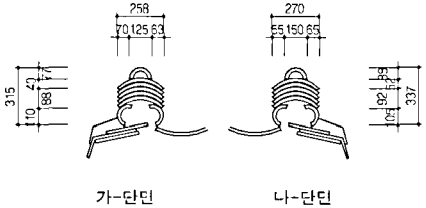
삼성각 지붕곡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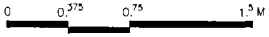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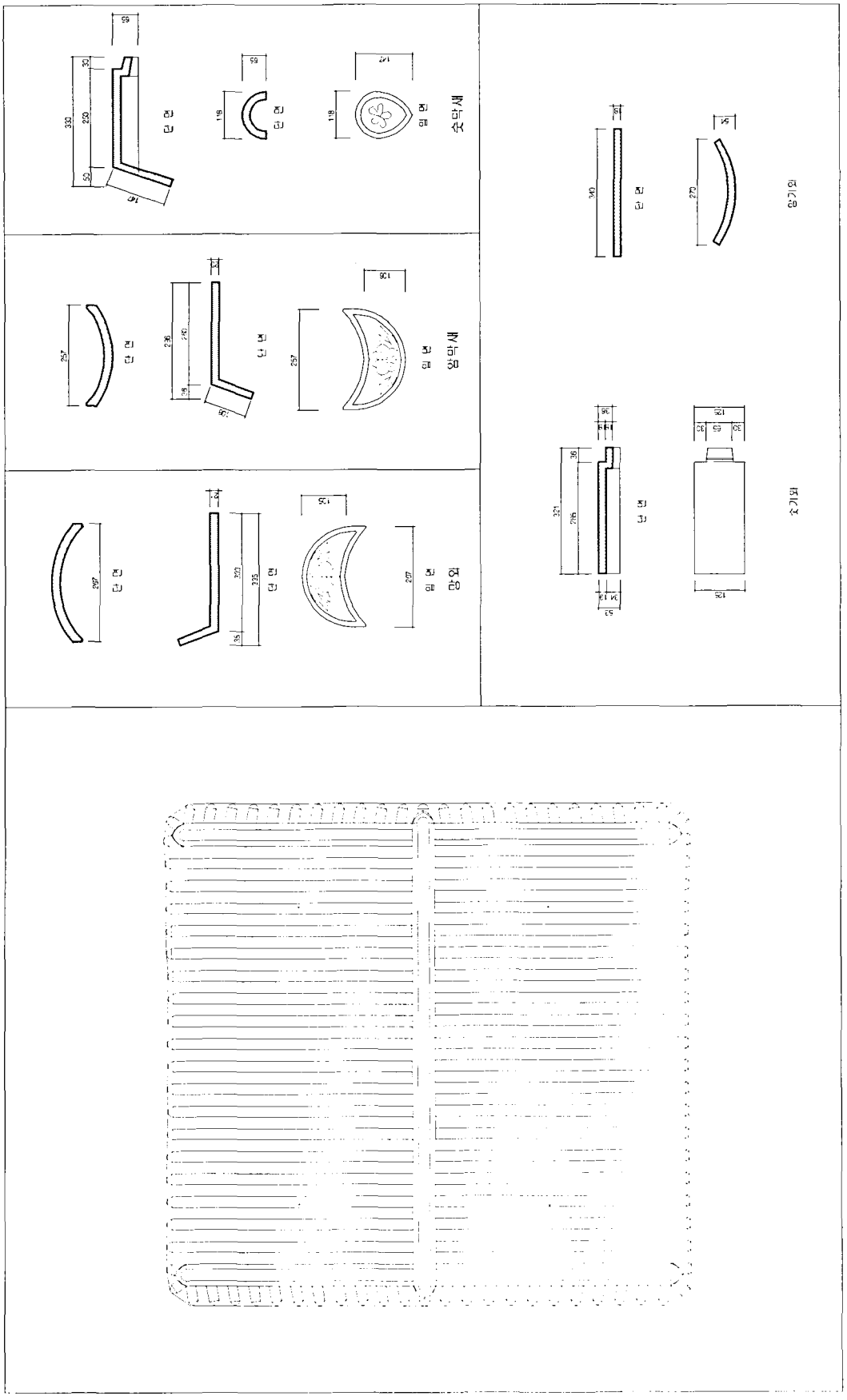








삼성각 내림마루곡실측도



삼성각 기와실측도

여 백

참고문헌

이고운, 『명산고찰따라』, 운주사, 1982년
『기내사원지』, 경기도, 1988년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상·하』, 시흥군·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년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3. 경기도의 전통사찰 Ⅰ』, 사찰문화연구원, 1993년
리진호, 『성현서당사』, 감리교출판사, 1998년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불적자료집』, 경기도박물관, 1999년
범종·형·색·감 1, 문화재청, 2006년
김성근·김덕문,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년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1 자연과 역사』,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2 인물과 문화유산』,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년
이경미, 「고려·조선 전기 법보신앙과 경장건축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년

청계사 지장전 · 삼성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호

■ 인 쇄 일 : 2012년 10월
■ 발 행 일 : 2012년 10월
■ 발　　간 : 경기도 의왕시
■ 조사 편집 : 대왕건축사사무소
■ 인　　쇄 : 창영프로세스
■ 발간등록번호 : 71-4030000-000041-01

【비매품 · 한정판】

여 백

여 백

비매품

ISBN 978-89-969510-0-1